

사미가 두리다.

조선어 문법

조선어문학회



평양시. 1949



朝鮮語文法

內 容

머 리 말

第 1 篇 語 音 論

第1章 發音器官과 그 調音.....	1
第1節 發音器官.....	1
第2節 母音의 形成.....	5
第3節 子音의 形成.....	7
第2章 語音과 文字.....	9
第3章 語音의 分類.....	13
第1節 母音.....	13
第2節 子音.....	14
第4章 字母과 音價.....	15
第1節 每個의 文字와 그 音價.....	15
第2節 每個의 音과 그 表記.....	29
第5章 音 節.....	40
第1節 音 節.....	40
第2節 二重母音.....	41

朝鮮語文法

第2節 半母音 ㅁ	41
第6章 語音의 高低와 長短	43
第7章 語音의 結合的 變化	47
第1節 同 化	47
第2節 異 化	53
第8章 音 韻	59
第9章 正則 發音法	65

第2篇 形 態 論

第1部 語의 構成과 그 表記

第1章 語의 構成	69
第1節 語의 文法的 單位	69
第2節 語의 文法的 形態	72
第2章 朝鮮語 接辭法의 特性	74
第3章 朝鮮語 綴字法의 基本 原則	76
第4章 頭音과 그 表記	87
第5章 語中音과 그 表記	89
第6章 末音과 그 表記	91
第7章 語幹과 ㅁ	93

內 容

第1節 語幹과 語幹	94
第2節 語幹과 토	103
第1項 結合母音 “이” 와 “으”	104
第2項 用言 語幹과 토의 結合時에 나타나는 音韻 交替	109
第3項 비슷한 받치口들의 比較	134
第4項 所謂 “變格 用言”의 處理	136
第5項 語幹과 토의 縮約	142
第3節 連音과 絶音	143
第8章 받치口	147
第9章 接頭辭와 接尾辭	151
第1節 接頭辭	152
第2節 接尾辭	151

第 2 部 品 詞

第1章 品詞의 그 分類	165
第2章 名 詞	169
第1節 名詞의 種類	169
第1項 固有名詞와 普通名詞	169
第2項 完全名詞 不完全名詞	171
第2節 名詞의 造成	175
第3節 名詞의 文法的 範疇	182
第1項 格	183

第8章 助詞	292
第1節 助詞의 種類	292
第2節 文에서의 助詞의 機能	296
第9章 感動詞	297

第3篇 文章論

第1章 文의 一般的 知識	299
第1節 文의 概念	299
第2節 語詞 結合	306
第1項 語詞 結合의 概念	306
第2項 從屬	307
第3項 並列	311
第3節 文의 構成	312
第1項 文의 主題部와 陳述部	313
第2項 展開文과 非展開文	313
第3項 單純文과 內包文	314
第4項 單一文과 複合文	316
第2章 文의 主成分과 그 表現	318
第1節 主 語	318
第1項 主語의 表現	318
第2項 場面の 主語	319
第3項 提示의 主語	321
第2節 述 語	321

第1項 體言 述語	322
第2項 用言 述語	326
第3章 文의 副成分과 그 表現	334
第1節 規定語	334
第2節 同格語	337
第3節 補語	338
第4章 文에 서의 語順	344
第5章 不完全文	346
第6章 命名文	348
第7章 同種의 文章成分	350
第1節 同種의 文章成分의 概念	350
第2節 同種의 文章成分을 連結하는 接續語形	353
第3節 總括語에 따르는 同種의 文章成分	356
第8章 呼稱語	358
第9章 插入語	360
第10章 間投文	364
第11章 內包文	365
第12章 複合文	368
第1節 複合文의 一般的 概念	368
第2節 文의 並列과 從屬	370

머 리 말

이 곳에 公刊하는 “朝鮮語 文法”은 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 國 內閣 第 10 號 決定書(1948年 10月 2日 附 “朝鮮 語文에 關한 決定書” 參照)에 依하여 朝鮮 語文 研究會가 自己 課業을 遂行하는 行程에서 達成한 첫 成果다.

朝鮮 語文 研究會는 內閣 決定書에 提示된 朝鮮語 文法 編纂의 課業을 成果的으로 完遂하기 爲하여 바로 1948年 10月에 朝鮮 語文 研究會 專門 研究 委員會 內部에 12名의 專門 學者를 (李 克魯, 田 蒙秀, 許 翼, 明 月峰, 金 龍成, 申 龜鉉, 洪 起文, 金 炳濟, 朴 宗軾, 朴 俊泳, 朴 相堧, 金 壽卿) 로써 構成된 文法 編修 分科 委員會(委員長: 田 蒙秀)를 組織하였다.

1949年 9月 初, 文法 編修 分科 委員會의, 그 中에도 特別 金 日成 綜合 大學 朝鮮 語學 講座를 中心으로 한 委員들의, 努力의 結果, 朝鮮語 文法 草稿가 完成되어, 그 後 1 個月 餘에 걸치니 委員들의 慎重한 檢討와 10月 3日의 文法 分科 委員會 및 專門 研究 委員會 總會에서의 最終的 討議의 끝에, 朝鮮語 文法이 基本的으로 妥當하게 編纂되었음을 確認하고, 이에 公刊하게 된 것이다.

이 “朝鮮語 文法”은, 朝鮮 人民의 統一된 意思를 代表하는

人民共和國 中央政府가 樹立된 現段階에 眞正한 民族 統一의 基礎가 되는 自己의 言語와 文字를 더 鞏固히 統一·發展시키려는 志向에서 産出된 것인 만큼, 그 곳에는 先驅 學者들의 모든 肯定的인 遺産을 繼承함과 同時에 先進 言語 理論의 到達한 成果를 廣汎하게 攝取하셨으며, 또한 言語의 理論的인 面과 實踐的인 面을 統一的으로 叙述하기에 努力하셨다. 한편 文法의 內容을 傳統的인 方式으로 語音論, 形態論 및 文章論의 세 部門으로 區分하면서도 이 세 部門의 互相 關聯性과 文章論이 形態論에 對하여, 形態論이 語音論에 對하여, 각기 가지는 優位性을 特히 重要視하셨다.

그 結果 이 “朝鮮語 文法”은, 文字, 綴字法, 品詞, 文法的 範疇, 文章成分 等의 여러 問題에 있어 從來의 文法書에 比하여 적지 않은 變動을 가지어 왔으나, 이는 朝鮮語의 形態 構造와 語音 組織에 對한 深刻한 省察의 結果 歸屬된 것이며, 이로써 今後 朝鮮語의 모든 現象은 一般 言語學的 基礎 위에서 考察될 可能性을 얻게 되었다.

그렇나 勿論 朝鮮語 文法 體系가 이 “朝鮮語 文法”으로써 完成된 것은 決코 아니다. 朝鮮語의 研究가 先進 科學의 軌道 위에서 進行될 基礎가 이제 겨우 이로써 設計되었음에 不過한 만큼 朝鮮語學 再建의 高貴한 使命 達成을 爲하여 今後 專門 學徒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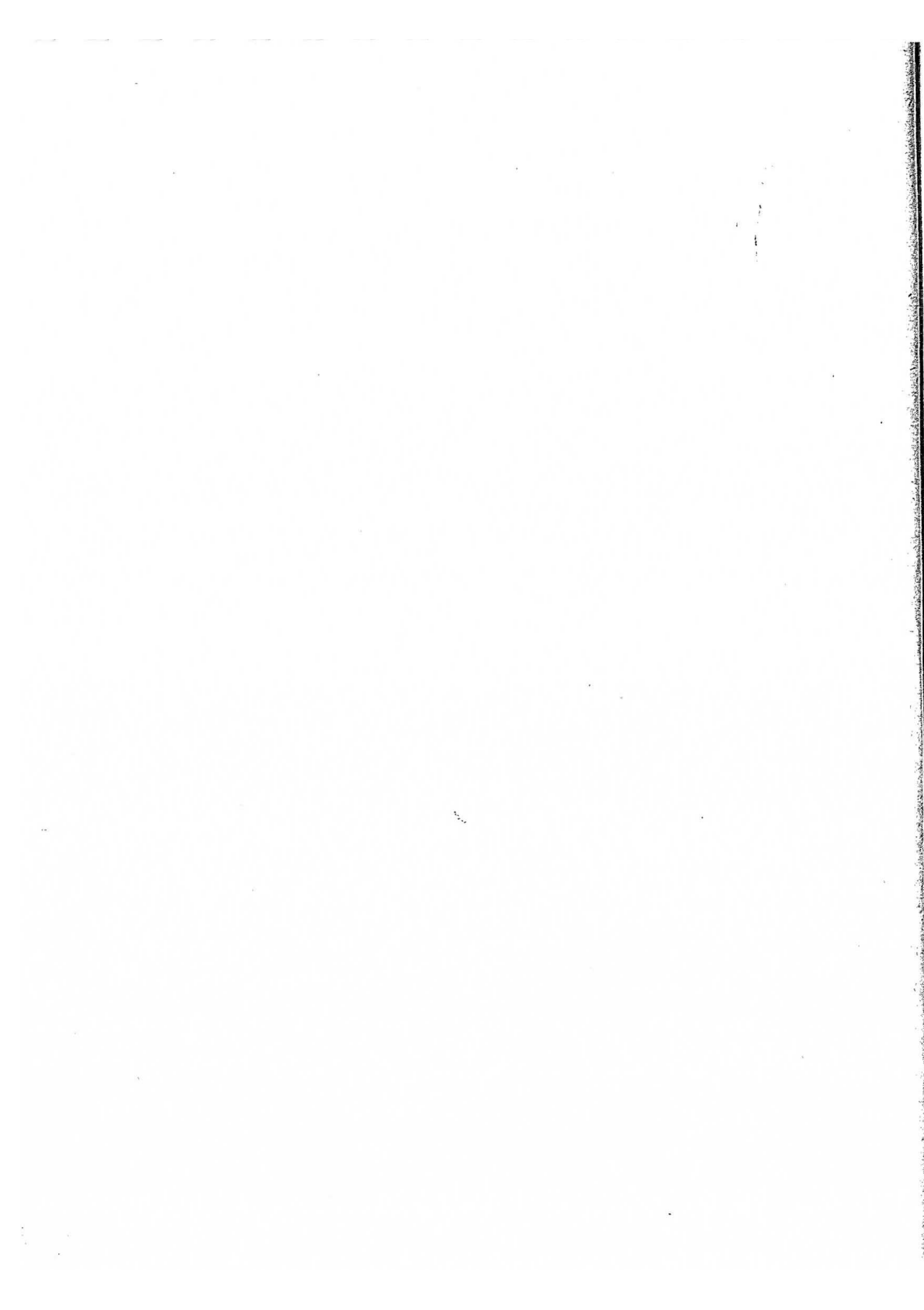
보다 더 強力한 批判과 研究 事業이 展開될 것을 期待하는 바
이다.

朝鮮語 文法"을 公刊함에 當하여, 우리는 다시금 祖國의
言語와 文字를 日帝의 野蠻的 彈壓에서 救出하여 준 偉大한 史배
트 軍隊와 그의 天才的 首領 쓰따린 大元帥에게, 그리고 우리들
로 하여금 自己의 母國語를 自由로 研究, 發展시키리 온갖 條
件을 寬어 주시니 朝鮮 民族의 偉大한 領導者, 共和國 內閣 首相
金日成 將軍에게 最大의 感謝를 드리노다.

1949年 10月

朝鮮 語文 研究會

平壤



第 1 篇 語音論

第 1 章 發音器官과 그 調音

第 1 節 發音器官

語音論은 言語의 聲音的 部面을 研究하는 文法의 한 分科다. 言語音은, 다른 모든 音과 마찬가지로, 귀로 들을 수 있는 空氣의 振動이다. 이 振動 다시 말하면, 音波는 우리들의 聽覺器官에 一定한 振動을 일으키고 聽覺神經을 刺戟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音으로 知覺하게 한다. 音波가 一定한 速度로 發出되고, 이때 그 音波가 週期的인 경우, 即 均等的이고 韻律的인 경우, 이는 樂音으로 感覺되며, 反對로 音波가 非週期的 非均等的으로 發出될 경우, 이는 騷音으로 感覺된다.

言語音은, 다른 모든 音과 마찬가지로, 強弱, 高低, 長短 및 音色에 依하여 區分된다.

音의 強弱은 音을 내는 物體의 振動하는 幅의 大小에 依하여 規定된다. 우리가 말할 때 肺로부터 氣流을 세계 내면 낼수록,

따라서 喉頭에 있는 聲帶의 振動하는 幅이 크면 클수록, 그 때 나오는 音은 強하게 된다.

音의 高低는 單位 時間에 있어서의 音을 내는 物體의 振動의 速度, 即 振動의 數에 依하여 規定된다. 音을 내는 物體가 快의 振動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나는 音은 높은 音으로 된다.

音의 長短, 即 音의 持續은 音의 發出에 所要되는 時間의 長에 依하여 規定된다. 이로써 母音과 子音에 長短의 區別이 생기게 된다.

音色은 말하자면 音의 빛깔이다. 모든 音은 一般的으로 複雜하여 여러개의 單純音으로부터 成立되어 있고, 그곳에는 音의 高低를 規定하는 基音과 이에 따르는 倍音이 區別된다. 이 倍音이 基音에 對하여 各種의 빛깔 即 音色을 賦與하며 이 音色의 差異가 高度의 同一한 各種 樂器의 音에 差異를 준다. 人間 言語에 있어서 是는 가령 母音 a, e, i, u, 等이 同一한 高度로 發音되면서도 그들이 서로 다르게 들리며, 또한 사람마다 發音上의 個人的 差異가 있는 것도 이 音色의 탓이다.

言語音은 사람의 發音器官(聲音 裝置)에 依하여 形成된다.

發音器官으로는 1) 肺, 氣管支, 氣管 2) 喉頭 3) 鼻腔 4) 口腔 (이것은 다시 硬口蓋와 軟口蓋로 區分되며, 前者는 앞쪽에 後者는 뒤쪽에 있으며, 軟口蓋는 목젓에 連달아 움직이리 수 있게 되어 있다), 혀, 이, 입술을 돌리 수 있다. 이곳에 鼻腔과 口腔은 이를 綜合하여 附帶管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第 1 章 發音器官과 그 聲音

1) 肺, 氣管支 및 氣管은 呼氣를 供給하고 誘導하는 限에서 發音器官으로 됨에 不過하다.

2) 喉頭는 그 大部分이 두 개의 커다랗고 軟骨과 몇개의 작은 軟骨, 그리고 聲帶의 動作을 調整하는 여러개의 작은 筋肉으로 成立되어 있다.

聲帶는 喉頭 안의 軟骨에 붙은 두 개의 작은 膜으로서, 거의 水平으로 놓여 있다. 聲帶의 두 개의 膜 사이에 있는 間隔을 聲門이라고 한다. 聲帶는 伸縮이 自在일뿐더러 自由로 붙었다 떼러지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各種의 運動을 할 수 있으나, 音韻音에 必要한 限에 있어서는 적어도 分명한 세 가지의 狀態를 區別할 수 있다.

가) 聲門이 充分히 열리어 있어 呼氣가 아무런 加工도 받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 이때 聲帶의 振動(울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無聲音이라고 한다. [ㄱ], [ㄷ], [ㄴ], [ㄷ], [ㄹ] 등과 같은 音이 이 예다.

나) 聲帶가 振動하지 않고 聲門이 꼭 密着된 경우. 이때 呼氣가 聲門에서 한번 막히었다가 터져 나오게 되므로 이를 聲門閉鎖音 (또는 喉頭破裂音) 이라고 부른다. [ㄱ] 音이 이 예로서 [ㄱ], [ㄷ], [ㄴ] 등의 音에는 각각 [ㄱ], [ㄷ], [ㄴ] 에 이 [ㄱ] 音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聲帶가 서로 接觸하고 있으나, 空氣의 流通을 방해할 만큼 굳게 닫혀 있지 않는 경우. 이것은 가) 와 나) 의 中間

的 狀態로서, 聲帶가 振動되어 各種의 樂音이 나오게 된다. 「이를 有聲音이라 하며, 그 예로는 [t], [d], [n], [ɲ] 等 全部의 母音과 [p], [b], [m], [ɱ], [ɳ], [ɽ], [ʃ] 等の 子音을 들리 수 있다.

3) 附帶管인 鼻腔과 口腔은 共鳴腔으로서 重要的 役割을 한다.

가) 鼻腔은 朝鮮語에 있어 단지 [m], [n], [ɳ] 의 音을 形成할 때에만 參與한다. 이때 軟口蓋의 움직이는 部分(목젖)이 아래로 내리며 氣流가 鼻腔으로도 흐르 氣流가 口腔과 鼻腔의 雙方을 다 通過하게 된다. 이 以外の 音의 發出에서는 목젖이 咽頭의 뒤 벽에 붙어 鼻腔으로의 通路가 막히게 되므로 口腔과 鼻腔과의 連계가 끊어지며 氣流는 단지 口腔 內만을 通過하게 된다.

나) 口腔을 形成하는 器官은 크게 두 가지의 運動을 한다. 有聲音인가 無聲音인가, 鼻音인가 鼻音 아닌가에 關係 없이

i) 呼氣를 어느點에서도 閉鎖 또는 妨害함이 없이 自由로 通過시키든가.

ii) 瞬間적으로 閉鎖시키거나 또는 極히 좁은 通路를 通過시키어 空氣의 摩擦을 일으키든가 한다.

口腔-안에서 妨害를 받지 않는 空氣는 口腔의 共鳴腔의 各種 形狀에 따라 特定의 音色을 띠게 된다. 共鳴腔의 形狀은 주로 그 움직이는 部分인 혀와 唇의 位置에 依하여 決定된다. 이러한 口腔의 音色이 [i] 의 경우] 바로 母音이며, 그 나머지의 音

[i:]의 경우]은 자음에 屬한다.

혀와 脣은 語音의 形成에 能動的으로 參與한다. 此의 外 喉와 口蓋을 能動的 發音器官이라고 하며 이, '이' 母, 口蓋은 語音의 形成에 受動的인 役割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受動的 發音器官이라고 한다.

第 2 節 母音의 形成

發音器官이 言語音의 發出에 必要한 動作과 位置를 가지는 것을 調音이라고 한다.

母音이 어떻게 形成되는가를 알기 爲하여는 調音時의 口腔의 狀態, 即 혀의 位置, 脣을 열는 程度, 口蓋의 形狀 등을 考慮하여야 한다.

혀의 前後 位置에 依하여 前母音, 中母音 및 後母音이 區別된다.

前母音을 發音할 때에는 혀의 앞 部分이 硬口蓋의 前面을 向하여 오목여진다. 이 例로는 [l]를 들 수 있다.

中母音을 發音할 때에는 혀 全體가 口蓋쪽으로 向하여진다. 이 例로는 [e]를 들 수 있다.

後母音을 發音할 때에는 혀의 뒤 部分이 軟口蓋에 向하여 오목여진다. 이 例로는 [r]를 들 수 있다.

입을 열는 程度, 即 혀의 調音點과 口蓋와의 距離에 依하여 近閉母音, 半閉母音, 半開母音 및 全開母音이 區別된다.

近閉母音을 發音할 때에는 혀의 調音點 即 最高點이 口蓋에 가장 가까운 位置에까지 오며여진다. 이 例로는 [i], [ɪ]를 들 수 있다.

全開母音을 發音할 때에는 혀의 調音點이 口蓋로부터 가장 먼 位置에까지 내리며여진다. 이 例로는 [a]를 들 수 있다.

이 近閉母音, 全開母音의 兩端 사이에 近閉母音에 가까운 位置에서 半閉母音, 全開母音에 가까운 位置에서 半開母音이 發音된다. 半閉母音의 例로는 [e], [ɛ], 半開母音의 例로는 [ɐ], [ɜ]를 들 수 있다.

결국 前母音, 中母音 및 後母音은 혀의 調音點을 水平的으로 본 區別이고, 近閉母音, 半閉母音, 半開母音 및 全開母音은 垂直적으로 본 區別이다.

입술의 形狀에 따라 圓脣母音과 平脣母音이 區別된다.

圓脣母音을 發音할 때에는 입술을 둥글랴게 하여 앞으로 내여 밀는다. 이 例로는 [ɸ], [ɸ], [ɸ], [ɸ]를 들 수 있다.

平脣母音을 發音할 때에는 입술을 ㅈㅈ하거 하여 앞으로 내여 밀지 않는다. 이 例로는 [ɸ], [ɸ] 등을 들 수 있다.

第 3 節 子音의 形成

子音이 어떻게 形成되는가를 알기 위하여는 調音의 樣式과 位置를 考慮하여야 한다.

調音의 樣式(어떻게 調音되는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呼氣를 口腔內의 어느 한 點에서 一순간 完全히 閉鎖시키었다가 破裂시키는 경우. 이것을 破裂音(또는 閉鎖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ㅂ], [ㅃ], [ㅍ], [ㄸ], [ㅌ], [ㅍ], [ㅊ], [ㅋ], [ㆁ] 를 들리 수 있다.

2) 呼氣를 完全히 閉鎖시키지 않고 좁은 通路를 스치어 나가게 하는 경우. 이것을 摩擦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ㅍ], [ㅆ], [ㅈ], [ㅊ], [ㅌ], [ㅎ] 를 들리 수 있다.

3) 破裂音의 다음에 調音法기 이에 각각 摩擦音이 계속되어 그 사이에 強勢의 弱화가 없이 한 개의 子音을 이루는 경우. 이것을 摩擦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ㅆ], [ㅈ], [ㅊ] 를 들리 수 있다.

4) 呼氣의 通路를 半閉鎖的으로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調音의 中央의 點은 閉鎖的이나, 兩便의 側面 通路로는 呼氣가 通過하도록 하는 경우. 이것을 舌側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ㄹ] 를 들리 수 있다.

5) 呼氣의 閉鎖를 急速的으로 斷續시키는 경우. 다시 말하

第1篇 語音論

면, 혀끝을 이'몸에 向하여 顫動시키는 경우. 이것을 顫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ㄹ]을, 半顫音으로는 [ㄴ]을 들리 수 있다.

調音의 位置(어디서 調音되느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兩입술 사이에서 調音되는 경우. 이것을 兩唇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ㅂ], [ㅃ], [ㅍ], [ㅑ], [ㅕ]를 들리 수 있다.

2) 혀끝과 위'이'몸 사이에서 調音되는 경우. 이것을 舌端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ㄷ], [ㄸ], [ㄹ], [ㄴ], [ㄷ], [ㄸ], [ㄹ], [ㄴ], [ㄷ], [ㄸ], [ㄹ], [ㄴ]을 들리 수 있다.

3) 혀의 가운데 部分과 硬口蓋 사이에서 調音되는 경우. 이것을 硬口蓋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ㄱ]을 들리 수 있다.

4) 혀의 위'部分과 軟口蓋 사이에서 調音되는 경우. 이것을 軟口蓋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ㄱ], [ㄲ], [ㅋ], [ㅇ]을 들리 수 있다.

5) 喉頭의 聲門에서 調音되는 경우. 이것을 喉頭音이라고 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ㅎ], [ㅎ]을 들리 수 있다.

[附記 1] [ㅃ], [ㄸ], [ㄲ], [ㄷ], [ㅆ]는 각기 [ㅂ+ㅅ], [ㄷ+ㅅ], [ㄱ+ㅅ], [ㄴ+ㅅ], [ㄷ+ㅅ]로 볼 수 있어 濃音(된소리)이라고 한다. 따라서,

第 2 章 語音과 文字

“장다, 장고, 장저”는 각기 [지따], [지꼬], [지제] 로
發音된다.

[프], [피], [포], [페]는 각기 [ㅍ+ㅎ], [ㅍ+ㅎ],
[ㅍ+ㅎ], [ㅍ+ㅎ]로 볼 수 있어, 帶氣音이라고 한다. 따
라서, “총다”, “총고”, “총저”는 각기 [조타], [조코], [조
제]로 發音된다.

[附記 2] 破裂音의 調音에는 세 개의 過程, 卽 密閉, 持續,
破裂의 過程을 區別할 수 있다. 이때 마지막 破裂의 過程이
없는 破裂音을 특히 內破音이라고 하여 이를 破裂의 過程까
지 있는 外破音과 區別한다. 朝鮮語에 있어 “잡”, “곰”, “속”의
[ㅂ], [ㅃ], [ㅆ]와 같이 韻末에 오는 破裂音은 語頭에
오는 것과 다름 內破音이다.

[附記 3] [ㅕ], [ㅛ]는 子音的 性質을 띠면서도 母音
[ㅏ], [ㅓ]와 가깝기 때문에 특히 半母音이라고도 한다.

第 2 章 語音과 文字

語音은 人間 言語의 要素로서 知覺的 機能을 가지므로 말
미암아 感官知覺의 對象으로 된다. 그렇나 또한 語音은 그보다
높은 言語의 單位 — 形態部, 語, 文 — 을 區別할 機能, 卽 意義的
機能을 가진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意味를 가지는 “갈, 걸,
갈, 갈, 갈, 걸” 또는 “갈, 남, 달, 밤, 쌀, 잠, 잤, 칼” 등의 語를 우

第 1 章 語 音 論

이가 區別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語音의 成構이, 서로 다른 까닭으로서, 이곳에 語音의 意義 分化的 機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語音은 知覺的 機能과 意義的 機能을 가지므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의 互相 交際를 可能하게 하는 必要한 前提 條件으로 되고 있다.

語音을 視聽적으로 固定시키는 것이 文字다. 語音과 文字는 機能上으로는 전혀 同一하기 때문에 그 差異는 機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資料的인 面 위에만 있다. 即 語音은 聽覺을 爲한 것이므로 이를 우리는 口로 發音하고 귀로 듣는다. 文字는 視覺을 爲한 것이므로 이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글로 쓴다.

發音과 綴字法은 언제나 반드시 서로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밭”에 있어 文字는 여섯 있으나, 음은 다섯 [ㅍ, ㅂ, ㄷ, ㅌ, ㅍ] 밖에 없다. “속”에서는 末音의 [ㄱ] 음이 “기”으로써 表示되어 있으나, “밖” “부엌” “넋” 등에서는 그 末音이 同一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기” “크” “꾸” 으로 表示되어 있다. 때로는 우리가 全然 綴音도 하지 않듯 곳에 文字를 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꽃” “값” “몫”에서의 “ㅍ”, “밭”의 “ㅍ”, “밭”의 “ㅍ”, “밭”의 “ㅍ”, “밭”의 “ㅍ” 등의 그렇다.

한 言語에서 使用되는 文字의 總體를 字母라고 부른다. 朝鮮語의 字母는, 朝鮮語의 語音 組織과 形態 構造上, 반드시 必要한 條件을 文字 六字 (ㄱ, ㅋ, ㆁ, ㆁ, ㄷ, ㅌ) 를 從來의 文字에 加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字母는 一定한 順序로 排列하기로 되

第 2 章 語彙와 文字

에 있다. 이 排列 順序는 韓契 辭典 編에서 語彙를 整理할 때 遵守된다.

字彙의 順序와 그 名稱은 다음과 같다.

文字	名 稱	文字	名 稱	文字	名 稱
ㄱ	기음 또는 그	ㄱ	기음	ㄴ	어
ㄴ	니은	ㄴ	머운	ㄷ	오
ㄷ	더운	ㄷ	뉘음	ㄹ	요
ㄹ	리을	ㅅ	저웃	ㅈ	우
ㄹ	리을	ㅆ	저웃	ㅊ	유
ㅁ	미음	ㅅ	리을	ㅌ	으
ㅂ	비음	ㅈ	티을	ㅍ	이
ㅅ	시웃	ㅊ	시웃	ㅎ	애
ㅇ	이응	ㅇ	히응	ㅅ	에
ㅈ	지웃	ㅅ	히응	ㅈ	에
ㅊ	치웃	ㅈ	기음	ㅊ	에
ㅋ	키음	ㅊ	티을	ㅋ	의
ㆁ	티을	ㆁ	피을	ㆁ	위
ㄷ	피을	ㄷ	히응	ㄷ	의
ㄹ	히응	ㄹ		ㄹ	

但, [히응]는 [히으], [리을]는 [리으], [시웃]은 [시울], [기음]는 [기으], [부응]은 [부음]이라 讀할 時다.

第3章 語音의 分類

第1節 母音

朝鮮語 單母音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ㅋ, ㆁ의 열 개이며, 혀의 位置, 입을 열는 程度, 입술의 形狀에 따라 이들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입을 열는 程度 혀의 位置	位置		
	前	中	後
近 閉	ㅣ (ㄱ)	ㅡ	(ㅌ)
半 閉	ㅑ (ㄲ)		(ㅓ)
半 開		ㅈ	ㅊ
全 開		ㅏ	

() 안의 母音은 圓唇母音이다.

[附記 1]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ㆁ는 각기 [半母音 + 母音] 即 [ㅣ + ㅏ], [ㅣ + ㅑ], [ㅣ + ㅓ], [ㅣ + ㅕ], [ㅣ + ㅗ], [ㅣ + ㅛ], [ㅣ + ㅜ], [ㅣ + ㅠ], [ㅣ + ㆁ] 이므로 單母音도 아니고, 二重母音도 아니나.

[附記 2] 二重母音 [ㅑ] 에 關하여는 41 頁 參照.

第 2 節 子 音

兩音의 樣式과 位置에 따라 朝鮮語 子音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位置 樣式	兩唇音	舌端音	硬口蓋音	軟口蓋音	喉頭音
破裂音	ㅁ ㅂ ㅅ	ㄷ ㄸ ㅌ		ㄱ ㅋ ㆁ	ㅇ
摩擦音	ㅕ	ㄴ ㄹ ㄷ	1	(ㅕ)	ㅎ
破擦音		ㅈ ㅉ ㅊ			
鼻音	ㅇ	ㄴ		ㅇ	
舌側音		ㄹ			
額音		ㄹ			
半額音		ㄹ			

第 4 章 字 母 的 音 價

第 1 節 每個의 文字와 그 音價

每個의 文字는 한 개의 음만 表示하는 것이 아니라, 그 位置에 따라 다른 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文字 위에서는 發音符號와 다름 一字 一音도 아니며, 一音 一字도 아니다. 한 개의 文字가 나타내는 음의 總體를 그 文字의 音價라 한다. 이제 朝鮮語의 字母가 가지는 音價를 보면 다음과 같다.

文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發音符號		
ㅂ	兩 唇 破 裂 音	[ㅂ]	[P]	語 頭	보리
		有聲的인 [ㅂ]	[b]	1. 母音과 母音 사이	아버지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남미
				3. 母音과 有聲 子音 사이	갑니다
		[ㅃ]	[Pʰ]	1. 母音과 母音 사이	가'뻬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산'보
		3.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국미		

第 1 篇 新 音 韻

文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內破의 [ㅂ]	[P]	1. 母音과 無聲子 音 사이 2. 語末	업다 일
ㅃ	兩 唇音 破裂音 [Pʰ]	[ㅃ]	[Pʰ]	어디서나	뿌리 고삐 손뼉 속물
ㅆ	兩 唇音 破裂帶氣音 [Pʰʰ]	[ㅆ]	[Pʰʰ]	1. 語頭 2. 母音과 母音 사이 3.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4.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파리 높이 갈피 격과
		有聲的인 [ㅆ]	[b]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앞노라고
		內破의 [ㅂ]	[P]	1. 母音과 無聲 子音 앞 2. 語末	뵈다 앞

第 4 章 字母와 音價

文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ㄷ	舌 端 破裂音 [t]	[ㄷ]	[t]	語頭	다리
		有聲的인 [ㄸ]	[d]	1. 母音과母音사이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3. 母音과 有聲 子音 사이의	바다 간도 달나라고
		[ㄲ]	[dʒ]	[l]의 앞	굴이
		[ㄷᄇ]	[tʰ]	1. 母音과 母音 사이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3.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코'등 칠'도 학도
ㄸ	舌 端 破裂音 [tʰ]	內破의 [ᄇ]	[ʰ]	1. 母音과 無聲 子音 사이 2. 語末	달다 곧
		[ᄇᄇ]	[tʰʰ]	어디서나	딸 귀뚜라미 큰딸 썩떡
ㅌ	舌 端 破裂音 帶氣音 [tʰ]	[ㅌ]	[tʰ]	1. 語頭 2. 母音과 母音 사이	토끼 도토리

第 1 篇 語 音 論

文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有聲的인 [ㄷ]	[d]	3.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물통
		[ㄸ]	[tʃʰ]	4.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격퇴
		內破의 [ㄷ]	[t]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말노라고
				[1], [1]의 앞	같이 핥이다
				1. 母音과 有聲子 音 사이	알다
				2. 語末	밭
ㄱ	軟口蓋 破裂音 [k]	[ㄱ]	[k]	語頭	꼬리
		有聲的인 [ㄱ]	[g]	1. 母音과母音사이	사기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얼구
				3. 母音과 有聲 子音 사이	먹물
		[ㄲ]	[kʰ]	1. 母音과母音사이	내'과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문'과
				3.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법과
		內破의 [ㄱ]	[t]	1. 母音과 無聲 子音 사이	먹다
				2. 語末	속

第 4 章 字母의 音價

文字	性質	音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ㄱ	軟口蓋音 破裂音 [kʰ]	[ㄱ]	[kʰ]	1. 語頭	굴
				2. 母音과 母音 사이	도끼
				3.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눈깔
				4.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낮음
		有聲的인 [ㄱ]	[g]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류노라고
		內破의 [ㄱ]	[k]	1. 母音과 無聲子音 사이	날다
				2. 語末	락
ㅋ	軟口蓋音 破裂帶氣音 [kʰ]	[ㅋ]	[kʰ]	1. 語頭	키
				2. 母音과 母音 사이	소코리
				3.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눈코
				4.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남작코
		有聲的인 [ㅋ]	[g]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부엌문
		內破의 [ㅋ]	[k]	1. 母音과 無聲子音 사이	부엌간
				2. 語末	널
ㆁ	喉 頭音 破裂音 [ŋ]	[ㆁ]	[ŋ]	1. 母音과 無聲子音 사이	장다
				2. 有聲子音과 無聲子音 사이	굶다(非)

第 1 篇 語 音 論

文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默 音	0	3.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1. 母音과 母音 사이 2.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3. 有聲子音과 有聲子音 사이	장네 장어라 중니 중라? 잃니? (부)
ㅍ	兩 唇蓋音 (軟口蓋) 半母音 [w]	[ɸ]	[w]	1. 母音과 母音 사이 2. 母音과 有聲子音 (ㄹ, ㅁ, ㄴ) 사이 3. 母音과 無聲子音 사이 (지에限함)	동아라 춘이라 민모 춘니, 춘나 순지니
		內破의 [p]	[p]	1. 母音과 無聲子音 (지를除外함) 사이	민다 근소
		有聲的인 [b]	[b]	2. 母音과 有聲子音 (는, 베틀, 낚나? 느냐?) 사이	등네 근의? 낚느냐? 근느냐?
		默 音	0	母音과 母音 사이	새등이 근이
人	舌 端音 (軟) [s]	[s]	[s]	1. 語頭 2. 母音과 母音 사이	사람 가수

第 4 章 字母와 音價

文字	性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口蓋音化 한 [人] [从]	[ㄷ] [S?]	3.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1], [1] 의 앞 1. 母音과母音사이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3. 無聲子音과 母音사이	군소리, 실 오지다 실 호'추 물'새 혹지
		有聲的인 [ㄷ] 內破의 [ㄷ]	[d] [t]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1. 母音과 無聲 子音 사이 2. 語末	벗노라고 젓다 낫
ㄴ	舌 端 摩 擦 音 音 [S?]	[从]	[S?]	1. 語頭 2. 母音과母音사이 3.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4.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찌름 무찌 솜찌 박찌
		有聲的인 [ㄷ] 內破의 [ㄷ]	[d] [t]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母音과 無聲子音 사이	있노라고 있다
ㄹ	舌 端 摩 擦 音 有 聲 音 [3]	[ㄹ]	[r]	母音과 母音 사이	똥어라 깁어라
		有聲的인 [ㄷ]	[d]	母音과 有聲子音 (ㄴ) 사이	등노라고 깁느냐?

第 4 章 字母의 音價

文字	性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發音符號		
		默音	0	3. 母音과 無聲子音 사이 4. 有聲子音과 無聲子音 사이 1. 母音과 母音 사이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3.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높다 끝다 능아라 많으니 커다랗니 능면
ㄷ	舌 端音 摩擦音 [tʃ]	[ㄷ] 有聲的인 [ㄷ] 有聲的인 [ㄷ] [ㄷ]	[tʃ] [ʒ] [d] [tʃʰ]	語頭 1. 母音과 母音 사이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1. 母音과 母音 사이 2.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3.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자리 가지 감자 찻노라고 수'자 글'자 학질
		內破의 [ㄷ]	[tʰ]	1. 母音과 無聲子音 사이 2. 語末	찻다 낮
ㅌ	舌 端音 破擦音 [tʃʰ]	[ㅌ]	[tʃʰ]	어디서나	다쪽 짝 한쪽 쪽

第 1 章 語 音 論

久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大	舌 端 破 擦 音 帶 氣 音 [tʃʰ]	[ㄷ]	[tʃʰ]	1. 語頭 2. 母音과母音 사이 3.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 4.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치다 까치 달산 학창
		有聲的인 [ㄷ]	[d]	母音과無聲子音 사이	빛나다
		內破의 [ㄷ]	[t]	1. 母音과 無聲 子音 사이 2. 語末	꽃다 꽃
ㅁ	兩 唇 鼻 音 [m]	[ㅁ]	[m]	어디서나	모기 사물 눈물 심노라고 학문 담다 꿈
ㄴ	舌 端 鼻 音 [n]	[ㄴ]	[n]	어디서나 ([ㄴ], [ㄴ] 의 앞을 除外함)	노루 소나기 밭나무 안노라고

第 4 章 字母의 音價

文字	性質	音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默音	0	語頭에서 [1], [1]의 앞	국난 산다 산 너자 노도
		口蓋音化 한 [ㄴ]	[ㄴ]	母音과 [1], [1] 사이	바구니 저녁
		다음과 같 이 되는 경 우가 있다 [ㄹ]	[ㄹ]	母音과 母音 사이 (漢字語)	기념
		[ㄷ]	[1]	1. ㄴ字 앞 (漢字 語에서) 2. [ㄷ] 뒤	기념 관 관난 찰나 말년
ㅇ	口鼻 [ㅇ]	[ㅇ]	[ㅇ]	어리서나	항만 항구 땅
ㄹ	顛音 [ㄹ]	[ㄹ]	[ㄹ]	1. 語頭	로마 (外 來語)
		[ㄴ]	[ㄷ]	2. 母音과 母音 사이 1. 語頭 ([1], [1] 以外의 母音 앞)	소리 막원 로인

第 1 篇 語 音 論

文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ㅉ]	[1]	2. 有聲子音 [ㅉ] 를 除外함] 과 母音 사이 3.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1. 母音과 有聲 子音 사이 2. 母音과 無聲 子音 사이 3. 語末 4. [ㅉ] 뒤	배일 경로 학리 물론 결과 길 달리다
		默音	0	1. 語頭 ([1], [1] 앞 ... 매로는 2. 母音과 [1], [1] 사이	리화 탁심리 로리 비둘 대털
ㅉ	舌側音 [1]	[ㅉ]	[1]	어더서나	데난 (外 來語) 쫓더람 가봤다 흐렀다 아탁다탁 마되 오되다

第 4 章 字母와 音價

文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ㅣ	前部近閉母音 [i]	[ㅣ]	[i]	어디서나	일 길 소리
ㄱ	前部近閉母音 固 唇 音 [y]	[ㄱ]	[y]		귀 귀다
ㅅ	前部半閉母音 [e]	[ㅅ]	[e]	어디서나	에 센 배
ㅆ		[ㅆ]	[je]		제집
ㅈ	前部半閉母音 固 唇 音 [ɔ]	[ㅈ]	[ɔ]	어디서나	의아플 됨됨 의
ㅊ	前部半閉母音 [ɔ]	[ㅊ]	[ɔ]	어디서나	생두
ㅑ		[ㅑ]	[jɔ]		색짜 얘기
ㅏ	全開母音 [a]	[ㅏ]	[a]	어디서나	안

第 一 篇 語 音 論

文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ㅏ		[ㅏ]	[ja]		감 나 자냥
ㅑ	後部半開母音 [o]	[ㅑ]	[o]	어디서나	얼굴 범 너 없다 정가 (鄭哥)
ㅓ		[ㅓ]	[tɕ:]		연 (十) 열 (膽臟)
ㅕ		[ㅕ]	[jo] [jɕ:]		
ㅗ	後部半閉母音 圓 唇 音 [o]	[ㅗ]	[o]	어디서나	오늘 군 소
ㅛ		[ㅛ]	[jo]		오지음
ㅜ	後部近閉母音 圓 唇 音 [u]	[ㅜ]	[u]	어디서나	움 국 무

文字	性 質	音 價		位 置	例
		朝鮮文字	支音符號		
ㅍ		[p]	[p]		유리
ㅡ	中部近閉母音 [ɨ]	[ɨ]	[ɨ]	어디서나	은 글 그
ㅟ	二重母音 [ɥi]	[ɥ]	[ɥi]	어디서나	의자 희생 정의

第 2 節 每個의 音과 그 表記

以上에서는 文字를 基礎로 하여, 每個의 文字가 여러 位置에서 어떻게 發音되는가를 解明하였다. 이번에는 音을 基礎로 하여, 每個의 音이 語頭, 語中, 語末의 어느 位置에 나타날 수 있으며, 그 位置에 따라 어떠한 文字로써 表記되는가를 圖表로써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語末에 있어 ㄷ 받침口으로 表記되는 경우는 이 圖式에서 除外한다.)

第 1 節 語 音 論

音		나라나는 位置			文 字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ㅂ]	[P]	○			ㅂ	브리
有聲的 [ㅃ]	[b]		○		ㅃ	아버지
			○		ㅃ	있노라고
			○		ㅃ	중비
[ㅍ]	[Pʰ]	○			ㅍ	푸리
			○		ㅍ	고비
			○		ㅍ	산'보
			○		ㅍ	국비
內破의 [ㅑ]	[P]		○		ㅑ	업다
				○	ㅑ	업
			○	○	ㅑ	업다, 앞
			○		ㅑ	업다
[ㅍ]	[Pʰ]	○			ㅍ	파리
			○		ㅍ	갈피
[ㄷ]	[t]	○			ㄷ	다리

第 4 章 字母外 音價

音		나라나는 位置			文 字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有聲的인 [ㄷ]	[d]		○ ○ ○ ○ ○ ○		ㄷ ㅌ 人 从 △ ㅌ ㅌ	물노라고 말노라고 뎡노라고 있노라고 듣노라고 찾노라고 빛나다
有聲的인 [ㅌ]	[dʒ]		○ ○		ㄷ ㅌ	굳이 가지
[ㄸ]	[tʰ]	○	○ ○		ㄷ ㄸ ㄸ	철'도 말 귀뚜라미
內破의 [ㅌ]	[t]		○ ○ ○	○ ○	ㄷ ㄷ ㅌ ㅌ △	믿고 곧 말다 밭 것다

第 1 編 語 音 論

音		나라나는 위치		한글 文字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音頭	語中語末		
			○ ○ ○ ○ ○	人 入 从 天 天 天 天	셋다 낫 있다 깃다 낫 꽃다 꽃
[E]	[t']	○	○	ㅌ ㅌ	토끼 물통
[ㄱ]	[k]	○		ㄱ	고리
有聲的音 [ㄷ]	[s]		○ ○ ○	ㄱ ㄷ ㄷ	얼구 꽃노라고 부엌문
[ㄷ]	[k']	○	○ ○	ㄱ ㄷ ㄷ	내'과 꽃 도끼

第4章 字母와 發音

音	나라나는 位置			發音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內破의 [ㄱ]	[k]		○ ○ ○ ○ ○	ㄱ ㄱ ㄱ ㄱ ㄱ ㄱ	먹다 숙 닭다 밖 부엌간 별
[ㅋ]	[k']	○	○	ㅋ ㅋ	키 눈코
[ㅎ]	[h]	(○)	(○)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장다
[ㅇ]	[w]	(○)	(○)	ㅇ (과, 거)	등아라 찾다 싸워라
[人]	[인]	○	○	人	사람, 가수

第 1 篇 語 音 論

音		나라나는 位置			文 字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口蓋 ㄱ	[g]	○	○		人 人	칠 오시다
[ㄴ]	[ŋ]	○	○		人 从 从	물'새 씨름 숨'씨
[ㄷ]	[d]	○	○ ○ ○ ○		ㄷ △ ㄴ ㄷ	로마, 소리 뭇어'라 기'검 늘'아'라
[ㄹ]	[l]	○	○ ○ ○ ○ ○ ○		ㄹ ㄹ ㄹ ㄹ △ ㄴ ㄹ	레'년 기'똥'다 늘'리'다, 벌'리 꺾'다 꺾'리'다 끈'난 꺾'짜

第 4 章 子母外 音質

音		나타나는 位置			父 字	例
切齒文字	表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	○	○	원
[1]	[j]	(○)	○	(○)	1 (ㅈ, ㅊ ㅊ, ㅈ)	가지다
[ㄷ]	[h]	○	○	(○)	ㅎ ㅎ (ㅋ, ㆁ ㆁ, ㄷ)	러리 놓다
[ㄸ]	[tʃ]	○			ㅈ	자리
[ㅉ]	[tʃʰ]	○	○		ㅈ ㅉ ㅉ	밭'전 짜다 이썩
[ㅊ]	[tʃʰ]	○	○		ㅈ ㅉ ㅉ	같이 치마 까치

第 1 篇 語 音 論

音		나라나는 位置			文 字	一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ㅁ]	[m]	○	○	○	ㅁ ㅁ ㅁ	모기 눈물 꿈
[ㄴ]	[n]	○	○	○	ㄴ ㄴ ㄴ ㄴ ㄴ	노무 밤나무 손 막원 경로
ㅁ 蓋化音 [ㄴ]	[n]		○		ㄴ	바구니
○	[ㅇ]		○	○	ㅇ ㅇ	하구 방
[ㅣ]	[i]	○	○	○	ㅣ ㅣ ㅣ	일 길 소리
[ㄱ]	[y]	○	○	○	ㄱ ㄱ	꺼다 취

第 4 章 字母의 音價

音		나루나는 位置			文 字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ㄱ]	[e]	○	○	○	기 끼 키	에 필 네 예술 지수 아이
[ㅋ]	[jɛ]	○	○	○	키 끼 키	의아를 담됨 피
[ㆁ]	[æ]	○	○	○	하 하 하	앵두 석씨 개
[ㆁ]	[jæ]	○		○	하 하	애기 개 (그아이)
[ㅏ]	[a]	○	○		ㅏ ㅏ	안 갑

獨小語音圖

音		나라나는 位			父 字	例
朝鮮文字	大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ㄱ]	[ja]	○	○	○	ㅏ ㅑ ㅓ ㅕ	나 약 생략 대약
[ㄷ]	[o]	○	○	○	ㅓ ㅕ ㅗ	얼굴 밭 너
[ㅈ]	[jo]	○	○	○	ㅑ ㅓ ㅕ	여기 벼룩 벼
ㅈㅅ의 [ㅈ:]	[t:]	○	○		ㅓ ㅕ	없다 정가 (鄭哥)
ㅈㅅ의 [ㅊ:]	[jt:]	○			ㅑ	열 (濟賊)
[ㅌ]	[o]	○	○	○	ㅓ ㅕ ㅗ	오늘 꿈 소
[ㅍ]	[jo]	○			ㅑ ㅓ	우

第 4 章 字母와 音價

音		나타나는 位置			한글	예
朝鮮文字	表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	○	ㅛ ㅠ	교차 요
[ㅜ]	[u]	○	○	○	ㅜ ㅠ ㅠ ㅠ	움 죽 무
[ㅠ]	[ju]	○	○	○	ㅠ ㅠ ㅠ	유모 사육 우유
[ㅡ]	[ü]	○	○	○	ㅡ ㅡ ㅡ	은 갈 그
[ㅣ]	[üi]	○	○	○	ㅣ ㅣ ㅣ	의자 희생 정의

第五章 音節

第1節 音節

音節行爲에 있어 우리는 個別的 語音을 發音하는 것이 아니라, 連續的인 音의 連鎖를 發音한다. 그렇나, 音의 連續은 單번의 呼吸으로써 發音되지 않고, 몇 개의 작은 마더로 分割된 呼吸으로써 發音된다. 이 때 한 번의 呼吸으로써 發音되는 한 개 또는 몇 개의 音을 音節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오빠”는 두 音節, “아버지”는 세 音節이며, “산”은 한 音節인 것과 같다.

朝鮮語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音節마다 母音이 있기 때문에 한 語의 音節의 數는 대체로 그 앞에 있는 母音의 數와 一致한다. 예를 들면: “귀뚜라미”는 네 音節 (귀-뚜-라-미), “밤다”는 두 音節 (밤-다)이다.

音節의 數에 따라 語는 單音節語 (소, 개, 집), 二音節語 (아침, 노래, 아들) 및 多音節語 (귀뚜라미, 민주주의)로 區分된다.

母音으로 끝난 音節은 開音節 (책-마-라-기), 子音으로 끝난 音節은 閉音節 (함-박-눈)이라고 한다.

即, 받치口이 없는 音節은 開音節, 받치口이 있는 音節은 閉音節로 된다.

第 5 章 音 節

[附記] 形態論에 있어 “ㄱ, ㅋ, ㆁ, ㄹ”의 받침口이 있을
音節이 開音節로 看做됨에 關하여는 109 페이지 參照.

第 2 節 二 重 母 音

한 音節 안에 있는 두 개의 母音을 二重母音이라고 한다.
朝鮮語에 있어서는 二重母音으로는 “ㄱ” 하나 밖에는 없다.
그렇나, 이 音도 점차로 單母音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월”, “약” 등은 [ㄱ + ㅛ + ㄹ] [ㄷ + ㅛ + ㄹ] 으로 分析되어
[半母音 + 母音] 이므로 二重母音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곳에 音
節 앞에 있는 半母音은 子音의 性質을 가진다.

第 3 節 半 母 音 “ㄱ”

半母音 ㄱ는 그 뒤에 母音이 올 때 이것과 함께 한 音節을
이룬다. 이제 “은母音 ㄱ” 와 “半母音 ㄱ”을 比較하여 보면,
가지 (먹는 가지 — 名詞) 와
가진 (채운 가지다 — 動詞)
에 있어 子音 토 “다” 가 오면,
이것은 가지다 (音節)
그는 채운 가지다 (音節)
로 되며, “가지나” “가지다” 는 다 같이 세 音節이나, 母音 모 “어

서”, “였다” 가 오면,

이 것은 가지여서 (네 音節)

이 것은 가지였다 ()

에 對하여,

그는 책을 가지여서 [가져서]. (세 音節)

그는 책을 가지였다 [가졌다] ()

로 되며, 音節 수가 서로 다르게 된다. 이것으로써 “은모음 1” 와 “半모음 1” 가 서로 다른 音임을 알리 수 있다. 따라서 名詞의 [가지] 와 動詞의 [가지-] 를 區別할 수 있으며, 또한 名詞의 “가지” 는 언제나 “가지” 로, 動詞의 “가지-” 는 언제나 “가지-” 로 表記함으로써 그 形態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半모음 1”는 原則적으로 用言 語幹의 末音에만 나타나며, 從來 “은모음 1” 로 表記되던 用言 語幹 末音은 그 絕對多數가 “半모음 1”로 적어야 할 것이다.

1) 語幹 末音을 “半모음 1”로 적어야 할 例 :

치다 (打) 치고 치어 치었다

지다 (負) 지고 지어 지었다

오신다 (來의 尊敬) 오시고 오시어 오시었다

먹이다 (使食) 먹이고 먹이어 먹이웠다

2) 語幹 末音을 “은모음 1”로 적어야 할 例 :

아니다 (否) 아니고 아니어 아니었다

시다 (酸味가 있다) 시고 시어 시었다

第 6 章 語音의 高低와 長短

미다 (窓戶紙를 찢다) 미고 미어 미었다

기다 (개미가 기어가다) 기고 기어 기었다

빠다 (물이 빠다) 빠고 빠어 빠었다

3) “半母音 1” 로 語幹이 끝난 用言으로부터 轉成된 名詞의 例 :

받치다 → 받치ㅁ

알리다 → 알리ㅁ

울리다 → 울리ㅁ

드리다 → 드리ㅁ

돌리다 → 돌리ㅁ

느리다 → 느리ㅁ

등리다 → 등리ㅁ

第 6 章 語音의 高低와 長短

한 言語의 語의 音節 사이에 強弱, 高低의 差가 있고, 그 關係가 傳承的 事實로서 一定되어 있는 現象을 악센트라고 하며, 強弱 關係의 一定하여 있는 것을 強弱 악센트, 高低 關係의 一定하여 있는 것을 高低 악센트라고 한다.

朝鮮語의 악센트는 高低 악센트로 볼 수 있으며, 音節 사이의 高低 關係가 尤甚하지는 않으나, 高低의 不同에 따라 語의 意味도 不同하는 例가 있다.

第 1 篇 語 音 論

高	갈	— (벼슬을 갈다)
中	갈	— (칼을 갈다)
低	갈	— (밭을 갈다)
高	달	— (낮이 달다)
中	달	— (기름 달다)
低	달	— (몸이 달다)
高	말	— (말을 타다)
中	말	— (말로 되다)
低	말	— (말을 잘하다)

이 三段(高, 中, 低)의 악센트의 差異는 特別히 慶尙道 地方에서 明顯하고, 京城 地方에서는 보통 高와 中의 差異가 明白하지 않아, 高側의 二段 밖에는 區別하지 않는다.

악센트의 現象은 每個의 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文에도 있다. 文의 악센트(一名 論理的 악센트라고도 하며, 또한 文의 聲調라고도 한다)는 傳達되는 內容의 意味와 緊密하게 連結되어 있다. “어디 가오?”하고 質問하는 경우, 이 중 어느 語에 악센트를 두는가에 따라 — 어디에 또는 가오에 — 質問의 意味가 달라진다. 어디에 악센트를 두는 경우(어디 가오?), 이는 저쪽 사람이 가려고 하는 方向, 場所 등이 알고 싶다는 希望을 表明하는 것이며, 가오에 악센트를 두는 경우(어디 가오?), 이는 저쪽 사람의 行動 그 自體가 알고 싶다는 希望을 表明하는 것이다.

第 6 章 語音의 高低와 長短

또한 이러한 語句를 語調를 여러가지로 다의 하여, 發音할 수 있어, 同一한 文

“이것 보아요.”

도 發音時의 語調에 따라 “自己가 이것을 본다.”는 敘述文

“이것 보아요.”

로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보아야 하겠느냐?” 의 疑問文

“이것 보아요?”

로 될 수도 있고, 또한 “이것 보시오!” 하는 命令文

“이것 보아라!”

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文의 메로디의 構造가 文의 語法的 構造에 따라 變化할 수 있다.

言語 行爲의 速度는 그가 進行되는 場面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心的 狀態에 따라 그 自體 여러가지로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語音의 絶對的 持續이라 하는 것이나, 語音에는 또한 相對的 持續이 區別되여, 이로써 母音과 子音에는 長短의 差異가 생기게 된다. 長短은 주로 母音에 나타나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長		短
물(渾)	—	물(火)
밭(簾)	—	밭(足)
탈(言)	—	탈(斗)
털(蜂)	—	털(鬚)

第 1 篇 語 音 論

밤 (粟) — 밤 (夜)
 파리 (蠅) — 파리 (巴里)
 군무 (群舞) — 군무 (軍務)
 경성 (鏡城) — 경성 (京城)
 금강 (錦江) — 금강 (金剛)
 산수 (算數) — 산수 (山水)

음의 高低와 長短과의 關係를 보면 大體로 높은 음이 짧고,
 낮은 음이 길다.

물 (濱) — 長, 低

불 (火) — 短, 高

또한 ㅎ, ㅍ 받치口의 用言에 있어서는 ㅈ와 그 意味에 따라
 그 長短이 다르지 않다.

長

短

빙니 [너-니] 빙니? [빙너?]

빙라 [너-랴] 빙나? [빙나?]

빙건 [너-면]

빙나 말나 [너-나]

장니 [지-니] 장니? [장니?]

장라 [지-랴] 장나? [장나?]

장면 [지-면]

장나 말나 [지-나]

第 7 章 語音의 結合的 變化

우리의 言語 行爲는 決코 個別的 語音의 機械的 結合이 아니다. 語音은 그 自體 連續體를 이루어 互相關聯, 互相制約하는 有機的 關係를 맺고 있다. 그 結果, 어떠한 母音 또는 子音의 形成을 爲한 條件이 그 때마다 앞뒤에 있는 語音의 影響을 받아, 조금씩 變하게 된다. 이 것을 語音의 結合的 變化라고 하며, 그 곳에 同化와 異化의 서로 反對되는 現象을 볼 수 있다.

第 1 節 同 化

同化란, 한 音이 이웃에 있는 音의 影響을 받아, 그 音에 같거나 音 또는 같은 音으로 變化하는 것을 말한다.

同化는 子音과 子音 사이, 母音과 母音 사이 또는 子音과 母音 사이에서 일어나며, 그 方面에 따라 順行同化, 逆行同化 및 互相同化를 區別할 수 있다.

順行同化란, “감각” [kam-tʃa] 에 있어 [kam] 의 末音 [m] (有聲音)가 [tʃa] 의 頭音 [tʃ] (無聲音)를 有聲音化하여 [kam-dʒa] 로 變化시키는 것과 같이, 앞에 있는 音이 뒤에 있는 音에 影響을 주어, 이를 同化시키는 것을 말한다.

逆行同化란, 이와 반대로, “국물” [kuk-mul] 에 있어

[kuk]의 末音 [k] (無聲音)가 [mul]의 頭音 [m] (有聲音)의 영향으로 有聲音化하여, [kug-mul]로 變化하는 것과 같이, 앞에 있는 音이 뒤에 있는 音의 영향을 받아 이에 同化하는 것을 말한다.

互相同化란, “감기” [kam-gi]에 있어 [kam]의 末音 [m] (有聲音)가 [ki]의 頭音 [k] (無聲音)를 有聲音化하여, [kam-gi]로 變化시키나 다음, [gi]의 頭音 [g] (軟口蓋音)가 [kam]의 末音 [m]을 軟口蓋音化하여 [kaŋ-gi]로 變化시키는 것과 같이, 두 개의 音이 互相間에 영향을 주어 同化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同化的 結果에 따라 完全同化와 部分同化를 區別할 수 있으며, 互相作用하는 音의 距離에 따라 隣接同化와 隔離同化를 區別할 수 있다.

完全同化란 “천리” (千里) [tʃ'on-ri]가 “철리” [tʃ'ol-i]로 變化하는 것과 같이, 同化的 結果 서로 똑 같은 音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部分同化란, “국내” (國內) [kuk-nae]가 [kug-nae]로 變化하는 것과 같이, 서로 비슷한 音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隣接同化란, “학문” (學問) [hak-mun]이 [hag-mun]으로 變化하는 것과 같이, 서로 隣接한 音이 同化하는 것을 말하며, 隔離同化란, “어미” [o-mi]가 “에미” [e-mi]로 變化하는 것과 같이, 서로 떨어져서 音 사이에서 同化가 일어나는

第 7 章 語音의 結合的 變化

것을 말한다.

어제 語音 同化의 現象을 살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先行 音節의 末音이 無聲音이고, 後續 音節의 頭音도 無聲音인 경우:

原則的으로 同化가 일어나지 않으나, 後續 音節의 頭音이 若干 聲소리로 난다. 예로는 "t-k" 가 "k-k"로 (말기다 > 탁기다), "t-P" 가 "P-P" 로 (발브다 > 팍브다) "t-k"가 "k-k"로 (팍스릇 > 박스릇) 되는 일도 있다.

k-k > k-k	학교
k-t > k-t	각도
k-P > k-P	국법
k-S > k-S	국수
k-tʃ > k-tʃ	각자
t-k > t-k (k-k)	말기다
t-t > t-t	남단 (穀束)
t-P > t-P (P-P)	발브다
t-S > t-S (S-S)	맞상
t-tʃ > t-tʃ	맞절
P-k > P-k (k-k)	법과
P-t > P-t	합당
P-P > P-P	합법
P-S > P-S	합서

$P-tʃ > P-tʃ$ 학자

2) 先行音節의 末音이 無聲音이고, 後續音節의 頭音이 有聲音인 경우:

逆行同化가 일어난다. 다만 後續音節의 頭音이 [r] 인 경우, 이 音이 [n] 으로 變하여 互相同化로 된다.

- $k-r > g-n$ (ʒ-n) 학리
- $k-m > g-m$ (ʒ-m) 학문
- $k-n > g-n$ (ʒ-n) 학년
- $k-母音 > g-母音$ 학의
- $t-r > d-n$ (n-n)
- $t-m > d-m$ (n-m) 말머느리
- $t-n > d-n$ (n-n) 말누이
- $t-母音 > d-母音$ 말아플
- $P-r > b-n$ (m-n) 벌리
- $P-m > b-m$ (m-m) 톱문
- $P-n > b-n$ (m-n) 잡니다
- $P-母音 > b-母音$ 합의

3) 先行音節의 末音이 有聲音이고, 後續音節의 頭音이 無聲音인 경우:

順行同化가 일어난다. 이 경우에 後續音節의 頭音 다음에는 받침이 없으므로, 有聲音과 有聲音 사이에 있는 無聲音은 有

第 三 章 語 音 的 結 合 的 變 化

同化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다만 發聲 音節의 頭音이 [s] 인 경우는 同化가 일어나지 않으며, l-k, l-t, l-p, l-tʃ 의 경우 同化가 일어나지 않는 일도 있다.

(合成語 및 其他의 경우에 關하여는 25 페이지 以下 參照.)

l-k	>	l-g (l-k)	결과
l-t	>	l-d (l-t)	(활동)
l-p	>	l-b (l-p)	결부
l-s	>	l-s	결속
l-tʃ	>	l-dʒ (l-tʃ)	(결재)
m-k	>	m-g	감적
m-t	>	m-d	감당
m-p	>	m-b	남비
m-s	>	m-s	갈사
m-tʃ	>	m-dʒ	감자
n-k	>	n-g	원기
n-t	>	n-d	원동
n-p	>	n-b	남편
n-s	>	n-s	원사
n-tʃ	>	n-dʒ	간장
ŋ-k	>	ŋ-g	항간
ŋ-t	>	ŋ-d	망도
ŋ-p	>	ŋ-b	항피

第 1 篇 語 音 論

ㄱ-ㄱ	>	ㄱ-ㄱ	광선
ㄱ-ㄷ	>	ㄱ-ㄷ	경쟁
母音-k	>	母音-g	오각
母音-t	>	母音-d	서도
母音-p	>	母音-b	서부
母音-s	>	母音-s	오십
母音-tʃ	>	母音-dʒ	오전

4) 先行音節의 末音이 有聲音이고, 後續音節의 頭音도 有聲音인 경우 :

原則的으로 同化가 일어나지 않으나, 後續音節의 頭音이 [r] 또는 母音인 경우; 部分的으로 同化가 일어난다.

l-r	>	l-l	철로
l-m	>	l-m	철문
l-n	>	l-l	팔년
l-母音	>	r-母音	결의
m-r	>	m-n	함루
m-m	>	m-m	감명
m-n	>	m-n	삼년
m-母音	>	m-母音	삼의
n-r	>	l-l	천리
n-m	>	n-m(m-m)	인물

第 7 章 語音의 結合的 變化

ㄱ-ㄱ	>	ㄱ-ㄱ	선년
ㄱ-母音	>	ㄱ-母音	산아
ㄴ-ㄴ	>	ㄴ-ㄴ	정벌
ㄴ-ㅁ	>	ㄴ-ㅁ	강물
ㄴ-ㄷ	>	ㄴ-ㄷ	충남
ㄴ-母音	>	ㄴ-母音	충어
母音-ㄴ	>	母音-ㄴ	우리
母音-ㅁ	>	母音-ㅁ	사물
母音-ㄷ	>	母音-ㄷ	사년
母音-母音	>	母音-母音	보안

以上の 語音 同化의 現象을 圖表로써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原則적으로 同化가 일어나지 않는 頭音의 경우 [ㄱ, ㄷ, ㄴ,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를 除外함.)

末音		無聲		聲音		有聲		聲音		母音	
母音	聲	母音	聲	母音	聲	母音	聲	母音	聲	母音	聲
k	k	k-k	t	p		l	m	n	ŋ	ŋ	ŋ
k	k-k	t(k)-k	p(k)-k	l-g(k)	m-g	n-g	ŋ-g	ŋ-g	ŋ-g	母音-g	母音-g
t	k-t	t-t	p-t	l-d(t)	m-d	n-d	ŋ-d	ŋ-d	ŋ-d	母音-d	母音-d
p	k-p	t(p)-p	p-p	l-b(r)	m-b	n-b	ŋ-b	ŋ-b	ŋ-b	母音-b	母音-b
s	k-s	t(s)-s	p-s	l-s	m-s	n-s	ŋ-s	ŋ-s	ŋ-s	母音-s	母音-s
tʃ	k-tʃ	t-tʃ	p-tʃ	l-ʃ(tʃ)	m-ʃ	n-ʃ	ŋ-ʃ	ŋ-ʃ	ŋ-ʃ	母音-ʃ	母音-ʃ
r	g(r)-r	d(n)-r	b(m)-r	l-l	m-n	n-l	ŋ-n	ŋ-n	ŋ-n	母音-r	母音-r
m	g(m)-m	d(n)-m	b(m)-m	l-m	m-m	n(m)-m	ŋ-m	ŋ-m	ŋ-m	母音-m	母音-m
n	g(n)-n	d(n)-n	b(m)-n	l-l	m-n	n	ŋ-n	ŋ-n	ŋ-n	母音-n	母音-n
母音	g-母音	d-母音	b-母音	r-母音	m-母音	n-母音	ŋ-母音	ŋ-母音	ŋ-母音	母音-母音	母音-母音

第 7 章 聲韻의 結合的 變化

逆行同化의 特別한 例로, 뒤에 오는 [ㄹ], [ㄴ]가 앞에 있는 母音 또는 子音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 먹이다 > 맥이다 차리다 > 채리다
 숙이다 > 석이다 어미 > 예미
 아비 > 예비 고기 > 끼기

등과 같이 [ㄱ], [ㄴ], [ㄷ] 등의 母音이 뒤에 오는 [ㄹ], [ㄴ]의 영향으로 [계], [기], [해] 등의 前母音에 가장게 된다. 이것은 [ㄹ], [ㄴ]가 다른 音을 自己와 가장 音으로 同化시키는 힘이 강한 까닭으로 이 現象을 變母音化라고 한다.

또한 뒤에 오는 [ㄹ], [ㄴ] 音이 앞에 있는 子音에 영향을 주어

 굴이 > 구지 같이 > 가치
 거름 > 지름 겨울 > 저울

등의 例와 같이 [ㄷ], [ㄷ] (舌端音), [ㄱ], [ㄱ] (硬口蓋音)을 [ㅈ], [ㅊ] (硬口蓋音에 가장 音)에 가장게 變化시킨다. 이 現象을 口蓋音化라고 한다.

결국으로 “벽풍” (屏風)이 “정풍”으로 變化하였고, “비판” (批判)이 “피판”, “관출” (觀出)이 “관출”로 發音되기 된 것은, 先行하는 無氣音 [ㄷ]가 뒤에 오는 帶氣音 [ㄱ]의 영향으로 同化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帶氣音 逆行同化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氣音 逆行同化의 例로는 “첫째”가 “첫제”로 發音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에 說한 同化의 各의 現象을 圖式으로 示하건 다음과 같다.

構 成	距 離	方 向	結 果	標 識	例
子 音	隣接	順行	部分	울리口	간자 [kam-tʃa] > [kam-dʒa]
"	"	"	完全	樣式	철로 [hjol-ro] > [hjol-lo]
"	"	逆行	部分	울리口	학문 [hak-mun] > [hag-mun]
"	隔離	"	完全	氣音	비판 (피판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 [pi-p'an] > [p'i-p'an]
"	隣接	"	"	位置	법과 [pəp-kwa] > [pək-kwa]
"	"	互相	部分	울리口置	감기 [kam-ki] > [kaŋ-gi]
"	"	"	完全	樣式	천리 [tʃ'on-ri] > [tʃ'ol-li]
子音 母	"	逆行	部分	울리口置	굳이 [kut-i] > [ku-dʒi]
"	"	"	"	位置	같이 [ka-t'i] > [ka-tʃ'i]
母 音	隔離	"	"	部位	어미 ("에미"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 [o-mi] > [e-mi]

第 1 章 語音의 結合的 變化

[附記 1] 同化의 한 例로 볼 수 있는 母音 調和는, 한 語의 母音의 性質이 基本的 音節의 母音의 性質에 依하여 規定되어, 한 語 內部에서 비슷한 性質의 母音끼리 서로 調和되는 現象을 말한다. 이 現象은 過去의 朝鮮語에서는 規則的으로 나타났으나 現代 朝鮮語에서는 漸次로 破壞되어가, 法則的인 形態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用言 活用에 있어, 語幹 母音과 母音로 사이에, 또는 擬態語에 母音 調和의 現象이 관찰되는바, 이에 關하여는 93 페이지와 形態論 第 2 部 第 7 章 副詞의 種類 (樣態의 副詞) 參照.

[附記 2] 語音上에서는 同化의 現象이 나타나더라도, 綴字法上에서는 同一한 形態를 固定시키기 爲하여 그 本音을 바꾸지 아니한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먹이다	떡이다
속이다	씩이다
락히다	맥히다
잡히다	젹히다
벗기다	뻗기다
얹기다	엮기다
굴이	구지
땀받이	땀바지

第1篇 語音論

갈기

가치

말아

바치

할이다

할치다

그렇나, 漢字음에 있어, 두 母音 사이의 [ㄴ]가 [ㄹ]로만 發音되는 것은 [ㄹ]로 적고, [ㄹ]가 [ㄴ]로만 發音되는 것은 [ㄴ]로 적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1) 허락 (許諾)

허낙

대로 (大怒)

대노

회령 (會寧)

회녕

(2) 의논 (議論)

의론

第2節 異化

異化는, 同化의 反對의 傾向으로서, 한 쌍의 同一音 또는 類似音으로부터 類似性이 적은 音으로 變化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푸다” (汲水)의 “푸”에 “어”로가 도는 경우,

푸어 > 퍼

로 되어 [퍼]에 가깝게 發音된다. 이 것은 [ㅍ]가 兩唇音이고 [거]가 圓唇音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位置를 피하여 [거]가 [기]로 變換한 것에 基因한다.

모음

말았다 > 말었다

막았다 > 막었다

모음發音되는 것도 同一音 [ㅏ] 의 聲出을 의하여 異化하는 現象이다.

그렇나 綴字法上에서는 同一한 形態를 固定시키기 위하여 그 本音을 바꾸지 아니하고, “취”, “말았다” 等으로 表記한다.

第 8 章 音 韻

每個의 語音은 互相 聯關된 調音 運動의 複雜한 連鎖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 語音 自體의 形成 方式에 依하여서만 制約되는 것이 아니라, 隣接된 語音 要素와의 互相 關係에 依하여서도 規定되는 것임은 이미 第4章 “字母와 音價”, 第7章 “語音의 結合的 變化” 에서 본 바와 같다. 이리하여 우리가 物理-音響學的 觀點으로부터 본다면, 每個의 言語에는 語音의 無限한 多樣性이 存在한다. 그렇나, 어떠한 言語의 語音 體系에 關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가 가지는 語音의 無限한 多樣性을 바로 그 語音에 特徵的인 大略 三四十 個의 語音 가운데 概括하는 것이 보통이다.

每個의 言語에서 發現되는 語音 變異의 無限한 多樣性과 그 言語體系의 構成 要素로서의 語音數의 嚴格한 制約性과의 사이에, 이리하여 어떠한 矛盾이 있는 듯이 보이나, 이것을 說明하

기 위하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言語交際의 過程에서 每個의 語音이 어떠한 役割을 맡아 보았는가? 이러한 觀點에서 語音의 現象을 관찰하여야 한다.

예를 가령, “불”이란 語를 例로 들자면, 우리는 이 語를 여러 가지 語調로 — 크게 또는 작게, 빠르게 또는 느리게 發音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이란 語를 調音器官의 形狀을 여러 가지로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 即, “ㅂ”의 兩脣 破裂度를, “ㄷ”의 口腔 開放度를, “ㄹ”의 舌端 閉鎖度를 사람마다 또는 같은 사람이라도 그 순간마다 다르게 發音할 수 있으며, 實地 그렇게 發音하고 있다. 그렇나, 이 모든 音이 그같이 變動하더라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모두가 同一한 語義를 認識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火”란 意味를 把握할 수 있다.

그렇나, 萬一 우리가 “불”의 “ㅂ”를 “ㄱ”로 바꾼다면, “불”과는 全然 다른 意味의 “플”이란 語를 얻게 되고, 또다시 “ㅂ”를 “ㅃ”로 바꾼다면, 이번에 또 새롭고 “뵘”을 얻게 된다. 即, “ㅂ—ㄱ—ㅃ”의 音의 差異는 “불”이란 語를 發音할 때, 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ㅂ”音의 變動과는 다름, 明確한 意味上的 差異, 即 語의 分化에 커다랗고 役割을 한다. 그렇나, 이러한 “ㅂ—ㄱ—ㅃ”와 같은 “平音—帶氣音—濃音”의 差異는 다른 言語 — 例를 들면 러시아語에는 存在하지 않고, 그 대신 그곳에서는 “有聲音—無聲音” “硬音—軟音”의 差異가 語의 分化에 重要한 役割을 한다. 即, 20M (집) — TOM (冊 次 卷), ГОРОДАТ

다로써 말한다. 三人稱, 單數, 現在) — ГОВОРИТ (말하다: 不定形)의 對立에서 各語中の 聲 韻이 有聲音인가 無聲音인가 硬音인가 軟音인가 하는 것은 語義 意味에 커다랗나 差異를 가져서 온다. 따라서, 朝鮮語에서 “물”을 發音할 때, “日”을 비록 有聲音的으로 發音하더라도 語와 意味에 別다른 混亂을 가지어 오지 않으나, “물”을 濁 聲에 잘못 發音하면 “물”이라 發音하면, 意味上 커다랗나 混亂을 가지어 오게 되며, 러시아語에서 “говорит”을 發音할 때 “Г”를 비록 帶氣音的으로 發音하더라도 語의 意味에 別다른 混亂을 가져 오지 않으나, 이를 濁 聲에 잘못 發音으로 “говорить”라 發音하면 意味上 甚지 많은 混亂을 가지어 오게 된다.

以上으로써 우리는 朝鮮語와 러시아語에서는 語의 意味를 分化하기 위하여, 全然 다른 調音이 利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 수 있으며, 이 事實은 語音 現象에서도 一定한 社會的 制約性이 存在하여, 語音이 人間의 互相 交際라는 一定한 社會的 目的의 實現을 위하여 利用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어 준다. 따라서 한 語彙의 使用者는 그 言語에 있어 傳達되는 意味의 區別에 必要한 限의 示差的 標識의 總體만을 가리키어 내게 되며, 이와 같이 意味의 區別을 위하여 단지 一定한 數의 語音만이 利用되게 되면, 이들 語音 사이의 差異만이 그 言語 使用者들에 의하여 意識하게 된다. 그렇므로, 實地의 發音上에 存在하며, 때로는 生理的으로도 不可避하더라도 同一한 言語 集團의 成員 사이의 交際의 目的을 위하여

第 1 篇 語 音 論

意識的으로는)利用되지 않는(그리한 語音 자어의 나머지 差異는 言語 意識의 範圍 밖에 남아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군물”의 “물”에서는 “ㅂ”가 有聲的으로 發音되며, “물꽃”의 “ㅂ”와는 差異가 있으나, 有聲음과 無聲음의 對立은 朝鮮語에서 語의 意味 分化上 아무런 役割도 하지 않으므로 朝鮮 사람의 言語 意識에서는 “군물”의 “물”과 “물꽃”의 “물”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辨 別 必要도 없다.

이러하여, 言語音은 비단 物理 生理學的 現象으로, 다시 말하면 發音器官의 一定한 調音의 結果로만 高찰될 것이 아니라, 또한 社會的 現象으로서, 言語의 有意味的 要素, 即 思惟 表現의 手段 및 交際의 道具로서 반드시 高찰되어야 한다. 이 後者의 意味에서 言語音은 音韻이라 부르게 된다. 이 音韻이란 用語로서 우러는 한 言語에서 語와 形態를 區別하는 데 所用되는 音 또는 音의 紐帶를 가리킨다. 每個 言語에서 音韻을 가리여 내는 것은 音韻 互相間의 對立에 依하여 可能하며, 이는 또한 個別的 語(意味上 서로 다른) 및 그 形態의 語音上의 類似點과 差異點의 對立에 依하여 可能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갈, 걸, 골, 굴, 갈, 철” 또는 “감, 남, 담, 밤, 삼, 잠, 참, 탐” 등의 語를 對立시키므로써, 우리는 이들 語의 意味를 分化시키는데 語音 “ㄱ, ㅋ, ㆁ, ㄷ, ㅌ, ㅁ, ㅂ, ㅍ, ㅅ, ㅆ, ㅈ, ㅊ”를 가리여 내게 되고, 이 音韻이 朝鮮語에서 個別的 音韻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면 우리는 “덜다”, “덜다”, “덜다”를

對立시키므로써 “ㄷ” “ㄸ” “ㄹ” 의 세 음韻을 가리여 낼 수 있으나, “떨다” 에서는 첫째번 “ㄷ” 와 둘째번 “ㄷ” 가 음韻上으로는 差異가 있으면서도 (둘째번 “ㄷ” 는 첫째번 “ㄷ” 에 比하여 有聲的이다) 이들을 두 개의 음韻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의 음韻 “ㄷ” 의 두 가지 實現으로 본다. 卽후리가 음韻이라 부르는 一般的인 것은 各種 條件에 따라 各種으로 實現되어, 相當히 넓은 語音上의 紐양스가 한 개의 음韻이란 概念 밑에 包括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每個의 言語에 있어, 말하자면 두 가지 種類의 語音を 設定할 수 있어, 그 中 하나는 語와 語의 文法的 形態를 그 意味의 點에서 區別할 能力을 가지나 點에서 特徵 장르 수 있다. 이러한 音들은 한 言語의 構造 內에서 獨立的인 要素 卽, 음韻으로 看做하게 된다. 또 한 種類의 語音은 그 自體로서는 語를 그 意味의 點에서 區別할 能力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語音, 卽 그 自體 音韻의 紐양스로 나뉘나, 단지 發音上의 條件에 依하여서만 區別되는 音들은, 보통 그 言語 使用者에 依하여 個別的 音韻으로 意識되지 않아, 이들을 音韻의 變異라고 부른다. 또한 發音上의 條件을 位置라고 부르, 이 位置에 강한 位置와 弱한 位置를 區別할 수 있다.

강한 位置란, 音韻 및 그 對立의 出現을 妨害하지 않는 安定한 位置를 말하며, 弱한 位置란, 音韻 및 그 對立의 出現을 妨害하는 不安定한 位置를 말한다. 音韻의 變異란 결국 弱한 位置에서

의 音韻의 出現이다. 各聲 音韻 “ㄱ” “ㅋ”, “기” 는 各기 頭
 음에서는 (例: “굴”, “칼”, “꽃”) 音韻 및 그 對立이 뚜렷이 나
 타나나 (따라서 頭음은 강한 位置다). 末音에서는 (例: “박” “부
 영” “밖”) 音韻 및 그 對立의 出現이 妨害되어 서로 다 同一하
 음으로 되어 버린다. (따라서 末音은 弱한 位置다)

以上으로써 우리는 音韻의 概念이 한 言語에 있어, 그 語音 組
 織과 形態 構造와를 統一的으로 把握시키는 重要한 契機임을 알
 리 수 있다. 即, 音韻은 語音의 知覺的 機能에 根據하여 感官 知
 覺의 對象이 되는만큼, 語音 組織의 基礎가 되는 同時, 語音의 意義
 的 機能에 根據하여, 語와 語의 文法的 形態를 그 意味의 點에서
 區別할 能力이 있으니만큼, 形態 構造의 單位로도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한 言語의 語音 組織과 形態 構造를 統一的으로 解
 明하기 爲하여는 그 音韻 體系의 正確한 發見이 必要하며, 特히 이
 音韻 體系의 發見은 그 言語의 文字 組織과 가장 緊密한 關係를
 가지나다. 每個의 言語에 있어 文字는 物理·音響學的 觀點으로
 무리 본 語音 變異의 無限한 多樣性에 對應할 것이 아니라 그 言
 語 體系의 構成 單位로서의 音韻에 對應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대개의 言語에 있어서는, 文字의 數가 音韻의 數보다 적어
 그 言語의 語音 組織과 形態 構造에 符合하지 못하나, 朝鮮語의
 文字는 特히 이변 세종의 文字 여섯 字를 加함 으로 말미암아, 그
 音韻 體系와 完全히 符合하게 된다. 例를 들면 “굽다” (曲) 와
 “굽다” (燒) 의 語幹 “굽” 과 “굽” 은 弱한 位置——無聲子音의

規則의 總體를 正則 發音法이라 한다.

規則的인 一定한 發音法을 制定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互相 理解의 可能性이 더욱 增大하고, 互相 交際가 더욱 容易하게 된다. 따라서 라디오 放送, 演劇, 演壇, 學校 등에서 正則 發音法이 커다란 意義를 가지게 되며, 學生들에게 正確한 發音法으로 敎養 주는 問題는, 學校와 教育者들의 重要한 課業으로 된다.

“등교” [들교]를 [들교]로, “등으니” [느르니]를 [드드 더]로 發音한다든가, “의학” ([醫學])을 [이학], “변소” ([便所])를 [전소]로 發音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正確한 發音法이 아니다. 또한 “먹아다”를 [멕이다], “아비”를 [애비] 등으로 發音하는 것도 반드시 피하여야 할 發音法이다.

朝鮮 文字는 精密한 表音文字임으로, 綴字法에 依하여 表記된 대로 發音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으나 漢字語에 있어 語頭に 오는 “나, 너, 노, 누, 니”는 [야, 여, 요, 유, 이]로, “라, 띠, 리, 로, 료, 루, 류, 르, 리, 래, 레, 뢰”는 [나, 야, 여, 노, 요, 누, 유, 느, 이, 네, 예, 뇌]로 發音하며, “ㄷ, ㄹ”로 끝난 말 아래에 從屬的 關係를 가진 “이”나 “히”가 올 때에는 그 “ㄷ, ㄹ”가 口蓋音化하여 “ㅈ, ㅊ”에 가깝게 發音하는 것이 (“굳이”를 [구지], “같이”를 [가치], “같하다”를 [거치다]에 가깝게) 認定되어 있다.

[ㄹ]의 發音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ㄴ], [ㄷ], [ㅈ], [오]가 오면, 默음이 되며, 이 以外の 音이 오면 發音된다.

따라서 “멀니 걸”은 [머-니-걸], “멀비니다”는 [머-비니다], “멀
십니다”는 [머-십니다], “멀오”는 [머-오] 로發音되나. “멀지 않
다”, “멀다”는 [머-지안타], [머-다] 로發音되어서는 안된다.

發音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表記된 字樣에만 依存할 것이 아
니라, 그 意味로부터 出發하여야 하며, 반드시 高低, 長短 等도
適當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은 [올과른] 이 아니라,
“올바른” 으로, “잠니”는 [저-니], “잠비?”는 [잠비?] 로
각각發音하여야 한다.

漢字音에는 틀리기 쉬운 例가 많다. 疑心스런 경우에는
반드시 辭典을 찾아, 이에 依據하여야 한다.

漢字에는 두 가지의 音을 가지는 字가 있다. 이것은 每個
의 單語마다 綴字法과 發音法이 規定되어 있으므로, 이에 좃아야
한다. 그 規定의 一部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기 (怒氣)	대노 (大怒)
당분 (糖分)	사탕 (砂糖)
목재 (木材)	호과 (木瓜)
서장 (書狀)	상태 (狀態)
십일 (十日)	시월 (十月)
육일 (六日)	유월 (六月)
승강 (昇降)	항복 (降伏)
승낙 (承諾)	허락 (許諾)

“丩”字는 本音은 [불] 이나 다음에 “스, 디”를 頭音으로

第 1 章 語 音 論

하는 자가 올 적에는 [부]로 읽는다.

부당 (不當)

부적당 (不適當)

부동산 (不動產)

부족 (不足)

부득불 (不得不)

부지불식 (不知不識)

漢字語 아닌 경우도 合成語로 되면서 그 發音이 다락지여, 變
字法도 이에 따라 規定된 例가 있다.

개 — 수캐, 암캐

벌 — 수벌, 암벌

닭 — 수닭, 암닭

닭 — 안닭

發音上의 規範은 語彙, 文法上의 規範과 마찬가지로 時間과
함께 變化한다. 多數가 服從하는 規範에서 少數가 離脫하는 것
으로부터 모든 改新이 發生하나, 이때 少數의 離脫이 言語 發達
의 一般的 傾向, 體系의 一貫性들을 滿足시키면 社會 一般의 承
認을 받아, 多數가 이 새롭고 있는 것을 採擇하고, 少數만이 낡은 것을
保存 하게 된다. 이곳에 發音上의 量的 變化가 質的 變化로 變
換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過去에 本音으로 認定되던 “가인”(個人), “함위”
(含淚), “부부”(父母), “인쇄”(印刷) 등이, 오늘날에 와
서는 그릇된 音으로 認定되는 것과 같다.

現在 漢字音에 있어 “계”(“界”等), “례”(“禮”等) “혜”
 (“惠”等), “희”(“希”等) 등의 音은 [계], [례], [희], [히]
에 壓倒 當하고 있는 中이며, 이와 反對로 [하], [나]로 始作되
는 音은 語頭에서도 發音되는 傾向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第 2 篇 形 態 論

第 1 部 語의 構成과 그 表記

第 1 章 語의 構成

第 1 節 語의 文法的 單位

意味의 面에서 볼 때, 許多한 語는 몇 개의 部分으로 分割될 수 있으며, 그 每個의 部分은 一定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이제 “그 사람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의 “저울질을” 이란 語에 表現된 意味를 살피어 보면, 그곳에 세 개의 部分이 있음을 알리 수 있다.

1. 저울-의 部分은 個別的 概念에 對應하는 實在的, 對象的 意味를 表現하고, 그 個別的 概念은 또 다시 現實에 있어, 個別的 事物 또는 個別的 現象에 對應한다. —이것은 實質的 意味다.

2. -질-의 部分은 獨立的으로는 생각할 수 없으나, 그가 同伴하는 實質的 意味를 限定하고, 精密化하는 標識의 意味를 表

現한다. — 이것은 派生的 意味다.

3. —을의 部分은 事物과 概念의 標識이 되지 못하고, 단지 語와 語 사이 (正確히 말하면 文章成分과 文章成分 사이) 에, 말하는 사람과 그의 言語 行爲사이에, 設定된 關係를 나타내는 抽象的 意味를 表現한다. — 이것은 關係的 意味다.

派生的 意味는 實質的 意味와 結合하여 語의 派生을 이루고 (저을→저을걸), 語彙的 意味의 한 部分으로 된다. (저을이 한 개의 語彙的 意味이고, 저을걸도 비록 派生的인 것으로서 저을에 連結되어 있으나, 또한 한 개의 語彙的 意味다.)

派生的 意味와 關係的 意味는 이를 합하여 文法的 意味라 하며, 實質的 意味에 對立시킨다.

以上の 여러 意味 사이의 互相 關係를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語彙的 意味	{	(質 質 的 意 味 (저 을)	}	文 法 的 意 味 (걸 을)
(저 을)		(派 生 的 意 味 (걸)		
(저 을 걸)		關 係 的 意 味 (을)		

實質的 意味, 派生的 意味, 關係的 意味는 그 意味를 破壞하지 않고는 그 以上 더 分割할 수 없다. 意味를 가진 最小의 單位, 다시 말하면, 그 言語를 使用하는 사람의 意識에 비추어 一定한 意味의 擔當者로서 分割될 수 있는 語音 連續體 中の 最小의 單位를 形態部라 한다.

第 1 章 語 의 成

實質的 意味을 나타내는 形態部를 語根, 文法的 意味을 나타내는 形態部를 接辭라 한다.

(저는 語根, 질과 을은 接辭다.)

各種의 派生的 意味을 나타내는 接辭를 語詞 造成의 接辭(질), 各種의 關係的 意味을 나타내는 接辭를 形態 造成의 接辭(을)라 한다.

語根의 앞에 붙는 接辭를 接頭辭, 語根의 뒤에 붙는 接辭를 接後辭라 한다. (“꽃잎사귀로” 에 있어 꽃은 接頭辭; 잎은 語根, 사귀와 로는 接後辭다.)

朝鮮語에 있어 接頭辭는 언제나 語詞 造成의 接辭이며, 接後辭는 語詞 造成의 接辭일 수도 있고, 形態 造成의 接辭일 수도 있다. 接後辭에 있어 語詞 造成의 接後辭를 接尾辭, 形態 造成의 接後辭를 트라 하며, 語에서 트를 除外한 部分을 全體로 語幹이라 한다.

以上の 여러 概念을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72페이지 參照) -

“여름에”, “온여름을”, “여름당다”와 같이, 互相 連結되어 形成된 語들을 同族語라 한다. 語根은 同族語에서 共通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最小의 實質的 意味로 된다. 따라서 語根은 그 語의 語源과는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는다.

語幹은 단 한 개의 語根으로써만 成立될 수도 있고(여름에), 語根 外에 接頭辭, 接尾辭를 包含할 수도 있다 (온여름을, 헛것을). 前者를 單純語幹, 後者를 派生語幹이라고 한다.

語		幹		로
接頭辭	語 根	接尾辭		
語 詞 造 成		語 詞 造 成		形 態 造 成
派生的意味	實 質 的 意 味	派生的意味		關 係 的 意 味
	저 울	질		을
뜻	앞	사 귀		로
은	여 름 여 름 여 름	당		에 을 다
것	밥 밥	기		가 것 다
헛	것 것 것	기 음		으 는 지 을 고

第 2 節 語 的 文 法 的 形 態

一 定 的 語 彙 的 意 味 를 지 너 ㄴ 同 族 語 가 운 데 서, 한 語 의 文 法 的 形 態 를 가 리 여 내 는 것 이 必 要 하 다.

語 의 文 法 的 形 態 란, 한 語 에 서 단 지 關 係 的 意 味 (로) 에 依

第1章 語의 構成

하여서만 서로 區別되는 各種 形態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름-이, 어름-의, 어름-에는 文에서 名詞가 맡은 役割을 가리키는 各種 形態이며,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는 動詞의 時稱을 가리키는 各種 形態다.

每個의 語의 關係的 意味를 알기 爲하여는, 이를 同一한 語의 다른 形態와 對照하여 보면 된다. 어름이, 어름의, 어름에 를 서로 對照함으로써, 이, 의, 에가 각기 關係的 意味를 나타내는 토이며, 그들이 각기 主格토, 屬格토, 位格트임을 알리 수 있다. 또한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를 서로 對照함으로써 -는다, -었다, -겠다가 關係的 意味를 나타내는 토이며, 그들이 각기 現在形, 過去形, 未來形을 나타내는 토임을 알리 수 있다.

따라서 同族語들은 그 語彙的 意味에 依하여 서로 區別되며, 한 語의 文法的 形態는 단지 토에 依하여서만 서로 區別된다.

때로는 語幹에 토가 없을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밥 먹어라.”에 있어서 “밥”에 토가 없다. 그렇나, 이 때 “밥”에는 토가 없다고 하지 않고, 제로(零)토가 있다고 말한다.

[附記] 語의 概念에 關하여 從來, 體言이나 用言의 語幹과 토를 따로 따로 獨立한 語로 보거나, 또는 體言에 있어서는 語幹, 用言에 있어서는 語幹+토를 한 語로 보고, 體言의 토만을 獨立한 語로 보는 見解가 있었다. 그렇나 言語 行爲의 基本的 單位인 文으로부터 出發할 때, 한 語라 하면 반드시

語幹에 토까지 붙은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體言에 있어서나, 用言에 있어서나 區別이 없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 간다”에 있어, 語는 아이가, 학교에, 간다의 셋이며, 아이가는 다시 語幹 아이와 토가, 학교에는 語幹 학교와 토에, 간다는 語幹 가와 토 다르. 分辭할 수 있다. 卽 言語를 個別的 形態部의 累積으로 볼 것이 아니라, 文으로부터 出發하여, 이를 科學的으로 反省할 때, 비로소 처음 形態部로 分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用言의 경우는 勿論, 體言의 경우도 아이가, 학교에와 같이 토까지 붙은 것을 한 語로 보며, 토가 없는 경우에는 제로(零) 토가 있는 것으로 본다.

辭典等에서는 體言의 경우에는 제로토의 붙은 語形을(안, 이, 학교), 用言의 경우에는 語幹에 不定形 르 “다”가 붙은 語形(간다)을 각기 語彙의 題目으로 看做하여, 排列 說明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第 2 章 朝鮮語 接辭法의 特性

文法的 意味는 各種의 文法的 手法에 依하여 表現된다. 文法的 手法이란, 文法的 意味를 表現하는 資料的 手段을 말하며, 朝鮮語에서 使用되는 文法的 手法이 여럿 있는 中, 接辭法의 手法이 그 基本的인 것으로 되어 있다.

接辭法이란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語根에 接辭를 加添하여 文法的 意味를 나타내는 手法이다. 이 手法은 여러 語類에

너의 使用되어 있으나, 그곳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傾向을 區別할 수 있다. 即 一般的으로 屈折語에 使用되는 融合의 手法과 一般的으로 膠着語에 使用되는 膠着의 手法이다.

朝鮮語에서는 主로 膠着의 手法이 使用되어 있는바, 이를 屈折語에 있어서의 融合의 手法에 比하면, 原則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差異點이 있다.

1. 屈折語에 있어서는 語根의 形態가 變化할 수 있으나, 膠着語에 있어서는 語根의 形態가 變化하지 않는다.

2. 屈折語에 있어서는 한 개의 接辭가 同時에 여러 文法的 意味를 表現할 수 있으나, 膠着語에서는 每個의 接辭가 단지 한 意味만을 表現한다.

3. 屈折語에 있어서는 接辭의 規格이 一定하지 않아, 同一한 文法的 意味를 表現하기 爲하여 여러 가지의 接辭가 使用되나, 膠着語에 있어서는 一定한 文法的 意味를 表現하기 爲하여는 언제나 同一한 接辭가 使用된다.

4. 屈折語에 있어서는 接辭가 語根에 融合되어 있기 때문에, 語根이 接辭 없이 使用되는 일이 드물나, 膠着語에 있어서는 接辭가 語根에 膠着(加添)되어 있기 때문에 接辭 없이도 獨立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朝鮮語에 있어서는 每個의 形態部(語根, 接頭辭, 接尾辭, 트)의 境界가 극히 鮮明하여, 이로 인하여 朝鮮語 綴字法에 있어서는, 形態部の 固定的 表記가 다른 어떠한 言語에 있어서

모다 圓滿히 實行될 수 있다.

第 3 章 朝鮮語 綴字法의 基本 原則

綴字法이란, 한 言語를 自己의 文字로 表記할 때, 遵守하여야 할 規則의 總體다. 一定한 綴字法이 있어야, 비로소 한 民族의 言語와 그 表記法이 統一될 수 있으며, 言語와 그 表記法이 統一되어야,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眞正한 互相交際가 可能하게 된다.

“사라미”, “살아미”, “사람이” 등의 可能한 表記法中 “사람이”만이 옳은 것으로 認定되며, 똑 같이 發音되는 “입”과 “잇”, “벗다”와 “빚다”가 區別되어 表記되는 것도 一定한 綴字法上의 規則에 依하는 것이다.

綴字法에는 表音主義, 形態主義 및 歷史主義의 세 原則이 있다.

表音主義 綴字法에 있어서는 每個의 文字는 대체로 字母表에서 配定된 音價를 保有하고, 現代語에서 實地 發音되는 대로 表記하며, 表記되는 대로 發音할 것을 主張한다. 朝鮮語 綴字法에서 例를 찾는다면, 部分的인 경우, “許諾”을 “허락”으로, “會寧”을 “회명”으로 表記하는 것, 같은 “糖”字를 包含한 “糖分”과 “砂糖”을 “당분”과 “사탕”으로, 같은 “降”字를 包含한 “降服”과 “昇降”을 “황복”과 “승강”으로 區別하여 表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形態主義 綴字法에 있어서는 語 또는 語의 部分(形態部)이 어떠한 位置에서나 同一하게 表記되어, 때로는 반드시 發音과 嚴密히 一致하지 않더라도, 다른 모든 경우에 그 語나 語의 部分(形

態部)이 表記되는 것과 똑 같이 表記된다. 朝鮮語 綴字法에서 “갈다, 갈아, 같이”의 “ㄷ”의 部分이 實地로는 제각기 다의 發音됨에도 不拘하고, “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갈”의 部分이 언제나 同一하게 表記되며, “업다” (負), “엷다” (覆), “없다” (無)가 다 같이 [업다]로 發音됨에도 不拘하고, 이를 다 “업다”로 表記하지 않고 母音로, 가령 “어”로가 다음에 올 적에 [어버], [어퍼], [업서]로 發音되는 것을 考慮하여, 語幹과 토가 어떠한 位置에서나 同一하게 나타나도록, “업-”, “엷-”, “없-”의 形態를 固定하고, “-다”, “-어”, “-으니” 등의 形態를 固定하는 것은 形態主義에 依據한 綴字法이다.

歷史主義 綴字法에 있어서는 오늘날 살아 있는 言語의 實際 發音이나 文法的 形態와는 關係 없이 過去 歷史 上에서 表記된 方式이 그대로 追從된다. 朝鮮語 綴字法에서 例를 찾는다면, 部分的인 경우, 實地에는 [ㄷ]로 發音되면서도 “스”로 表記되는 “햇웃, 무릇, 차컷하면” 中の “햇, 룯, 컷” 등을 들 수 있다. 이 歷史主義는 一名 語源主義라고도 하는바, 이는 그 語의 推定되는 語源의 原形을 表記 上에 明示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以上の 綴字法의 諸原則 中, 每個 言語는 그가 가진 個別的 特性에 따라, 依據한 原則 및 原則들의 配合이 각기 다르다. 例를 들면 로씨야語에서는 基本的으로 形態主義가 遵守되어 있으며, 英語, 佛蘭西語 等에서는 歷史主義 綴字法이 主導的이다.

朝鮮語 綴字法에서는 朝鮮語文 研究會 “朝鮮語 新綴字法”

(1948. 平壤) 總論 中 第 1 項에

1. 朝鮮語綴字法은 現代 朝鮮 人民의 言語 意識 가운데
에 共通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을 一定한 形態로 表記함으로
써 原則을 삼는다.

라고 規定되어 있는 마와 같이, 基本的으로 形態主義 原則에
依據하고 있다.

그렇면, 어찌하여 朝鮮語綴字法에서 形態主義의 原則이 採擇
되어 있는 것일까

먼저 歷史主義綴字法은 그가 오랜 因襲과 傳統의 產物인 만
들, 綴字法이 이미 牢固하게 固定된 言語에서는 別問題로 치녀 따
도, 이제로부터 眞正한 意味에서 세특이 綴字法이 制定되는 朝鮮語
에 있어서는, 到底히 그 基本 原則으로 될 수 없음은 自明의 理다.

다음 表音主義綴字法은 現代語에서 實地 發音되는 대로 表
記하며, 表記되는 대로 發音할 것을 主張하는 만큼, 첫번 보가
에는, 가장 簡便하고, 가장 適當한 것 같이 생각된다. 그렇나仔
細히 살펴보면, 이 綴字法에는 重大한 缺陷이 있다.

첫째, 이 綴字法은 言語——乃至 文字——의 本質을 忘却하고
있다. 言語가 人間의 社會的 實踐의 面에서 發生한 人間 交際의
가장 重要한 手段이며, 聽覺 또는 視覺으로 知覺할 수 있는 그 記號
가운데에 人間의 社會的 意識의 內容이 表現되는 만큼, 다시 말하
면, 人間의 言語와 思惟가 緊密한 統一體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
를 單純한 音響으로 볼 것이 아니라, 思惟 그 自體, 그것도 단 語

나의 思想가 아니라 思想 交替, 世界觀 交替의 階級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思想 傳達, 意思 表示라는 重要な 使命과는 無關係하게, 단지 無意味한 連發音만을 模寫하려는 表音主義 綴字法은 言語——乃至 文字——의 本質과 背馳되는 것이다.

물론, 이 綴字法은 自己의 原則에 忠實하려 할 경우, 矛盾에 陷이지 않을 수 없다. 表音主義 綴字法은 表音文字이면 음 表音主義를 採擇하여야 한다거나, 表音文字이면 곧 모든 음을 表示할 수 있다는 素朴한 信仰에 依據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의 語音은 決코 幾三十 個의 每個 文字 組織이 보아서 주는 바와 같은 그러한 單純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普通의 文字로서는 無數한 人間의 語音을 嚴密히 表示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字母와 音價”(第 1 篇 第 4 章)에서 본 바와 같이, 文字란 絕對로 唯一한 音價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位置에 따라 前後의 音의 性質에 따라 다른 音價를 가지는 까닭이다. 一例로 “가치”(價値), “원기”(元氣), “원가”(原價), “학년”(學年), “입학”(入學) 등의 語에 있어 每個의 “가”字가 가지는 音價를 比較하여 보더라도, 한 글자 一자의 音價가 얼마나 多彫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 또 한편 한 音을 表示하는 데도, 文字는 여러 種類 있을 수 있다. 內破의 [ㄱ] 音을 表示하는 데 “ㄱ, ㅋ, ㆁ, ㆁ”의 네 가지 文字가 (속, 쿠엣, 밖, 넝), 內破의 [ㄷ] 音을 表示하는 데 “ㄷ, ㅌ, ㅌ, ㅌ, ㅌ, ㅌ, ㅌ”의 일곱 가지 文字가 (곧, 밭, 밖, 있다, 것다, 밖, 꽃) 使用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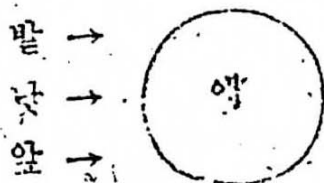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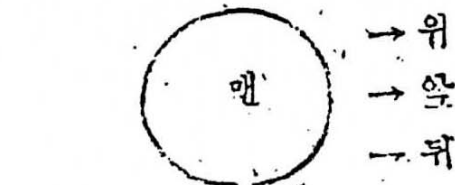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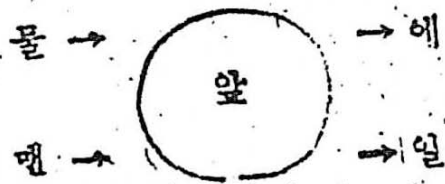
있다. 卽 綴字法에 있어서 一字一音, 一音一字主義는 到底히 成立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形態主義 綴字法은 人間의 思想 傳達, 意思表示 라는 言語의 本質的 使命으로부터 出發하며, 文字의 가치는 表音性과 表意性의 統一的 性格에 對한 省察로부터 出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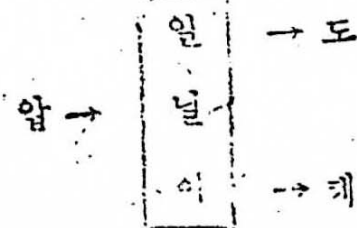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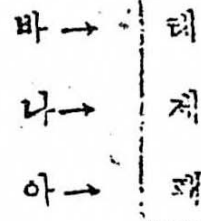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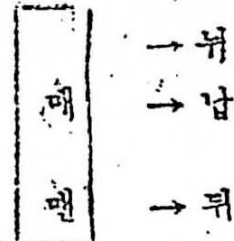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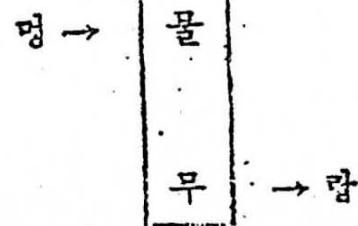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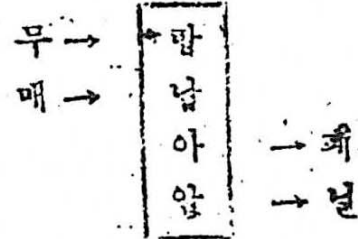
形態主義 綴字法은 그 表記의 單位로써 意味와 偶然的 關係밖에 가지지 않는 個別的 語音이나 音節을 그 表記의 單位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개”에 있어 單音節 “이”와 單音節 “개”가 意味를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이”와 “개”가 각기 形態部인 까닭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 있어서는 單音節은 아무 意味도 가지지 않고, 形態部를 이루는 二音節語 “여러”, “사람”이 비로소 意味를 가지게 된다), 言語에 있어 意味의 單位로 되는 形態部 (接頭辭, 語根, 接尾辭, 토)를 그 表記의 基礎로 삼고 있다. 더구나 朝鮮語의 경우, 이미 朝鮮語 接辭法의 特性에서 본 바와 같이 每個의 形態部の 境界가 鮮明하기 때문에, 形態部를 表記의 單位로 삼는 것은 極히 自然스런 일이다.

이제 形態主義에 따라 적은 “물앞”, “맨앞”, “앞에”, “앞’일”과 表音主義에 따라 적은 “무랍”, “매납”, “아폐”, “압닐”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形態主義 綴字法



表音主義 綴字法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形態主義 綴字法은 形態部를 그 表記의 位로 삼기 때문에, 語가 가지는 造語上의 生産性, 다시 말하면, 同族語 사이의 濼刺한 聯關性에 그 基礎를 두어, 每個의 語의 意味

第 9 篇 形 態 論 第 1 部

把漢의 語詞 造成에 커다랄니 便益을 준다. 이에 比하여 表音主義 綴字法은 表記의 基礎를 意味의 單位인 形態部에 두지 않고, 每詞의 語 또는 合成語에 두기 때문에 同族語, 자이의 互相 關連性은 阻害되고, 意味의 直觀的 把握은 考慮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形態主義 綴字法은 다음과 같은 優點을 가진다.

1. 讀覽者의 理解를 容易하게 하여, 그 能率을 提高시킨다.
2. 同音異義語를 表記 上에서 避할 수 있게 한다. 例: 입(口), 잎(葉); 벗다(脫), 벌다(蔓); 역사(歷史), 력사(歷史); 련금(鍊金), 년금(年金), 연금(捐金)
3. 新語의 造成과 理解에 便利하다. 例: 울바른(울+바른)
4. 民族語의 完全한 統一을 促進시킨다.

萬若, 形態主義 原則에 좇아, 人間의 意思 傳達과 形態部의 固定的 表記란을 要求한다면, 가장 優秀한 文字는 中國 漢字와 같은 表意文字일 것이며 (漢字의 하나 하나는 個別的으로 意味를 가지는 形態部다), 實地 이러한 點에 表意文字의 優點이 存在한다. 그러나, 言語는 또한 반드시 聲音을 通하여 知覺되는 것이기 때문에 文字도 단지 意味뿐만 아니라, 聲音의 面도 表示하여야 할 能力이 있어야 한다. 即 文字는 表意性과 함께 表音性도 가지여야 한다. 그러한 表音性이 缺如되어 있는 點에 漢字의 커다랄니 缺陷이 있는 것이다. 漢字의 構成法 中の 하나인 形聲의 方法 (漢字에 表音性을 주는 方法) 이 다른 方法보다 뛰듯게 考案되어 가장 녀의

至文字의 本質에 對한 透徹한 理解, 그리고 果敢한 改革的 精神 이것 없이는 到底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後 1921 年에 誕生하여 1931 年에 再組織된 朝鮮語 學會는 1933 年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發表하여, 朝鮮語 綴字法에 關하여 全般的이며 體系的인 規定을 制定하였다. 그 基本 原則은 周時經 先生의 形態主義의 思想을 繼承한 것으로 받치口 18 個(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를 새로 쓰게 하고, 語詞에 있어서의 語幹과 托를 區別하여 적으며, 漢字語 表記에 있어서 歷史主義 綴字法(기, 주, 자, 터) 등을 廢止하였다. 이로써 朝鮮語 綴字法에 있어 形態主義 原則은 確固하게 그 뿌리를 박게 되고, 朝鮮語文의 統一은 加一層 促進되어, 이 “통일안”이 朝鮮語文 運動史 上에 가지는 意義는 實로 커다란 바가 있었다.

그렇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對하여 우리는 批判을 加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에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缺陷들이 있다.

첫째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그 綴字法의 基本 原則이 무엇인지 明確히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 即 그 規定은 周時經 先生의 思想을 繼承하여 原則적으로 形態主義에 立脚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마지 優先적으로 表音主義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 總論 第1項의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라는 規定에서 明確히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表音文字와 表音主義

를 混同한 것이다.) 또한 形態主義가 마치 語源主義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同族語에서 共通的으로 把握되는 語根을 固定的으로 表示함에 關한 規定인 第 3章 第 6節을 “語源 表示”라고 命名하고 있는 事實에서도 明確히 알리 수 있다.)

둘째로, 그 基本 原則이 形態主義임에도 不拘하고 重要한 條項에서 表音主義에 倣하여 버리었다. 卽 漢字音의 表記에 있어 頭音 “ㄹ, ㄴ”의 處理를 表音主義에 倣하여 잘못 規定하였으며, (漢字는 한자 한자가 形態部를 이룸으로 語中 語末에서 “ㄹ, ㄴ” 음이 나면 이를 表記의 單位로 삼아, 그 形態를 語中이나 語末에서와 같이 語頭에서도 固定的으로 表示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語頭에 오는 경우는, 語中 語末에 오는 경우와 差別하여 規定하였다.) 用言의 表記에 있어 言語 現實에는 存在하지도 않는 許多한 變格 用言을 設定하였다. 이것은 朝鮮語의 形態論的 構造에 對한 徹底한 理解와 言語에 있어서의 形態論과 語音論의 互相 聯關性에 對한 把握이 不足하며, 오늘날 朝鮮語文 運動이 處한 歷史的 段階를 옳게 理解하기 보다는, 民族語가 이미 完全히 統一되고, 綴字法이 固定된 外國의 경우에 追尾盲從하여 外國에서는 近來 字母數를 增加시키지 않리 없다는 理由 밑에 字母 24 字에 滿足한 狀으로, 그곳에는 아무런 前途에의 發展도 豫見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周時經 先生의 學說를 繼承하면서 이를 더 앞으로 發展시키지 못하고, 단지 部分的인 改良에 그치고 말는 것이다.

解放後, 1947年 北朝鮮 人民 委員會의 決定에 依하여 組織된 朝鮮 語文 研究會는, 民族 共通語의 最後的 完成, 即 朝鮮 語文의 眞正한 統一과 發展을 爲하여 漢字 撤廢와 文字改革을 豫見하는 綴字法의 새로운 制定을 自己의 當面 課業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것을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周 時經 先生의 思想 속에 胚胎 되고 朝鮮語 學會에 依하여 繼承된 綴字法 上의 形態主義 原則을 더 한층 發展시키리 것이 要求되었다. 이 要求에 符合한 것이 數十年 間의 學的 研究에서 完成된 金科奉 先生의 文法 乃至 綴字法 上의 새로운 見解였으며, 이 새로운 見解를 土產로 하여 朝鮮 語文 研究會는 1948年 1月15日 “朝鮮語 新綴字法” 을 發表하여 朝鮮 語文 運動史 上에 또 하나의 飛躍의 발' 자국을 남기게 되었다.

“朝鮮語 新綴字法”은 眞正한 科學的 世界觀에 基礎를 둔 言語 理論으로부터 出發하여 形態論과 語音論과의 互相, 關聯性, 辨音의 面에 對하여 意味의 面이 가지는 優位性 等を 善게 認識하고, 形態主義 原則을 一貫하여 採擇하였다. 그 結果 漢字語 表記에 있어 (頭音 ㄹ, ㄴ의 表記), 合成語의 表記에 있어 (綴音符의 使用), 用言 活規에 있어 (新 文字의 追加), 적지 않은 變動을 從來의 綴字法에 加하여 왔으나, 이는 臆지 않은 將來의 漢字 撤廢와 文字改革을 앞두고, 朝鮮 語文의 統一과 發展을 爲하여 반드시 改訂해야 할 綴字法 上의 改正이며, 이것 없이는 朝鮮 民族이 根本이 優秀한 自己의 文字를 가지고도, 그 眞價를 充分히 發揮할 수 없는 것이다.

第 4 章 頭音과 그 表記

朝鮮語綴字法 上에 形態主義 原則이 어떻게 實現되어 있는가에 關하여는 이 文法의 全面에 걸쳐서 敘述되어 있다.

第 4 章 頭音과 그 表記

頭音의 表記에 있어 綴字法 上 注意할 點은 다음과 같다.

1. 漢字語의 表記에 있어,

1) 語中 語末에서 “나, 녀, 뇨, 뉴, 니”로 發音되는 것은 비록 語頭에서는 “야, 여, 요, 유, 이”로 發音되더라도 그 形態部를 固定시키기 爲하여 어디서나 “나, 녀, 뇨, 뉴, 니”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參考
녀자 (女子)	여자	남녀 (男女)
녕변 (寧邊)	영변	안녕 (安寧)
뇨도 (尿道)	요도	수뇨관(輸尿管)
니토 (泥土)	이토	설니 (雪泥)

2) 語中 語末에서 “라, 띠, 터, 로, 료, 루, 르, 리, 려, 례, 리”로 發音되는 것은, 비록 語頭에서는 “나, 야, 억, 이, 요, 누, 유, 느, 이, 내, 예, 뇌”로 發音되더라도 그 形態部를 固定시키기 爲하여 어디서나 “라, 띠, 터, 로, 료, 루, 르, 리, 려, 례, 리”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第 3 篇 形 態 論 第 I 部

甲	乙	參考
락원 (樂園)	낙원	쾌락 (快樂)
양심 (良心)	양심	개량 (改良)
력사 (歷史)	역사	러려 (履歷)
로동 (勞動)	노동	근로 (勤勞)
료금 (料金)	요금	재료 (材料)
루진 (累進)	누진	련루 (連累)
유자 (類似)	유자	종류 (種類)
릉묘 (陵墓)	능묘	구릉 (丘陵)
리유 (理由)	이유	물리 (物理)
래일 (來日)	내일	미래 (未來)
례의 (禮儀)	예의	의례 (儀禮)
뢰성 (雷聲)	뇌성	우뢰 (雨雷)

따라서 어느 位置에서나 [르]음을 아니 내는 語는 아니 내는 데로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예속 (隸屬)	례속
노예 (奴隸)	노례

2. 外國語의 表記에 있어서 原音에 近似한 音을 表示하기 爲하여 모든 文字를 어느 位置에서나 使用할 수 있다.

例: Ленин (露) 데닌

第 5 章 語中音과 그表記

Washington (米) 워싱턴

and (獨) 폰트

第 5 章 語中音과 그表記

同一한 形態部의 固定的 表記를 爲하여 語中音의 表記上 注意할 點은 다음과 같다.

1) 한 形態部 안의 두 音節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아래 音節의 頭音을 된소리로 적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어깨

엷게

거꾸로

껏구로

깨끗하다

껏긱하다

아끼다

앗기다

이따금

잇다금

어떠하다

엇더하다

으뜸

웃뜸

오빠

움바

부엌

부씩

해쓱하다

햇쓱하다

소쩍새

솏쩍새

여주다

엷주다

어찌

엇지

따라서 두 개의 形態部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音節別로 따
로 적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나다.)

甲

乙

국가 (國家)

구까

벗고 (脫)

버꼬

압박 (壓迫)

아딱

꺾으니 (折)

꺼고니

2) 한 形態部 안의 두 母音 사이에서 나는 舌脣音은 “ㄹ”
로 적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리나다.)

甲

乙

丙

아타다타

알타달타

알낙달낙

다탕다탕

달탕달탕

달낙달낙

거태

갈태

갈내

시룩시룩

실룩실룩

실낙실낙

어른

얼른

얼는

바외

팔리

팔니

오뵈다

울뵈다

울났다

가뵈다

갈뵈다

갈났다

거뵈다

갈뵈다

갈났다

第 6 章 末音과 그表記

누웠다	놀랐다	놀냈다
호렸다	홀렸다	홀냈다
기웠다	길렸다	길냈다

따라서 두 개의 形態部 사이에서 나는 舌側音은 音節別로 따
로 따로 “ㄹ”, “ㄴ”로 적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甲	乙	丙
호로 (獨)	호로	홀노
길로 (道)	기로	길누
돌로 (石)	도로	돌노

第 6 章 末音과 그表記

末音의表記에 있어 綴字法上 注意할點은 다음과 같다.

語末 또는 連發되지 않는 音의 앞에서 內破의 [ㄹ] [ㄷ]
[ㄱ], 舌側音의 [ㄷ] 로 發音되는 語도, 그 語의 形態部를 固定
시키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ㄹ] 로 發音되면서도 “ㄹ, ㄱ, ㅅ, ㅈ”로 적는 例 :

ㄹ — 밥 (밥에, 밥을, 밥상)

업다 [아이들 업다.] (업어, 업으면)

ㄷ — 옆 (옆에, 옆을, 옆집)

옆다 [물그릇을 옆다.] (옆어, 옆으면)

ㅅ — 값 (값에, 값을, 값없다)

第 2 篇 形 態 論 第 1 部

없다 [돈이 없다.] (없어, 없으면)

ㅍ — 믿었다 [사람이 믿었다.] (믿었어, 믿었으면)

2) [ㄷ]로發音되면서도 “ㄷ, ㅌ, ㅍ, ㅍ, ㅍ, ㅍ, ㅍ, ㅍ”

로 적는 例 :

ㄷ — 날 (穀) (날에, 날을, 날알)

 길다 (걸어, 길으면)

ㅌ — 날 (個) (날에, 날을, 날말)

 갈다 (갈아, 갈으면)

ㅍ — 낫 (鏟) (낫에, 낫을, 낫질)

10 ㅍ — 벗다 (벗어, 벗으면)

ㅍ — 있다 (있어, 있으면)

ㅍ — 걷다 (걸어, 걸으면)

ㅍ — 낮 (晝) (낮에, 낮을, 낮잠)

 늦다 (늦어, 늦으면)

ㅍ — 낮 (面) (낮에, 낮을, 낮없다)

 쫓다 (쫓아, 쫓으면)

3) [ㄱ]로發音되면서도 ㄱ, ㅋ, ㆁ, ㆁ로 적는 例 :

ㄱ — 국 (국에, 국을, 국맛)

 막다 (막아, 막으면)

ㅋ — 밖 (밖에, 밖을)

 닭다 (닭아, 닭으면)

ㆁ — 부엌 (부엌에, 부엌을, 부엌문)

第 7 章 語幹과 토

까 - 녀 (녀에, 녀을, 녀없다)

4) [ㄷ]로發音되면서도 "ㄹ"로 적는 例 :

길 (길에, 길을, 길'가)

돌 (돌에, 돌은, 돌다리)

그렇나 [ㄷ]로發音되면서도, 그 原形을 밝히기 수 없는 까닭에 從來의 慣習을 따라 "ㅅ"로 적는 語가 있다. 그 例는 다음과 같다.

결뺏하면

그릇

뒹저고리

부릇

빚나가다

반듯하다

자뭇

빙긋빙긋

엷먹다

엷뻗

웃어른

웃셈

자칫하면

뭇

짓밟다

잘 못하면

찾웃

찾

第 7 章 語幹과 토

言語 行爲에서는 단 하나의 形態部만이 語를 이루는 일은 드물고, 대개는 둘 以上の 形態部가 結合되어 나타난다. 形態部의 結合되는 여러 경우를 살피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語幹 + 語幹

2. 語幹 + 오

3. 接頭辭 + 語根 (語幹 內部에서)

4. 語根 + 接尾辭 ()

5. 토 + 토 (토 內部에서)

이들 形態部의 結合에서 볼 수 있는 形態論的 關係, 또는 文
 章論的 關係는 각기 該當 條項에서 說明하기로 하고, 이곳에는
 特히 1)과 2)에 限하여 그 때 일어나는 語音論的 現象 및 그 表
 記의 問題를 中心으로 叙述하기로 한다.

第1節 語幹 + 語幹

이 때, 1) 語幹과 語幹이 그 사이에 아무런 토도 要求하지
 않고 直接 結合되는 경우와, 2) 語幹과 語幹 사이에 母音 토를
 要求하는 경우가 있다.

1) 直接 結合되는 경우

- 이 경우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體言 + 體言

감나무, 금비녀, 나무'배, 물'새, 밤'새, 밤'낮, 범'나비,
 보리'짚, 손'짓, 집'오리, 주추'돌, 칼'날, 코'등, 할'미꽃.

ㄴ) 體言 + 用言

관'없다, 덕'보다, 맛'나다, 맛'있다, 빛'나다, 성'나다, 손'천
 다, 정'물다, 축'나다, 탐'내다, 혼'내다.

ㄷ) 用言 + 用言

감들다, 겁들다, 굳세다, 들오다, 들보다, 빌들다, 물들
다, 붙잡다, 보살피다, 오가다, 울바르다, 지세다.

2) 用言 + 體言

걸버섯, 전들바람, 더꿨머리, 넓적다리, 목발, 꼬족집.

이와 같이 語幹과 語幹이 直接 結合하여 形成되는 語를 合成
語라 한다. 이러한 合成語의 表記에 있어서는 다음의 네 種類를
區別할 수 있다.

1) 形態部의 原形을 그대로 保存시키는 例:

국그릇, 국말이, 굶주리다, 값없다, 결늬다, 접나다, 꽃
아래, 눈물, 낫보다, 낫잡다, 낫없다, 돌보다, 말딸, 맞
걸, 물오리, 물오르다, 말며누리, 몇날, 맞먹나, 무릎
아래, 밤낮, 밥할이, 밥알, 밥물, 부엌안, 손아귀, 속없
다, 손위, 속웃, 웃속, 앙달다, 웃안, 웃어른, 웃웃, 웃
오르다, 집안, 젓등살, 젓어미, 찹외, 찹없다, 칼날, 팔
알, 홀아비, 홀몸, 홑내, 홑웃.

2) 形態部의 原形을 그대로 保存시키면서도 두 形態部 사이
에 일어나는 特別한 語音 現象을 表示하기 위하여 絶音符, 票를
두는 例 :

1) 두 形態部 사이에서 일어나는 同化防止, 익센트 現象을
表示하기 위하여 둘째번 形態部의 頭音을 된소리로 내는 경우.

기'발, 나무'배, 낚시'데, 나무'군, 논'길, 쥐'간, 등'불,
땀'배'데, 문'간, 물'병, 물'득, 물'가, 발'새, 꼬리'길,

第 2 篇 形 態 論 第 1 部

몸'바담, 손'뽕, 산'불, 이'뽕, 이'새, 움'집, 온'값,
장'군, 초'불, 몽'가루, 코'날, 코'뽕

[附記 1] 動詞 語幹에 “ㄹ” 로가 붙어 名詞와 結合된
경우에도 絶音符를 든다.

물'것, 들'보, 물'것, 물'부리, 굴'네, 물'손, 들'들,
물'숨, 들'장지, 절'부채, 날'짐승, 절'손, 더달'방아,
날'숨, 설'주, 길'짐승

이와 같이 本來 “ㄹ”로 끝나는 用言 語幹에 “ㄹ” 로가 붙은
다음 名詞와 結合하여 完滿한 合成語로 된 경우에 限하여 用
言 語幹의 “ㄹ” 字를 略한다.

例 :

날ㄹ'짐승 → 날'짐승 물ㄹ'것 → 물'것

[附記 2] 漢字語로서 이에 準할 경우에도 絶音符를
들 수 있다.

리'과 (理科)	가'법 (加法)
호'수 (戶數)	서'자 (書字)
상'과 (商科)	감'법 (減法)
권'수 (卷數)	한'자 (漢字)
맹장'염 (盲腸炎)	관절'염 (關節炎)

ii) 둘째번 形態部의 頭音이 “야, 여, 요, 유, 이”인 데
악센트 現象과 함께 口蓋音化한 “ㄴ”, “ㄹ” 소리가 나는 경우.

채'열, 이래'이, 내'앞, 매개'잇, 갖'양, 물'약, 갖'엿.

第7章 語幹과 ㅁ

콩'엿, 담'요, 늦'요강, 편'웃, 밤'웃, 측'있, 논'일, 물'일,
밤'이술, 겹'이불, 웃'임자, 콩'일, 낮'일, 꽃'있, 부엌'일.

ㄷ) 形態部의 結合에 依하여 脫落되는 ㅁ은 이를 表示하지 않는다.

例 :

소나무, 부나비, 부넙기, 따님, 여달이, 다달이, 차들, 마
되, 부잡, 마소, 부손, 짜전, 차조, 바느질, 모자라다, 시절
(十月), 배천 (白川), 모과 (木瓜), 부자유 (不自由).

ㄹ) 形態部의 結合에 依하여 加添되는 ㅁ(된소리 以外의)
은 或은 첫째번 形態部의 末ㅁ으로써, 或은 둘째번 形態部의 頭
ㅁ으로써 表示한다.

i) 뽕쌀, 찹쌀, 좁쌀, 햅쌀.

ii) 머리카락, 수캐, 알캐, 수갸, 안갸, 휘파람.

2) 母音 ㅁ을 要求하는 경우

用言+用言의 경우에 限하여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넘어가다, 물아가다, 들어가다, 걸어가다, 기어가다, 놓아가
다, 쟁어가다, 뛰어가다, 매어치다, 잡아먹다, 얻어먹다.

이 때 要求되는 母音 ㅁ로 “아, 어, 여”의 表記法에는 다음과
같은 母音調和 上의 規則이 있다. (過去形 ㅁ로 “았, 었, 였”도
“아, 어, 여”와 ㅁ 같은 規則에 服從하므로, 이곳에 함께 叙述

第7章 語幹과 토

슬프다	슬피	슬펄다
부르다	부르	부르다
치르다	치르	치렀다

(3) “여”로 적을 경우

지다	지여	지었다
기다	기여	기었다
개다	개여	개었다
배다	배여	배었다
되다	되여	되었다
쉬다	쉬여	쉬었다
회다	회여	회었다
하다	하여	하었다

그렇나 끝 음節에 받치口이 있을 경우에는 “거”로 적는다.

짐다	짐어	짐었다
땃다	땃이	땃었다
길다	길어	길었다
왕다	왕어	왕었다

[附記 1.] 語幹의 끝 음節이 “ㄱ, ㄷ, 一, ㅌ, ㅊ,

ㅍ”로 끝나고, 그 다음에 母音 토가 올 적에 다음과 같은 母音 適應의 現象이 일어난다.

(1) [ㄱ + ㅌ] > [ㅍ]

오다 와 왔다

(2) [T + ㅏ] > [ㅑ]

때우다	때워	때웠다
싸우다	싸워	싸웠다

([ㄷ], [T] 는 圓唇音이므로 그 다음에 時間的 間隔이 없
이 母音이 오는 경우 兩唇摩擦音 [ㅑ] 로 變하여 그 母音과 唇
關節을 이루는 것은 自然스런 發音法이다.)

(3) [ㅡ + ㅏ] > [ㅓ]

오르다	오르	오랐다
따르다	따르	따랐다

(4) [ㅡ + ㅑ] > [ㅕ]

크다	크	켰다
호르다	호르	호렸다
거르다	거르	거렸다
누르다	누르	누렸다
기르다	기르	기렸다

([ㅡ] 는 그 發音時의 共鳴腔의 形狀이 혀는 自然한 位置에
있고, 입은 거의 닫혀나 모양으로 되는 까닭에 어떠한 母音을 發
音할 때든지 이 共鳴腔의 形狀을 그 始發點으로 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ㅡ] 다음에 時間的 間隔이 없이 母音이 오는 경우, 그가
따로 發音되지 않는 것은 自然스런 發音法이다. 이와 같이 [ㅡ]
의 發音 規則을 바로 잡음으로써 從來의 所謂 “ㄷ 變格 用言” 과
“으 變格 用言” 은 規則的으로 된다.)

(5) [ㅏ + ㅏ] > [ㅏ]

가다 가아 (가) 가았다 (갔다)

사다 사아 (사) 사았다 (샀다)

(6) [ㅓ + ㅓ] > [ㅓ]

서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同一한 音 [ㅏ] 또는 [ㅓ]가 連綴될 때에 그 中 하나를 縮約하는 것은 自然스런 發音法이다. 이 때 表記法 上에서로 "아" 또는 "어"를 省略할 수 있다.)

(7) [ㅓ + ㅣ + ㅓ] > [ㅓ + ㅓ] [ㅡ + ㅣ + ㅓ] > [ㅣ + ㅓ]

모이다 모이어 (뵈어) 모이였다 (뵈였다)

보이다 보이어 (뵈어) 보이였다 (뵈였다)

프이다 프이어 (뵈어) 프이였다 (뵈였다)

쓰이다 쓰이어 (썩어) 쓰이였다 (썩였다)

([ㅓ + ㅣ] > [ㅓ], [ㅡ + ㅣ] > [ㅣ] 로 變音하는 것은 그 音理上 自然한 發音法이다. 이 때 表記法에서는 두 字를 縮字하여 "ㅓ, ㅓ" 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意味上 混同될 虞 證가 있는 경우에는 原形 대로 적는다.

例 :

쥐다 (握) 쥐어 쥐였다

끼다 (挾) 끼어 끼였다

쥐이다 (被握) 쥐이어 쥐이였다

끼이다(被挾) 끼이어 끼이였다

[附記 2] (3) 의 “여” 로 적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變
弱 弱化의 現象이 일어난다.

개여서 > 개서	개였다 > 겠다
메여서 > 메서	메였다 > 멧다
되여서 > 돼서	되였다 > 댌다
하여서 > 해서	하였다 > 헛다

[附記 3] 다음과 같은 말들은 同族語의 互相 關聯이
있어, 그 語根이 分明한 것은 語幹과 토를 區別하여 적고, 그
語根이 分明하지 않은 것은 語幹과 토를 區別하여 적지 아
니 한다.

例:

(1) 그 語根이 分明한 것

넘어가다 (越)	늘어지다 (延)
돌아가다 (回轉)	돌어가다 (入)
빌어먹다 (乞食)	끓어지다 (漸紅)
엎어지다 (覆)	일어나다 (起)
떨어버리다 (拂)	쓸어버리다 (掃)

(2) 그 語根이 分明하지 아니한 것

나카나다 (現)	너머지다 (倒)
느려지다 (怠)	도락가다 (歸, 死亡)

第 7 章 語 幹 과 토

바라지다 (拆)	배라먹다 (乞食)
불거지다 (凸)	부러지다 (折)
자빠지다 (沛)	쓰러지다 (靡)
자라나다 (長)	며러지다 (落)

第 2 節 語 幹 과 토

語幹 과 토가 結合할 때에는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的으로 表
 記한다.

例:

1) 體言의 語幹 과 토

떡이	떡을	떡에
집이	집을	집에
앞이	앞을	앞에
값이	값을	값에

2) 用言의 語幹 과 토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읽다	읽고	읽어	읽으니
걷다	걷고	걸어	걸으니
꾸다	꾸고	꾸어	꾸니
장다	장고	장거	장니
갈다	갈고	갈어	갈니
좋다	좋고	좋아	좋니

第 1 項 結 合 母 音 “이” 와 “으”

語幹의 끝 음節에 붙는 받치口의 性質에 따라, 一定한 母와 結合될 때, 體言의 경우에는 結合母音 “이”가, 用言의 경우에는 結合母音 “으”가 나타난다.

1) 語幹의 끝 음節에 받치口이 없는 경우

끝 음節이 母音으로 될 수 있는 全部의 경우를 들리 必要가 없으므로 代表的인 例로 “ㄱ, ㅂ, ㅅ”의 경우만 들면 다음과 같다.

語 幹 的 끝 음節 의 母音	體 言 用 言 別로 본 語幹의 例	모의 頭音別 分類의 例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母音
		고	나	다	라	면	비	시	지	아 어 야 어
ㄱ	소- (牛)	-	-	-	-	-	-	-	-	-
	보- (包)	-	-	-	-	-	-	-	-	-
ㅂ	예- (禮)	-	-	-	-	-	-	-	-	-
	개- (講)	-	-	-	-	-	-	-	-	-
ㅅ										
	지- (詩)	-	-	-	-	-	-	-	-	-

이로써 이 경우에는 結合母音 “이” 나 “으”를 必要로 하지 않음을 알리 수 있다.

2) 語幹의 끝 음節에 받치口이 있는 경우

모든 경우를 圖表로써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語幹의 끝 글의 받침		語 幹 的 例										母音	
		體 用 別 語 幹 的 例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고	너	네	다	랴	면	ㅂ니	시	소	지	아	야		
ㅂ	집 - (家)	이	이	아	아	이	이	이			아	이	
	굽 - (屈)	-	으	-	-	으	으	으	으	-	-	-	
ㄷ	앞 - (前)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높 - (高)	-	으	-	-	으	으	으	으	-	-	-	
ㅅ	부 - (婦)	-	-	-	-	-	-	-	-	-	-	-	
	값 - (價)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ㅇ	없 - (無)	-	으	-	-	으	으	으	으	-	-	-	
	말 - (昆)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ㅈ	받 - (受)	-	으	-	-	으	으	으	으	-	-	-	
	밭 - (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ㅊ	같 - (同)	-	으	-	-	으	으	으	으	-	-	-	
	옷 - (衣)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ㅋ	웃 - (笑)	-	으	-	-	으	으	으	으	-	-	-	
	걸 - (步)	-	으	-	-	으	으	으	으	-	-	-	

第2篇 形態論 第1部

語幹 의 음 의 반 의 口	體 用 別 語 幹 의 例	로의 頭音別 分類의 例										
		ㄱ	ㄴ		ㄷ	ㄹ	ㄲ	ㅁ	ㅅ		ㅈ	母音
		구	나	네	다	랴	면	바 나 다	시	소	치	아 어 야 여
ㅅ	있-(有)	-	으-	-	-	으-	으-	으-	으-	-	-	-
	낮-(晝)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이-	이-
ㅈ	늦-(晚)	-	으-	-	-	으-	으-	으-	으-	-	-	-
	꽃-(花)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이-	이-
ㅊ	꽃-(逐)	-	으-	-	-	으-	으-	으-	으-	-	-	-
	떡-(餅)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이-	이-
ㅍ	막-(防)	-	우-	-	-	으-	으-	으-	으-	-	-	-
	부엌-(厨)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이-	이-
ㅂ	밖-(外)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이-	이-
	깎-(削)	-	으-	-	-	으-	으-	으-	으-	-	-	-
ㅅ	값-(賃)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이-	이-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ㅎ	좋-(好)	-	-	-	-	-	-	-	-	-	-	-

第7章 語幹과 모

語幹의 音節의 變化		모의 頭音別 分類와 그 例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母音	
體用別로 語幹의 例		고	니	비	다	랴	면	바	니	지	소	치	아 어 야 어
ㅎ	장-(造)	-	-	-	-	-	-	-	-	-	-	-	-
	길-(道)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ㄹ	불-(吹)	-	-	-	-	-	-	-	-	-	-	-	-
	여덟-(八)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ㅅ	밟-(踏)	-	으-	-	-	으-	으-	으-	으-	으-	-	-	-
	술-(詠)	-	으-	-	-	으-	으-	으-	으-	으-	-	-	-
ㅌ	밝-(陽)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밝-(明)	-	으-	-	-	으-	으-	으-	으-	으-	-	-	-
ㅊ	찰-(紙)	-	으-	-	-	으-	으-	으-	으-	으-	-	-	-
	찰-(替)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第2篇 形聲論 第1部

語幹 의 끝 韻節 의 받 치口	體 用 言 別 로 本 語 幹 의 例	로의 頭音別 分類와 그 例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고	니	네	단	하	면	바나 다	서	조	지
ㄱ	음-(可)	-	으-	-	-	으-	으-	으-	으-	-	-
ㄴ	음-(早)	-	-	-	-	-	-	-	-	-	-
ㄷ	삼-(烹)	-	으-	-	-	으-	으-	우-	으-	-	-
	눈-(眼)	이-	기-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ㄹ	안-(抱)	-	으-	-	-	으-	으-	으-	으-	-	-
	안-(坐)	-	으-	-	-	으-	으-	으-	으-	-	-
ㅂ	많-(多)	-	으-	-	-	으-	으-	으-	으-	-	-
	솜-(綿)	이-	기-	기-	이-	이-	이-	이-	기-	이-	이-
ㅅ	심-(植)	-	으-	-	-	으-	으-	으-	으-	-	-
	땅-(地)	이-	기-	기-	이-	이-	기-	이-	기-	이-	이-
ㅇ		-	-	-	-	-	-	-	-	-	-
		-	-	-	-	-	-	-	-	-	-
ㅈ		-	-	-	-	-	-	-	-	-	-
		-	-	-	-	-	-	-	-	-	-
ㅊ		-	-	-	-	-	-	-	-	-	-
		-	-	-	-	-	-	-	-	-	-

但, 用音이 로 “되”와 結合될 때에는 “있-” “없-” (“았-,
있-, 없-, 겠-”)의 경우에 限하여 結合母音 “으”가 나타난다.

第7章 語幹과 ㄹ

例:	(參考)
있으되	되
없으되	만되
만있으되	있되

위의 圖表로 부터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로 수 있다.

1) 語幹의 끝 音節에 받치口이 있는 體言 語幹이 ㄹ와 結合될 때에는 반드시 結合母音 “이” 를 必要로 한다.

2) 語幹의 끝 音節에 “ㄱ, ㅎ, ㅈ, ㅊ” 의 받치口이 있는 用言 語幹이 ㄹ와 結合될 때에는 結合母音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即 開音節로 看做된다.)

3) 語幹의 끝 音節에 “ㄱ, ㅎ, ㅈ, ㅊ” 以外の 받치口이 있는 用言 語幹이 “ㄹ, ㅁ, ㅂ” 를 頭音으로 하는 ㄹ로 및 ㄹ로 “나”, “지” 와 結合될 때에는 結合母音 “으” 를 必要로 한다. 即 이 경우 “ㄹ, ㅁ, ㅂ” 以外の 音을 頭音으로 하는 ㄹ로 “는, 네, 느냐?, 니?, 나?”, “소, 세, 자와, 자오니, 삼고...” 와 結合될 때에는 結合母音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第2項 用言 語幹과 ㄹ의 結合時에

나타나는 音韻 交替

받치口 있는 用言 語幹은 ㄹ와 結合될 때 各種의 音韻 交替를 나타낸다. 이를 圖表로써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語幹例	韻幹의 音節의	聲韻圖 別類의 分類의 例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ㅍ	ㅑ	ㅓ	ㅕ	ㅗ	ㅛ	ㅜ
聲一(詠)	一 ㄱ	一 ㅋ	一 ㆁ	一 ㄷ	一 ㅌ	一 ㄴ	一 ㄹ	一 ㅍ	一 ㅑ	一 ㅓ	一 ㅕ	一 ㅗ	一 ㅛ	一 ㅜ	一 ㅠ
聲一(明)	一 ㄱ	一 ㅋ	一 ㆁ	一 ㄷ	一 ㅌ	一 ㄴ	一 ㄹ	一 ㅍ	一 ㅑ	一 ㅓ	一 ㅕ	一 ㅗ	一 ㅛ	一 ㅜ	一 ㅠ
聲一(瓶)	一 ㄱ	一 ㅋ	一 ㆁ	一 ㄷ	一 ㅌ	一 ㄴ	一 ㄹ	一 ㅍ	一 ㅑ	一 ㅓ	一 ㅕ	一 ㅗ	一 ㅛ	一 ㅜ	一 ㅠ
聲一(可)	一 ㄱ	一 ㅋ	一 ㆁ	一 ㄷ	一 ㅌ	一 ㄴ	一 ㄹ	一 ㅍ	一 ㅑ	一 ㅓ	一 ㅕ	一 ㅗ	一 ㅛ	一 ㅜ	一 ㅠ
聲一(菜)	一 ㄱ	一 ㅋ	一 ㆁ	一 ㄷ	一 ㅌ	一 ㄴ	一 ㄹ	一 ㅍ	一 ㅑ	一 ㅓ	一 ㅕ	一 ㅗ	一 ㅛ	一 ㅜ	一 ㅠ
聲一(抱)	一 ㄱ	一 ㅋ	一 ㆁ	一 ㄷ	一 ㅌ	一 ㄴ	一 ㄹ	一 ㅍ	一 ㅑ	一 ㅓ	一 ㅕ	一 ㅗ	一 ㅛ	一 ㅜ	一 ㅠ
聲一(坐)	一 ㄱ	一 ㅋ	一 ㆁ	一 ㄷ	一 ㅌ	一 ㄴ	一 ㄹ	一 ㅍ	一 ㅑ	一 ㅓ	一 ㅕ	一 ㅗ	一 ㅛ	一 ㅜ	一 ㅠ
聲一(多)	一 ㄱ	一 ㅋ	一 ㆁ	一 ㄷ	一 ㅌ	一 ㄴ	一 ㄹ	一 ㅍ	一 ㅑ	一 ㅓ	一 ㅕ	一 ㅗ	一 ㅛ	一 ㅜ	一 ㅠ
聲一(權)	一 ㄱ	一 ㅋ	一 ㆁ	一 ㄷ	一 ㅌ	一 ㄴ	一 ㄹ	一 ㅍ	一 ㅑ	一 ㅓ	一 ㅕ	一 ㅗ	一 ㅛ	一 ㅜ	一 ㅠ

[附記] “**ㅁ**” (음一) 是 方言形아므로 이 圖表에서 除外한다.

★ 母音로 “오”의 경우에는 -0-로 된다. (불오 [부우])
 以上の 圖表로써 用言 語幹의 그와 結合되는 로의 性質에 따라 各韻의 音韻 交替를 나타내며 이 곳에서 語幹은 언제나 同一한 形態로 表記됨으로써 形態部가 固定하게 됨을 알리 수 있다.

이제 그 個別的 경우를 보면,

第1類

1) 交替 [日] ~ [日] → 表記 “日”

例: 곱다 (屈)

[곱다]	[고바]
[곱고]	[고브니]
[곱치]	[고바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들

곱다	곱아
곱고	곱으니
곱치	곱아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굽다 (曲), 좁다 (狹).

2) 交替 [ㄷ] ~ [ㅌ] → 表記 “ㄷ”

例: 받다 (受)

[받다]	[바다]
[받고]	[바드니]
[받지]	[바다서]

이렇게發音되는 것을

받다	바아
받고	바으니
받지	바아서

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 시키고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걸다 (踏) 띠다 (價), 얻다 (得)

3) 交替 [ㄱ] ~ [ㅋ] → 表記 “ㄱ”

例: 막다 (防)

[막다]	[마가]
[막고]	[마그니]
[막지]	[마가서]

이렇게發音되는 것을

막다	막아
막고	막으니
막지	막아서

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 시키고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늑다 (融), 작다 (小) 먹다 (食).

[附記] 以上の 1), 2), 3)은 文字 上으로는 交替가 없
는 것 같으나, 有聲音 사이에 오는 無聲音은 有聲音化하므로,
實은 [P] ~ [b], [t] ~ [d], [k] ~ [g] 의 無聲音
과 有聲音의 交替가 일어난다. 朝鮮語의 音韻에는 無聲, 有
聲의 區別이 없으므로 각기 받침口 “ㅂ”, “ㄷ”, “ㄱ” 로써 聲
轉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4) 交替 [ㅂ] ~ [ㅍ] → 表記 “ㅍ”

例: 높다 (高)

[높다]	[노파]
[높고]	[노르너]
[높지]	[노파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높다	높아
높고	높으니
높지	높아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값다 (報), 싫다 (欲), 밉다 (穢).

5) 交替 [ㄷ] ~ [ㄹ] → 表記 “ㄹ”

例: 갈다 (岡)

[갈다]	[가랴]
[갈고]	[가트니]
[갈지]	[가라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갈다	갈아
갈고	갈으니
갈지	갈아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말다 (任, 嗅), 붙다 (付), 알다 (淺)

[附記] 4), 5) 에 있어서는 無氣音 對 帶氣音의 交替가 일어나나 “고”, “르”가 無聲音 앞에서는 內破의 [ㅂ] ; [ㄷ] 로 發音되는 性質을 利用하여 각기 받침口 “고”, “르” 로써 語幹의 形態部를 固定시키고 있다.

6) 交替 [ㄱ] ~ [ㄲ] → 表記 “ㄲ”

例 : 깎다 (削)

[깎다]	[까까]
[깎고]	[까끄니]
[깎지]	[까까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깎다	깎아
깎고	깎으니

꺾지

꺾아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꺾다 (折), 낚다 (釣) 묶다 (束)

7) 交替 [ㄴ] ~ [ㄹ] → 表記 “ㄴ”

例 : 안다 (抱)

[안따]

[아나]

[안표]

[아느니]

[안쳐]

[아나셔]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안다

안아

안고

안으니

안지

안아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심다 (植)

8) 交替 [ㅁ] ~ [ㅂ] → 表記 “ㅁ”

例 : 심다 (植)

[심따]

[시머]

[심표]

[시므니]

[심쳐]

[시머셔]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심다	심어
심고	심으니
심자	심어서

表記 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어에 屬하느 例:

적다 (積), 남다 (餘) 담다 (澁).

[附記] 6), 7), 8) 에 있어서는 平聲 과 滄聲의 交替가 일어나나, [ㄱ] ~ [ㄱ'] 의 경우에는 "ㄱ"가 無聲音 앞에 서는 內破의 [ㄱ] 로 發音되는 性質을 利用하여 別제 ㄱ' 로써 形態部를 固定시키고 있다. 이에 反하여 [ㄴ] ~ [ㄴ'] , [ㄷ] ~ [ㄷ'] 의 경우에는 각기 平聲 "ㄴ", "ㄷ" 로써 語幹의 形態部를 固定시키고 있는 것은 滄聲이 6) 의 경우에는 聲을 차이해서 나타나나, 7), 8) 의 경우에는 無聲子音의 앞에 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9) 交替 [ㄷ] ~ [ㄷ'] → 發音 "ㄷ"

例: 웃다 (笑).

[웃다]	[웃어]
[웃고]	[웃으니]
[웃자]	[웃어서]

어떻게 發音되는 것을

웃다	웃어
웃고	웃으니

丈 祿

丈 祿 丈 祿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려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벗다 (脫) 拭다 (拭)

10) 交替 [ㄷ] ~ [ㄹ] → 表記 “ㄹ”

例: 있다 (有)

[일다]

[이쨌]

[일고]

[이쨌니]

[일지]

[이쨌서]

이렇게 說할 때는 것을

있다

있어

있고

있으니

있지

있어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려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갓다 (未來 ㄹ); 앓다, 었다, 앓다 (過去 ㄹ)

11) 交替 [ㅁ] ~ [ㅍ] → 表記 “ㅍ”

例: 공부 (新)

[공다]

[고ㅍ]

[공고]

[고ㅍ니]

[공지]

[고ㅍ서]

이렇게 說할 때는 것을

꿈다

꿈아

꿈고

꿈나

꿈지

꿈아서

로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꿈다 (燒), 꿈다 (補), 꿈다 (臥), 꿈다 (暑).

[附記] 9), 10), 11) 의 경우에는 破裂音 對 摩擦音의 交替가 일어나, [ㄷ] ~ [ㅅ], [ㄷ] ~ [ㅆ] 의 경우에는 “ㅅ”, “ㅆ”가 無聲音의 앞에서는 內破의 [ㄷ]로 發音되는 性質을 利用하여 각기 받침口 “ㅅ”, “ㅆ”로써 語幹의 形態部를 固定시키고 있다. [ㅈ] ~ [ㅊ] 의 경우도 이와 꼭 같다. 卽 “웃다~웃어”에 있어 [ㄷ] ~ [ㅅ] 의 交替를 摩擦音 “ㅅ” [ㅅ] 로써 表示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다”, “고와”에 있어 [P] ~ [W] 의 交替를 摩擦音 “ㅊ” [W] 로써 表示하는 것이다. 朝鮮語에 있어 摩擦音이 末音 또는 連發되지 않는 다른 音 앞에서는 同一 調音 位置의 破裂音으로 되는 規則이 있기 때문에 “웃어”에서는 [ㅅ] 로 發音되는 “ㅅ” 字가 “웃다”에 서는 [ㄷ] 로 發音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아”에서는 [W] 로 發音되는 “ㅊ” 字가 “꿈다”에서는 [P] 로 發音되는 것이다.

公式으로 나타내면

$s : t = w : P$

로 된다. “웃다~웃어”가 조금도 變格 用言이 아니었다면, 同一

한 論理로 “꾸다~꾸아”도 조금도 變格 用言이 아닌 것이다.

“ㄲ”의 字形에 關하여 말한다면 이 音이 “꾸다~고와”, “굽다~구워”와 같이 [ㄱ] 와 [ㄷ]로 交替하며, [ㄲ]가 ([ㄱ]와 같이) 과 軟口蓋 ([ㄷ]와 같이)에서 摩擦되어 兩屬 調音 되는 音이기 때문에 “ㄱ”와 “ㄷ”를 合字하여 “ㄲ”로 만들노 것이다.

이 文字의 新製로 말미암아 “ㄱ~ㄲ”의 交替를 소위 變格 用言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交替와 마찬가지로 正常的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또한

꾸다 (屈) [꾸다] - 꾸아 [고바]

꾸다 (妍) [꾸다] - 꾸아 [고와]

굽다 (曲) [굽다] - 굽어 [구버]

굽다 (燒) [굽다] - 굽어 [구워]

等의 交替가 明確히 區別되게 된다.

12) 交替 [ㄷ] ~ [ㅈ] → 表記 “ㅈ”

例: 늦다 (晚)

[늦다] [느저]

[늦고] [느즈너]

[늦지] [느저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늦다 늦어

늦고 늦으니

늦지

늦어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늦다 (擱), 낮다 (低), 젖다 (濕).

13) 交替 [ㄷ] ~ [ㅌ] → 表記 “ㄷ”

例: 늦다 (逐)

[늦다]

[조차]

[늦고]

[쏘르니]

[늦지]

[쏘차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늦다

늦아

늦고

늦으니

늦지

늦어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늦다 (從).

[附記] 12), 13) 에 있어서는 破裂音 對 破擦音의 交替가 일어나나, “ㄷ”, “ㅌ” 가 無聲音 앞에서는 內破의 [ㄷ] 로 發音되는 性質을 利用하여 각기 받침口 “ㄷ”, “ㅌ” 로써 語幹의 形態部를 固定시키고 있다.

14) 交替 [ㄷ] ~ [ㄷ] → 表記 “△”

例: 걷다 (步)

第 7 章 語 聲 母 母

[견다]	[거터]
[견고]	[거르니]
[견지]	[거려서]

이런게 發音되는 것을

견다	견어
견고	견으니
견지	견어서

로 表記 하므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김다 (汲), 듣다 (聽), 묻다 (問), 붓다 (殖).

[附記] [ㄷ] ~ [ㄹ]의 交替를 “△” 로써 表記하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訓民正音 創制 當時 制作된 “△” 字의 音價에 對하여는 各種의 論議가 있으나 가장 根據로 되는 “訓民正音”에 “△ 半齒音 如稷字初發聲”이라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本是 中國의 “日”母의 漢字音을 表示하기 爲한 것이다. 이 음은 語音學的으로는 有聲舌面摩擦音 [ʃ] 이나, 오늘날 “日”母의 漢字音을 中國 新文字에서 “rj”로 表記하는 바와 같이 母音 사이에서는 [ㄹ]에 비슷하게 들린다. 이 “△”字가 母音 사이에서는 [ㄹ], 無聲子音 앞에서는 다른 摩擦音들과 마찬가지로 內破의 “ㄷ”로 發音되는 것은

大同江…其一出自陽德縣北文音 그을山 (龜飛御天歌 卷1, 89)

第2篇 形態論 第1部

에서 “그승山” 이 [글음山] 으로 發音되던 것을 것과

항 봉	{	항웃—꽃 (一저고리) (取)
		항을—홀 (一아비) (獨)

의 音韻 變化의 例를 들므로써도 顯示할 수 있다.

△字를 復活시키므로 말미암아 [ㄷ] ~ [ㄹ] 의 交替를 소위 變格 用言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交替와 같이 正常的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또한

걸다 (捲) [걸다] - 걸어 [거더]

걷다 (步) [걸다] - 걸어 [거리]

묻다 (埋) [묻다] - 묻어 [무더]

뭇다 (開) [묻다] - 뭇어 [무리]

등의 交替가 明確히 區別되게 된다.

第2類

15) 交替 [ㄷ] ~ [ㅌ] → 表記 “ㅌ”

例: 없다 (無)

[업다] [업서]

[업고] [업스나]

[업지] [업서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없다 없어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을다	을어
을고	을으니
을지	을어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을다” 以外에는 없다.

18) 交替 [ㄱ] ~ [ㄷ] → 表記 “리”

例 : 밝다 (明)

[박다]	[발가]
[박고]	[발그니]
[박지]	[발가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밝다	밝아
밝고	밝으니
밝지	밝아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합다 (太), 늙다 (老), 읽다 (讀).

19) 交替 [ㅅ] ~ [ㅌ] → 表記 “리”

例 : 할다 (悉)

[할따]	[할라]
------	------

[할꼬] [할트니]

[할찌] [할카서]

이렇게 發音 되는 것을

할다

할아

할고

할으니

할지

-할아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출다 (挾拔).

20) 交替 [ㅈ], [ㅊ] ~ [ㄹ] → 表記 "ㄱ"

例 : 출다 (可)

[출타] [출네] [오타]

[출꼬] [출쓰] [오르니]

[출치] [오라서]

이렇게 發音 되는 것을

출다

출네

출아

출고

출소

출으니

출지

출아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뚫다 (穿), 삼다 (厭), 앓다 (病).

21) 交替 [ㅍ], [ㅑ] ~ [ㅓ] → 表記 "ㄷ"

例 : 삶다 (烹)

[삼따]	[삼네]	[살마]
[삼꼬]		[살므니]
[삼찌]		[살마서]

이렇게發音되는 것을

삶다	삶네	살아
삶고		살므니
삶지		살아서

로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끓다 (飢), 닮다 (似), 옮다 (移).

22) 交替 [ㄴ] , [ㄴ] ~ [ㄴ] → 表記 "ㄴ"

例: 앉다 (坐)

[안따]	[안네]	[안자]
[안꼬]		[안즈니]
[안찌]		[안자서]

이렇게發音되는 것을

안다	안네	안아
안고		안즈니
안지		안아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第 7 章 語 幹 科 로

없다 (置 上) . (撤) .

23) 交替 [ㄴ] , [ㄴ] ~ [ㅎ] → 表記 “ㄴ”

例: 많다 (多)

[만타]	[만쯔]	[마나]
[만코]		[만느니]
[만치]		[만 서]

㉑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많다	많소	많아
많고		많으니
많지		많아서

㉒ 記號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꿈다 (絶) , 점잖다 (偉) , 언잖다 (不好) .

[附記] 第 2 類에서는 單子音 對 複子音의 交替가 없나나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가 無聲子音 앞에서는 각기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로 發音되는 性質을 利用하여 바치며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로써 語幹의 形態部를 圖定시키고 있다.

第 3 類

24) 交替 [ㅎ] , [ㅎ] ~ 0 → 表記 “ㅎ”

第2篇 形態篇 第1部

例 : 좋다 (好)

[조타]	[좋네]	[조아]
[조코]	[조쓰]	[조-니]
[조치]		[조아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좋다	좋네	좋아
좋고	좋소	좋니
좋지		좋아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 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낱다 (産) 낱다 (入) 낱다 (積)

25) 交替 [ㅈ] ~ ㅉ → 表記 "ㅈ"

例 : 장다 (造)

[지닥]	[지어]
[지꼬]	[지-니]
[지찌]	[지어서]

이렇게 發音되는 것을

장다	지어
장고	지니
장지	지어서

로 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 시키리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

증다 (勸), 낳다 (優, 瘥), 경다 (攪).]

26) 交替 [ㄷ], [ㄹ] ~ 0 → 表記 “ㄹ”

例: 불다 (吹)

[불다]	[부니]
[불고]	[부비니다]
[불지]	[부지니]
[부러]	[부오]

이렇게發音되는 것을

불다	불니
불고	불비니다
불지	불지니
불어	불오

로表記함으로써 그 每個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려 수 있다.]

이에 屬하는 例:

갈다 (耕), 갈다 (長), 밀다 (推).

[附記 1] 第 3 類에서는 默音의 現象, 即 ㅁ (0) 音의 交替가 일어나나, 우선 “ㅎ” 是 喉頭音으로서 有聲音 사이에서는 默音이 되는 性質을 利用하여 받침 ㅁ “ㅎ” 으로써 語幹의 形態部를 固定시키고 있다.

이 때 無聲子音의 앞에서

ㅎ + ㄱ = ㅋ, ㅎ + ㄷ = ㅌ, ㅎ + ㅈ = ㅊ 이므로

“종고”, “종다”, “종지”가 [조코], [조타], [조치]

로 發音되는 것은 當然하다.

다음 [ㄱ] ~ 0 의 交替를 받치며 “ㄱ” 한 字로써 表示하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訓民正音 創制 當時 制作된 “ㄱ” 字의 音價가 喉頭破發音(聲門閉鎖音)임은 오늘날 論議의 餘地가 없으며, 또한 “ㅎ” 와 같이 喉頭音인 까닭으로 有聲音 字의에서는 默音이 되며, 無聲子音의 앞에서는 $ㄱ + ㄱ = ㄲ$, $ㄱ + ㅋ = ㆁ$, $ㄱ + ㆁ = ㆁ$ 이므로 “창고, 장다, 장지”가 [지꼬], [지따], [지찌]로 發音되는 것은 當然하므로 “ㄱ” 字를 復活시키므로 말미암아 “ㄱ-”의 交替를 소위 變格 用言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交替와 같이 正常的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같은 [ㄴ], [ㄷ], ~ 0 의 交替를 보면,

불다 불고 부르

에 對하여

부니 립니다 부지니 부오

로 되어 “ㄴ”음이 [ㄴ], [ㄷ], [ㅅ], [ㅇ] 앞에서는 관드시 默音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곳에 쓰이는 “ㄴ” 字의 音價가 다른 “ㄴ” 字와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된다.

예, 名詞 “불”-- (火) 은 “나니” (出) 앞에서는 [불나니] 로 되어 “ㄴ”이 發音되나, 動詞 “불”-- (吹) 은 “나니” 앞에서는 [부나니] 로 되어 “ㄴ”이 默音되며, “물”-- (水) 은 “소” (牛) 앞에서도 [물소] 로 되어 “ㄴ”이 發音되나, “물”-- (咬) 은 兪兪 노 “소” 앞에서는 [무소] 로 되어 “ㄴ”이 默音된다.

第7章 語幹과 토

또한 同一하 “불” 임에도 不拘하고 “불”(不)에 “ㄴ, ㄹ, ㅅ, ㅇ”의 頭音을 가지나 “노(怒), 법(法), 소(少), 오(娛)”가 각기 結合되면,

不怒 [불노] 不法 [불법]

不少 [불소] 不娛 [불오]

로 되나, “불”-- (吹)에 “ㄴ, ㄹ, ㅅ, ㅇ”의 頭音을 가지나 “노라, 버니다, 소 오”가 각기 結合되면 받느시 “ㄹ”이 默音되어

불노라 [부노라]

불버니다 [부버니다]

불소 [부소]

불오 [부오]

로 된다.

以上으로써 用言 語幹의 “ㄹ” 발치口은 다른 “ㄹ”와 同一하지 않아 (語音學的으로 보면 舌端半韻音 [ɾ] 다), ㄹ에 따라 默音이 되므로 이를 “ㄹ”字로 表示하여 그 語幹의 形態部를 固定시키면 “[ㄹ] [ㄹ] ~ 0”의 交替를 소위 變格 用言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交替와 마찬가지로 正常的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附記2] 以上 第1類, 第2類, 第3類의 交替를 보면 각기 그 性質이 다르다.

即 第1類의 交替에 있어서는 서로 交替하는 音이 단 한

가지의 標識의 點에서만 對立되어 [1), 2), 3) 은 無聲音 對 有聲音, 4), 5) 은 無氣音 對 滯氣音, 6), 7), 8) 은 平音 對 濃音, 9), 10) 11) 은 破裂音 對 摩擦音, 12), 13) 은 破裂音 對 破裂音, 14) 은 破裂音 對 韻音] 相關的 關係에 있다.

第2類의 交替에 있어서는 서로 交替하는 音이 한 가지 以上の 標識의 點에서 對立되어 分離的 關係에 있다.

第3類의 交替에 있어서는 서로 交替하는 音中 하나는 0 (零) 音으로 되어 消滅的 關係에 있다.

따라서 第1類의 交替를 相關的 交替, 第2類의 交替를 分離的 交替, 第3類의 交替를 消滅的 交替라고도 한다.

第3項 비슷한 발 口들의 比較

이제 體言과 用言을 通하여 비슷한 語幹 발치口들의 代表的인 것을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ㄷ	ㅌ	ㅍ	ㅈ	ㅊ
例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一)	남 과	[남과]	남 에	[나에]	
— (個)	남 과	[남과]	남 에	[나에]	
낮— (鏢)	낮 과	[남과]	낮 에	[나세]	
낮— (畫)	낮 과	[남과]	낮 에	[나세]	
낮— (面)	낮 과	[남과]	낮 에	[나세]	

第7章 語 彙 考

日		コ		以		尸	
例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發 音
압- (質)	업 ㅅ	[업고]	업 어	[어빠]	업 어	[어빠]	[어빠]
압우(質)	업 ㅅ	[업고]	업 어	[어빠]	업 어	[어빠]	[어빠]
압우(質)	업 ㅅ	[업고]	업 어	[어빠]	업 어	[어빠]	[어빠]
밀업- (可信)	업 ㅅ	[업고]	업 어	[어빠]	업 어	[어빠]	[어빠]

5

音 發 5 ㅅ		音 發 ㅅ		音 發 ㅅ	
例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發 音
곶우(質)	곶 ㅅ	[곶고]	곶 아	[고타]	[고타]
곶우(質)	곶 ㅅ	[곶고]	곶 아	[고타]	[고타]
도우- ("동" 方言)	도우 ㅅ	[도우고]	도우 아	[도와]	[도와]
도우- (助)	도우 ㅅ	[도우고]	도우 아	[도와]	[도와]

ㅎ		ㅎ		ㅅ	
例	表 記	發 音	表 記	發 音	發 音
냥- (蒸)	냥 ㅅ	[나ㅍ]	냥 아	[나아]	[나아]
냥- (蒸)	냥 ㅅ	[나ㅍ]	냥 아	[나아]	[나아]
냥- ("드리" 方言)	냥 ㅅ	[나ㅍ]	냥 아	[나자]	[나자]
나- (出)	나 ㅅ	[나ㅍ]	나 아	[나아]	[나아]

第2篇 形態論 第1部

例	ㄷ		ㅌ		ㄹ	
	表記	發音	表記	發音	表記	發音
물- (埋)	물 고	[물고]	물 어	[무더]	물으니	무드니
묻- (問)	묻 고	[물고]	묻 어	[두러]	묻으니	무르니
물- (咬)	물 고	[물고]	물 어	[무러]	물 나	무 니

例	ㄱ		ㄴ	
	表記	發音	表記	發音
물- (水)	물 가 (邊)	[물까]	물소 (牛)	[물소]
물- (咬)	물가 (의문 토)	[물까]	물소 (명령 토)	[무소]
불- (火)	불 가 (邊)	[불까]	불나니(出)	[불나니]
불- (吹)	불가 (의문 토)	[불까]	불나니(토)	[부나니]
가- (行)	가 니	[가니]	가 고	[가고]
갈- (耕)	갈 니	[가니]	갈 고	[갈고]

第4項 所謂 “變格 用言”의 處理

以上 여러 條項에서의 敘述로써 알리 수 있는 바와 같이, 從來의 所謂 “變格 用言”은 設定할 必要가 없게 되었다. 이제 이 를 綜合的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從來의 “ㄹ 變格用言”은 “ㄹ” 字의 使用으로 말미암아 規則的으로 된다.

例:

놀다 (遊) 놀고 놀아 놀니 놀바니다 놀시니 놀으

볼다 (吹) 불고 불어 불니 불바니다 불시니 불으

[附記] 通俗的인 綴字法에 依하여 ㄹ字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默稱되는 경우 “ㄹ” 字를 쓰지 않고

놀다 놀고 노니 놀바니다 노시니 노으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語幹의 形態部가 “놀-”, “노-” 로 動搖하여 朝鮮語 綴字法의 基本原則에 어긋남은 勿論이다.

(2) 從來의 “ㅅ 變格用言”은 “ㅅ” 字의 使用으로 말미암아 規則的으로 된다.

例:

장다 (造) 장고 장어 장나 장너?

농다 (瘡) 농고 농아 농니 농바? 농너?

[附記] 通俗的인 綴字法에 依하여 “ㅅ” 字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장다 장고 지어 지으니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語幹의 形態部가 “장-”, “지-” 로 動搖하여 朝鮮語 綴字法의 基本原則에 어긋남은 勿論이다.]

(3) 從來의 “ㅎ 變格 用言”은 어미한 토 위에서나 “ㅎ” 발
音을 使用함으로 말미암아 規則的으로 된다.

例 :

하얏다 (白)	하얏너	하얏ㄴ	하얏면
커다랗다 (大)	커다랗너	커다랗ㄴ	커다랗면
참者 좋다 (好)	좋너	좋ㄴ	좋면

(4) 從來의 “ㄷ 變格 用言”은 “△” 字의 使用으로 말미암
아 規則的으로 된다.

例 :

걸다 (步)	걸고	걸어	걸으니	걸니?
눅다 (焦)	눅고	눅어	눅으니	눅니?
듣다 (聽)	듣고	듣어	듣으니	듣니?

(附四) 通俗的인 綴字法에 의하여 “△” 字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걸다	걸고	걸어	걸으니
또는,			
깃다	깃고	깃어	깃으니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어떻게 적으면 語幹의 形態部가 “걸(것)一”, “걸”로
動搖하여 朝鮮語 綴字法의 基本 原則에 어긋남은 勿論이다.

(5) 從來의 “ㄴ 變格 用言”은 “ㄴ” 字의 使用으로 말미암
아 規則的으로 된다.

例 :

가깝다 (近)	가깝아	가깝니	가깝네	가깝니?
흔다 (臥)	흔어	흔니	흔네	흔니?
맨다 (辛)	맨어	맨니	맨네	맨니?

[附記] 通俗的인 綴字法에 依하여 “ㄱ” 字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가깝다 가깝와 가깝우니 가깝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語幹의 形態部가 “가깝-”, “가깝오-
(가깝우-)” 로 動搖하여 朝鮮語 綴字法의 基本 原則에 어
긋남은 勿論이다.

(6) 從來의 “여 變格 用言”은 9) 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여”
로의 使用 規則을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規則的으로 된다.

例 : 하다 (爲) 하여 하여도 하였으니 하였다

(7) 從來의 “러 變格 用言”은 “ㄹ” 字의 使用으로 말미암
아 規則的으로 된다.

例

이룰다 (至)	이룰어	이룰었다
푸를다 (傍)	푸를어	푸를었다
누를다 (黃)	누를어	누를었다

이 때 “ㄹ” 들 “ㄴ, ㅂ, ㅅ, ㅇ” 以外の 子音 上에 於서도
發音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르다], [이르고] ...) “ㄹ”

를 發音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發音하지 않는 것도 許容한다.

[附記] 通俗的인 綴字法에 依하여 “ㄹ” 字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이르다 이르터 이르렀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語幹의 形態部가 “이르-”, “이르르-”
로 動搖하여 朝鮮語 綴字法의 基本 原則에 어긋남은 물론이다.

(8) 從來의 “르 變格 用言”은 100 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 音의 發音 規則을 바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規則的으로 된다.
이곳에 從來의 “ㄹ” 대신에 (갈라, 갈랐다...) “ㄹ” 字를 使用
한다.

例 :

가르다 (分)	가라	가랐다	가되다
오르다 (登)	오라	오랐다	오되다
흐르다 (流)	흐라	흐렀다	흐되다
기르다 (養)	기라	기렀다	기되다

이 때 [르] 를 [르] 로 發音하기도 하나 ([가르다], [오르다],
[흐르다], [기르다]), [르] 로 發音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르] 로 發音하는 것도 許容한다.

[附記] 通俗的인 綴字法에 依하여 “ㄹ” 字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갈르다 갈라 갈랐다 갈되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어떻게 적으면 “ㄱ” 로 써 舌側音 “ㄷ” 을 대신하게
되나, 音 “ㄱ” 을 아무리 거듭하여도 舌側音으로 될 까닭이 없
으므로 音理 上으로 보아 不合理하다.

또한 “ㄱ” 音의 發音 規則을 바로 잡지 않으면,

가르다 가타 가랏다 가리다

와 같이 語幹의 形態部가, “가르” “가타” 로 動搖하여 朝鮮語 綴
字法의 基本 原則에 어긋나게 된다.

(9) 從來의 “ㄷ 變格 用言” 은 58 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ㄷ” 音의 發音 規則을 바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規則적으로 된다.

例 :

푸다 뛰 뛴다

이 때 “ㄷ” 音의 發音 規則을 바로 잡지 않으면,

푸다 뛰 뛴다

와 같이 語幹의 形態部가, “푸”, “포” 로 動搖하여 朝鮮語 綴字法
의 基本 原則에 어긋나게 된다.

(10) 通俗的인 綴字法에 依하여 “ㄹ” 字(41 페이지 以下 參照)
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저고 저서 겠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語幹의 形態部가 “저” “저-” 로 動搖하
여 朝鮮語 綴字法의 基本 原則에 어긋나게 된다.

第 5 項 語 幹 과 토의 縮 約

語幹과 토의 結合에 있어 個別的인 경우, 母音 또는 子音이 脫落하여 語幹과 토가 縮約되는 일이 있다. 이 때 縮約된 態로 表記하기로 하나, 語幹의 形態部를 되도록 保存하도록 받침 ㅁ을 바로잡는다.

例 : 1) 語幹의 縮約

— 본 말 —	— 줄 나 말 —
아기야	악아
기리기야	기럭아
어제 저녁	엇저녁
가진고	갓고
미친고	밧고
더덕고	덜고
온가지	온갓

2) 語幹과 토의 縮約

나를	날
너를	널
무엇	무엿
무엇을	무엿을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第3節 連音과 絶音

每個의 形態部가 給合될 때 앞에 있는 形態部의 末音이 子音이고, 뒤에 있는 形態部의 頭音이 母音인 경우 發音 上에 連音과 絶音의 現象이 觀察된다

連音이란 “옷-이”가 [오시]로 發音되는 것과 같이, 앞에 있는 形態部의 末音(子音)이 뒤에 있는 形態部의 頭音으로 옮기여 와 두 形態部가 發音 上 連結되는 것을 말한다.

絶音이란 “옷-안”이 [음-안]으로 發音되는 것과 같이, 앞에 있는 形態部의 末音(子音)이 一瞬 그곳에서 끝났다가, 뒤에 있는 形態部와 結合되어 두 形態部가 發音 上 斷絶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連音되는 경우

1) 語幹 + ㅁ

가) 體言의 例 :

떡이 [떡기]	떡을 [떡글]	떡에 [떡게]
손이 [소니]	손을 [소늘]	손에 [소네]
말이 [마지]	말을 [마들]	말에 [마테]
팔이 [파리]	팔을 [파를]	팔에 [파레]

밤이 [바미]	밤을 [바믄]	밤에 [바메]
집이 [자미]	집을 [지믄]	집에 [지메]
옷이 [오시]	옷을 [오츄]	옷에 [오제]
땅이 [따미]	땅을 [따믄]	땅에 [따메]
낮이 [나지]	낮을 [나츄]	낮에 [나제]
꽃이 [꼬치]	꽃을 [꼬츄]	꽃에 [꼬제]
부엌이 [부어키]	부엌을 [부어클]	부엌에 [부어케]
밭이 [바치]	밭을 [바츄]	밭에 [바제]
앞이 [아피]	앞을 [아플]	앞에 [아페]
밖이 [바끼]	밖을 [바꼴]	밖에 [바께]
넋이 [녀시]	넋을 [녀츄]	넋에 [녀제]
흙이 [홀기]	흙을 [홀글]	흙에 [홀게]
여덟이 [여덟비]	여덟을 [여덟븐]	여덟에 [여덟페]
꽃이 [꽃시]	꽃을 [꽃츄]	꽃에 [꽃제]
값이 [갑시]	값을 [갑츄]	값에 [갑제]

ㄴ) 用語의 例 :

꿈아 [고바]	높아 [노파]
꿈아 [고와]	없어 [업서]
밭아 [바다]	갈아 [가라]
웃어 [우서]	걸어 [거터]
있어 [이씨]	늦어 [느저]
꽃아 [조차]	막아 [마가]

꺾아 [까까]

꺾아 [가타]

꺾다 [발바]

꺾어 [을겨]

꺾어 [일거]

꺾아 [할타]

꺾아 [살막]

꺾아 [아나]

꺾사 [안차]

꺾어 [시막]

2) 語幹 + 接尾辭

떡이 [머기]

떡암 [마감]

떡아지 [모가지]

떡아지 [쁘가지]

애꾸눈이 [애꾸누네]

베눈이 [베누네]

미달이 [미다지]

땀받이 [땀바지]

길이 [기리]

얼음 [어름]

다듬이 [다드미]

말더듬이 [말더드미]

얼음 [어름]

손잡이 [손자비]

웃음 [우슴]

용솟음 [용소슴]

맞이 [마지]

젓긱지 [젓구지]

쫓음 [조츰]

쫓음 [조츰]

쇠붙이 [쇠부치]

벼풀이 [벼출치]

술아 [노피]

값은 [가품]

겉음 [거름]

뭇음 [무름]

없어 [업서]

가없이 [가업서]

있음 [이슴]

있어 [이짜]

췌음 [무품]

췌음 [여품]

3) 語幹 + 語幹, 接頭辭 + 語根에 있어 앞에 있는 形態部의 末音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인 경우.

속웃 [소골]	떡안반 [떠간반]
손아귀 [소나귀]	눈웃음 [누우슴]
팔아들 [파다물]	난알 [나달]
물오리 [무로리]	홀아미 [호라미]
반알 [바말]	참외 [차외]
집안 [지반]	탑위 [타위]
방안 [바안]	강아래 [가아래]

2. 縮略되는 경우

1) 語幹 + 語幹, 接頭辭 + 語根에 있어 앞에 있는 形態部의 末音이 “ㄱ, ㄷ, ㄷ, ㅅ, ㅈ, ㅊ, ㅌ, ㅍ, ㅍ” 인 경우.

이 때 “ㄱ, ㄷ.”는 [ㄱ]로 “ㄷ, ㅅ, ㅈ, ㅊ”는 [ㄷ]로, “ㅌ, ㅍ”는 “ㅂ”로 發音된다.

부엌안 [부엌-안]	넋없다 [넋-엷다]
꿀알 [꿀알]	웃음식 [웃-음식]
젓서미 [젓-서미]	꽃아래 [꽃-아래]
브룸아래 [브룸-아래]	값없다 [값-엷다]

2) 語幹 + 語幹에 있어 뒤에 있는 形態部의 頭音이 “야, 어, 요, 우, 이” 인 경우.

이 때 異聲트 現象과 함께 口蓋音化한 “ㄴ, ㄹ” 소리가 난다.

第 8 章 발 치 口

속'있	편'육	물'약	밤'육	콩'엿
결'이불	웃'익자	공'일	낮'일	밤'이슬
꽃'잎	부엌'일	밭'이랑	늦'요강	앞'이마

第 8 章 발 치 口

綴字法에 있어 形態部 乃至 낱말의 固定的 表記를 爲하여 使
用되는 발치口을 全部 列면 다음과 같다.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그 使用되는 例를 列할 아래와 같다.

ㅅ	굽다(屈)	굽다(曲)	밥(飯)	집(家)	탑(塔)
ㅆ	깊다(深)	깊다(深)	높다(高)	늘(沼)	
	엷다(薄)	무릎(膝)	숲(叢)	싶다(欲)	
	앞(前)	인다(覆)	옆(側)	잎(葉)	
	조다(杖)	헝겂(布片)			
ㅈ	공다(耕)	궁다(籠)	강다(補)	강다(臥)	
	돕다(助)	돕다(助)	만다(憎)	만다(幸)	
	쉽다(易)	흔다(寒)			
ㅊ	값(價)	가없다(憐)	부질없다(漫)		
	지름없다(愁貌)	없다(無)			

第 2 章 形 聲 論 第 1 部

ㄷ	길다(捲)	곧(脚)	곧다(直)	굳다(固)	값(穀)
	닫다(閉)	놀다(昇)	말(昆)	묻다(埋, 染)	
	믿다(信)	받다(受)	얻다(得)		
ㄹ	갈다(同)	갈(表)	끝(末)	낱(個)	밑(底)
	말(四)	발다(迫)	떨(陽)	풀다(付)	술(鼎)
	밭(豆)	얕다(淺)	맡다(任, 嗅)		
ㅅ	갓(笠)	낯(鑊)	벗다(脫)	옷(衣)	젓다(拭)
ㅈ	깨닫다(覺)	걸다(步)	걸다(籠)	깊다(汲)	눅다(焦)
	달다(走)	다칼다(盜)	듣다(聽)	묻다(問)	붓다(瘡)
	일컫다(稱)				
ㅊ	갸다(未來 ㄷ)	았다(過去 ㄷ)	었다(過去 ㄷ)		
	였다(過去 ㄷ)	있다(有)			
ㅋ	갸다(備)	꽃다(標)	꾸짖다(叱)	긋다(凶)	
	낮(賤)	낮다(低)	늦다(跪)	맞다(適, 被打)	
	맺다(結)	부르짖다(嗚)	땀(腋)	젖(乳)	
	맞다(迎)	젖다(濕)	짖다(吠)	찢다(裂)	찰다(毒)
	잊다(忘)				
ㅋ	갸(皮膚)	꽃(花)	낯(顏)	낯(鐵)	땀(捕獸網)
	뿔(帆)	뿔(幾)	빛(色, 光)	숯(炭)	숯(漆)
	숯(樞)	쫓다(從)	쫓다(逐)		
ㆁ	꺾(藥)	늑(鎗)	막다(防)	떡(餅)	떡(腐)
㆏	님(頃)	부엌(廚)			

ㄱ	꺾다 (削)	꺾다 (折)	꺾다 (經)	남다 (釣)
	담다 (拭)	뒹다 (束)	밖 (去)	볶다 (炒)
	섞다 (混)	섞다 (抄)	엮다 (編)	
ㄴ	넋 (魂)	몹 (配分)	값 (價)	
ㅇ	검엿다 (黑)	깊다랗다 (深)	깊다랗다 (深)	남다 (産)
	넣다 (入)	높다랗다 (高)	녹다 (泣)	늘엿다 (賣)
	닿다 (接)	둥글엿다 (圓)	벌엿다 (赤)	이엿다 (紅光)
	좋다 (好)	커다랗다 (大)	필엿다 (管)	척엿다 (直)
	뺨다 (辯)	빻다 (碎)	쌩다 (蒸)	세늘엿다 (治)
	짚다 (撈)			
ㅎ	늑다 (劃)	늑다 (懲, 誣)	늑다 (注)	늑노다 (鹿觀)
	왕다 (連)	장다 (紡)	장다 (澆)	
ㄹ	길 (道)	날 (日)	물 (水)	돌 (石)
ㅁ	갈다 (耕)	꺾다 (擗, 沃)	길다 (長)	늘다 (飛)
	늘다 (稀, 遊)	달다 (甘, 甜, 滋)	들다 (回)	멀다 (遠)
	물다 (咬)	딜다 (推)	뿔다 (儲)	불다 (吹)
	설다 (生鍊)	잘다 (細)	잘다 (泥)	
ㅂ	넙다 (廢)	밟다 (踏)	얇다 (薄)	여덟 (八)
	짧다 (短)			
ㅅ	술다 (詠)			
ㅇ	굵다 (太)	굵다 (擣)	기습 (飢)	늑다 (考)
	맑 (鷓)	맑다 (淸)	몹다 (淡)	밝다 (明)

第 2 篇 形 態 論 第 1 部

	붉다 (赤)	엷다 (痘痕, 縛)	읽다 (讀)	흙 (土)
ㄹ	할다 (瓠)	홀다 (挾扱)		
ㄴ	곧 (向方)	돌 (碁)		
ㄷ	끓다 (未滿)	끓다 (跪)	끓다 (沸)	달다 (耗)
	뚫다 (穿)	증다 (糶米)	질다 (厭)	알다 (病)
	올다 (可)	잃다 (失)		
ㄷ	굵다 ("그르다" [非]의 方言)	얇다 ("이르다" [早]의 方言)		
	달다 ("다르다" [異]의 方言)			
ㅁ	굵다 (膿)	굵다 (飢)	달다 (似)	삶다 (烹)
	올다 (移)	절다 (少)		
ㄴ	논 (笠)	문 (門)	신다 (履)	안다 (抱)
ㅂ	개앉다 (撒)	앉 (坐)	엮다 (置上)	
ㅅ	꼴다 (批)	재찮다 (無妨)	귀찮다 (厭苦)	끊다 (絕)
	많다 (多)	짐작다 (豫)	하찮다 (不大)	언짢다 (不好)
ㅍ	담다 (澄)	심다 (植)	꿈 (夢)	땀 (汗)
ㅇ	공 (功)	병 (病)	땅 (地)	
ㅇ	공 ("구덩"의 方言)	남 ("나무"의 方言)		

[附記] 받침ㅁ을 옮겨 찾아 쓰는 것은 綴字法上 極히 重
 要하다. 이는 받침ㅁ을 써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는 語幹
 에 母音토 (에, 으토, 의, 어서, 으니 等)을 添加하여 보아 그 때
 어떠한 ㅁ이 語幹의 末音으로 되는가를 보면 大部分 받침ㅁ을
 알리 수 있다.

第 9 章 接頭辭 와 接尾辭

例 :

낮에	낮으로	낮의
담에	담으로	담의
값에	값으로	값의
깊다	깊어서	깊으니
걸다	걸어서	걸으니
밟다	밟아서	밟으니

第 9 章 接頭辭 와 接尾辭

接頭辭와 接尾辭는, 이미 독립 바와 같이, 實質的 意味을 나타내는 語根의 앞 또는 뒤에 붙어 派生的 意味을 줌으로써 새로운 語詞을 造成하는 接辭다.

接頭辭와 接尾辭를 比較하여 보면 接頭辭는 보다 더 獨立性이 많아 語根과의 境界가 鮮明하여, 接頭辭는 더욱더 獨立한 語가 남게 된다.

(세옷: 옷, 맨손: 손, 혼자바: 다리, 웃으씨: 식기)

또한 接頭辭가 獨立語로 되는 일도 있다.

(홀[獨]로, 날[住]로)

이와 反對로, 接尾辭는 獨立性이 적어, 接尾辭를 떼어낸 語根은 完全한 語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

(피륙-: 피-, 아름답-: 아름답-, 것음-: 것)

第1節 接頭辭

接頭辭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接頭辭 + 名詞

“참—”	참새,	참대		
“숫—”	숫치녀,	숫색끼		
“들—”	들개,	들기름		
“들--”	들배,	들미나리		
“개—”	개살구,	개머루,	개나리	
“맨—”	맨손,	맨머리,	맨발,	맨몸
“온—”	온종일,	온통		
“새—”	새집,	새나라,	새옷	
“날—”	날것,	날검치,	날고기	
“군—”	군것,	군불,		군소리
“뎃—”	뎃'이,	뎃저고리		
“꽃—”	꽃나물,	꽃것,	꽃내,	꽃김치
“햇—”	햇웃,	햇이불		
“알—”	알속,	알죽		
“한—”	한길,	한습,	한더위	
“애—”	애당초			
“푸--”	푸대접			
“헛—”	헛소리,	헛기침		

第9章 接頭辭와 接尾辭

“을-”	을머,	을사파,	을팔
“외-”	외아들,	외딸,	외나무다베
“홀-”	홀아비,	홀어미	
“홀-”	홀저고리,	홀바지	
“수-”	수눔,	수소,	수캐
“암-”	암눔,	암소,	암캐
“강-”	강술		
“예-”	예'사람,	예'날	
“못-”	못사람		

2. 接頭辭 + 動詞

“짓-”	짓이기다,	짓먹다,	짓밟다
“엇-”	엇먹다,	엇나가다	
“빚-”	빚나가다		

3. 接頭辭 + 形容詞

“새-”	새'감왕다,	새'놀왕다
“시-”	시'검왕다,	시'놀왕다
“알-”	알망다,	알곳다

接頭辭에는 오늘날 너의 使用되어 활발히 새로운 語詞를 造成하는 生産的인 것파, 그와 反對로 오늘날에 와서는 새로운 語詞를 造成하는 힘이 弱한 非生産的인 것이 있다. 生産的인 接頭辭로는 “맨-, 새-, 외-, 못-, 짓-” 등을 들리 수 있으며, 非生産的인 接頭辭로는 “알-, 한-, 알-” 등을 들리 수 있다.

第2節 接 尾 辭

接尾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名詞를 만드는 것:

- “-보” 떡보, 등등보, 당달보
- “-쟁이” 환쟁이, 양복쟁이, 요술쟁이
- “-치” 서술치, 시골치
- “-이” 애꾸눈이, 목손이, 손잡이, 머판이,
다름이, 개구리, 회교리, 귀뚜라미
- “-개” 마개, 집개, 키우시개
- “-질” 낚시질, 바느질, 저울질
- “-아지” 목아지, 강아지, 막아지
- “-애기, -에기” 뿌레기, 고내기, 쓰래기
- “-음(음)” 꿈, 잠, 춤, 웃음, 울음, 곁음
- “-기” 돌보기, 줄다리기, 굶기
- “-아귀, -어귀” 손아귀, 주머귀,
- “-매기” 등매기, 팔매기, 뺨매기

2. 形容詞를 만드는 것:

- “-당” 꽃당다, 사내당다, 처녀당다
- “-스럼” 용대스럼다, 자연스럼다, 벌떡스럼다
- “-롬” 수고롬다, 향기롬다, 피롬다

第 9 章 接尾辭 와 接尾辭

“-간, -강, -양” 달강다, 짓강다, 밭양다

“-브” 짓브다, 밭브다, 낮브다

“-다랑” 눈다랑다, 술다랑다, 곰다랑다

“-왕 (영-)” 밝왕다, 감왕다, *갈왕다, 곁왕다

3. 動詞을 만드는 것:

“-히” 굴히다, 밭히다

“-리” 날리다, 놀리다, 흔들리다

“-기” 즐기다, 남기다

“-치” 앉치다, 팔치다, 깨치다

“-어” 숙어다, 먹어다

“-어려 (거리-)” 칠척어려다, 풀백어려다,

비틀거리다, 중얼거리다

“-뜨리” 깨뜨리다, 터뜨리다

4. 副詞을 만드는 것:

“-이” 글이, 담이, 적이

“-히” 분명히, 크요히, 조용히

“-내” 글내, *마침내, 여름내

이곳에서 生産的인 接尾辭로는

“-개, -질, -口 (음), -기, -단, -스럼, -히”

등을 들 수 있으며, 非生産的인 接尾辭로는

“-보, -치, -아지, -애기, -브, -다랑”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接尾辭가 語根과 結合될 때, 綴字法上 注意할 點은 아래와 같다.

1. 形容詞 또는 動詞의 語根에 接尾辭 “이” 가 붙어서 名詞 或 副詞로 된 것, “웃, 웃” 이 붙어서 副詞로 된 것 및 “음, 엄, 암” 이 붙어서 名詞로 된 것은 그 語根을 밝히여 적는다.

例 :

(1) “이” 가 붙어서 名詞로 된 것 :

- 길이 (長), 깊이 (深), 높이 (高), 다듬이 (砥擣),
땀밭이 (汗衣), 맞이 (迎), 먹이 (食料), 미닫이 (推
窓), 팔이 (勞務), 벼훅이 (稻拔機), 살림살이 (生
活), 손잡이 (手把), 식붙이 (鐵屬)

(2) “이” 가 붙어서 副詞로 된 것 :

같이 (同), 굳 (固), 길이 (永), 깊이 (深), 높이
(高), 많이 (多), 부실없이 (不實), 적어 (少)

(3) “웃, 웃” 이 붙어서 副詞로 된 것 :

붉웃붉웃 (點紅), 옥웃옥웃 (內曲), 검웃검웃 (點黑)

(4) “음, 엄, 암” 이 붙어서 名詞로 된 것 :

걸음 (步), 뉘음 (東), 얼음 (氷), 엮음 (編),
울음 (啼), 웃음 (笑), 잊음 (忘), 품값음 (報勞),
죽엄 (屍), 묻엄 (墓), 막암 (決算)

2. 形容詞 또는 動詞의 語根에 “이, 웃, 웃, 음, 엄, 암” 이 外的 接尾辭가 붙어서 다른 品詞로 轉成한 것은 그 語根을 밝히

이 적지 아니 한다.

例 :

(1) 名詞로 된 것:

까마귀(烏), 귀머거리(聾), 쓰러귀(分裂), 마개(栓)
 마중(出迎), 불경이(紅草), 비렁뱅이(乞者), 쓰레
 가(塵芥), 코뚜레(鼻木), 활가미(活細).

(2) 副詞로 된 것 :

너무(過), 뜨담뜨담(摘取), 도로(反), 바루(接近),
 비로소(始), 자주(頻)

3. 名詞의 語根에 接尾辭 “이, 아지, 웅” 이 붙어서 다른 品
 類로 轉成되거나, 또는 새로운 名詞가 造成된 것은 그 語根을 밝
 히어 적는다.

(1) “이” 가 붙어서 다른 品詞로 된 것:

곳곳이(處處), 날날이(徧徧), 몫몫이(每人分),
 살살이(每隙), 집집이(家家) 앞앞이(每人前),
 그릇그릇이(每器)

(2) “이, 아지, 웅” 이 붙어서 새로운 名詞가 造成된 것:

꿈배팔이(曲臂人), 네눈이(四目犬), 삼발이(三足鐵),
 절족발이(蹇脚人), 앵꾸눈이(隻眼人), 육손이(六指人),
 목아지(項), 박아지(匏), 집웅(屋蓋)

4. 名詞의 語根에 “이, 아지, 웅” 以外的 接尾辭가 붙어서 새
 名詞가 造成된 것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第 2 篇 形 態 論 第 1 部

例 :

피막서니 (膜), 꼬르머리 (端), 바깥 (外邊),

짜리니 (粒), 사라구니 (股間), 지푸라기 (莖片)

5. 名詞, 形容詞 또는 動詞의 語根에 子音으로 시작되는 接尾辭가 붙은 것은 그 語根을 밝혀서 적는다.

(1) 名詞語根 + 接尾辭

꽃단다 (芳), 값지다 (有價), 빛나다 (輝) 홀지다

(歸單), 끝장 (終局), 부엌데기 (炊爨), 빛갈 (色態),

농장장이 (鎗工), 옆병아 (側近), 잎사귀 (個葉)

(2) 形容詞, 動詞 語根 + 接尾辭 :

나뭇지 (鈞針), 늙정사 (老物), 뜰게질 (解縲), 덮개

(覆物), 갑작갑작하다 (擻), 굵다랗다 (顯大), 굵적

굵적하다 (擻) 깊숙하다 (幽邃), 넓적하다 (頗廣),

늪다랗다 (甚濶), 늪수그레하다 (老), 뜰적뜰적하다

(頗濶), 얼룩얼룩하다 (瘡痕), 엷드리다 (伏), 엷지

르다 (覆), 읊조리다 (吟)

[附記] 다음과 같은 語들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혀서 적지 아니 한다.

例 :

(1) ... 들... 받치口의 글소리가 따로 아니 나는 것 :

곧막하다 (未滿) 늪다랗다 (甚廣)

넓적하다 (頗廣) 떨떨하다 (頻濶)

第 9 章 接頭辭 와 接尾辭

말끔하다 (清潔)	말쭙하다 (清楚)
말짱하다 (全清)	설쭙하다 (頻脈)
설쭙하다 (脈忌)	할쭙할쭙하다 (頻抵)
알쭙하다 (稍淨)	골병 (朽病)
골쭙 (朽敗)	을무 (黷)

(2) 語源的 原形이 分明하지 아니 한 것:

납작하다 (平底)	따작따작하다 (頻摘)
말끔하다 (清潔)	말쭙하다 (清楚)
말짱하다 (全清)	고달프다 (疲)
고프다 (飢)	슬프다 (悲)
아프다 (痛)	가쁘다 (慙)
구쁘다 (食念生)	에쁘다 (解)

6. 形容詞 또는 動詞의 語根에 接尾辭 “쁘” 가 붙은 것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깃쁘다 (喜)	기쁘다
낫쁘다 (惡)	나쁘다
믿쁘다 (信)	미쁘다
말쁘다 (訛)	바쁘다

(但, “不足하다”의 뜻으로는 “나쁘다”로 적는다.)

7. 動詞의 語根에 接尾辭 “적” 가 붙어서 짐승을 나타내는

것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린다)

甲	乙	丙
놓치다 (放)	놓치다	노치다
덮치다 (覆)	덮치다	—
받치다 (支)	받치다	바치다
펼치다 (伸)	펼치다	터치다
엮치다 (覆)	엮치다	—

S 形容詞의 語根에 接尾辭 “어” 나 “히” 나 또는 “추” 가 붙어서 動詞로 轉成한 것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굳히다 (使固)	구치다
굽히다 (屈)	구피다
좁히다 (使狹)	조피다
긋히다 (使凶)	구치다
젇히다 (使後傾)	자치다
젹히다 (使後傾)	저치다
밝히다 (使明)	발키다
넓히다 (使廣)	넙피다
옥인다 (使內曲)	오기다
높인다 (使高)	노피다

第 9 章 接頭辭와 接尾辭

갖추다 (備)	가추다
낮추다 (使低)	나추다
늦추다 (使緩)	느추다
맞추다 (使合)	마추다

9. 動詞의 語源的 原形에 接尾辭가 붙어서 助詞로 轉成하여 그 뜻이 語根과 멀거지니 것은 그 語源的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마저 (그것 마저)	맞어
부더 (오늘 부더)	붙어
조차 (너 조차)	좃아

10. “하다”가 붙어서 되는 形容詞의 語根에 接尾辭 “히”나 “키”가 붙어서 副詞나 名詞로 된 것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副詞

甲	乙
꾸준히 (如一)	꾸주니
넉넉히 (充分)	넉넉키
똑똑히 (分明)	똑똑키
답답히 (鬱鬱)	답답히

第2篇 形態論 第11

꽃꽃이 (直長)	꽃꼬시
반반이 (正平)	반드시
바루기 (稍密)	바르기
곰적이 (太甚)	곰찌기
큼적이 (稍大)	큼찌기

(2) 名詞

전전이 (饌類)	전거니
매불뚝이 (高腹人)	매불뚜기
코납작이 (平鼻人)	코납자기

11. 擬聲, 擬態的 副詞에나,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 形容詞, 動詞의 語根에 接尾辭 “이” 나 “히” 또는 다른 接尾辭가 붙어서 名詞나 副詞로 된 것은 그 語根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例 :

(1) 擬聲的 副詞 + “이”

개구리 (蛙), 핑가리 (蜂), 피꼬리 (鶯), 귀뚜라미 (蟋蟀), 기러기 (雁), 나타리 (胡笛), 딱따구리 (啄木鳥), 매미 (蟬), 딱시기 (布穀)

(2) 擬態的 副詞 + “이”

작두기 (切張淡), 누더기 (襤褸), 더더기 (添垢), 떠버리 (噴霧人), 더퍼리 (輕率人), 두드러기 (癰疹), 무더기 (堆積), 비추기 (易怒人), 살사리 (好譎人), 칼썩두기 (切麵), 푸서기 (脆物), 어루기 (斑毛獸)

第9章 接頭辭와 接尾辭

(B). “하다”가 아니 붙는 語根에서 된 말

동그라미 (圓形), 부스러기 (碎屑), 짙짜미 (密約),
 갑자기 (倉卒), 반드시 (必), 숨머시 (隱密) 일찌기 (早)
 꿈지럭 꿈지럭 (蠢動貌), 간드랑 간드랑 (懸搖貌)

12. 語根에 接尾辭 “하”가 붙어서 된 形容詞는 그 語根
 과 “하”를 區別하여 적는다.

例 :

탁하다 (憫) 착하다 (善), 폭하다 (冬溫),
 텅텅하다 (鬱澁), 급하다 (急), 속하다 (速)

13. 語根에 “어”가 붙어서 된 形容詞 또는 動詞는 그 語根
 과 “어”를 區別하여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번쩍이다 (閃)	번쩍기다
번득이다 (飜)	번득기다
움직이다 (動)	움지기다

14. 形容詞 또는 動詞의 語源的 語根에 붙어서 된 것이라도
 아주 變換한 것은 그 語根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

고치다 (改), 바치다 (納), 도리다 (挾), 드리다 (獻),
 부치다 (奇送), 거두다 (收), 미루다 (轉挖), 이루다 (成),
 기르다 (養), 단나기 (差), 절잡다 (障), 코끼리 (象).

第2篇 形態論 第1部

15. 받치^ㄷ이 있는 形容詞 또는 動詞의 語根에 다음과 같은 接尾辭가 붙어서 새로운 語가 造成된 것은 그 接尾辭의 原形을 밝히기 적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양 (양) 다”

甲		乙	
검었다	검양다 (黑)	가맣다	거뿔다
늘었다	늘양다 (黃)	노랗다	누렇다
빨랐다	빨양다 (赤)	발갣다	벌정다
흰었다	흰양다 (靑)	파랗다	피렇다
동글었다	동글양다 (圓)	동그랗다	둥그렇다
찌늘었다	찌늘양다 (冷)	찌느랗다	찌느렇다

(2) “양다”

간질양다 (痒)	간지럽다
믿양다 (信)	미럽다
부들양다 (柔)	부드럽다
시끌양다 (騷)	시끄럽다
어질양다 (亂)	어지럽다
경글양다 (慘)	경그럽다

(3) “없다”

부질없다 (漫然)	부지럽다
시름없다 (愁貌)	서드럽다

第 2 篇 形 態 論

第 2 部 品 詞

第 1 章 品詞과 그 分類

每個의 語는 그 語彙的 意味에 따라 서로 區別되나, 한편 文法的 觀點에서 볼 때 많은 語가 同一한 部類로 合同될 수 있다. 例를 들면,

“방이 넓다”, “나무가 크다”, “하늘이 맑다”, “봄이 왔다”
의 “방이”, “나무가”, “하늘이”, “봄이” 는 각각 그 語彙的 意味는 다르면서도, 主語로 된 名詞인 點에서는 다름이 없다.

文法的 觀點에서 語를 가장 크게 나누는 것을 品詞라고 한다.

品詞는 自立的 品詞와 補助的 品詞로 區分된다.

1. 自立的 品詞는 對象과 그 數量, 行動, 狀態, 性質, 特性 및 行動이나 狀態의 標識 등을 나타낸다.

自立的 品詞에 屬하는 것은 名詞, 數詞, 代名詞, 形容詞, 動詞 및 副詞다.

1) 名詞은 對象과 그 狀態를 나타낸다.

例:

사람이, 나무로, 잡이, 책상어, 祖國을, 大同江의, 모르겠다.

2) 數詞은 對象의 數量 또는 그 順序를 나타낸다.

例: 한 사람, 열 개, 아홉 장, 첫 날.

3) 代名詞은 對象 또는 그 數量을 直接 가리키지 않고, 文脈 위에서 이미 命名된 것 또는 場面에서 理解될 수 있는 것을 指示할 문 다.

例: 이 사람, 내가, 저 곳에.

4) 形容詞은 對象의 性質과 狀態를 나타낸다.

例: 씩씩하다, 높다, 흰 꽃.

5) 動詞은 對象의 行動 또는 狀態를 나타낸다.

例: 읽는다, 보았다, 鬪爭하자, 가는 사람.

6) 副詞은 行動 또는 狀態의 標識, 性質의 程度 등을 나타낸다. 例: 높이, 매우, 아주.

2. 補助的 品詞은 그 自體 自立的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自立的 品詞과 함께 쓰여, 이에 意味上 各種의 ニュ앙스를 賦與한다.

補助的 品詞로는 助詞가 있다.

例: 컸녕, 마저, 야말로.

3. 따로 獨特한 部類를 이루는 것으로 感動詞가 있다. 感動詞은 自立的 品詞에도 補助的 品詞에도 所屬되지 않으며, 感愴

第 1 章 品詞의 分類

感動 等を 表現할 뿐, 物을 命名하지는 않는다.

例: 오오, 아쿠, 참.

이리하여 朝鮮語 文法에는, 여섯 개의 自立的 品詞, 한 개의 補助的 品詞, 그리고 感動詞, 도합 여덟 개의 品詞가 있게 된다.

이 중 名詞, 數詞, 代名詞를 合하여 體言, 動詞와 形容詞를 合하여 用言이라고 부르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다음, 以上の 여러 品詞를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觀點에서 다시 分類하여 縝으로써 그들의 性質을 더욱 뚜렷이 알리 수 있다:

- 1) 그 品詞는 무엇인가를 命名할 수 있느냐?
- 2) 그 品詞는 概念을 表現할 수 있느냐? 表現할 수 있다면 어떠한 概念을 表現할 수 있느냐?
- 3) 그 品詞는 文章의 成分이 될 수 있느냐?

이에 對하여 肯定的인 對答을 +로, 否定的인 對答을 -로 表示한다면, 品詞의 種類는 다음의 圖表와 같이 된다.

品 詞 的 種 類	命 名 能 力	概 念 表 現 力	文 章 成 分 力
1. 基 本 品 詞	+	+	+
2. 代 名 詞	(+)	-	(+)
3. 數 詞	-	(+)	(+)
4. 助 詞	-	(+)	-
5. 感 動 詞	-	-	-

基本 品詞 (名詞, 形容詞, 動詞, 副詞——山이, 꽃이, 숲이, 아름답다, 된다, 간다, 아주, 제 等) 是 事物, 性質, 行動 狀態 等을 命名하고 具體的 (實質的) 概念을 表現한다. 또한 이 些 品詞로써 文이 構成된다.

代名詞 (나는, 네가, 누구, 이, 그, 저, 여기, 그리, 저리 等) 是 直接的으로 對象을 命名하지 못하고 言語 行動의 場面에 依存하여 對象을 指示할 뿐이므로, 누가, 어디서, 언제 이야기하고 있는 냐? 에 따라 그 意味를 變更시킨다. 따라서 基本 品詞로써 命名된 事物과 現象에 對한 副次的 命名으로써 밖에 理解되지 않는다. 代名詞는 概念을 表現하지 못하며, 基本 品詞의 代理者의 資格으로써만 文章의 成分이 될 수 있다.

數詞 (하나, 셋, 열, 백, 천 等) 是 獨行的 數的 概念을 表現하여 正常的인 (數學的인 아닌) 言語 行爲에서는 自立的인 文章成分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名詞와 함께 如야란 (학생 하나 이, 붓 두 자루, 집 세 채, 사과 세 개 等) 文章成分이 될 수 있다. 또한 事物과 現象을 命名하지 못한다. 이는 數詞가 表現하는 것이 現實에 自立的으로 存在하지 않고, 사람들에 依하여 抽象된 數的 概念이기 때문이다.

助詞 (은, 도, -나, 야, 마저 等) 是 自立的인 아니며 아무 것도 命名하지 못한다. 이는 助詞가 自立的인 品詞를 補助的으로 強調하는에 不過한 까닭이다. 助詞는 그 自體 文章成分이 될 수 없으며, 단지 다른 基本 品詞에 同伴하여서만 文이나 語詞 結合

第 2 章 名 詞

가운데에 나타낸다.

(나는, 너도, 잘들, 그것이야말로)

感動詞 (에크, 아아, 자) 는 가장 그 能力이 制限되어 있다. 이는 感情이나 希望을 命名하지 못하고 단지 그 信號로만 되는 까닭이다. 感動詞는 純전히 表現的인 品詞이기 때문에, 아무런 概念과도 結付되어 있지 않으며 文의 밖에 있다. 그렇나 그 대신 그 自體 한 개의 完全한 文이라고 볼 수 있다.

第 2 章 名 詞

名詞는 對象과 그 狀態를 나타내는 品詞다. 따라서 이에 對하여는 누구? 무엇? 등의 質問을 發할 수 있다.

第 1 節 名詞의 種類

第 1 項 固有名詞와 普通名詞

名詞는 그 命名하는 對象에 따라 固有名詞와 普通名詞로 區分된다.

固有名詞는 特定の 對象에 對하여 同一 種類의 다른 對象과 區別하기 爲하여 주는 이름이다. (例: 平壤, 朝鮮)

普通名詞는 同一 種類의 모든 對象에 對하여 共通的으로 주

는 이름이다. (例: 都市, 國家)

普通名詞가 固有名詞로 되는 일이 있다. 例를 들면,
새마을 (새로 된 마을 → 固有의 地名), 덕천거리 (덕을 팔는
거리 → 固有의 地名), 큰애기 (커다랗고 애기 → 固有의 人名).

固有名詞가 普通名詞로 되는 일도 있다. 例를 들면,

암대야, 툄트 (學者의 이름 → 電氣의 單位)

핀트겐 (學者의 이름 → 光線의 이름)

固有名詞 가운데에는 여러 語로써 形成된 合成 名詞가 적지
않다.

例:

“리 순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리조 실록”.

[附記] 固有名詞 中 끝 音節에 받침이 있는 人名에 限
하여 接尾辭 “이” 를 붙이는 일이 있다.

인순 — 인순이는

원철 — 원철이도

인동 — 인동이

그렇나 呼稱語로 된 때에는 “이” 를 붙이지 않는다.

인순아!

원철아!

인동아!

第 2 項 完全名詞와 不完全名詞

名詞은 그 機能에 따라 完全名詞와 不完全名詞로 區分된다.

完全名詞은 그 것만으로도 自立性을 가지어 各級의 文章成分 (主語, 規定語, 補語, 述語) 으로 될 수 있는 名詞로서, 大部分의 名詞은 이에 屬한다.

例: 학교는, 사람의, 집에서, 학생이다.

不完全名詞은 그 것만으로는 自立性을 못 가지어, 반드시 이를 修飾하는 規定語가 그 위에 있어야만 文章의 成分이 될 수 있는 名詞이다.

例: 이 것이, 잘 바를, 먹던 차에, 비웃는 척하다.

이제 不完全名詞를 살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主語, 述語, 規定語 및 補語로 될 수 있는 不完全名詞.

반드시 規定語를 必要로 하는 點에서만 完全名詞와 다르다.

例:

“것” 主 語 이 것은 누구 물건입니까?

述 語 그 물건은 제 것입니다.

規定語 그 것의 좋은 점은 여기 있습니다.

補 語 당신은 그 것 조차 모르십니다 그러.

“바” 主 語 당신의 바는 무엇입니까?

述 語 이 것은 저도 보지 못하던 바입니다.

規定語 할 수 있는 바의 모든 힘을 다합시다.

第 2 篇 形 態 論 第 2 部

	補 語	동무도 잘 <u>알</u> 는 <u>박</u> 와 <u>같이</u> ……
“이”	主 語	저 <u>이</u> 가 그 때 나를 구해 준 사람입니다.
	述 語	동무가 만나보고 싶어 하던 <u>분</u> 은 저 <u>이</u> 지요?
	規定語	저 <u>이</u> 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補 語	나는 저 <u>이</u> 보다는 <u>이</u> <u>이</u> 를 더 잘 <u>알</u> 습니다.
“분”	主 語	저 <u>분</u> 이 박 동무의 아버지입니다.
	述 語	당신을 부른 사람은 저 <u>분</u> 입니다.
	規定語	저 <u>분</u> 의 <u>데</u> 에 가 보시겠습니까?
	補 語	이 책을 그 <u>분</u> 에게 <u>드리</u> 시요
“데”	主 語	모르는 <u>데</u> 가 있거든 <u>뚫</u> 어 보시하십시오.
	述 語	저 <u>곳</u> 이 <u>우</u> 라들의 <u>놀</u> 던 <u>데</u> 입니다.
	規定語	제가 살던 <u>데</u> 의 이름도 <u>모</u> 름답.
	補 語	너는 <u>그</u> 렇나 <u>데</u> 도 <u>못</u> 가 보았니?
“해”	主 語	누구 <u>해</u> 가 <u>재</u> 일 <u>중</u> 니?
	述 語	이 책은 내 <u>해</u> 야.
	規定語	네 <u>해</u> 의 <u>중</u> 은 <u>점</u> 이 무엇이나?
	補 語	네 <u>해</u> 도 <u>좀</u> 가지어 오렴.
“따위”	主 語	너 <u>따</u> 위가 무슨 성공을 하겠단 <u>말</u> 이나?
	述 語	그 <u>놈</u> 들도 다 너같은 <u>따</u> 위구나?

第2章 名詞

規定語 그 따위 영화는 다시 보지도 달아라!

補語 이 따위를 사오다니!

2. 主語로만 될 수 있는 不完全名詞.

“수” 主語 그까지건 단박에 알아 별 수 있습니다.

“키” 主語 그 이가 그렇키 리가 있나요?

“씨” 主語 봄일 씨 분명하구나?

3. 述語와 補語로 될 수 있는 不完全名詞.

“터” 述語 그로서는 근래 노력이 많은 터이었다.

補語 서로 친한 터에 무슨 다름을 한담.

“차” 述語 그가 찾아 온 것은 마침 내가 그를 기다리던 차였다.

補語 걱정만 하던 차에 아들이 집으로 도라왔다.

“따름” 述語 젊었을 때 그는 밤낮 놀기만 할 따름이었다.

補語 자기 책임을 못하였을 따름으로도 인민의 앞에 사죄할 근거가 충분하거늘……

4. 補語로만 될 수 있는 不完全名詞.

“척” 그는 등고도 모르는 척 한다.

“채” 그는 나무를 안은 채 눈을 감았다. (조 명희)

“체” 그것도 못 알아 듣는 체 하니까, (리 태준)

“듯” 胡弓'소리가 여기 저기서 미여지 듯 애라는 듯

등리어 오고…… (김 사량)

“양” 이 나라의 강물인 양 그 맑은 마음을
봄날의 아지랑이와 희망이 멀리서 이튼거리
고…… (조 가철)

“등” 잠시 눈을 붙이는 듯 달는 등한 뒤에 새벽에
일어나 떠나 : 되었다. (김 사량)

“번” 갓났더라던 공설히 이백일 손해 보셔라 번 했
소 (라 기영)

“제” 어느 해 이른봄에 이 땅을 하계곡과 같이 서북
간도로 물러가 가는 한 때의 무리가 마지막 이
강을 건너 제 그비들 틈에 같이 끼여 가
는 한 청년이 있어…… (조 명회)

“적” 새살 먹은 잣나무에 적 살리 곡을 찾아 북국의
고향을 봉겼고…… (안 통단)

“줄” 소련 팔찌산 탁자에 발가는 줄 모르네 (조
기철)

“지” 어떻게 화를, 지난 지도 모르며, 또 어떻게 불
행 있을 지도 모르며…… (조 가철)

“만” 내게는 구체적으로 등리어 줄 만한 아무런
밀천도 없었다. (김 사량)

“만큼” 조선의 설강 저대인 인천의 이 축항은 전조선
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리 만큼 그 규모가 크

第 2 章 名 詞

호 뜰만한 것아였다. (장 경애)

“처럼” 그는 자기 눈까지 잘 동안이 몇 시간이나 되는 것 처럼 지리하였다. (리 기영)

“적” 그 사과는 참 먹음 적 한데.

“대로” 농사치에도 별별동기 없이 모두 작년에 장던 대로 소작을 하는데 ... (리 기영)

“결” 농사일 배울 결 왔어요 (한 설야)

“상” 그렇나 쓸 데 없는 걱정만도 아닌 상 싶었다.
(최 명익)

사각모 같은 것은 당초 이야기도 있는 상 싶
기 않고 교복도 없었다. (한 설야)

第 2 節 名詞의 造成

名詞의 造成에는 單純名詞 (사람, 개, 산 등) 以外에 다음과 같은 여러 手法이 있다.

1. 合成의 手法에 依한 것:

1) 名詞 語幹 + 名詞 語幹

가) 앞에 있는 名詞가 規定語, 뒤에 있는 名詞가 被規定語로 되는 경우

例:

갈'대, 눈'들, 눈'웃음, 금'미녀, 꽃'바구니, 꽃'철, 물'으러,
말'밭, 밤'물, 비'밭, 밤'알, 부'삽, 범'나비, 술'뿌리, 실'범,

第 2 篇 形 態 論 第 2 節

살얼음, 썩발, 석질, 주주'들, 칼날, 코'풍, 흡내.

ㄴ) 두 名詞가 同等한 資格을 가지는 경우:

例:

마소, 밤낮, 안팎, 년늬, 눈코, 눈발, 아침저녁, 팔다리,
봄가을, 앞뒤 아들딸, 아래위, 물불, 손발.

2) 用言 語幹 + 名詞 語幹

묵발, 맞질, 가깝증, 민살머리, 싫증, 검머섯.

3) 用言 語幹 + 토 + 名詞 語幹

연창, 쥘'손, 들'것, 날'짐승, 길'짐승, 테릴사위, 된장,
잔지, 군밤, 잔소리, 빈말, 왼손, 모진바람, 굶은비, 얇은
자리, 낱돌, 큰마누라, 큰기침, 구런내, 덴가슴.

4) 用言 語根 + 名詞 語幹

너털웃음, 건들바람, 뽀족집, 더풀머리

其 他

배넛병신, 배넛깃, 못된놈, 몹쓸놈.

2. 接辭의 手法에 依한 것:

1) 接頭辭를 붙이는 例:

새색찌, 훈아비, 생리별, 생소리, 날쌔, 날고기, 군말, 군
소리, 숫색찌, 울벼, 풋나물, 풋고추, 울강냉이, 헛기침,
헛소리, 헛자, 해쌀, 해'벼, 핫웃, 핫저고리, 이밤, 임쌀,
강술, 의기러기, 외나무다리, 예'날, 예'적, 맨발, 맨머
리, 응생원, 응술, 이붓아미, 이붓어미, 개나리, 개살구,

들배, 들기나리, 한숨, 한여름.

2) 接尾辭를 붙여나 例:

加添되는 接尾辭에는 두 가지 種類가 있다. 첫째 種類의 接尾辭는 各種의 品詞로부터 새롭나 意味를 가진나 名詞를 造放하는 것이며, 둘째 種類의 接尾辭는 새롭나 同族語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以前의 意味에 各種 變態를 줄 뿐인 것이다.

i) 첫째 種類의 接尾辭.

ㄱ) 用言 語幹 + ㅅ (으) 接尾辭

진-다 → 진, 빛-다 → 빛, 가물-다 → 가물, 피-다 → 피...

ㄴ) 用言 語幹 + ㅁ (음)

꾸- → 품, 자- → 잠, 지- → 지ㅁ, 어- → 어ㅁ, 때- → 때ㅁ, 추- → 춥, 뜨- → 뜨ㅁ, 깃보- → 깃보ㅁ, 비비- → 비비ㅁ, 어둡- → 어둡ㅁ, 웃- → 웃음, 울- → 울음, 엮- → 엮음, 졸- → 졸음, 놀- → 놀음, 갓- → 갓음.

(接尾辭 “엄, 암” 이 加添되는 例도 있다.)

죽- → 죽엄, 묻- → 묻엄, 막- → 막암.

ㄷ) 用言 語幹 + 이

손잡- → 손잡이, 미달- → 미달이, 돈벌- → 돈벌이, 하루살- → 하루살이, 옷걸- → 옷걸이, 넓- → 넓이, 갈- → 갈이, 높- → 높이, 덩- → 덩이, 흥- → 흥이, 밭갈- → 밭갈이, 빙- → 빙이, 다듬- → 다듬이.

ㄴ) / ㄷ) 와 ㄷ) 의 合成된 例.

섯- → 겹슴겹이, 앉- → 앉음앉이, 놀- → 놀음놀이,
되- → 될될이.

ㄷ) 用言 語幹 + 기

돌보- → 돌보기, 고기잡- → 고기잡기, 짚-- → 짚기,
굽- → 굽기, 줄다리- → 줄다리기.

ㄹ) 用言 語幹 + ㅐ (개)

꾸미- → 꾸미개, 귀후비- → 귀후비개, 이쭈신- → 이
쭈신개, 배- → 배개, 덮- → 덮개, 짜- → 짜개, 놀- →
노래, 막- → 막개, 짜- → 짜개, 집- → 집개, 날- → 날개.

ㅅ) 擬聲, 擬態的 副詞 + 이

개구리, 딱따구터, 기러기, 작두기, 평화리, 띠꼬리,
귀뚜라미, 매미, 딱꾸기, 누더기, 터피리, 어루기.

[附記] 接尾辭의 나타내는 意味의 點으로 보면, 그 代表
的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하는 (한) 사람" 의 뜻

1) -보

떡보, 뚱뚱보, 땅딸보, 곰보, 바보, 털보.

2) -쟁이

관쟁이, 양부쟁이, 요술쟁이.

3) -며기

촌며기, 시골며기.

4) -내기

서울대기, 시골내기.

5) -치

서울치, 시골치, 빙치, 열치, 거머치.

6) -뱅이

거렁뱅이, 비렁뱅이, 장물뱅이.

7) -이

애꾸눈이, 툭손이, 곰배팔이.

(2) 道具의 뜻.

“-개” 또는 “-애”

마개, 집개, 이쭈지개, 배개.

(3) 反復的인 行動의 뜻.

“-질”

낚시질, 바느질, 도끼질.

(4) “價値”의 뜻.

“어치”

한문어치

“짜리”

서문짜리

ii) 둘째 種類의 接尾辭.

語幹에 붙어서 자그만하고 귀엽나 것(愛情), 또는 보기 싫은 것(侮蔑)이라는 意味를 本來의 意味에 賦與한다.

1) -아지

목아지, 박아지,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ㄴ) -애기, -에기

푸레기, 꼬내기, 쓰레기, 오래기.

ㄷ) --앵이

프랭이, 가쟁이, 팡이, 살갱이, 놀갱이.

ㄹ) -어귀, -아귀

주머귀, 손아귀, 꼬리귀.

ㅁ) --거리

떼거리, 들거리.

ㅂ) -머리

버튼장머리, 인정머리, 심정머리, 소갈머리, 잔등머리

ㅅ) -사니, -서니

프락서니, 철딱서니, 매사니.

ㅇ) -통이

눈통이, 꿀통이, 보통이.

ㅈ) -때기

팔때기, 등때기, 팔뚝때기, 배때기.

ㅊ) -뎡이

들뎡이, 알뎡이, 방뎡이.

ㅋ) --개비

장직개비, 성냥개비.

ㅌ) -서리, -서기, -새

第 2 章 名 詞

틀서기, 틀서러, 틀새, 푸서러, 푸륙기, 푸새, 잎새,
모양새, 먹새.

모) -다리

모양다리, 키다리, 와룡다리, 늪다리.

공) -제기

눈곱제기, 미옥개기, 피제기, 보제기.

其他

3. 内部 屈折의 手法에 依한 것:

語根에 外部的의 接辭를 加添하지 않고, 語根 内部의 子音
또는 母音 (主로 母音) 을 바꿈으로써 意味量, 意味價에 差異가
있는 名詞를 만들는 것을 말한다.

보스럼	X	부스럼
야드람	X	여드름
골(谷)	X	굴(窟)
마리(首, 匹, 羽)X		머리(頭)
알(卵)	X	얼(精)
냉물(淸水)	X	민물(淡水)
가죽(皮)	X	거죽(表)
맛(味)	X	멋(趣)
쓰시개	X	수시개
가깃	X	거깃
망울	X	명울

노명	X	구명
감장	X	결정
안정	X	인정
채각	X	지각
담치	X	력치

第 3 節 名詞의 文法的 範疇

文法的 範疇란, 文法的 意味의 共通性에 따라 合同된 語, 語의 部分, 또는 語詞 結合의 形態를 말한다.

朝鮮語의 名詞에는 格, 時稱, 法 및 階稱의 네 가지 文法的 範疇가 있다.

[附記] 文法的 範疇로서의 數는, 嚴格히 말하여, 朝鮮語에는 存在하지 않는다. 卽 單數, 複數 等の 數의 區別이 特別히 없다. 例를 들면,

저기 산 밑에 집이 보입니다.

에서 집이 하나 있는지 또는 그 이상 있는지 明示되어 있지 않다. 집이 하나 있어도 좋고, 또는 여럿 있어도 상관 없다. 數의 觀念을 超越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나 特別히 複數임을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手法이 使用된다.

1) 反復의 手法

同一한 語幹을 反復한다.

사람사람이, 나날이, 집집에서, 포기포기가, 거리거리로.

2) 補助語의 手法

助詞 “들”을 添加한다.

사람들이, 아이들은, 집들이.

助詞 “들”로써 複數 觀念을 나타내는 것은 本來는 具體名詞에 限하였으나, 漸次로 抽象名詞에도 使用되는 傾向이 있다

例:

原則들은 잘 樹立되었다.

政黨 社會團體들에게 보내는 편지.

第 1 項 格

格은, 名詞 (數詞, 代名詞) 가 文 가운데의 다른 語에 對하여 가지는 各種 關係를 나타내는 文法的 範疇이다. 例를 들면,

물속에 돌을 던지어 보자.

이 집은 돌로 만들었구나.

에 있어 “돌” 은 두가지의 다른 格 形態를 가지고 있다. 一即 “돌을” 은 述語 “던지다” 의 補語로서 던지는 물건을 나타내며, “돌로” 는 述語 “만들다” 의 補語로서 만들니 材料를 나타낸다.

格은 體言을 用言과 區別하는 가장 커다란 標識이다.

朝鮮語에는 主格, 屬格, 對格, 與格, 位格, 造格, 具格 및 呼格의 어덥 가지 格이 區別된다. 嚴格히 말하면, 呼格은 다른 格과 그 機能이 다르나, 格의 하나로 보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

다. 每個의 格이 가진 意味와 그 形을 보던 다음과 같다.

1. 主格 — 主格의 形은 다음과 같다.

1) “-가” (開音節 아래)

비가 온다.

기차가 달린다.

2) “-이” (閉音節 아래)

눈이 내린다.

기선이 기적을 울린다.

[附記] “이”는 開音節 아래에도 쓰이는 일이 있다.

실로 화물차 꼭대기는 되우 어지렁었고, 바이 없이 또한 흥기도 하였다. (김 사냥)

산비탈 바위우에 청년 하나이 버쩍 올라 선다. (조 기천)

3) “-께서” (主體에 對하여 敬意를 表할 때)

성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主體에 對하여 最大의 敬意를 表할 때 使用되는 “새옵서”가 있으나 오늘날은 그다 쓰이지 않는다.

이 以外에 主格의 特殊形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 “-란 (이)란” (主體를 說明하려 할 때)

(開音節 아래 “-란”, 閉音節 아래 “-이)란”)

철학이)란 무엇이나 하면……

飛行機란 재미있는 機具다. (민 태준)

심철아와 나와 다른 것이)란 여기 있었구나. (강 경애)

5) “-로서(-으로서)” (主體에 어떠한 資格을 認定할 때)

(開音節 아래 “-로서” 閉音節 아래 “-으로서”)

학생으로서 그것도 모름다.

더욱 오늘 朝鮮과 같은 民族이나 社會로서 좋은 國家
建設을 하자면 어느 角度로 비추어 보나 運命的으로 結
托이 될 社會는 어디보다 여기이기 때문이다. (리 태준)

主格의 名詞는 文에서

1) 主語로 된다.

위의 例 參照.

2) 位格 대신으로 轉成의 補語로 된다.

그놈은 이제야 사람이 (사람으로) 되었다.

교육자가 (교육자로) 되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3) 否定文에서 “아니다” 와 함께 쓰인다.

이것은 집이 아니다.

그것은 개가 아니다.

2. 屬格——屬格의 토는 다음과 같다.

“-의”

현하의 국제정세는 어떠합니까?

조선 민족은 찬란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屬格의 名詞는 文에서

1) 規定語로 된다.

위의 例를 參照.

ㄴ) 直接 客體의 補語로 된다.

철학의 연구

인물의 심사.

ㄷ) 規定語句, 不定形句의 主語로 된다.

그사람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문의 보도하는 바와 같이……

그 歷史의 오래기로, 環境과 條件의 苛竦하기로 世界
一의 팔찌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김 자량)

[附記] “-의”는 다른 토와 合成되는 일이 많다.

例:

-에의, -에로의, -에 있어서의, -으로서의,

-에 關하여서의, -에 比하여서의.

3. 對格 — 對格의 토는 다음과 같다.

“-를 (을)” (開音節 아래 “-를”, 閉音節 아래 “-을”)

우리들은 이저께 영화를 보았다.

인민은 조국을 사수한다.

“-를”은 “-리”로도 된다.

여기서 쌀 잡지 말아.

이와 같이 對格의 名詞는 文에서 直接 客體의 補語로 되나,

때로는 對格의 名詞가

ㄱ) 與格 대신으로 間接 客體의 補語로 된다.

어머니가 아이를 (이이에게) 젓을 먹인다.

ㄴ) 造格 대신으로 原因과 手段의 補語로 된다.

물을 (물로) 어름을 단들나다.

ㄷ) 位格 대신으로 轉成의 補語로 된다.

물을 어름을 (어름으로) 만들나다.

ㄹ) 特殊한 自動詞의 補語로 된다.

잠을 잔다. 꿈을 꾀다.

길을 간다. 하루를 왔다.

[附記] 對格 로 “를”은 다음과 같은 動詞와 結合하여 使用되는 일이 많다.

—를 爲하여

—를 向하여

—를 시키어

4. 與格 — 與格의 르는 다음과 같다.

1) “—에게” (“—에게다” “—에게다가”) (生物에 限함)

그 동무에게 (—에게다, —에게다가) 이것을 선사 합시다.

피 마르는 동포에게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기개를

우리 몇몇이 보이였다. (조 기철)

2) “—께” (客體에 對하여 敬意를 表할 때)

아버지께 말씀 드리여 보자.

3) “—한테” (生物에 限함)

그 이 차레 같이 가지 않겠니?

4) “너려” (生物에 限함)

저 아이더너 물어 보자.

이와 같이 與格의 名詞는 文에서 行動의 主는 客體를 나타낼 뿐 아니라 行動을 일으키는 作因도 나타낸다.

개에게 물리었다.

아버지께 무중을 들었다.

어떻게 사람차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5. 位格——位格의 托는 다음과 같다.

7) 固定된 位置를 나타내는 경우.

1) “-에” (“-에다”, “-에다가”)

책에 (에다, 에다가) 글을 쓰지 말아.

레일 열차에 만나기로 합시다.

월터에게는 글년에도 두레가 났다. (리 기영)

다른 동무들은 이 麻紙와 그보다 좀 결이 굳는 油光紙에

다 重寶한 文件을 곧 잘 써나가며... (김 사랑)

[附記] “-에”는 原因의 뜻도 나타낸다.

털이와 피로가 나는 좀체로 담배를 피워물리 氣力도 나

지 않았다. (김 사랑)

2) “-에서 (-서)”

이번에는 박 동무 집에서 회를 합시다.

목도에 (서) 담배를 피우지 말시요.

[附記] “에서”는 集合的인 抽象的 主體도 나타낸다.

우리 학교에서 이기였다.

ㄴ) 出發의 位置를 나타내는 경우.

3) “-에서” (“-서”)

쓰런에서 (서)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서) 오는 길이니?

어느덧 원소의 숲에서 정청하게 등리며 나오던 빨래 소리
들리는 듯 하였다. (강 경애)

4) “-에게서” (生物에 限함)

그는 자기 부친에게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리
기영)

그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5) “-한테서” (生物에 限함)

나는 그 자람한테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ㄷ) 向方의 位置를 나타내는 경우.

6) “-로”, (“-으로”) (開音節 및 “ㄹ” 로 끝나는 音
節 아래 “-로”, 閉音節 아래 “-으로”)

지금 학교로 가지 않니까?

그 굴로 들어가지 말시요.

집으로 따위 가자.

여러분은 애국적 정년으로 되시지요!

7) “-에게로” (生物에 限함)

그 책임은 그 동무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8) “-한테로” (生物에 限한)

그 사람한테로 가 뚫어보지는 말시지요.

9) “-게로” (敬意를 表할 때)

그러한 것은 형님께로 넘기여 버리시지요.

이와 같이 位格의 名詞는 文에서 時間의 補語, 場所의 補語, 原因과 手段의 補語 및 轉成의 補語로 된다.

[附記] 位格 助 “에”는 다음과 같은 動詞와 結合하여 使用되는 일이 많다.

- 에 顯하여, -에 對하여, -에 比하여, -에 있어(서);
- 에 依하여.

位格 助 “-로”는 다음과 같은 助詞 또는 動詞와 結合하여 使用되는 일이 많다.

- 로 부터, -로 因하여, -로 말미암아

6 造格——造格의 助는 다음과 같다,

1) “-로 (으로)” (開音節 및 “리” 로 끝나는 音節 아래 “-로” 閉音節 아래 “-으로”)

벽돌로 집을 짓시지요.

저는 오늘 병으로 못 가겠습니다.

연필은 이 كام로 꺾으시십시오.

가족을 못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 (최 학총)

2) “-로써 (-오로써)”

第 2 章 名 詞

작가들은 말하자면 붓으로 적과 써운다.

어떠한 원인으로써 그는 성공하였습니까?

우리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해방은 우리들의 피로써
써워 지니여야 되며…… (김 사랑)

이와 같이 造格의 名詞는 文에서 原因과 手段의 補語로 된다.

7. 具格—— 具格의 托는 다음과 같다.

1) “-와 (과)” (開音節 아래 “-와”, 閉音節 아래 “-과”)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다.

너는 형님과 같이 오너라.

이 아이는 아버지와 꼭 같이 생겼구나.

2) “-하고”

너는 누나하고 같이 오렴

3) “-랑 (어랑)”

떡이랑 과자랑 많더라.

이와 같이 具格의 名詞는 文에서 同種의 文章成分을 連結하
거나 樣態의 補語로 된다.

8. 呼格—— 呼格의 托는 다음과 같다.

1) “-야 -아” (開音節 아래 “-야”, 閉音節 아래 “-아”)

새야 새야 과랑새야 (民謠)

영남아! 영남아!

칠호 낮게 부르짖는다. (조 기천)

2) “-여” “-이여” (開音節 아래 “-여”, 閉音節 아래

이여”) (특히 嚴肅하게 부를 때)

아 그대 키다랑 몰이여! (한 명천)

참당 전우여!

이 나라의 천연 딸이여 (조 기천)

3) “-이시여” (敬意를表할 때)

존경하는 장군이시여!

이와 같이 呼格의 名詞는 文에서 呼稱語로 된다.

第 2 項 時 稱

時稱은 名詞, 形容詞 및 動詞로써 表現되는 狀態 또는 行動과, 이야기의 進行되는 瞬間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文法的 範疇이다.

時稱에는 基本的으로 過去, 現在, 未來의 세 가지가 있다.

過去는 이야기의 進行되는 瞬間보다 以前에 存在할 狀態 또는 行動을 나타내고,

現在는 이야기의 進行되는 瞬間과 同時에 存在하는 狀態 또는 行動을 나타내며,

未來는 이야기의 進行되는 瞬間보다 以後에 存在할 狀態 또는 行動을 나타낸다.

이 외에 過去를 基準으로 하여 過去보다도 더 以前에 存在하였던 狀態 또는 行動을 나타내는 先過去와 過去에 있어 그 보다 未來에 存在할 狀態 또는 行動을 나타내는 過去未來도 있을 수 있다.

名詞의 時稱은 名詞가 述語로 될 때와 規定語로 될 때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제 두 경우의 時稱을 따로 따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述語로 될 때의 時稱

現在: 語幹 + 0 (이) 例: 소다, 말이다.

過去: 語幹 + 였 (이였) - 例: 소였다, 말이였다.

先過去: 語幹 + 였(이였) + 였 - 例: 소였였다, 말이였였다.

未來: (1) 語幹 + 겠 (이겠) - 例: 소겠다, 말이겠다.

(2) 語幹 + 리 (이리) - 例: 소리다, 말이리다.

過去未來: 語幹 + 겠 (이겠) + 였 -

例: 소겠였다, 말이겠였다.

[附記 1] 未來의 時稱 트 “겠-” 은 未來의 뜻 以外에 推測의 뜻도 가지나다.

그 사람이 아마 위원장 이 겠다.

그 동무는 과거에 로 동자였 겠 다.

“-겠었-” 은 過去未來. “였겠-” 은 過去推測의 뜻을 나타낸다. 特히 過去推測形 “-였겠-” 은 過去의 事實을 回想할 때에도 쓰인다.

例: 네가 내 원 수였 겠 다.

[附記 2] “時稱의 도”와 함께 쓰이는 “-더라”, “-데”, “-디더다” 등 (그것은 소더라, 그것은 말이데, 그것은 겁디다.) 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直接 見聞한 客觀的 事實(따라서

그 事實의 行動의 主體는 거의 다 三人稱으로 된다) 을 다른 사람에게 傳達할 때 쓰이는 토다. 이것을 “直接 傳達의 토”라 부른다. 또한 “-라더라, -다더라, -라데, -다데, 람더다, -답더다”等 (그는 天才라더라, 그것은 거짓말이였다 데, 그것은 정말이답다다.) 은 다른 사람으로 부러 傳達 받은 事實을 다시 第三者에게 傳達할 때 쓰이는 토다. 이것을 “間接 傳達의 토”라 부른다. (詳細한 것은 206페이지 參照)

따라서 이 “-더”는 規定語에 쓰이는 “-던” (내가 學生이던 때) 과는 直接的 關係가 없다.

[附記 3] 名詞가 述語로 될 때, 이미 結合母音 “이”에서 본 바와 같이, 語幹이 開音節로 끝났을 경우에는 토가 바로 結合되고 (소다), 閉音節로 끝났을 때에는 結合母音 “이”를 必要로 한다 (말이다). 名詞가 規定語로 될 때에는 語幹이 開音節로 끝났을 경우에도 結合母音 “이”를 必要로 하는 傾向이 많아 간다 (소리경우 → 소일 경우)

(2) 規定語로 될 때의 時稱

現在: 語幹+ㄴ (인)

例: 그가 애국자(이)ㄴ 줄을 누가 모르랴?

過去持續: 語幹+던 (이던)

例: 과거에는 천재(이)던 그가 오늘은 범인으로
 ① 되어 버리였다.

“-던”은 過去의 持續的인 狀態를 나타낸다.†

第 2 章 名 詞

未來: 語幹 + ㄹ (일)

例: 매일 배척일 경우에는 운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附記] “語幹 + ㄹ”은 “-겠-” 과 같이 未來의 뜻 以外에, 未然, 推測의 뜻도 나타내나, 特히 그 다음에 時間을 나타내는 名詞 “때” “적” 등이 오면 時稱을 超越하여 過去, 現在, 未來의 어떠한 時稱에나 다 같이 使用될 수 있다.

그는 어린애일 적부터 몹시 장난이 심하였다.

우리들은 우천일 때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名詞가 規定語로 될 때의 時稱 ㅏ “-던” 과 “-ㄹ” 에는 다시 述語로 될 때의 時稱 ㅏ “-였, -였였, -겠, -겠였” 이 結合하여 多樣한 時稱 ㅏ의 紐帶를 나타낸다. 이제 그 結合相을 보면 다음과 같다.

規定語의時稱 述語의時稱	-였 (過去)	-였였 (先過去)	-겠 (未來)	-겠였 (過去未來)
-던 (過去持續)	-였던 (先過去持續)	-였였던 (先先過去持續)	-겠던 (過去未來持續)	-겠였던 (先過去未來持續)
-ㄹ {1) 超時稱 {2) 未然	-였을 {1) 過去 {2) 過去未然	-였였을 {1) 先過去 {2) 先過去 未	-겠을 {1) 未來 {2) 未來未然	-겠였을 {1) 過去未來 {2) 過去未來 未然

第 3 項 法

法은 名詞, 形容詞 및 動詞으로써 表現되는 狀態 또는 行動에 對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지는 態度를 나타내는 文法的 範疇이다.

法은 名詞, 形容詞 및 動詞가 接續 述語로 될 때와 終結 述語로 될 때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제 두 경우의 名詞의 法을 따로따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接續 述語로 될 때의 法

이제는 直說法, 條件法 및 當爲法의 세 가지 法이 있다.

i) 直說法은 名詞, 形容詞 및 動詞으로써 表現되는 狀態 또는 行動이 現實的인 事實 (過去, 現在, 未來의)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名詞 述語의 호는 그 뒤에 오는 文파의 接續이 並列的인가 從屬的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種類가 있다.

1) 並列

ㄱ. 合同的: -며, -고, -요, -ㄴ데, -ㄴ바, -니, -되,
-로, -로서, -자, -거든, -거니와, -려니와.

ㄴ. 分離的: -거나, -든지, -거니, -나.

ㄷ. 對立的: -지마는, -건마는, -나, -면마는, -되,
-거든, -다가.

例:

7. 合同的

“－며” 더욱 번혁기의 조선의 모든 문제는 인재가 결정하는 것이며, 인재는 기술이 결정하는 것이요.
(한 설야)

“－는데” 아마 새벽이 거칠 되었을 터인데 날은 밝지 않고, 바람 소리만 이질히 사납다. (리 기영)

“－려니와” 그렇면 그들 자신에게도 행복이 려니와 동시에 나라에도 그만치 이익이 될 것이요. (한 설야)

“－르” 귀엽이 소년동무로 이지간히 숨쉴도 능난하였다. (김 사랑)

ㄴ. 分離的

“－나” 나는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칠나 해아리지 않고, 샅김 샅삼부럼 샅나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다. (최 학중)

“－거나” 그는 그것이 매거나 죽음이거나, 조국 해방을 위해서는 맡아야 하였다.

“－거나” 사과거나 배거나 다루고 있다.

“－든지” 이 동무는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자기 앞에 닥치는 것은 다 열성적으로 한다.

ㄷ. 對立的

“－전만” 이제 밤새도록 생각해 온 이 말이 전만이렇게 덕회의 문앞까지 와서는 캉캉해지군 하였다. (강 경애)

- “지만” 도루 찾아 올 것도 없이 그냥 버티어도 아깝지 않은 책들이지만 노상 크게 옳고 알수했다 내 주는 것이라... (최 명이)
- “-나” 밥은 밥이나 못 먹는 밥이 무에냐?
- “-면마는” 그에게 있어서는 진장이면만 모든 사람은 그의 말을 믿지를 않았다.
- “-되” 그는 학생이되 공부하지 않는 건달이야.
- “-다가” 나는 작년까지 교원이다가 을부터 학생이 되었스.

2) 從屬

- ㄱ. 原因: -ㄴ즉, -어서, -때, -므로, -니,
-니까, -거늘, -ㄴ지라, -기에, - (이) 라, }
-르째, - (이) 어니, -거너.
- ㄴ. 樣態와 程度: -ㄴ뿐더러, -ㄴ수록.

例:

ㄱ. 原因

- “-ㄴ즉” 그일은 잘못인즉 용서하십시오.
- “-ㄴ지라” 벌써 봄철인지라 전다태가 피였구려.
- “-때” 오늘은 우천이때 원쪽은 연기되고 말았다.
- “-므로” 여기는 고실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십시오.
- “-니” 봉사님 여기는 외나무다리니 조심하십시오.
- “-니까” 원래 전문가니까 그것을 모를 리가 있나.

“-기에” 열렬한 토론이기에 모두 박수로 환영하였다.

“-거늘” 알고 보니 동무거늘 안심하고 말할 수 있었다.

“-어나” 단 밝은 밤이어나 쉬어 간들 어떠하리.

“-르께” 매마침 꽃칠일께 안악네의 화전놀이 예서 제서 한창이라.

ㄴ. 樣態와 程度

“-르뿐더러” 그는 학자일뿐더러 정치가이기도 하다.

“-르쭝록” 심산일쭝록 맹수가 많이 살다.

ii) 條件法은 名詞, 形容詞 및 動詞로써 表現되는 狀態 또는 行動이 條件的인 事實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名詞 述語의 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假定: -면, -라면, -르절대, -거든,
- 2) 讓步: -던들, -라도, -르찌라도, -ㄴ들, -르망정,
-르찌언정,

例:

1) 假定

“-라면” 김일성부대가 우리 조국을 두루 비치는 태양계 라면 이네들 수많은 팔저산은 정녕 이를 두덕싼 위성인 것이다. (김 자량)

“-거든” 그가 정말 일’군이거든 한번 자업을 맡기여 볼사다.

“—르편대” 저것이 짐승일편대 필시. 곰일것이요.

2) 讓步

“—던들” 그 때가 마침 저녁별이었으니 말이지 썩썩한 밤
이던들 어찌 될 번 했소.

“—라도” 알는 길이라도 뚫어 가라.

“—찌라도” 아무리 난공사일찌라도 우리가 단결하면 성공
할 수 있을것이요.

“—리망정” 그도 또한 성운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딸일망정
발전을 시키켜 불양으로 그리하였던지…… (조
명희)

“—리찌언정” 뉘 밥일찌언정 먹지 않을 수 없었다.

iii) 當爲法은 名詞, 形容詞 및 動詞로써 表現되는 狀態 도
는 行動이 받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狀態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名詞 述語의 形은 “—려야”와 “—려야” 가 있
다.

例:

오늘날의 청년은 투쟁적이어야 한다.

우수한 정적이다야만 남에게 자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찬란한 宏壯으로 된 대극장에 한 연극도 가극이다야
어우되나. (리 태준)

(2) 終結 述語로 될 때의 法

이에는 直說法과 疑問法의 두 가지가 있다.

1) 直說法에 쓰이는 名詞 述語의 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 —구나, —로구나, —구려, —네, —르제, —요,
—여요, —지요, —바니다, —을시다, —여, —지.

[附記] 文例는 第 4 項 階稱에서 들기로 한다.

2) 疑問法은 名詞, 形容詞 및 動詞로써 表現되는 狀態 또는 行動이 現實的인 事實 (過去, 現在, 未來의) 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疑問으로 생각할 때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名詞 述語의 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냐?, —네?, —르까?, —나가?, —요?, —르까요?
—여요?, —지요?, —바니까?, —여?, —지?

以上の 直說法, 條件法, 當爲法, 疑問法 以外에 法의 一種으로 尊敬法이 있다.

尊敬法은 名詞, 形容詞 및 動詞로써 表現되는 狀態 또는 行動의 主體에 對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尊敬의 뜻을 나타낼 때 使用된다.

이 때 名詞 語幹에 “尊敬法의 토 ‘—시—’를 붙이며, 이 모든 如何한 法에도 使用된다.

例:

저 분이 이 학교 교장이시였습니다.

저 분이 이 학교 교장이십니까.

저 분이 이 학교 교장이십니까?

저 분이 이 학교 교장이시라면,

저 분이 이 학교 교장이셨으니까,

第 4 項 階 稱

階稱은, 주로 會話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 듣는 사람과의 社會的 關係를 나타내는 文法的 階稱이다.

階稱에는 “해라”, “하게”, “하오”, “존대” 및 “반말” 의 다섯 가지가 있다.

1) 해라 는 이야기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아래 사람인 경우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名詞의 도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 (이다), —구나, —로구나, —냐?, —니?

例:

참 모두다 회한한 일이다. (리 기영)

너의들 제상이구나. (한 설야)

“에그 츨구나!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 로구나!” (최 학송)

“또 너는 내게 쌈을 깔리 작정이냐?” (리 동규)

이것이 너의 집이냐?

2) 하게 는 이야기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거의 對等的인 關係 또는 서로 親熱한 關係에 있을 경우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名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네, —르세 (일세), —르까 (일까)?, —가 (인가)?

例:

“이것이 우리 집이네”

“허허허……자네 말을 들어 보려구 한 말일세” (리 기영)

“글쎄 원……그게 정말일까?” (리 기영)

“아 그래 그 놈을 가만히 두고 왔단 말인가?” (장 경애)

3) 하오 는 이야기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 보다 조금 위'사람인 경우 (또는 서로 그리 親熱하지 못한 경우) 에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名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요, —구려, —요?

例:

내가 장군의 속모요, 그래 장군의 속모가 못 들어가야 올단말이요? (한 설양)

내 글쎄 요새 며칠 꿈자리가 자남터니 저 모양이구려. (장 경애)

4) 존대 는 이야기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위'사람인 경우 (또는 特別히 鄭重한 態度를 보이르 경우)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名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여요, —지요, —외다, —입니다 (웁니다), —올시다,

—여요? —지요? —르까요? ㅂ니까? (입니까?)

例:

“저기 무슨 꽃이여요?”

“응 저 꽃! 백도라지여요” (강 경애)

“별써 우리 조문 듣은지가 몇해요?”

“저 모란봉 뉘 말이지요?” (한 설야)

“저게 누구 집일까요?”

그리고 계획한 일도 제가 직접 지휘할 작정일기다(리 동규)

“이 견물이 저의 학교을지다”

“그 동무는 진실한 청년일나까?”

[附記] 이야기 듣는 사람을 존대하기 爲하여 特別히 다
음과 같은 “鄭重語法의 토”도 使用된다.

名詞가 述語로 될 때의 “鄭重語法의 토”로는 “-오-”
|(-이오-)|와 “-읍-”(-이읍-)이 있다.

1. “-오-(-이오-)”는 名詞가 述語로 될 때 그 다
음에 오는 토가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으로 시작될 경우
|(-나이다)|를 除外) 使用된다.

例: 저 것이 제 집이오니,

어찌 저 것이 제 집이오리.

저 것이 제 집이오면,

저 것이 제 집이와,

2. “-읍-(-이읍-)”은 名詞가 述語로 될 때에 그 다음에
오는 토가 “ㄱ, ㄷ, ㅌ, ㅈ, ㅊ, ㅋ, ㆁ”로 시작될 경우 또는 “-나이다”

의 경우 사용된다

例:

- 저 것이 제 책이요.
- 저 것이 제 집이요.
- 저 것이 제 집이요.
- 저 것이 제 집이요.

5) 반말은 이야기 듣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關係를 分明히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두 사람 사이의 關係가 極히 親密할 경우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名詞의 尾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 —야, —지, —어?, —야?, —지?

例:

“야! 호빠간만이다. 웬 일이야?”

“그야 나쁜이지”

“개떡이야……이거야말로 천치개떡이야!” (리 기영)

“이게 차에 창난이지?”

[附記] “오, —어요, —지요, —어, —야, —지”는 直說法과 疑問法에서 그 語音 構成은 同一하나 語調는 그때 그때 다름이다.

第 5 項 時稱과 法과 階稱

本項의 時稱과 法과 階稱은 言語 行爲에서 서로 結合되어 나

라나므로 이들을 함께 表示하면 207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時稱은 圖表에서 過去, 現在, 未來의 세 가지만 들기로 한다.

다음 名詞의 直接 傳達의 트와 間接 傳達의 트 (193 페이지 參照) 가 時稱, 法, 階稱과 結合하여 使用되는 狀態를 보면 208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附記] 傳達 語法에서의 時稱 (過去, 現在, 未來)은 名詞 形容詞, 動詞으로써 表現되는 狀態 또는 行動과 이야기의 進行되는 瞬間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狀態 또는 行動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見聞한 瞬間과의 關係를 나타낸다. 即 直接 傳達 語法の 現在形, 例를 들면 “그는 學生어더라” 는 이야기의 進行되는 瞬間에는 그가 學生이든 아니든 이야기 하는 사람이 直接 “그” 를 만나 보았을 그 瞬間에 그가 學生이었던 事實을 傳達하는 것이다. 또한 直接 傳達 語法の 未來形, 例를 들면, “그 이튿날은 快踏이겠더라” 는 그가 直接 氣象을 觀察하였을 그 瞬間에 未來적이었던 事實을 傳達하는 것이다. 間接 傳達 語法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事實을 傳達 하여 준 사람이 直接 見聞한 그 瞬間을 基準으로 삼고 있다.

第 4 節 名詞의 不定形

名詞가 述語로 될 때 時稱, 法, 階稱을 갖추고 나타나나, 때로는 階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階稱을 超越한 語形을 不定形이라 하며, 이 不定形은 다시 狀態의 名詞로서

第 2 章 名 詞

法 階 語 時 稱 稱 例		直 說 法			疑 問 法		
		過 去	現 在	未 來	過 去	現 在	未 來
하타 말	소	-었다	-다	-겠다	-었느냐?	-냐?	-겠느냐?
	말	-었구나	-구나 -로구나	-겠구나	-었니?	-니?	-겠니?
하게 말	소	-었네	-네	-겠네	-었는가?	-는가?	-겠는가?
	말		-르세				-르까?
하오 말	소	-었소	-요	-겠소	-었소?	-요?	-겠소?
	말	-었구며	-구려	-겠구려			
존대 말	소	-었어요	-어요	-겠어요	-었어요?	-어요?	-겠어요?
	말	-었지요	-지요	-겠지요	-었지요?	-지요?	-겠지요?
		-었습니다	-입니다 -옵시다	-겠습니다	-었습니까?	-입니까?	-겠습니까?
반말 말	소	-었어	-어, -야	-겠어	-었어?	-어? -야?	-겠어?
	말	-었지	-지	-겠지	-었지?	-지?	-겠지?

階稱	時稱	法				
		過去	現在	未來	疑問	
하리	直接	—았더구나	—더구나	—겠더구나	—았더나? —더나?	—겠더나? —더나?
	間接	—았다더라	—라더라	—겠다더라	—았던가? —라던가?	—겠던가? —라던가?
하게	直接	—았디메	—디메	—겠디메	—았디까? —디까?	—겠디까? —디까?
	間接	—았메	—메	—겠메	—았던가? —던가?	—겠던가? —던가?
하오	直接	—았다오	—라오	—겠다오	—았나오? —라오?	—겠나오? —라오?
	間接	—았슴더다	—디더다	—겠슴더다	—았슴더까? —디더까?	—겠슴더까? —디더까?
존대	直接	—았답더다	—람더다	—겠답더다	—았답더까? —람더까?	—겠답더까? —람더까?
	間接	—았대	—대	—겠대	—았대? —대?	—겠대? —대?
반말	直接	—았대	—대	—겠대	—았대? —대?	—겠대? —대?
	間接	—았대	—대	—겠대	—았대? —대?	—겠대? —대?

의 機能을 한다.

名詞의 不定形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第 1 不定形: 名詞 語幹 + 임

이 不定形은 文에서 主語, 終結 述語, 規定語, 補語로 使用된다.

例:

主語: 그가 학생임이 분명하다.

述語: 法 (尊敬法을 除外함) 과 階稱을 나타내는 詞를 붙이지 않고 바로 終結 述語로 된다.

금일은 복청일. 그렇나, 명일은 우천이겠음.

規定語:

우리는 오래 동안 약소민족임의 서렁口을 느끼었다.

補語:

너는 언제나 공화국 대학생임을 잊지 말아라!

그의 어머니는 첫째 (人名) 임을 알자 곧 도로 향어 버리었다. (강 정애)

2) 第 2 不定形: 名詞 語幹 + (이) 기

이 不定形은 第 1 不定形과 같이 主語, 述語, 規定語, 補語로 된다.

例:

저이가 우리들을 찾는 사람이기 씁니다.

모두들 래일은 쾌청이기를 바란다.

말하자면 이 길이 내게 있어서 脫皮의 길이며, 飛躍의 길
이기를 원했던 것이다. (김 사량)

名詞의 不定形은 그 語幹 自體가 이미 名詞이므로 形容詞나
動詞의 不定形과 같이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第5節 文에서의 名詞의 機能

名詞는 文에서 다음과 같은 機能을 한다.

1. 主語로 된다.

ㄱ. 主格 名詞로써 (184페이지 參照)

ㄴ. 0 (零) 토의 語幹으로써

저기 아버지 오시나다.

2. 接續 述語로 된다. (196페이지 以下 參照)

3. 終結 述語로 된다. (20 페이지 參照)

4. 規定語로 된다.

ㄱ. 屬格 名詞로써 (185페이지 參照)

ㄴ. 0 (零) 토의 語幹으로써

우려들은 영예롭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청년이다!

아침, 밥, 여름양복, 얼음창고, 벽돌, 집...等

ㄴ. 規定語로 될 때의 時稱 토로써 (194페이지 參照)

5. 同格語로 된다.

名詞 語幹으로써

조선 민족의 민족적 영웅 김일성 장군 만세!

6. 補語로 된다.

ㄱ. 對格, 與格, 位格, 造格, 具格의 名詞로써 (186페이지 以下 參照)

ㄴ. 0 (零) 托의 語幹으로써

너 밥 안 먹겠니

이제 부리는 그 질 가지 말아라.

7. 呼稱語로 된다.

ㄱ. 呼格 名詞로써 (191페이지 參照)

ㄴ. 0 (零) 托의 語幹으로써

형님! 어디 가세요?

아버지! 이거 좀 읽어 보세요!

第 3 章 數 詞

數詞은 對象의 數量 또는 그 順序를 나타내는 品詞다.

第 1 節 數 詞의 種類

第 1 項 數量數詞와 順序數詞

數詞은 그 意味의 點으로 보아 數量數詞와 順序數詞로 區別된다:

對象의 數量을 나타내고, 몇?, 얼마? 라는 質問에 對答하는 數詞을 數量數詞라 한다.

數量數詞에 屬하는 것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열흔,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二十, 三十, 百, 二百, 三百, 千, 五千, 萬, 五萬, 百萬, 億…… 등이 있다.

對象을 計算할 대의 順序를 나타내고, 몇번째? 라는 疑問에 對答하는 數詞를 順序數詞라 한다.

順序數詞에 屬하는 것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스무째, 열흔째, 마흔째, 쉰째, 예순째, 일흔째, 여든째, 아흔째, ……

(即 “첫째” 를 除外하고는 數量數詞의 語根에 接尾辭 “째” 를 붙인다.)

第一, 第二, 第三, 第四, 第五, 第六, 第七, 第八, 第九, 第十, 第二十, 第三十, 第百…… 등이 있다.

(即 數量數詞의 語根에 接頭辭 “第” 를 붙인다.)

[附記] 順序數詞는 그 뒤에 號, 番, 級, 位, 等의 順序의 뜻을 가지는 名詞가 올 때에는 “第” 를 略할 수도 있다.

	第一號	一號	第二級	二級
○	第五番	五番	第十位	十位

또한 만드시 順序的으로 나타나는 年 月 日 等에는 “第” 를 略하다.

例: 一千九百四十五年八月十五日

第 2 項 單純數詞, 複合數詞 및 合成數詞

數詞은 그 構成의 點으로 보아 單純數詞, 複合數詞 및 合成數詞로 區別된다.

單純數詞은 단 하나의 語根으로써 成立되어 있으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 스물, 열흔,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 一, 二, 三, 十, 百, 千, 萬, 億, …….)

複合數詞은 둘 以의 語根으로써 成立 되어있다 (열 하나, 열 다섯, 마흔 아홉, …十一, 十五, 二十, 三十, 九十九, 二百, 三百, 三千萬, 六億, …….)

合成數詞은 둘 또는 그 以上の 數詞 로써 成立되어 概略的인 數量 또는 順序를 나타낸다.

한둘, 서넷, 너댓, 대어셋, 여닐골,
일어덟, 두서넷, 너대어셋, 환두서넷, 너더대어셋,
두셋째, 서넷째, 대어셋째

第 2 節 數詞의 文法的 範疇

數詞의 文法的 範疇은 名詞의 그것과 같이 格, 時稱, 法, 및 階稱의 네 가지며, 그 形態도 名詞의 그것과 거의 全的으로 같으므로 이를 따로 叙述하지 않기로 한다.

第 3 節 文에서 數詞의 機能

數詞은 文에서 다음과 같은 機能을 한다.

1. 主語로 된다.

名詞의 境遇와 같다.

2. 接續 述語로 된다.

名詞의 境遇와 같다.

3. 終結 述語로 된다.

名詞의 境遇와 같다.

4. 規定語로 된다.

數詞가 規定語로 되는 것은 原則적으로 名詞의 境遇와 같으나, 特히 다음과 같은 特성이 있다.

1) “하나” 로 부터 “여섯” 까지와 “스물” 에 限하여 特別한 語影이 있다.

1. 한, 2. 두, 3. 서, 석, 세, 4. 너, 녀, 네,)

5. 닷, 다섯 6. 엇, 여섯, 20. 스물, 또는 스무.

1. - 토끼 한 마리

2. 쌀 두 말

3. 괭 서 말

석 섬

세 개

4. 너 되

네 년 차

한 자 네 척

5. 참쌀 닷 되

배 다섯 개

6. 쌀 엿 말

호도 여섯 개

20. 밤 스무 알

ㄴ) 順序數詞가 規定語로 될 때, “첫째”에 限하여는 “첫”으로도 된다. (첫 사람, 둘째 사람.)

ㄷ) 合成數詞의 規定語形은 다음과 같다.

한두, 두서 (두재), 서너, 너댓, 네여섯 (네엿, 댓),

예닐곱 일여덟, 두서너, 너댓, 너더댓.

ㄹ) 數詞의 規定語形 다음에 오는 名詞 (數量의 單位를 나타내는 名詞)는 그 對象에 따라 거의 一定되어 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野菜	한 단	두 단
動物	한 마리	두 마리
붓, 연필, 칼	한 자루	두 자루
집	한 채	두 채
두부	한 모	두 모
종이	한 장	두 장
배	한 척	두 척

옷	한 벌	두 벌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눈	한 매미	두 매미
쌀	한 섬	두 섬
책	한 권	두 권
신	한 켤레	두 켤레
자동차	한 대	두 대
천	한 필	두 필

5. 補語로 된다.

原則적으로 名詞의 경우와 같으나, 數詞 語幹 그 形態가 바로 狀態와 程度의 補語로 되는 때가 많다.

매 하나 주세요.

비행기 둘이 날고 있다.

너도 사과 셋 먹어라.

[附記] 1. 數量의 뜻이 融合된, 다음의 語들은 數詞가 아니라 名詞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하루, 이틀, 사흘, 나흘,닷새, 엿새……

2) 하루, 이듬, 사뭇, 나뭇, 다듬, 여듬……

(一歲 牛馬, 二歲 牛馬, 三歲 牛馬 等)

2. “八·一五” 같은 語는, 數詞로 構成되어 있으나, 그 意味上 名詞로 보아야 한다.

第4章 代名詞

代名詞는 對象 또는 그 數量을 가리키기 뿐이고 그들을 命名하지는 않는 品詞다.

代名詞는 直接的으로 어떠한 對象을 命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言語 行爲의 場面에 따라, 다시 말하면,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가 듣고 있는가, 무엇이 話題로 되어 있는가 等等에 따라 그 意味를 바꾼다.

代名詞는 名詞 또는 數詞로써 表示될 수 있는 一定한 對象 또는 數量을 表現하기도 하고 (나는 오늘 김동무를 訪問하였는데 그의 健康은 好轉하고 있었다. 사과를 다섯 드리리까요? 그건 너무 많습시다.), 또는 단지 對象이나 數量 一般을 表示할 뿐이고 어떠한 一定한 語를 代稱하지는 않기도 한다. (누가 잡니까? 몇 시입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릅시다.)

第1節 代名詞의 種類

代名詞는 그 意味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區別된다.

1. 人稱代名詞——人物에 關하여만 使用되는 代名詞.
2. 指示代名詞——一定한 人物, 事物, 場所, 方向, 時間 等に 使用되는 代名詞.
3. 不定·疑問代名詞——人物, 事物, 數量, 場所, 時間 等の 不確

定한 것에 關하여 使用되는 代名詞.

第 1 項 人 稱 代 名 詞

人 稱		相對便 數		위' 사람에 게	對 等 의 사람에 게	아 래' 자 람에 게
		單	複			
一 人 稱	單	제 - , 저 -		내 - , 나 -		내 - , 나 -
	複	저희 (들) -		우리(들) -		우리 (들) -
二 人 稱	單	당신 -		자네 - , 그대 -		네 - , 너 -
	複	(당신들 -)		(자네들 -) (그대들 -)		너희 (들) -
三 人 稱	單	그 -		그 -		그 -
	複	(그들 -)		(그들 -)		(그들 -)

이곳에서 一人稱은 이야기하는 사람, 二人稱은 이야기 듣는 사람, 三人稱은 이야기의 話題로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또한 그 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위' 사람인가, 對等의 사람인가 또는 아래' 사람인가에 따라 人稱代名詞가 각기 다릅니다.

複數를 나타냄에는 特別한 複數形이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우리, 너희), 單數形에 助詞 "들" 을 붙이는 것도 있다 (당신들, 자네들, 그들).

"제, 내, 네"는 "제가, 내가, 네가" 와같이 主格 助詞 "가" 와 함께 使用되며, "저, 나, 너" 는 "저와, 저를, 저의...", "나와, 나

第4章 代名詞

나를, 나의...” “너와, 너를, 너의...” 와 같이 主格 外의 格과 함께 使用된다.

相對便에 對하여 “老兄, 先生, 동무, 同志” 等의 語도 使用되나, 이것들은 名詞이고 代名詞는 아니다.

第2項 指示代名詞

가장나 것: 이, 중간 것: 그, 멀나 것: 저

指示代名詞는 가리키는 對象에 따라 該當한 名詞와 結合되어 使用된다. 卽,

人物: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事物: 이 것... 그 것... 저 것...

場所: 이 곳... 그 곳... 저 곳...

方向: 이 쪽... 그 쪽... 저 쪽...

時間: 이 때... 그 때... 접 때...

특히 場所와 方向에는 이를 가리키는 代名詞가 다음의 圖表와 같이 따로 있다.

	거리 대상	가장나 거리	중간 거리	멀나 거리
장 소		여 기	거 기	저 기
방 향		이 리	그 리	저 리

第 2 篇 形 態 論 第 2 部

指示代名詞 “이, 그, 저”에 愛情 또는 輕蔑의 뜻이 加해 成
 句 “요, 고, 조” 로 된다.

요놈	요것	요더
고놈	고것	고더
조놈	조것	조더

指示代名詞 “이”와 “그”는 다음에 名詞 없이 單獨으로도 使
 用된다. 例:

이는 가장 重要한 問題이다.

그는 무엇을 意味하는가?

第 3 項 不定・疑問代名詞

不定・疑問代名詞는 그가 志向하는 對象에 따라 각기 다르다:

人物: 누, 누구, 아무, 웬 (사람).

事物: 무엇, 어느 (것), 아무 (것), 무슨, 웬.

數量: 얼마, 몇.

場所: 어디.

時間: 언제.

不定・疑問代名詞는 不定 또는 疑問인 對象에 關하여 使用
 되며, 不定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文의 アクセント가 뒤에서 내려야
 되고, 疑問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그 代名詞 위에서 アクセント가 오
 되여진다.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

第4章 代名詞

여기 무엇이 있습니다.
저기 누가 올까? —
저기 누가 옵니다.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
사람이 얼마 있습니다.
어디 가오?
어디 좀 가오.

“아무”는 그것만으로서는 人物에만 使用된다.

아무도 모르다.

그 아무를 만났습니다.

“누”는 “누가”와 같이 반드시 主格 로와 함께 使用되며,

“누구”는 “누구와”, “누구를”, “누구의” 와같이 “가” 以外の 모든 格와 함께 使用될 수 있다.

第2節 代名詞의 文法的 範疇

代名詞의 文法的 範疇는 名詞의 그것과 같이 格, 時稱, 添稱, 階稱의 네 가지며, 그 形態도 名詞의 그것과 거의 全的으로 같으므로 이를 따로 叙述하지 않기로 한다.

第3節 文에서의 代名詞의 機能

代名詞는 名詞, 數詞와 같이 文에서 主語, 述語, 規定語, 補語 및 呼稱語 (그대여!) 로 使用되나, 特히 規定語로 될 때의

屬格形에 다음과 같은 語形도 使用된다.

“저의”의 대신에 “제”

“나의”의 대신에 “내”

“너의”의 대신에 “네”

“누구의”의 대신에 “누”

規定語로만 使用되는 代名詞에 “쨌”, “어느”, “모든”이 있다.]

어느 고개 어느 골짜기에

어느 나무 어느 돌 밑에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혀있^나도? (조 기철)

第 5 章 形 容 詞

形容詞은 對象의 性質과 狀態를 나타내는 品詞이다.]

第 1 節 形容詞의 造成

形容詞의 造成에는 單純 形容詞 (공-, 불-, 검-, 어둡-
달-等) 以外에 다음과 같은 手法들이 있다.

1. 合成의 手法에 依한것:

1) 名詞 語幹 + 形容詞 語幹

결함다, 떠저리다, 낮설다, 멧적다.]

2) 形容詞 語幹 + 形容詞 語幹

겉뵈다, 굳세다, 높낮다, 울팍뜨다, 세차다.

3) 副詞 + 形容詞 語幹

жат잡다, 되약다.

4) 名詞 語幹 + 動詞 語幹

동뜨다, 맞나다, 속차(滿)다, 모나다.

5) 名詞 또는 其他의 語幹 + 動詞 語幹 (하-)

악하다, 문하다, 연하다, 문정하다, 귀하다,
 천하다, 약하다, 강하다, 완전하다, 안전하다,
 총명하다, 똑똑하다, 착하다, 폭식하다, 족하다,
 단단하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선선하다, 우묵하다,
 미지근하다, 티뜨름하다, 뽀족하다, 썩썩하다, 시들하다.

6) 名詞 語幹 + 動詞 語幹 (되-)

애' 되다, 흘되다, 村되다.

7) 名詞 語幹 + 動詞 語幹 (지-)

멋지다, 틀지다, 모지다, 기뻐지다, 살지다.

2. 接辭의 手法에 依한 것:

1) 名詞 語幹 + 接尾辭 ㄷ-

꽃ㄷ다, 사내ㄷ다, 사람ㄷ다, 어든ㄷ다, 처녀ㄷ다,
 여름ㄷ다,

2) 名詞 語幹 + 接尾詞 ㄹ-

수고ㄹ다, 괴ㄹ다, 호기ㄹ다,
 향기ㄹ다, 해ㄹ다, 슬기ㄹ다.

3) 名詞 語根 + 接尾辭 슨-

용맹스런다, 자연스런다, 번덕스런다,
교만스런다.

4) 動詞 또는 形容詞의 語根 + 接尾辭 브-

깃브다, 밀브다, 낮브다.

5) 動詞 또는 形容詞의 語根 + 接尾辭 갠-, 갠-, 영-

반갠다, 즐갠다, 달갠다, 가갠다, 슬갠다, 털영다,
미끌영다, 실영다, 부들영다, 묵영다, 부끌영다,
정글영다, 시끌영다.

6) 形容詞 語根 + 接尾辭 죽-, 죽-, 직-

깊죽하다, 잔죽하다, 높직하다, 너브죽하다, 목직하다,
좁직하다, 넓직하다, 길죽하다, 실죽하다.

7) 形容詞 語根 + 接尾辭 다랗-

넓다랗다, 좁다랗다, 굵다랗다, 길다랗다, 높다랗다.

8) 形容詞 語根 + 接尾辭 앙- (영-)

얇앙다, 감앙다, 늘영다, 검영다, 팔앙다, 싸늘앙다.

9) 形容詞 語根 + 接尾辭 으레하-

불그레하다, 미지그레하다, 높수그레하다,
저그브레하다, 가므레하다, 달그므레하다.

10) 形容詞 語根 + 接尾辭 스레하-, 스럽하-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럽하다, 노토스레하다,
노르스럽하다, 기므스레하다, 기므스럽하다.

3. 反復의 手法에 依한 것:

1) 同-音의 反復으로 된 形容詞 語根 + ㅅ-

설설하다, 답답하다, 슬슬하다, 괴괴하다,
딱딱하다, 반반하다, 단단하다, 른른하다,
든든하다, 푹푹하다, 툼툼하다.

2) 形容詞 語根의 反復 + ㅅ-

따작따작하다, 뜨적뜨적하다, 엷죽엷죽하다,
훌쩍훌쩍하다, 할짝할짝하다.

4. 內部屈折의 手法에 依한 것:

간죽하다	x	갈죽하다
기웃하다	x	갸웃하다
질죽하다	x	질죽하다
번들번들하다	x	만들만들하다
땀땀하다	x	단단하다

第 2 節 形容詞의 文法的 範疇

形容詞의 文法的 範疇에는 時稱, 法 및 階稱의 세 가지가 있다

第 1 項 時 稱

形容詞의 時稱은 原則的으로 名詞의 그것과 同一하다.

이제 形容詞가 述語로 될 때와 規定語로 될 때와의 두 경우를 따로 따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述語로 될 때의 時稱

現在: 語幹 + 0 -

例: 회다, 불다, 높다.

過去: 語幹 + 았 (었, 였)

例: 회였다, 불었다, 높았다.

先過去: 語幹 + 았 (었, 였) + 었 -

例: 회였었다, 불었었다, 높았었다.

未來: 1) 語幹 + 겠 -

例: 회겠다, 불겠다, 높겠다.

2) 語幹 + 리 (으리) -

例: 회리다, 불으리다, 높으리다.

過去未來: 語幹 + 겠 + 었 -

例: 회겠었다, 불겠었다, 높겠었다.

(2) 規定語로 될 때의 時稱

現在: 語幹 + ㄴ (은)

例: 흰꽃, 붉은 꽃.

過去持續: 語幹 + 던

例: 희던 꽃, 붉던 꽃.

未來: 語幹 + ㄹ (을)

例: 흰 꽃, 붉을 꽃.

形容詞가 規定語로 될 때의 時稱 ㅅ에 述語로 될 때의 時稱
ㅅ가 結合하여 나타내는 時間上의 모양은, 名詞의 경우와 同一

하므로, 이곳에는 敘述하지 않기로 한다. (195 쪽 參照)

第2項 法

形容詞의 法은 原則적으로 名詞의 그것과 同一하다.

이제 形容詞가 接續 述語로 될 때와 終結 述語로 될 때와의 두 경우를 따로 따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接續 述語로 될 때의 法

이에는 直說法, 條件法 및 當爲法의 세 가지 法이 있다.

i) 直說法에 쓰이는 形容詞 述語의 토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並列

ㄱ. 合同的 -며, -고, -ㄴ테(은테), -ㄴ바(는바),
-되, -자, -거니와.

ㄴ. 分離的 -거나, -든지, - (으) 나, -딱, -거니.

ㄷ. 對立的 -지 마는, -절 마는, -아도, -나, -나마,
-되, -될마, -더니와, -더니, -다가.

例:

ㄱ. 合同的:

“-며” 그는 몸도 크며, 마음도 착하다.

“-고” 산도 좋고, 물도 좋다.

“-ㄴ테” 몸도 큰테, 힘도 세다.

“-되” 우리 人類에게 革命史나 建國史는 許多하되, 그 自

由와 文化의 福利가 全人類에 미치며 全人類의 永
久한 平和 狀態를 向해 나아가는 “計劃 社會”의 出
現은 여가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리 태준)

“-자” 동녕이 원하자, 그는 길을 떠났다.

“-거니와” 廣寒 眞景 종거니와, 烏鵲橋가 더욱 좋다. (춘
향전)

ㄴ. 分離的:

“-거나” 크거나 작거나 우선 읽어 보렴?

“-기니” 맑거나 적거나 말도 많다.

“-나” 그까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야.

“-든지” 집이 좋든지 낮이 뜨든지 거처는 정해지지.

“-딱” 검둥이 어머니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서 애꿎
은 깃먹이만 데리어 주고 있었다. (리 태준)

ㄹ. 對立的:

“-지만” 이놈들 어디 보자…… 이렇게 악을 쓰는 지주도 있
였지만, 그것은 미리 이불을 쓰고 환개짓하는 격이
다. (리 기영)

“-전마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잖마는 사람이
재야니 오르고 되단 말이 하더라.

“-면마는” 그리하면 작히 종면마는, 사정 어 허하지 않논구나.

“-나마” 막걸리 국 나 마 “농년희” 라는 절집이 없었더면 오늘날
그 후진의 “소작 조합” 이 그렇게 급히 또는 뜬뜬

第5章 形容詞

히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 설야)

“-아도” 작아도 호추알이다. (축남)

“-냐” 나이는 많으나, 생각은 어리다.

“-되” 돌은 작되, 힘은 세다.

“-려니와” 내몸 검다 옷자 말아, 거룩은 잡으려니와 속조
차; 집을소냐? (장끼절)

“-더니” 그는 그전엔 몸도 좋고, 머리도 명철하더니, 리 승
만 매국도당들의 모질나 고문과 오랜 옥창 생활로
지금은 불~~부~~자가 되고 받았다.

“-다가” 불'빛이 어둡다가 갑자기 밝아진었다.

2) 從屬

ㄱ. 原因: -니즉, -아, -아서, -매, -므로, -니,
-니까, -거늘, -니지라, -기에, -기로,
-거든, -르째, -거니.

ㄴ. 樣態와 程度: -르뿐더러, -르수록, -드록, -아,
-재, -고, -이.

例:

ㄱ. 原因:

“-니즉” 저 산은 깊은즉 맹수가 있을 듯 하거.

“-아” 그 산은 너무 높아 오르기가 힘들겠네.

“-매” 강이 깊으매 큰 배가 오르내리나다.

“-니지라” 그도 이제는 나이가 많은지라, 그렇지 녀도 한 생

작이지요.

ㄴ. 樣態와 程度:

“-이” 봄이던 봄마다 어기도 없이

꽃은 피고 나비는 님나물이도 (조 기친)

“-아 (어, 여)” 처음으로 도회지 구경을 하는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아 보였었다.

“-도록” 그 순간 그는 전신의 피가 갑자기 환기를 띠며 숨이 가쁘도록 심장이 뛰었다. (강 경애)

“-르수록” 초조하면 할수록 지리한 세원은 그대로 흐트러진 흐트... (최 명익)

“-뿐더러” 그는 재간도 많은 뿐더러 마음도 좋아요.

ii) 條件法에 쓰이는 形容詞 述語의 形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假定: -면, -르절대, -거든.

2) 讓步: -던들, -더라도, -르쩌라도, -느들, -르망정, -르쩌언정.

例:

1) 假定:

“-면”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무엇 때문에 어머니에게 대한 반감이 이리도 큰가?

“-르절대” 마음이 그렇르절대 말해 무엇하소?

“-거든” 많거든 좀 주렴.

2) 讓步:

“-던들” 그 것이 아무리 꾸넨들 눈멀니 그에게는 초용 있겠니?

“-더라도” 고생스런 더라도 좀 참소.

“-리자라도” 나이는 비록 이리저리 자라도 물라는 애국심이 오
락 왔다.

“-나들” 아무리 나론이 명천한들 실천이 문제다.

“-리망정” 비록 규모는 크고 적을망정 본질은 같은 겁니
다. (적 인해)

“-리저언정” 그의 옷은 검을지언정 오직 세조전의 건축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가 (꽃 피는 祖國)

iii) 當爲法에 쓰이는 形容詞 述語의 트로는

“-아야 (-어야, -여야)” 가 있다.

例: 歌劇이란 먼저 구경스런 아야 쓴다. (리 태준)

(2) 終結 述語로 될 때의 法

이에는 直說法, 疑問法에 두 가지가 있다.

1) 直說法에 쓰이는 形容詞 述語의 트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다, 구나,

-아라 (-어라 -여라), -네, -이 (으이),

-오 (으오), -조, 지오, 아오, 어오, 여오),

-비 (읍, 습) 니디, -아 (어, 여), -지.

【附記】 “-아라 (어아, -어라)” 는 形容詞에서 疑詞의 뜻을 나타내는 獨特한 形이다.

例:

에서 故鄉이 빛으로?
 南行 列車을 탄 손이 부활이라. (김 조규)

판짜이는 으쓱히 휘느러져 있이라. (조 기철)

2) 疑問法에 쓰이는 形容詞 述語의 形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나? -(으)나? -너?

-나(은)가? -(으)오? -소?

-아요(어요, 여요)? -지요?

-리(을)까요? -밤(음, 습)니까?

-아(어, 여)? -지?

以上의 直說法, 條件法, 當爲法, 疑問法 以外에 名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法의 一稱으로 尊敬法이 있다.

尊敬法에는 形容詞 語幹에 “尊敬法의 形 -사-”를 붙이며, 이 形으로는 如何한 時稱, 如何한 法에도 使用된다.

【附記】 形容詞에는 命令法이 없는 것이 原則이나, 文藝 作品 또는 口號 等에는 例外的으로 命令法이 쓰이는 일이 있다.

祖國의 光榮이여 民族의 解放이여 永遠하라! (김 사랑)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

시킬 위대한 프로젝트 군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第3項 階稱

形容詞의 階稱에도 “해라”, “하게”, “하도”, “존대?” 및 “반말”의 다섯 가지가 있다.

(1) “해라” 에 쓰이는 形容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다, -구나, -아라 (어라, 여라),
- 냐 (으냐)? -나? -니?

例:

“방두 어지간히 차다.”

“기철판 농민들의 몸노래는 몹시도 희당경터구나”(민 형표)

“아이구 보람나다, 내 자리 까지 퍼 주네!” (강 경애)

“그래 너도 학교 가고 싫으냐?”

“집이 아깝나?”

(2) “하게” 에 쓰이는 形容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네, -(으)이,
- 나 (은)가? -리 (을)까?

例:

“등무 교합네!”

“아, 참 그 나무 크이!”

“여기 오너 그렇게도 좋나가?”

“흔쾌치 언저를 하는게 좋르까?” (강 경애)

(3) “하오” 에 쓰이는 形容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으) 오, —소, —구려, — (으) 오?, —소?

例:

“참 내 마음이 깃브오” “동무 고탄소!”

“健康에 自信 있스?”

아너지가 그랑 구려 (김 사랑)

(4) “존대” 에 쓰이는 形容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어, 여)요, —지요, —(으)외다, —님(을, 습)니다,

—아(어, 여)요? —지요? —르까요? —님(을 습)니까?

例:

“네, 저는 이렇나 곳이 좋아오. 김트 대고 은갖 가축을 기르면서 살는 것이 좋지요”. (강 경애)

“우라들이 나갈 時間은 아직 떨었지요?”

“어떻던 앞으로 우리 일을 위해 그 자리가 절대로 必要 합니다”. (리 동규)

“이 곳이 참 아름단지 않습니까?”

[附記] 形容詞가 述語로 될 때의 “鄭重語法의 토”로는

“—오— (—으오—)”, “—옵— (—으옵—)”,

“—자오—”, “—자옵—” 이 있다.

1. 形容詞가 述語로 될 때 그 語幹에 받침口이 없거나 또는 “ㄷ” 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는 토가 “ㄴ, ㄹ, ㅁ; 母音”으로 시작될 경우(“-나이다”를 除外)에는 “-오-”가 使用된다.

例:

저 나무가 크오니,	길이 멀오니,
저 나무가 크오면,	길이 멀오면,
어찌 저 나무가 크오리.	어찌 길이 멀오리.
저 나무자 크와,	길이 멀와,

2. 形容詞가 述語로 될 때 그 語幹에 받침口이 없거나 또는 “ㄷ” 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는 토가 “ㄱ, ㄷ, ㅌ, ㅈ” 로 시작될 경우, 또는 “-나이다” 의 경우에는 “-읍-” 이 使用된다.

例:

저 나무가 크읍고,	길이 멀읍고,
저 나무가 크읍더면,	길이 멀읍더면,
저 나무가 크읍지요.	길이 멀읍지요.
저 나무가 크읍나자다.	길이 멀읍나이다.

3. 形容詞가 述語로 될 때 그 語幹에 받침口이 있고 (“ㄷ”를 除外) 그 다음에 오는 토가 “ㄴ, ㄹ, ㅁ, 母音”으로 시작될 경우 (“-나이다”를 除外)에는 “-으오-(-오-)” 또는 “-사오-”가 使用된다.

例:

저 산이 높으오니,	저 산이 높사오니,
------------	------------

저 산이 높으오면,
어찌 저 산이 높으오리.
저 산이 높으와,

저 산이 높사오면,
어찌 저 산이 높사오리.
저 산이 높사와,

4. 形容詞가 述語로 될 때 그 語幹에 받침이 있고 (“ㄷ”를 除外) 그 다음에 오는 토가 “ㄱ, ㄷ, ㅅ, ㅈ”로 시작될 경우, 또는 “나이다”의 경우에는 “-으옵- (-음-)” 또는 “-사옵-”이 使用된다.

例:

저 산이 높으옵고,
저 산이 높으옵더면,
저 산이 높으옵지요.
저 산이 높으옵나이다.

저 산이 높사옵고.
저 산이 높사옵더면,
저 산이 높사옵지요.
저 산이 높사옵나이다.

(5) “반말”에 쓰이는 形容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 (어, 여), —지, —아(어, 여)?, —지?

例:

“장군의 재주는 천길 바다와 같아서 다른 사람은 알리 수 없어” (한 설야)

“야 산이 높지.”

“아직도 아팠 차구.”

“이거 봐요, 풍지?”

第 4 項 時稱과 法과 階稱

形容詞의 時稱과 法과 階稱은 言語·行爲에서 서로 結合되어 나타나므로 이들을 함께 表示하면, 235 페이지의 圖表과 같다.

(時稱은 圖表에서 過去, 現在, 未來의 세 가지만 들기로 한다.)

다음, 形容詞의 “直接 傳達의 形”과 “間接 傳達의 形” (193 페이지, 以下 參照)가 時稱, 法, 階稱과 結合하여 使用되는 狀態를 보면 239 페이지의 圖表과 같다.

第 3 節 形容詞의 不定形

모든 形容詞는 言語·行爲에서 위에 말한, 各稱의 文法的 範疇, 即 時稱, 法 階稱을 갖추고 나타날 수 있다. 例를 들면

아드님을	만나서	얼마나	반갑	시	겟	습니	까?
			語	法	時	階	法
			根	(尊	稱	稱	(疑問
				敬)	(未	(존)
					來	재)	
					(推		
					測)		

그렇나 形容詞로서 表現되는 性質 또는 狀態를, 階稱을 超越하여, 不定形으로 表示할 수 있다.

그 不定形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第 1 不定形 : 形容詞 語幹 + ㅁ (음)

例: 아들답음, 료음, 든든하시ㅁ, 밝았음.

形容詞 語幹이 開音節 (開音節로 看做되는 音節을 包含) 로

第 2 圖 形 體 部

階 階 稱	法 稱	直			說			法			疑			問			法		
		過	去	現	在	未	來	過	去	現	在	未	來	過	去	現	在	未	來
헤라	회 밥	-았	다나	-다	-졌	다	-았	나?	-나				-졌	나?					
		-았	구	-구나	-졌	나	-았	느냐?	-(으)나?					-졌	느냐?				
하게	회 밥	-았	네	-네	-졌	네	-았	는가?	-는가				-았	는가?					
				-(으)이															
하오	회 밥	-았	소	-소	-졌	소	-았	소?	-소?				-았	소?					
		-았	구려	-(으)오															
존대	회 밥	-았	슴더	-다	-졌	슴더	-았	습니까?	-습니까				-았	습니까?					
		-았	어오	-아오	-졌	어오	-았	어오?	-아오?										
반말	회 밥	-았	지요	-지요	-졌	지요	-았	지요?	-지요?				-았	지요?					
		-았	어	-아	-졌	어	-았	어?	-아?										
		-았	지	-지	-졌	지	-았	지?	-지?				-았	지?					

階 稱 法 時 稱	直 法		說 法		疑 法		問 法	
	過 去	現 在	未 來	未 來	過 去	現 在	未 來	未 來
階 稱 해라	—았더라 —았더구나	—더라 —더구나	—겠더라 —겠더구나	—겠더라 —겠더구나	—았더나? —았더구나?	—더나? —더구나?	—겠더나? —겠더구나?	—겠더나? —겠더구나?
	—았다티라	—다티라	—겠다티라	—겠다티라	—았다티나? —았다티구나?	—다티나? —다티구나?	—겠다티나? —겠다티구나?	—겠다티나? —겠다티구나?
階 稱 하거	—았데	—데	—겠데	—겠데	—았넌가? —았넌가나?	—넌가? —넌가나?	—겠넌가? —겠넌가나?	—겠넌가? —겠넌가나?
	—았다데	—다데	—겠다데	—겠다데	—았다넌가? —았다넌가나?	—다넌가? —다넌가나?	—겠다넌가? —겠다넌가나?	—겠다넌가? —겠다넌가나?
階 稱 하오	—았다오	—다오	—겠다오	—겠다오	—았다오? —았다오나?	—다오? —다오나?	—겠다오? —겠다오나?	—겠다오? —겠다오나?
	—았습디다	—(을, 습) 디다	—겠습디다	—겠습디다	—았습디까? —았습디까나?	—(을, 습) 디까? —(을, 습) 디까나?	—겠습디까? —겠습디까나?	—겠습디까? —겠습디까나?
階 稱 존대	—았대요 —았습디다	—대요 —답디다	—겠대요 —겠습디다	—겠대요 —겠습디다	—았대요? —았습디까?	—대요? —답디까?	—겠대요? —겠습디까?	—겠대요? —겠습디까?
	—았대	—대	—겠대	—겠대	—았대? —았대나?	—대? —대나?	—겠대? —겠대나?	—겠대? —겠대나?
階 稱 반말	—았대	—대	—겠대	—겠대	—았대? —았대나?	—대? —대나?	—겠대? —겠대나?	—겠대? —겠대나?
	—았대	—대	—겠대	—겠대	—았대? —았대나?	—대? —대나?	—겠대? —겠대나?	—겠대? —겠대나?

끝났을 때에는 “口”, 閉音節트 끝났을 때에는 “음”이 온다.

이 不定形은 時稱, 尊敬法은 表現할 수 있으나, 尊敬法 以外의 法과 階稱은 表示하지 않는다.

이 不定形은 文에서 體言과 같이 看做되어 主語, 述語, 規定語, 補語로 使用되며, 때로는 아무 트 없기 (트 “0” (零) 을 가지고) 終結 述語로도 使用된다.

例:

主 語 깜깜한 밤, 길을 혼자 걷는 듯한 정적함이 그를 짜고 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장 경애)

述 語 내 그때 신세를 생각전대 어둠 가지 어림口이 있으니…… 동지 설달 엄동절에 백선은 풀날편고 층암 절벽 빙판되어 탄학 철봉 막히었으니 어디 가 절추할까? 이것이 첫째로 어림口 요…… (트끼전)

規定語 승미한 原因의 하나로 地域이 광활함의 利點을 들리 수 있다.

補 語 그들은 기위 농악 (農樂) 이 제구가 맞게 있음으로 두테를 내는데 아무렇나 지장이 없었다. (리 기영)

2) 第 2 不定形: 形容詞 語幹 + 기

좁당기, 깊기, 든든하싯기, 밝았기.

이 不定形은 第 1 不定形과 같이, 時稱, 尊敬法은 表現할 수 있으나 尊敬法 以外의 法과 階稱은 表現하지 않는다.

이 不定形은 文에서 體言과 같이 看做되어 로와 함께 主語,

述語, 規定語, 補語로 使用된다.

例:

主 語고기 낚는 어용들이 무엇인지 모략 보니
강구하기 태산이요, 평안하기 반석이라. (토끼전)
원체 질기기가 소힘'줄 이상인데. (강 강애)

述 語. 우리 등이 명심할 바는 군사 규률을 엄수하기와, 전
투에 있어 용감하기다.

規定語 서로들 힘새기의 자랑을 하고 있다.

補 語. 그렇면 부디 건강하기를 바라오.

3) 第 3 不定形: 形容詞 語幹 + 지

아름단지, 깊지, 든든하지지.

이 不定形은 尊敬法은 表現할 수 있으나 尊敬法 以外의 法,
時稱, 階稱은 表現하지 않는다.

이 不定形은 文에서 形容詞 “않-” 副詞 “이니, 못” 과 함께
使用되어 否定, 不可能의 뜻을 나타낸다.

例:

이江山 그리 깊지 않다.

이 물은 터지도 차지도 않다.

지 꽃은 공지 못합니다.

第 4 節 文에서의 形容詞의 機能

形容詞는 文에서 다음과 같은 機能을 한다.

1. 主語로 된다. (第 1 不定形, 第 2 不定形으로써.)
2. 接續 述語로 된다. (227 페이지 以下 參照)
3. 終結 述語로 된다. (231 페이지 以下 參照)
4. 規定語로 된다.

7) 第 1 不定形, 第 2 不定形 + 의.

ㄴ) 規定語로 될 때의 時稱 로으로써(226 페이지 參照).

5. 補語로 된다.

(第 1 不定形, 第 2 不定形, 第 3 不定形으로써.)

第 6 章 動 詞

動詞은 對象의 行動 또는 狀態를 나타내는 品詞다.

第 1 節 動詞의 造成

動詞의 造成에는 單純動詞(오-, 가-, 읽-, 부르-) 以外에 다음과 같은 手法들이 있다.

1. 合成의 手法에 依한 것:

1) 動詞 語幹 + 動詞 語幹

오가다, 어달다, 지새다, 나들다, 잠들다, 들뜨다,

붙잡다, 들뜨다, 넘보다, 등보다, 오르내리다.

2) 副詞 + 動詞 語幹

바로잡다, 광광하다, 잘못하다, 잘나다, 못나다.

3) 名詞 語幹 + 動詞 語幹

병들다, 혼나다, 매랴다, 맛보다, 잠꾸다,
잠자다, 성내다, 덕보다, 탐내다, 흥내다.

4) 名詞 語幹 + 動詞 語幹 (하-, 되-)

공부하다, 운동하다, 연구하다, 편지하다, 놀이하다,
찌름하다, 편입하다, 공부되다, 놀이되다, 연구되다.

2. 接辭의 手法에 依한 것:

1) 形容詞 語根 + 接尾辭 (히, 우)

굳히다, 밝히다, 키우다.

2) 副詞 + 接尾辭 (—거리—)

칠석거리다	들머거리다
찌득거리다	홍성거리다
비틀거리다	증얼거리다

3) 動詞 語根 + 接尾辭 (치-, 드리-, 트리-)

덜치다	떨치다
놓치다	받치다
깨드리다	더드리다
깨트리다	빠트리다

第 2 節 動詞의 文法的 範疇

動詞의 文法的 範疇은 態, 時態 法, 階稱 및 相의 다섯 가지가 있다.

第 1 項 態

態는 時間 上에서 行動이 어떻게 進行하고 있는가를 — 即 行動의 性格을 가리키는 文法的 範疇이다.

態에는 基本的으로 行動이 이미 完了되었음을 나타내는 完了態와 行動이 繼續 進行 中임을 나타내는 持續態와의 두 가지가 있다. 朝鮮語에 있어, 態는 주로 動詞 語幹의 合成에 依하여 表現된다.

1. 完了態의 動詞는 다음과 같이 形成된다.

- 1)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버리-
먹어 버리었다, 놓치어 버리었다.
- 2) 動詞 語幹 + 接續 토 (고) + 말-
밤을 새우고 말았다, 내어 버리고 말았다.
- 3)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또는 (고) + 나-
견디어 나다, 이기고 나다.
- 4)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내-
이기어 내다, 견디어 내다.
- 5)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놓-
뒀어 놓다, 뜨아 놓다.
- 6)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두-
들어 두다, 보아 두다.
- 7)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가지-

第 6 章 動 詞

배^어 가지다, 불을 켜 가지고 오다.

2. 持續態의 動詞은 다음과 같 1 形成된다.

- 1) 動詞 語幹 + 接續 ㅁ (고) + 있-
가고 있다, 먹고 있다.
- 2) 動詞 語幹 + 接續 ㅁ (아, 어, 여) + 있-
서 있다, 적히여 있다.
- 3) 動詞 語幹 + 接續 ㅁ (아; 어, 여) + 쌓-
울어 쌓는다, 먹어 쌓는다.
- 4) 動詞 語幹 + 接續 ㅁ (아, 어, 여) + 오-
 겪어 오다, 보아 오다.
- 5) 動詞 語幹 + 接續 ㅁ (아, 어, 여) + 가-
주어 가다, 살아 가다.
- 6) 動詞 語幹 + 接續 ㅁ (군) + 하-
가군 하였다, 보군 하였다.

[附記] 完了態의 動詞은 “다, 벌써, 이미, 막, 금방” 等의 副詞과 함께 使用되는 일이 많다.

第 2 項 時 稱

動詞가 述語로 될 때와 規定語로 될 때와의 두 경우의 時稱을 따로 따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述語로 될 때의 時稱

現在: 語幹 + 0 또는 ㄴ (는) -

例: 받는다, 준다, 된다.

過去: 語幹 + 았 (였, 였) -

例: 받았따, 주었따, 피었따.

先過去: 語幹 + 았 (였, 였) + 었 -

例: 받았었따, 주었었따, 피었었따.

未來: 1) 語幹 + 겠 -

例: 받겠다, 주겠다, 피겠다,

2) 語幹 + 리 (-으리) -

例: 받으리다, 주리다, 피리다.

過去未來: 語幹 + 겠 + 었 -

例: 받겠었따, 주겠었따, 피겠었따.

(2) 規定語로 될 때의 時稱

現在: 語幹 + 는 例: 주는 책, 받는 책

過去: 語幹 + ㄴ (은) 例: 준 책, 받은 책

過去持續: 語幹 + 던 例: 주던 책, 받던 책

未來: 語幹 + ㄹ (을) 例: 줄 책, 받을 책

動詞가 規定語로 될 때의 時稱 토에 述語로 될 때의 時稱 토가 結合하여 나타내는 時間 上의 紐帶는 名詞, 形容詞의 경우와 同一하므로 이곳에는 叙述하지 않기로 한다. (195 페이지 參照)

第 3 項 態 와 時 稱

態와 時稱은 行動을 表示하는 觀點이 서로 다르면서도 다 같

이 時間에 關係되는 것이므로 行動의 時間 上 뉴앙즈를 나타내기 爲하여 結合되는 일이 많다.

이제 終結 述語로 된 1개의 그 形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完了態와 持續態의 代表的인 것으로 각각 “動詞 語幹+아(어, 여) +버리-”. “動詞 語幹+고+있-” 을 들거로 한다.

態 時稱	基 本 形	完 了 態	持 續 態
現在	주-나다 받-는다		주-고 있다 받-고 있다
過去	주-었다 받-았다	주-어 버리었다 받-아 버리었다	주-고 있었다 받-고 있었다
先過去	주-었었다 받-았었다	주-어 버리었었다 받-아 버리었었다	주-고 있었었다 받-고 있었었다
未來	주-겠다 받-겠다 주-리다 받-으리다	주-어 버리겠다 받-아 버리겠다 주-어 버리리다 받-아 버리리다	주-고 있겠다 받-고 있겠다 주-고 있으리다 받-고 있으리다

第 4 項 法

動詞의 法은 名詞, 形容詞의 그것에 比하여 若干 複雜하다.

이제 動詞가 接續 述語로 될 때와 終結 述語로 될 때와의 두 경우를 따로 따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接續 述語로 될 때의 法

이에는 直說法, 條件法 營爲法, 및 所願法의 세 가지 法이 있다.

i) 直說法에 쓰이는 動詞 述語의 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並列

ㄱ. 合同的: -고, -고서, -면서, -는데, -는바,
-던바, -되, -더니, -전대, -자,
-거니와, -다가.

ㄴ. 分離的: -거나, -든지, -나, -랴, -거니.

ㄷ. 對立的: -지마는, -전마는(--전만), -이도(어도,
여도), -되, -나, -려니와, -면마는,
-다가, -나마.

例:

ㄱ. 合同的:

“-고” 그의 할아버지는 고기잡이로 일생을 보내였었고,
아버지는 농사'군으로 일생을 보내였다. (조 명 회)
“-고서” 몇권의 사상적 서적을 읽고서, 자기를 마치 혁명자
“-면서” 처럼 생각하면서 혁명 사업을 하여 보려고 상상
하였다.

“-는데” 七百呎 압록강 푸른 물에

저녁 해 비치였는데

황혼을 담아 싱고

떼'목이 내리나다 떼'목이 내리나다. (조 기천)

“-는바” 일본 반동 정부는 조선인 학교를 폐쇄하고 있는바,
폐쇄 이유는 다음과 같다.

“-던바” 웅장한 해방탑을 건립할 준비를 진행시키여 오던바,
조쑤 친선 및 쑤메트 문화 순간 사업의 첫 날인 지
난 14일에 해방탑 건립을 준공하고, 뜻깊은 제막식
을 거행하였다.

“-되” 그가 말하되 자기는 그렇노 것 본 일이 없다고
한다.

“-더니” 가늘노 비가 뿌리더니, 어떻노 것은 새 주둥이 처
럼 어떻노 것은 콩작 처럼 흙을 떨고 오락 쫓는다.
(리 태준)

“-전대” 등전대, 동무 아버지께서 금번 대의원이 되시었다
지요?

“-자” 오정 때가 되자, 거덕구름은 비를 물고 들어와서
사방이 자우룩하다. (리 기영)

“-다가” 신철이는 그의 뒤'모양을 물끄럼히 바라보다가 풀
밭에 주저앉았다. (강 정애)

“-거니와” 나는 성공 못하고 죽거니와, 너희들은 반드시 조

국의 해방을 위해 끝까지 싸워라.

ㄴ. 分 離 的:

“-거나” 심심해지면 다시 집어다 읽어 보는 때가 있기는 했으나, 머리에 남기리 만치 내용에 끌리었거나, 흥미를 느끼리 수는 없었다. (리 태준)

“-나” 東南의 길—

자나 깨나 그리던 이 길 (조 기천)

“-거니” 주야로 빈 때 없이 물거니 쪼거니 빨거니 흔거니 심한 당비리에서 어련어라... (靑丘永言)

“-든지” 남의 집 종살이에서 플리어 밭이나 하루 같이 사고 마누카를 얻든지 며느리를 얻든지 해가지고 인젠 남부런지 않게 한번 살아 보려고, ... (리 태준)

“-락” 피차에 말이 오락 가락 하다가 싸움이 되고, 또 때 싸움이 되어서... (조 명희)

ㄷ. 對 立 的:

“-지마는” 그의 부모가 아무리 무지해서 그렇게 쿨지마는, 그 무지함이 뭇다가도 도리어 불상한 생각이 난 까닭이었다. (조 명희)

“-전만” 닥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하엿전만 훑주리 ㅁ만 이 가도 놓이여 있었던 예'일을 지금 와서 그들 내외는 회상하는 것이였다.

“-어도(어도, 여도)” 눈물을 아무리 문대고 들이어다 보아도

역시 어머니는 숨이 끊어지니 것이 트티지 않다.

“-되” 동무는 말은 잘하되, 實踐은 하지 않는다. ㄷ

“-나” 군의 소식은 황군에게서 듣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시인할 수 없다. (최 학송)

“-려니와” 살고자 한즉 부명을 거역함이니, 일정한 명 대로 하려니와, 바라건대 잠간 맘미를 얻어 다니며 와 죽 음을 청하노라. (장화 흥편전)

“-편마는” 梧桐秋夜 밝은 달은 님 계시니 네 보편마는 오늘 이나 편지 올까 래일이나 기별 올까... (준향전)

“-더니” 언제는 오타 오타 하더니, 인젠 또 가라는구나!

“-다가” 올다가. 옷을 노릇이다.

역시 아버지는 우두커니 섰다가, 비실비실 안채 부엌 뒤로 오고 말았다. (리 태준)

“-나마” 가기는 가나마 일은 벌써 트티였을거요.

2) 從屬

ㄱ. 原因: -ㄴ 즉, -아 (어, 여), -아서(어서, 여서),
-므로, -매, -니, -니까, -거늘, -는지라,
-기에, -기로, -거든, -르째, -거니.

ㄴ. 樣態와 程度: -게, -고, -도록, -르뿐더러,
-르쭝록, -아 (어, 여)

例:

ㄱ. 原因:

“-ㄴ 즉” “웁스” 하고 소리를 친다. 도라다은즉 회사 명파.
 는 아무 상관도 없은 뿐 아니라 제 아비 농직에도
 호미 한번 잡는 일이 없는 판근이 녀석인 것이 웃
 어었다. (리 태준)

“-아(어, 여)” 바람이 불어 시원하다.

“-아서 (어서, 여서)” 그는 자주 않아서 탈이야.

“-므로” 운문도 아니요, 산문도 아닌 글을 써서 그 표현
 , 효과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글을 많이 보므로 여기
 에 운문과 산문의 差異를 밝히며 한다.

“-때” 일행이 오르기를 마칠때 배는 저쪽 기슭을 바라보
 고 나아간다. (조 명회)

“-니” 물을 끄니, 별밤은 밤하늘이 된다.

봄이 되니, 시골 사람들은 서운 사람들 몇배 빔박
 하는 것 같았다.

“-니까” 역쇠가 달리여 오니까, 소녀도 뛰여 버린다.

(리 태준)

“-기늘” 罪人을 오되 거늘 다 各各 問罪 後에 無罪者 放送할
 제... (춘향전)

“-는지라” 무실한 호접봉은 천리 길에 오락가락 정을 스스로
 로 이기지 못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지라, 갈나
 한숨 피눈물로 화조월석 보내더니, ... (춘향전)

“-기에” “-기로” 주인도 찾지 않고 들어오기에 (로), 한

바탕 육해 추웠지요.

“-거니” 두베에서 마을에서

삼천리 조국에 불과다 이루었거니

이 위대한 왜'불의 進行 앞에

두더지 같이 박쥐 같이 숨는 자는 그 누구들이며...

(송 순익)

ㄴ. 樣態와 程步:

“-게” 실상 이렇게 살아오게 되기를 期約하지 못할 일이
였기 때에... (김 자량)

“-도록” 정거장들은 대중의 지하 궁전이란 느껴도록
화려하다.

“-르뿐더러” 그것을 처음 보는 때처럼 마음에 찌르지는 않
았다. 찌르지 않을뿐더러 나라'님이나 아씨의 권
리를 작인들 앞에 대신 씌 불 때는, 권리를 주는 주
인에게는 아침이 절로 늘었고, ... (리 태준)

“-르쭈룩” 그렇나 날이 가고 세월이 갈쭈룩, 사회는 새내용
과 새힘을 가지고 변천 발전하여 간다.

li) 條件法에 쓰이는 動詞 述語의 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1. 假定: -면, -르절대, -거든.

2. 讓步: -던들, -더라도, -찌라도, -ㄴ들, -르망정,
-르찌언정.

例:

1. 假定:

“—면” 이 자리에 이 기록을 다지금 펼치여 놓고 읽어 본다면 여러가지로 무량한 감개와 회상이 솟구어 오른다. (김 사당)

“—르절대” 이미 복숨을 조국에 바치기로 결심하였을절대 이 책거에 출선 참가하는 것이 어떻겠소?

“—거든” 네가 나를 보라거든 설어 말고 잘 있거라. (춘향전)

2. 讓步:

“—던들” 값던들 그 일이 되지는 못했을 거요.

“—더라도” 제 어미 제 계집이 죽더라도 출음 한 마디 내여서는 안 된다는 분부엔 (리 태준)

“—르찌라도” 설사 굴'속에 들어 갔다가, 굴이 무너지르다 할찌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때'짐이 '즐멧이'났다. (한 설야)

“—르들” 앉았은들 님이 올까? 누웠은들 잠이 오랴? (춘향전)

“—르망정” 오히려 죽을망정 늙들에게 굴할 수는 없었다.!

“—르찌언정” 차라리 죽을찌언정 밭이먹기는 싫었다.

iii) 當爲法에 쓰이는 動詞. 述語의 트로는 “—아야(—어야,)—어야)”가 있다.

例: 이 책을 꼭 읽어야 하겠다.

iv) 所願法은 動詞로써 表現되는 動作 또는 狀態가 實現되
었으면 하고, 또는 實現하고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使
用된다.

이 때 쓰이는 動詞 述語의 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으)터(고), -고자, -(으)터

例:

“-터” 江東魂을 지키며 가던 횡설는 폭풍에 흩어지니 障
簾을 두번 왕어가는 일... (안 룡만)

“-터” 열쇠 아비가 두번이나 부르러 가도 어튼 일어서지
않았다. (리 태준)

“-고자” 나는 김동무를 만나고자 그의 집으로 찾아 갔으나
그는 이미 밖으로 나간 뒤였다.

(2) 終結 述語로 될 때의 法

이에는 直說法, 疑問法, 命令法, 및 勸誘法의 네 가지가 있다.

1) 直說法에 쓰이는 動詞 述語의 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ㄴ(는)다, -마, -네, -ㅁ(음)세, -구려, -오이
-소, -지요, -아요, -ㅂ(읍, 습)니다, -아, -저.

2) 疑問法에 쓰이는 動詞 述語의 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나? -더냐? -느냐? -니? -랴? -는가?

-(으) 오? -소? -아오(어오, 여오)? -지요?

-日(옴, 습)니까? -지? -아(어, 여)?

3) 命令法은 動詞로써 表現되는 行動을, 이야기 듣는 사람이 받드시 遂行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要求할 때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動詞 述語의 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라. -아(어, 여)라 -너라, -거라, -러으나,

-렴. -게, -구더, -오, -소, -아오(어오, 여오),

-시십시오, -소서 -아(어, 여), -지.

[附記] 이곳에 “-너라” 는 特히 “오-(來)” 에만,

“-거라”는 特히 “가-(往)”, “나-(出)”, “자-(眠)”

等에만 使用된다.

例:

“그럼 잘 가거라”

“뭇놈이구 오너라”

4) 勸誘法은 動詞로써 表現되는 行動을 이야기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遂行할 것을 勸誘할 때 使用된다.

이 때 쓰이는 動詞 述語의 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세, -십시오, -십시오, -아(어, 여), -지.

以上の 直說法 條件法 當爲法, 所願法, 疑問法, 命令法 및 勸誘法 以外에, 名詞, 形容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法의 一種으로 尊敬法이 있다.

尊敬法에서는 動詞 語幹에 “尊敬法의 토 -시-”를 붙이며, 1

이 토는 如何한 時稱, 何如한 法에도 使用된다.

예로는 語根을 全然 다의 하여 尊敬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例: 자다 - 주무시다
 녀다 - 잡수시다
 있다 - 계시다
 고프다 - 서장하시다

第 5 項 階 稱

動詞의 階稱에도 “해타”, “하계”, “하오”, “존대” 및 “반말”의 다섯 가지가 있다.

1) 해라 에 쓰이는 動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ㄴ(는)다, -다, -구나, -군, -느냐? -나? -너? -랴,
 -라, -아(어, 여)라, -너라, -거라, -러프나, -렷, -자.

例:

넌의 눈물경 나 이야기

때목 위의 초막에 것들이었느냐? (조 기현)

“그럼 잘 가거라”

“이 집에 아무도 없나?”

이 강반 번두리에 것들이나 처, 슬픈 현실들을

영원히 호되여 보내 주렷. (민 병균)

“넌 저더서 그렇^ㄴ 소릴 다 들었^ㄴ? 나두 못 들은 말
을” (리 기영)

“아이구 네가 참말 오는^ㄴ구나!”

“뭇^ㄴ놈이구 오너^ㄴ라”

“선^ㄴ 비야, 점^ㄴ 심 잠^ㄴ어^ㄴ라” (장 경애)

“네가 가서 떠^ㄴ다 주^ㄴ려^ㄴ므나, 내가 어^ㄴ둥^ㄴ어서 알^ㄴ겠^ㄴ니?”

(장 경애)

“영^ㄴ남아 우리 가^ㄴ자!”

우리 술^ㄴ개^ㄴ풀로 가^ㄴ자! (조 기천)

불^ㄴ을 지^ㄴ트^ㄴ라

원^ㄴ쑤의 머리에 불^ㄴ을 지^ㄴ트^ㄴ라 (조 기천)

“아니 그 영^ㄴ감^ㄴ락^ㄴ이가 인^ㄴ제 보^ㄴ니까 빛^ㄴ을 받^ㄴ으^ㄴ려 나^ㄴ왔^ㄴ었^ㄴ
군!” (리 기영)

2) 하^ㄴ게에 쓰이는 動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네, —ㅁ(음)세, —는가? —르까? —게, —세.

例:

전송하는 대^ㄴ장의 말——

“철^ㄴ호 조^ㄴ심^ㄴ하^ㄴ게! 말^ㄴ네!” (조 기천)

“참^ㄴ 장^ㄴ수야! 인^ㄴ제 두^ㄴ목으로 모^ㄴ시^ㄴ ㅁ세” (한 설야)

아^ㄴ무^ㄴ러^ㄴ기로 청^ㄴ년^ㄴ들이

평^ㄴ안이나 행^ㄴ복을 구^ㄴ하여

이 바^ㄴ다 힘^ㄴ한 물’걸 위^ㄴ를 오^ㄴ랐^ㄴ겠^ㄴ는가? (림·화)

“아버지도 모르시는가?”

“어떻나 늬이 이렇나 요언을 만들어 냈을까?” (리 기영)

“그렇나 소는 이렇히세, 원산으로 보내세, 팔아서...” (한 설야)

3) 하오에 쓰이는 動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오, —소, —구려, —오? —소?

例:

“원 별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값있디라면 공연히 이백 원손해 보자리 번 했소.” (리 기영)

아니 글썽 장군이 그렇다는 걸 내가 어기면 되오? 또 래 일은 장군이 꼭 나올테니 기다리고 왔소.” (한 설야)

4) 존대에 쓰이는 動詞의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어, 여)요, —지요, —아(어, 여)요, —지요, —(으)의다.

—ㅁ(읍, 습)니다, —나이다, —ㅁ(읍, 습)니까?, —(으)시

요, —(으)소서, —(으)ㅁ시다.

例:

“그럼 잠간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어머니 물 데워서 손발 좀 씻어 오퇴리까요?”

“어서 받아요.”

“그럼 얼마나 감해 주시렵나까? 아무케나. 공평하게만 해
줍시요 그려.” (리 기영)

“그럼 속히 상의해 보아 주시ㅁ시요. 고만을 잡시다.” (리

기영)

“그때 내가 싸우는 동안에 매성들이 뛰라고 했습니까? 내

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았습니까.” (한 철야)

물효 녀식은 그 사이 이 곳으로 와서 몹 성히 잘 지내오니
안심하시옵소서. (리 기영)

[附記] 動詞가 述語로 될 때의 “鄭重 語法의 로”는 形容詞
의 그것과 同一하므로 이곳에 따르 敘述하지 않는다.

5) 반말에 쓰이는 動詞의 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 (어, 여), — , — ? (어, 여)?, —지?

예:

“어떻게 사나이가 책리문을 열고 들어오.” (강 경애)

“똥 좀 더 늘다 가시지.” (리 기영)

“너 어제 밤 무엇하러 나왔어?” (강 경애)

김군! 군은 이러한 말을 편지 마다 했었지? (최 학중)

第 6 項 時稱과 法과 階稱

動詞의 態, 時稱, 法 및 階稱은 言語 行爲에서 서로 結合되
여 나타나므로, 이들을 함께 表示하던 261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다만 圖表의 簡便을 爲하여 態는 略하고 時稱은 過去, 現在, 未
來에 限하기로 한다.

다음 動詞의 直接 傳達의 로와 間接 傳達의 로(19) 페이지 以下
參照)가 時稱, 法, 階稱과 結合하여 使用되는 狀態를 보면 262 페

法 語 稱	時 稱	直 說 法		疑 問 法		命 令 法	勸 誘 法
		過 去	現 在	過 去	現 在		
해	라	—있다	—(는)다	—았나?	—나?	—겠나?	—라
		—았구나 —았군	—마 —는구나 —는군	—았느냐? —았어? —았니?	—느냐? —니? —냐?	—겠느냐? —겠니? —겠나	—아라 —너라 —러드나 —런
하	게	—았네	—네 —고 —는구려	—았는가?	—는가?	—겠는가?	—게
		—았구려	—네 —고 —는구려	—았는가? —았소?	—는가? —소?	—리까?	—구며
하	오	—았소	—(으)소	—았소?	—소오?	—겠소?	—(으)오 —(으)다
		—았지오 —았거오 —았습네다 —았나이다	—지오 —아오 —네이다 —나이다	—았지오? —았어오? —았습네까? —았나이다	—지오? —아오? —네(음)까? —나(음)까	—겠지오? —겠어오? —겠습네까? —겠나이다	—거오 —아오 —시오 —소세
탄	발	—았거오	—아(어여)	—았거?	—아?	—겠어?	—아
		—았지	—지	—았지?	—지?	—겠지?	—지

法 時稱	直			說			法						
	過	去	現	在	未	來	過	去	現	在	未	來	
階 稱	해라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階 稱	하게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階 稱	존대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하오
階 稱	반말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直接	間接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階 語 幹 例		敬 法			勸 誘 法		
法	稱	直 說 法	疑 問 法	命 令 法			
해	보	—시(으시)는 구나	—시(으시)나?				
		—시(으시)는 구나	—시(으시)니?				
	받	—시(으시)는 구나	—시(으시)라나?				
		—시(으시)는 구나	—시(으시)니?				
		—시(으시)는 구나	—시(으시)나 다더나?				
		—시(으시)는 구나	—시(으시)나 다더?				
하	보 받	—시(으시)네	—시(으시)는 기?				
		—시(으시)네	—시(으시)리까?				
		—시(으시)네	—시(으시)년가?				
하	주 받	—시(으시)는 구려	—시(으시)요	—시(으시)구려			
		—시(으시)요	—시(으시)다오?	—시(으시)요			
		—시(으시)나					
존	보	—시(으시)지요	—시(으시)지요?	—시(으시)지요		—시(으시)지요	
		—시(으시)여요	—시(으시)여요?	—시(으시)여요		—시(으시)여요	
		—시(으시)비나이다	—시(으시)리까요?	—시(으시)비시요		—시(으시)비시요	
	받	—시(으시)나이다	—시(으시)비나일까요?	—시(으시)비시요			
		—시(으시)나이다	—시(으시)시대요?	—시(으시)비시요			
		—시(으시)나이다	—시(으시)답디까?	—시(으시)답디까?			
받	보 받	—시(으시)여	—시(으시)어?	—시(으시)여		—시(으시)여	
		—시(으시)지	—시(으시)지?	—시(으시)지		—시(으시)지	
		—시(으시)나	—시(으시)나 매?				

지의 圖表와 같다.

또한 尊敬法이 直說法, 疑問法, 命令法 및 勸誘法과 結合하여 使用되는 狀態를 보면 263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第 7 項 相

相은, 動詞로써 表現된 行動과, 行動의 主體와의 關係를 나타내는 文法的 範疇이다.

相에는 能動相과 被動相이 區別된다

1) 能動相

能動相이란, 動詞로써 表現된 行動이 主體 (主語) 의 힘으로 遂行되는 關係를 말한다.

能動相의 主體는,

ㄱ) 客體 補語를 가지지 수 없거나,

(지내'불이 흐른다.)

ㄴ) 客體 補語를 가지지 수 있거나,

(學生들이 冊을 읽는다.)

ㄷ) 特히 行動의 主體가 될 客體 補語를 가지지 수 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ㄱ) 의 경우 使用되는 動詞를 自動詞,

ㄴ) 의 경우 使用되는 動詞를 他動詞,

ㄷ) 의 경우 使用되는 動詞를 使役動詞라 한다.

1) 自動詞

自動詞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오다, 가다, 되다, 서다, 나다, 자다, 잤다, 놀다...

2) 他動詞

他動詞은 客體 補語를 가지라 수 있는 것이므로 對格의 名詞가 그 앞에 온다.

공을 차다, 책을 보다, 글을 읽다, 밥을 먹다, 정관을 받다, 문을 닫다...

그렇나 對格의 名詞가 그 앞에 있다고 하여 그 때의 動詞가 반드시 他動詞인 것은 아니다.

時間, 場所, 原因 等의 補語도 對格의 名詞로 自動詞 앞에 나타날 수 있으리.

例: 학교를 간다. (場所) 자학을 온다. (時間)

밤'길을 간다. (場所) 술을 취한다. (原因)

類根을 같이 하는 名詞 (同族 名詞) 도 對格 名詞形의 補語로 되어; 自動詞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까닭이다.

例: 잠을 잔다. 꿈을 꾀다.

울음을 울다. 웃음을 웃는다.

他動詞은 다음과 같이 造成된다.

i) 自動詞와 全然 別個의 語根으로 되는 것:

自動詞: 오다, 가다, 잤다, 내리다, 젖다, 되다.

他動詞: 때리다, 찌다, 보내다, 쓰다, 밟다, 먹다, 받다.

얼다, 읊다, 쥐다.

ii) 自動詞 語幹 + '0' (零) 接尾辭

(따라서 同一의 語幹이 自動詞도 되고 他動詞도 된다.)

불다 { 바람이 불다 (自動詞)
괴티를 불다 (他動詞)

물다 { 거제가 물다 (自動詞)
길을 물다 (他動詞)

놀다 { 아이가 놀다 (自動詞)
웃을 놀다 (他動詞)

iii) 自動詞 語幹 + 接尾辭 (이, 기, 리, 우, 히)

自動詞		他動詞
돌다	→	돌우다
돌다	→	돌려다
살다	→	살리다
남다	→	남기다
읊다	→	읊기다
자다	→	재우다
나다	→	내다
뜨다	→	뜨이다 (뜨이다)
속다	→	속이다
물다	→	물이키다
죽다	→	죽이다

第 8 章 動 詞

올다	→	올러마
호르다	→	호되다
마르다	→	마되다
웃다	→	웃기다
숨다	→	숨기다
앉다	→	앉히다

17) 他動詞 語幹 + 接尾辭 (치)

他動詞		他動詞
놓다	→	놓치다
덮다	→	덮치다
떨다	→	떨치다
받다	→	받치다
달다	→	달치다
떨다	→	떨치다
데다	→	데치다
깨다	→	깨치다

ㄷ) 使役動詞

使役動詞은 客體 補語를 가지므로 他動詞의 一類이다.

그렇나, 使役動詞의 補語는 그 自體 行動의 主體가 될 수 없으므로 特히 이를 使役動詞과 한다.

例: 어머니가 아이에게 젓을 먹인다. (따라서 아이가 젓을 먹을 수 있다.)

放學에 學生들을 놀리다. (따라서 學生들이 놀리 수 있다.)
 같은 他動詞도 그 앞에 오는 名詞에 따라 他動詞로도 되고
 使役動詞로도 된다.

어머니가 아이 옷을 벗기나다.

(아이가 옷을 땀으므로) — 使役動詞

사과 껍질을 벗기어 먹어라.

(사과가 自體로 껍질을 벗지 못하므로) — 他動詞

使役動詞은 다음과 같이 造成된다.

i) 自動詞 語幹 + 接尾辭 (어, 리, 히, 우, 기)

自動詞		使役動詞
웃다	→	웃기다
울다	↳	울리다
놀다	→	놀리다
앉다	→	앉히다
자다	→	저우다
눅다	→	눅어다
남다	→	남기다
숨다	→	숨기다
익다	→	익히다

ii) 他動詞 語幹 + 接尾辭 (어, 히, 기, 우, 리)

他動詞		使役動詞
먹다	→	먹어다

第 四 章 動 詞

고다	→	노이다
물다	→	워리다
말다	→	갈리다
벗다	→	벗기다
뜯다	→	뜯기다
지다	→	지우다
타다	→	태우다
비다	→	인우다
차다	→	채우다
뜯다	→	뜯기다
안다	→	안기다
입다	→	입히다

iii) 他動詞 (...하-) 語根 + (시키-)

적경하다	→	적경시키다
공부하다	→	공부시키다
일하다	→	일시키다
研究하다	→	研究시키다
注意하다	→	注意시키다

使役動詞 대신에 "...게 하다"라는 語法으로써 使役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먹이다	먹게 하다
앉히다	앉게 하다

걸다	→	걸히다
갈다	→	갈리다
등다	→	등리다
갈라	→	갈리다
달다	→	달리다
물다	→	물리다
쫓다	→	쫓기다
안다	→	안기다
담다	→	담기다
끓다	→	끓기다
감다	→	감기다
제었다	→	제어기다
낚다	→	낚이다
섞다	→	섞이다
쌓다	→	쌓이다
보다	→	보이다
놓다	→	놓이다

[附記] 接尾辭 “치” 와 “히” 의 區別 :

接尾辭 “치” 는 他動詞 語幹에 붙어 뜻이 強한 他動詞로 變할 때 쓰이며 (놓치다, 밟치다, 떨치다), 接尾辭 “히” 는 他動詞로 부러 被動詞로 變할 때 쓰인다.

(달히다, 묻히다, 걸히다)

II) 自動詞 語幹 + 接尾辭 (리, 기)

날다	→	날리다
볼다	→	볼리다
늘다	→	늘리다
울다	→	울리다
웃다	→	웃기다

III) 他動詞 語根 + 되-

이 때의 他動詞 語根이라 함은 “하-” 가 붙어 他動詞로 되는 것을 말한다.

驅逐하다	→	驅逐되다
說明하다	→	說明되다
注目하다	→	注目되다
걱정하다	→	걱정되다
등부하다	→	등부되다

被動相은 被動詞 以外에 “...받다”, “...입다”, “...當하다”, “...맞다”, “...아(어, 여)지다” 등의 語法으로써도 表現된다.

싫하다 → 싫 받다, 싫 입다, 싫 당하다.

注目하다 → 注目 받다, 注目 당하다.

도적하다 → 도적 맞다, 도적 당하다.

그리다^ㄹ → 그리어지다.

뉘다 → 뉘어지다.

第 3 節 動詞의 不定形

은 動詞은 言語 行爲에서 위에 말한 種의 文法的 範疇, 即 時稱 法, 階稱 및 相을 갖추고 나타 뉘 있다.

例: 어머니는 그 때 어리니 아이에게 젖을

먹	이	고	지	었	것	지	요?
語根	相	法	法	時稱	時稱	階稱	法
	(使役)	(持續)	(尊敬)	(過去)	(推測)	(존대)	(疑問)
	能動)				未來)		

그렇나 動詞으로써 表現되는 行動 또는 狀態를 時稱 또는 階稱을 超越하여 表示하는 形體가 있다. 이것을 不定形이라 하며 動詞의 不定形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1) 第 1 不定形: 動詞 語幹 + ㅁ(음)

감, 먹이ㅁ, 研究하고 계시ㅁ, 던지어 버리ㅁ.

動詞 語幹의 開音節 (開音節로 看做되는 音節을 包含) 로 끝났을 때에는 "ㅁ", 閉音節로 끝났을 때에는 "음" 이 온다.

다만 "ㄱ" 받치ㅁ의 語幹은 "ㅁ" 이 음이 原則이나 "음" 을 많이 쓴다. (例: 줄 → 줄음, 울 → 울음)

이 不定形은 態, 時稱, 尊敬法, 相을 表現할 수 있으나 尊敬法 以外の 法과 階稱은 表現하지 않는다.

이 不定形은 文에서 體言과 같이 看做되서, 르와 함께 主語, 述語, 規定語, 補語로 使用되며, 때로는 아무 르 없이(르 0 [零] 을 '가지고) 바로 終結 述語로도 使用된다.

例:

主語 나 역시 또한 邊方 山寨에 나온 兵士의 하나이 된 듯
感慨의 사류치이 무량하였다. (김 자량)

述語 貴姓은 것은 날썩한 다리로 날을 것처럼 집으로 도라
가던 길, 붉은 信號에 물키여 선 小學生들의 제재거
리이다. (리 태준)

補語 停車場들은 大衆의 地下 宮殿이란 느끼을 주도
록 華麗하다. (리 태준)

零 르의 終結 述語.

午前中 강가를 散歩하였음.

朴동무에게 기념품을 증정함.

2) 第 2 不定形: 動詞 語幹 + 기

가기, 먹이기, 研究하고 계시기, 던지여 버리기.

이 不定形은 第 1 不定形과 같이 態, 時稱, 尊敬法, 相은 表
現 할 수 있으나 尊敬法 以外의 法과 階稱은 表現하지 않는다.

이 不定形은 文에서 體言과 같이 看做되어 르와 함께 主語,
述語, 規定語, 補語로 使用된다.

主語 말하기는 일하기보다 쉽다.

補語 그는 일은 안 하고 말하기만 좋아 한다.

述語 그건 참말로 떨덕기다.

規定語 바로 뽕에 오락가기의 어령口은 결코 이 정도가 아니다.

[附記] 第 1 不定形과 第 2 不定形이 굳어진어서 아주 名詞로 化한 것이 있다.

例: (1) 꿈, 잠, 춤, 뜸, 웃음, 울음, 늘음 ..

(2) 돌보기, 졸다려기, 안잠자기, 고기잡가...

同一한 語形도 前後 文脈에 따라 品詞가 다릅니다.

늦게 잠은 건강에 害롭다. (動詞의 不定形)

늦 잠이 많다. (名詞)

即, 動詞의 不定形은 動詞로써 表現되는 行動을 特히 過程的으로 表現한다고 볼 수 있다.

3) 第 3 不定形: 動詞 語幹 + 지

가자—, 먹어지—, 研究하고 계시지—, 던지여 버리지—

이 不定形은 態, 相, 尊敬法은 表現할 수 있으나, 尊敬法 以外의 法, 時稱, 階稱은 表現하지 않는다.

이 不定形은 文에서 動詞 “않—, 말—”, 副詞 “아니, 못”과 함께 使用되어 否定, 禁止, 不可能의 뜻을 나타낸다.

먹지 아니한다.

떡지 못한다.

떡지 말아라.

4) 第 4 不定形: 動詞 語幹 + 다

가나, 먹어다, 研究하고 계시다, 던지여 버리다.]

이 不定形은 態, 相, 法 (直說法과 尊做法에 限하여) 을 表現할 수 있으나, 時稱과 階稱은 表現하지 않는다.

이 不定形은 辭典等에서 動詞 語形을 代表하며, 文에서는 단
지·終結 述語로서만 使用된다. 또한 口頭語에서는 使用되지 않
書寫語 (특히 記錄體에서) 에서만 使用된다.

例를 들면,

午前 中 大洞江를 散步하다.

朴동무에게 記念品을 贈呈하다.

이밤 빨찌산 부대 나출 만에 天幕에 들다! (조 기철)

第 4 節 文에서의 動詞의 機能

動詞는 文에서 다음과 같은 機能을 한다.

1. 主語로 된다.

第 1 不定形, 第 2 不定形으로써.

2. 接續 述語로 된다. (243 페이지 以下 參照)

3. 終結 述語로 된다. (255 페이지 以下 參照)

4. 規定語로 된다.

1) 第 1 不定形, 第 2 不定形 + “의”

2) 規定語로 될 때의 時稱 토로써 (246 페이지 參照)

5. 補語로 된다.

第 1 不定形, 第 2 不定形, 第 3 不定形으로써.

第 5 節 名詞 形容詞 動詞의

文法的 範疇의 比較

以上으로써 每個의 品詞는 各기 一定한 文法的 範疇를 가지
고 있음을 알았다. 그 中 數詞와 代名詞는 그 文法的 範疇가 名
詞와 差異點이 없으므로, 결국 特色 있는 文法的 範疇를 가진
品詞로서 名詞, 形容詞 動詞의 셋만이 남게 된다. 이 세 品詞의
文法的 範疇를 서로 比較함으로써 每個 品詞의 特性을 밝히리 수
있으며, 따라서 한 개의 語가 어느 品詞에 所屬되는가의 問題도
容易하게 解決할 수 있게 된다.

이제 名詞, 形容詞, 動詞의 세 品詞가 文에서 各種의 文章
成分(主語, 接續 述語, 終結 述語, 規定語, 補語 및 呼稱語 等)의
機能을 알아 볼 때, 每個의 경우 어떠한 文法的 範疇(格, 態, 時
稱 階稱, 相 法 等)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對照 考察하여 보면
다음의 圖表와 같다.

이 圖表로써 品詞와 文章成分과 文法的 範疇가 어떻게 互相 關
聯되어 있는가를 뚜렷이 알리 수 있다.

第 2 篇 形 態 論 第 2 部

範 疇	文 章 成 分	品 詞 形 態		名 詞		形 容 詞		動 詞	
		原 形	不 定 形	原 形	不 定 形	原 形	不 定 形	原 形	不 定 形
格	主 語	○	○				○		○
	接 續 述 語								
	終 結 述 語								
	規 定 語	○	○				○		○
	補 語	○	○				○		○
	呼 稱 語	○	○				○		○
態	主 語								○
	接 續 述 語							○	○
	終 結 述 語							○	○
	規 定 語							○	○
	補 語								○
時 稱	主 語		○				○		○
	接 續 述 語	○	○	○	○	○	○	○	○
	終 結 述 語	○	○	○	○	○	○	○	○
	規 定 語	○	○	○	○	○	○	○	○
	補 語		○				○		○
階 稱	主 語								
	接 續 述 語								
	終 結 述 語	○		○				○	
	規 定 語								
	補 語								

總略		品 詞		名 詞		形 容 詞		動 詞		
		文 章 成 分	形 態	原 形	不 定 形	原 形	不 定 形	原 形	不 定 形	
相		主 語							○	
		接 續 述 語						○	○	
		終 結 述 語						○	○	
		規 定 語						○	○	
		主 語							○	
法	通 說 法	主 語		○		○			○	
		接 續 述 語	○	○	○	○	○	○	○	
		終 結 述 語	○	○	○	○	○	○	○	
		規 定 語	○	○	○	○	○	○	○	
		補 語		○		○		○	○	
	疑 問 法	主 語								
		接 續 述 語								
		終 結 述 語	○		○			○		
		規 定 語								
		補 語								
命 令 法 勸 誘 法	主 語									
	接 續 述 語									
	終 結 述 語							○		
	規 定 語									
	補 語									
尊 敬 法	主 語			○		○			○	
	接 續 述 語	○	○	○	○	○	○	○	○	
	終 結 述 語	○	○	○	○	○	○	○	○	
	規 定 語	○	○	○	○	○	○	○	○	
	補 語			○		○			○	

위의 圖表에 若干의 說明을 加하면 다음과 같다.

이곳에 每個 品詞의 原形이라 함은 不定形이 아닌 語形을 말한다. 即 “높음, 높기” 등이 形容詞의 不定形이라 하면, “높-”은 그 原形이라고 이곳에서는 부르기로 할 것이다.

먼저 格의 範疇을 보면, 이 範疇을 原形으로서 가지지 수 있는 品詞는 名詞 뿐이다. 即 名詞는 主語(主格으로써, 先生이), 規定語(屬格으로써, 先生의), 補語(其他의 格으로써, 先生을, 先生에게 등), 呼稱語(呼格으로써, 先生의시어) 로 되는 경우 格形態를 나타낸다. 形容詞과 動詞는 不定形에 依하여서만 格形態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 態의 範疇은, 動詞만 가지지 수 있다. 即 動詞는 接續 述語(주어 버리면), 終結 述語(주어 버렸었다), 規定語(주어 버리기) 로 되는 경우 態의 範疇을 나타내며, 不定形으로는 그 語幹에 態를 나타내어 (주어 버리기) 各種의 文章成分으로 될 수 있다.

時稱과 階稱의 範疇은 모든 品詞가 가지지 수 있으나, 階稱은 다만 그들이 終結 述語로 되는 경우에 限한다 (先生이시지요? 높네, 주어! 등).

相의 範疇은 動詞에만 限하며, 法의 範疇은 直說法, 疑問法, 尊敬法은 세 品詞에 다 나타나나, 命令法, 勸誘法 등은 動詞에 限한다. (條件法, 當爲法, 所願法은 圖表에서 略하였다.)

위의 圖表을 簡略化하여 品詞의 不定形과 文章成分을 略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品 詞	範 疇	格	態	時 稱	階 稱	相	法	
							直 說 法 疑 問 法 尊 敬 法	命 令 法 勸 誘 法
名 詞		○		○	○		○	
形 容 詞				○	○		○	
動 詞			○	○	○	○	○	○

이로써 名詞는 形容詞, 動詞에 比하여 格의 範疇가 더 있으며, 動詞는 名詞, 形容詞에 比하여 態, 相, 命令法과 勸誘法의 範疇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어느 品詞에 所屬시키리까에 對하여 恒常 問題로 되는 “있다”, “없다”를 보던 다음과 같다.

먼저 “없다”는

1. 態와 相과 命令法, 勸誘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動詞로 될 수 없다.)

2. 述語 現在形이 “없는다”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動詞로 될 수 없다.)

3. 規定語 現在形이 “없는 돈”과 같이 “는”로를 가지나, “값없는 消風”과 같이 現在의 뜻으로 “ㄴ (은)”로를 가지리 수

도 있다. (따라서 形容詞로 될 수 없지 않다.)

이로써 “있다”가 形容詞임이 分明하다.

다음 “있다”는, 結論부터 말하면, 이곳에 生物, 無生物의 “存
在”를 말하는 “있다”와 生物의 “行動”을 말하는 “있다”의 두 가
지를 區別하여 보아야 하며, 前者의 “있다”(存在)는 形容詞이나,
後者의 “있다”(行動)는 動詞이다. 即. “집이 있다”의 “있다”는

1. 態와 相과 命令法, 勸誘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
서 動詞로 될 수 없다.)

2. 述語 現在形이 “있는다”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動詞로
될 수 없다.)

이로써 “집이 있다”의 “있다”는 形容詞임이 分明하다. 그렇
나 “우리가물이 이곳에 남아 있다”의 “있다”는

1. 態와 相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命令法, 勸誘法을 가지고
있다 (남아 있거라, 남아 있자) (따라서, 動詞 中에는 態,
勸誘를 가져지 못하는 것도 있으므로, 이곳의 “있다”는 動詞로 될
수 있다.)

2. 述語 現在形이 “우리가물이 이곳에 남아 있는다 할찌라도”
와 같이 “있는다”로도 된다. (따라서 動詞로 될 수 있다.)

3. 規定語 現在形이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과 같이 “는”
토를 가진다. (따라서 動詞로 될 수 있다.)

이로써 “남아 있다”의 “있다”는 動詞임이 分明하다. 결국 “있다”
는 形容詞의 “있다”와 動詞의 “있다”의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플래이는 익숙히 휘느러지며 있어라! (조 기견)

너 거기 자 있어라

에 있어, 同一한 토의 “-어라”이지만 앞에 ’것은 直說法의 토며, 뒤에 ’것은 命令法의 토다. 따라서 같은 “있-”이라도 앞에 ’것은 形容詞이며 뒤에 ’것은 動詞이다. 또한, “계시다”는 動詞 “있어”의 尊敬法에 不過하므로 그 역시 動詞임은 다시 말할 必要도 없다.

이와 비슷하게 “않다”에도 形容詞와 動詞의 두 가지가 있다. “않다”는 “아니하다”의 縮約된 것으로, “...하다”에 形容詞와 動詞의 두 가지가 있는 것 (상대하다 [形], 운동하다 [動])과 같이

산이 높지 않다 —— 形容詞

이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 動詞

에서도 그 앞에 오는 不定形 (...지)이 形容詞인가 動詞인가에 따라 “않다” 自體도 形容詞 또는 動詞로 된다. 다만 動詞의 “않는다”의 命令法 勸誘法에는 全然 翻根기 다른 “말-”을 使用하여 “살지 말아라”, “살지 말자” 와 같이 된다.

또한 從來 形容詞 또는 副詞인 것 같이 看做된 “××的”은 名詞임이 分明하다. 卽 例를 들면, “熱誠的”은 “熱誠的이, 熱誠物으로”와 같이 格의 範疇를 가지며, 토와 結合할 때 結合母音 “이”를 要求하는 點 (熱誠的이면, 熱誠的 이냐?)으로 보아 形容詞일 수 없다. 가령 “熱誠的 盟員”에서 “熱誠的”이 形容詞가 아니고 名詞 임은 “熱誠 盟員”에서 “熱誠”이 形容詞가 아니고 名詞인 것과

다칼카자로, 단지 名詞가 規定語로 使用된 것임에 不_レ過하다.

“比較的 좋다”의 “比較的” 같은 것은 副詞로도 보이나, 名詞는 大體로 文에서 아무 트 없이 바로 各種_各 補語로 될 수 있으므로(오늘, 천정, 정말 等) 이것도 名詞가 “樣態와 程度의 補語”로 使用된 것임에 不_レ過하다.

第 7 章 副 詞

副詞는 行動 또는 狀態의 標識, 性質의 程度 等を 나타내는 品詞다.

第 1 節 副 詞 의 種 類

副詞는 그 意味에 따라 다음과 같은 種類로 나눌 수 있다.

1. 場所의 副詞 (어디서? 어디로?)

場所 : 곳곳이, 집집이.

方向 : 멀리, 가깝이.

2. 時間의 副詞 (언제?)

일찍, 이미, 벌써, 전작, 앞서, 아까, 방금, 막, 갓, 다음, 차_次, 후에, 항상, 잠시, 오래, 끝, 永久히, 미리.

3. 樣態_態의 副詞 (어떻게?)

천천히, 딱딱, 가만히, 정확히, 잘, 급작이, 문뜰히,

미혹, 아무리, 아마 글세, 제법, 부러, 더미, 堅決히,
 셀마, 안, 아니, 못, 정말, 그냥, 요냥, 조냥, 고냥, 부
 더, 꼭, 과연, 역시, 만은, 결실로, 마땅히, 모름지기,
 물론, 확실히, 참말, 斷然로

擬態의 副詞에는 特히 擬聲語와 擬態語가 있다.

擬聲語는 事物의 내는 音聲을 直接 模倣하여 描寫하는 語며,
 (땡땡, 개굴개굴, 따당따당, 후드득후드득, 흘흘,
 앵그렁앵그렁)

擬態語는 事物의 나타내는 樣態를 象徴的으로 表現하는 語다.

(풍풍, 어슬렁어슬렁, 화끈화끈, 푸석푸석, 더덕더덕)

擬聲語와 擬態語는 同一한 또는 비슷한 語音 單位를 反復한
 다. 이 때 그 反復의 樣式을 보면,

1) 한 單位의 語音을 그 대로 反復하는 것:

ㄱ) 單音節의 單位를 그 대로 反復하는 것.

깜깜, 짹짹, 땡땡, 푹푹, 킁킁,

풍풍, 칭칭, 딱딱, 슬슬, 살살.

ㄴ) 二音節의 單位를 그 대로 反復하는 것.

발작발작, 잠신잠신, 푸룻푸룻, 가물가물,

질금질금, 중얼중얼, 찰떡찰떡, 달씩달씩.

ㄷ) 三音節의 單位를 그 대로 反復하는 것.

후드득후드득, 허비적허비적, 마드득마드득,

머무적머무적, 구기적구기적, 꿈지럭꿈지럭.

2) 一部の子音 또는 母音을 바꾸어 反復하는 것:

- 1) 언물먼들, 오동조동, 우탁부탁, 오물드물,
을동불동 앙콍상콍, 시물부물, 움웃불웃,
- 2) 반작번적, 한물흔들, 아른어른, 아강어정,
홀딱홀딱, 집적젠적, 파릇푸릇, 종알중얼

이와 같이 朝鮮語에는 擬態語와 擬聲語가 豊富하며, 細히 子音 또는 母音의 交替로써 語의 意味量에 多彩한 陰影을 賦與한다.

이제 語音의 交替로써 意味量이 다막지는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母音단의 交替

반들반들 — 번들번들

동글동글 — 둥글둥글

싱글싱글 — 쟁글쟁글

땅땅 — 땡땡 — 땡땡 — 땡땡

찰찰 — 칠칠 — 줄줄 — 칠칠 — 줄줄 — 쟁쟁

살살 — 설설 — 술술 — 슬슬 — 슬슬 — 찰찰

2) 子音단의 交替

반작반작 — 번작번적

빙글빙글 — 땡글땡글

싱글싱글 — 쟁글쟁글

자꾸자꾸 — 자편자편 — 자푼자푼 — 자뚫자뚫

자뻗자뻗 — 자긱자긱

반둥반둥 — 뻘둥뻘둥 — 편둥편둥

반들반들 — 뻘들뻘들 — 편들편들

ㄷ) 母音과 子音의 交替

반들반들 — 판들판들

둥얼둥얼 — 죽알죽알

속닥속닥 — 죽닥죽닥 — 속살속살 — 죽살죽살

방글방글 — 땡긱땡긱 — 땡긱땡긱

이러한 內部 屈折 (語音의 內部的 交替) 의 手法은 語의 意味에 微細한 變異를 주는 點에서 語彙論 (乃至 意味論) 的으로 重要한 事實일 뿐 아니라, 이 手法으로써 새로운 語感을 가지는 語를 造成할 수 있는 點에서 文法論的으로도 極히 注目할 만 하다.

[附記] 이 擬態語에는 母音調和의 現象이 觀察되어, “깁깁, 아삭아삭, 꼬박꼬박” 등의 陽性的인 것과 “꺾꺾, 어석어석, 꾸벅꾸벅” 등의 陰性的인 것이 區別되나, 오늘날에는 “깁깁, 음죽음죽” 등과 같이 陽性的인 것과 陰性的인 것이 混同되는 例도 적지 않다.

4. 程度의 副詞 (어느 정도?)

매우, 아주, 하도, 퍽, 큼직히, 극히, 가장, 자못,

너무, 오로지, 애오라지, 자못, 심히, 대단히, 실은,

더우기, 적어, 훨씬, 조금, 약간, 거의.

5. 接續의 副詞

接續의 副詞은 語 또는 文을 接續시키는 役割을 맡아 본다.

接續의 副詞은 並列的인 것과 從屬的인 것으로 區別되며, 이들은 각기, 또다시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1) 並列的인 것:

ㄱ) 合同的: 및, 곧, 또, 또한, 더구나.

ㄴ) 分離的: 또는, 혹은.

ㄷ) 對立的: 그렇나, 그렇지 마는, 하더라도, 하나, 하나마, 그렇되, 하되, 하물며, 그렇건만

2) 從屬的인 것:

ㄱ) 原因: 그렇니, 그렇때, 그렇므로, 그렇즉.

ㄴ) 條件: 그렇니까, 한니까, 그렇고로, 따라서
그렇면, 그리하거든, 그렇거든, 그래야만.

第 2 節 副 詞 的 造 成

副詞의 造成에는 다음과 같은 手法들이 있다.

1. 接辭의 手法에 依한 것:

1) 名詞 語幹 + 르 (으로)

진정으로, 정말로, 實로, 眞實로, 견으로, 견승으로,
別로, 眞心으로, 새로, 홀로, 맨으로, 스스로, 절로,
제절로, 홀으로,

2) 名詞 語幹 + 에

마침내, 나중에, 애초에, 애當初에, 아이에 (아예)

3) 形容詞 語幹 + 이

적지않이, 굳이, 많이, 늦이, 짓궂이, 깊이, 같이, 살
없이, 적이, 좋이, 끈기, 멀리, 따퇴, 류다르, 너퇴,
간짜이, 형이, 깊이, 얇이, 새롭이.

4) 形容詞 語根 + 히

명백히, 풍손히, 밝히, 분명히, 용감히, 충실히,
착히, 똑똑히, 선명히, 고요히, 조용히, 섭섭히, 심히.

4) 形容詞 語根 + 하니

풍손하니, 끈끈하니, 칙칙하니, 도도하니.

6) 用言 語幹 + 오 (우)

도로, 자주, 바로, 따주, 모두, 비로소, 너무,
팔고루, 고루, 비뚜부, 거꾸로, 되우.

7) 用言 語幹 + 웃, 웃

붉웃붉웃, 검웃검웃, 옥웃옥웃, 활웃활웃, 읊웃붉웃.

8) 接尾辭 여

드더여, 구래여, 오히려, 가세여, 드리여,

9) 接尾辭 곱, 금

이따금, 다시금, 조금, 늑이곱, 멀리곱, 하여곱.

10) 名詞 語幹 + 接尾辭

끝내, 끝끝내, 종내, 내중내, 마침내, 一年내, 내내
저울내, 어름내, 봄내.

-11) 接頭辭 + 擬聲語, 擬態語.

얼덜덜, 이수션, 우중중, 오동동, 어정정, 우닥닥.

2. 內部屈折의 手法에 依한 것:

副詞의 種類 "3. 樣態의 副詞" 를 參照.

第 3 節 文 에 서 의 副 詞 의 機 能

副詞은 文에서 副的으로 補語로 된다. 副詞가 어떠한 文章 部分을 修飾하는가를 보면,

1) 述語를 修飾한다.

그 사람은 늘 여행을 한다.

따뜻 침으르 도타가자.

저 산은 꽤 높우데.

이 책은 참 재미있다.

나의 그리는 것은 항상 나의 祖國이다.

2) 規定語 (接頭辭를 包含함) 를 修飾한다.

저우 단중 밖에 못 짙었군!

달 이틀 품도 못 들어졌지요.

가장 새 책은 어느 것입니까?

참 공노 꽃이다.

나는 꽤 큰 고기를 잡았다.

〔附記〕 數的 概念을 包含한 名詞는, 그가 어떠한 文章成
 方으로 되든지, 副詞가 修飾할 수 있다.

단 하루를 못 참지?

단 하루가 문제인 것이다.

3) 다른 補語를 修飾한다.

저 사람은 참 바되 맞음 절 같다.

어후부터는 좀 더 많이 공부합시다.

바로 앞으로만 나아가십시오.

4) 文 全體를 修飾한다.

부디 안녕하 계십시오.

제발 그러지 말아 다오.

바쁘시 그 사람은 成功할 것입니다.

옛은 그 問題는 다르게 展開되었습니다.

5) 語 또는 文을 接續한다

接續의 副詞가 이 機能을 맡아 본다.

〔附記〕 副詞가 바로 述語로 되는 경우가 있다.

술밭도 어둑어둑

밤'속도 무시무시 (조 기원)

第 8 章 助 詞

助詞는 自立的이 되지 못하고, 앞에 있는 語의 뜻을 여타
가지로 두어, 그 意味에 各種의 情狀을 賦與하는 品詞다.

第 1 節 助 詞 의 種 類

助詞는 그 意味上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1. 合同的 助詞

“도” 저도 가겠습니다.

季節도 밤도 얼마나

정들나 山鄉이었던고. (한 명천)

“조차” 너조차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니?

이 말이 떠러지자 좌중은 호흡조차 은근히 끊어지는
듯이 정속하였다. (조 명희)

“마저” 아세아의 하늘에 별'빛 마저 흐리고

지금 밤도에 신호등이 내여 걸리나. (필 화)

“서전” 분이서전 을순이 모두 물방구리 이고 가는 손을 보면

벌써 봉선화물을 한이여 손톱들이 익은 가래떡처럼
땀 새뺏았다. (리 태준)

“마더” 살음 돌리는 截斷江津 마을의 농가 막마 (권 명준)

“까지” 공출량이 채 차지 못하는 농민들은 소나 집까지 달아서
나락을 사사라도 할당량을 보충해야 했고 (최 명익)

“부러” 너 부러 내 말을 안 듣네?

“들”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었더라.

먼저 갈매기와 波濤' 소리에 誘惑을 받아 바다 트를 나
갔다. 食堂에 내리^여 가 반강이^를 만났다. (리 태준)

2. 分離的 助詞

“란” 한동안 무소^리만 느었다 (조 명희)

“고(아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곳을 지날 때면

밤' 길 떠난 칼호의 모습 떠오^트니... (조 기철)

“나(이나)” 배나 감이나 잡수^시요.

아^무러^기로 칭년^들이

평^안이^나 행복^을 구하여,

이 바다 험한 물' 결 위에 오왔^겠는가? (림 화)

“든지(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참고 분투^하려^고 한다.

싸^우기^도 전에 무섭^다고 생각^하든지 기피^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백기^를 들는 거요. (한 설야)

3. 對立的 助詞

“는(은)” (는 — 開音節 아래, 은 — 閉音節 아래)

나는 못 가겠소.

가지는 못 하겠다.

나는 떡은 안 먹겠다.

참 좋기는 좋다.

그 놈이 천재는 천재야.

[附記] “는(은)”은 그 앞에 있는 語를 特別히 다른 것과 對比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特別히 對比시키지 아니하는 데도 많은, 단지 그 앞의 語를 提示하기 爲하여 使用되는 일도 많다. 오늘날 이 助詞가 主語의 밑에서는 거의 主格 助詞와 다른 없이 널리 使用되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첫 印象은 乾燥한 땅이 속에서 눈 덮인 산을 치어다 보는 것이다. (리 대준)

“커녕” 이바람에 안 손이 없는 역쇠네 농자는 커녕 나오라는 무슨 회나 무슨 툴슈이네 애 나갈 손포가 없거니와... (리 대준)

“새혀”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기는 새혀 도리어 더 몹시 잔난만 하는구려.

“보다” 곧 “푸르 보다” 더 높은 과도 (림 화)

4. 強調的 助詞

“도” 사람도 많다.

달도 밝다.

섬달도 그름의 혹한이 따..... (김 사랑)

떨쳐 두지나 되셨네!

“우리 애 아버지 아니면 오늘 어떻게 났을지나 알
아?” (리 태준)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 이
싸여 보라 몇 만이나 되었고 (조 기철)

“그려” 비가 옵니다그려.

“다 든 어디 갔는지 — 음지! 음내로 시위 운동
을 하러 갔네그려” (리 기영)

“라도” 그리고 이 동네 개 짐승 까지도 이 물을 먹고 살
아 가는 것이다. (강 경애)

“나마”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일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으
수 없었다. (최 학송)

“야” 그렇게 기다리던 식량 부채

아침에야 도라왔다 — (조 기철)

삼천리 이 강산이

반드시야 새날을 찾았으니

해방의 의욕은 화산처럼 터져졌을 때 (박 세영)

“라야” 그들의 이러한 아픔과 쓰라린모은 처 원소라야만 해
결해 줄 것 같았다. (강 경애)

“야말로” 이날 一行들은 “세반”湖를 구경하고 왔다.

이 湖水야말로 아르메니아의 生命水이니 꼭 보아야
주는 것이라 하였다. (리 태준)

第 2 節 文에서 의 助詞의 機能

助詞는 文에서 獨立한 成分으로는 되지 못하고, 恒常 다른 成分 위에 붙는다.

即 主語, 規定語, 補語에 붙으며, 이 때

1) 語幹과 토 다음에, 또는 2) 토 없이 바로 語幹에, 또는 3) 語幹과 토 사이에 들어 간다.

1) 집에나 갔다 올까?

2) 나도 따라 가겠네.

3) 너만이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있다.

[附記] 助詞와 토의 差異點을 보면, 토는 文章의 各成分 사이에서 그들을 文法的으로 서로 連結하는 關係的 意味를 가지고 있음에 反하여, 助詞는 이러한 關係的 意味는 없고, 단지 每個의 語에 意味上的 變容을 줄 뿐이다. 또한 토는 體言과 用言에 붙고, 副詞에는 붙지 않음에 反하여, 助詞는 그 外에 副詞에도 붙는다.

例: 잘도 잔다.

잘은 잔다.

잘만 잔다.

잘들 잔다.

第 9 章 感 動 詞

感動詞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各種 感情, 衝動을 表現할 뿐이
고, 이를 命名하지는 않는 品詞다.

感動詞은 言語 行爲에서의 그 機能에 따라 다음과 같은 種類
로 區分할 수 있다.

1) 各種의 感情 (喜怒哀樂, 喊聲, 威嚇, 嫌惡 等) 을 表現
하는 感動詞.

例 : 히, 에익, 아아, 에구머니, 아뽀자, 만세, 울소,
애개, 아차, 아이구 等.

文脈의 意味 또는 談話의 場面에 따라, 어떻게 感動詞들은
서로 다른 몇 가지의 感情을 表現할 수 있다.

例 : 야! 참 좋구나! (즐거움)
야! 이걸 어떻게 하니?! (걱정)

2) 各種의 衝動을 表現하는 感動詞.

例 : 자, 워여 (일을 재촉할 때)
쉬, 쉬 (조용하라고 할 때)
어기여차! 영차! 이어차! (힘을 합할 때)
에따, 자 (물건을 받으라고 할 때)
여보, 이애, 여봐요! (사람을 부를 때)

구구 (답을 무를 때)

3) 相對 便의 이야기에 對한 各種 態度를 表現하는 感動詞:

예 : 예, 그래, 응, 오나 (부름에 對한 對答, 肯定)

아니요! (否定)

글쎄요! (未定)

感動詞은 文章成分으로 되지 않는다. 그 自體 感情이나 衝動의 뜻을 나타내는 獨立的인 文을 形成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感動詞은 그것만으로 間設文 (第 3 篇 文章論 參照)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떠한 品詞 또는 語詞 結合이나, 그가 現實的인 事實을 命名하지 않고, 단지 感情이나 意志를 表現할 때에는 感動詞로 될 수 있다. 어떠한 語들은 언제나 이러한 用途로만 使用되었기 때문에 아주 感動詞로 化하여 버렸다. (여보시요! 에구머니! 좋나! 흠소! 단세!)

또한 反對로 感動詞은 다른 品詞의 役割을 할 수도 있어, 이러한 때 文章의 成分으로 된다.

(멀리서 단세가 들린다 — 이곳에서 “단세”는 名詞의 뜻이며, 主語로 使用되어 있다.)

第 3 篇 文 章 論

第 1 章 文의 一般的 知識

第 1 節 文의 概念

우리의 言語 行爲는 文으로써 成立되어 있다. 文이란, 意味와 語調의 點에서 完結된 陳述을 말한다.

예를 들면,

몸이다. 눈이 녹는다. 세력이 움트기 시작한다.

는 세 개의 個別的 陳述, 다시 말하면 文이 있고, 그 하나 하나는 따로 따로 完結된 思想을 나타낸다. 卽 첫째 文에서는 “몸이다” 라는 事實에 對하여 (한 개의 思想이다), 둘째 文에서는 “눈”에 關하여 그가 “녹는다”는 事實에 對하여 (또 하나의 思想이다), 셋째 文에서는 “세력”에 關하여 그가 “움트기 시작한다”는 事實에 對하여 (第三의 思想이다) 各各 陳述되어 있는 것이다.

每個의 文은 一定한 語調로써 發音된다. 이 語調는 어디서 한 개의 文이 끝나고, 어디서 다른 文이 始作되는가를 가리키며

준다.

文은, “몸이다” 와 같이, 한 개의 文으로써 成立될 수도 있고, “새 짝이 울르기 시작한다” 와 같이, 여러 語의 結合으로써 成立될 수도 있다.

陳述의 目的은 그때 그때 다르다. 그 目的에 따라 文에는 敘述文, 疑問文, 命令文, 및 勸誘文이 區別된다.

1) 敘述文은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事實을 傳達하는 文으로서, 直說法의 述語로 終結된다.

例:

바른편에 압록강, 푸른 물이 내리여다 보이였다. 드높은 절벽이 잠시 허리를 죽이느 잔조롭느 언덕바지를 김일성 창군의 부대는 행군하고 있었다. (한 설야).

2) 疑問文은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思想을 陳述하도록 要求하는가, 또는 陳述된 思想에 對하여 肯定 또는 否定의 뜻을 表明할 것을 要求하는 文으로서, 疑問法의 述語로 終結된다.

例:

“웃방으루 뤼 오락 간계 누구야?”

“우리 메날애 갑죠”

“뉘’문으로 나간건?”

“나가진 누가 나가오니까?”

“가마닌 안 치고 초저녁 부터 무슨 잠이야?”

“아무령~들 벌써 자기야 하겠어요?”

-“그럼 불은 왜 안 켜 놓는거야?” (리 태준)

특히 文藝 作品이나 演說 등에서,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 對答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感情을 表現하거나 듣는 사람의 注意를 喚起시키기 爲하여 疑問의 形式이 利用되는 일이 있다.

例:

그들의 가슴에다 돌을 치여넣~들 이에서 더 아플 수가 있으랴? (장 경애)

新五個年 計劃의 科學 動力이 이 無窮한 大自然을 晝夜 없이 開發 建設하며 있지 않은가? (리 태준)

이러한 疑問을 修辭的 疑問이라 한다.

3) 命令文은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行動을 遂行할 것을 要求하는 文으로서, 命令法의 述語로 終結된다.

例:

네 허리를 감고 구비 구비 흐르는 豆滿江, 야무江아

산 설고 물 설~ 北國 異域의 曠野에서

이 나라 쫓겨난 農民들의 하늘에 사무치던 怨恨의 歷史를 말하라. (한 명천)

4) 勸誘文은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行動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遂行할 것을 要求하는 文으로서, 勸誘法의 述語로 終結된다.

例:

나바야 靑山 가자, 땀나미야 너도 가자,

자다가 ~~어디~~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①푸에엿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 (靑丘永舊)

言語 行爲에서 우리는 비단 感情 뿐만 아니라 感情도 表現한다.

強烈한 感情을 同伴하는 文을 感嘆文이라고 한다.

“우리들 농민에게 로지를 주시니 김일성 장군 만세!”

전투에서 이렇게 부를라치던 군중은 일제히 “와—”하고 만세의 함성이 터져서 나왔다.

“북조선 인민 위원회 만세!”

“조선 자주 독립 만세!”

그들은 이렇니 만세를 수없이 부른다. 모두들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있었다. (리 기영)

傳達도, 疑問도, 또한 行動에로의 命令, 勸誘도 다 같이 強烈한 感情을 同伴할 수 있다. 따라서 叙述文이나, 疑問文이나, 命令文이나, 勸誘文이나, 다 같이 感嘆文으로 될 수 있다

ㄱ) 어머니, 오빠가 도라왔어요. —

어머니, 오빠가 도라왔어요!

ㄴ) 벌써 가셨습니까? —

아니, 벌써 가셨습니까?

ㄷ) 빨리 도라오세요. —

제발 빨리 도라오세요!

ㄹ) 어떤 때는 떠나세. ---

자, 모두들 떠나세!

文 가운데에는, 그 때의 情狀 또는 談話의 內容에 따라 어떠한 思想을 表現하지 않고 단지 感情이나 要請만을 表現하는 文도 있을 수 있다.

例:

하물자! 에그더니! 자! 에다!

이러한 文을 間投文 (344 페이지 參照)이라 한다.

文의 性格은 그가 發音될 때의 語調로써 알리 수 있다.

(저는) 책을 읽어요. — 叙述文

(제가) 책을 읽어요? — 疑問文

(어서) 책을 읽어요! — 命令文

(같이) 책을 읽어요. — 勸誘文

“난 가겠어요!”

“가겠어요?”

진철이는 일어나는 욕점을 바라보았다. (강 경애)

1) 叙述文의 語調는 文의 앞 部分에서 높은 음조가고, 뒤 部分에서 낮은 음조로 간다.

우며 [↑]나가는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

겨울은 가고 | 봄은 왔다.

(활살 또는 語調의 高低를 가리키는 것이다.)

2) 疑問文의 語調는 全體가 높고 오름이다.

例: 왔어요? 좋아요?

疑問文이 여러 語로써 成立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肯定 또는 否定을 要求하는 語 위에서 語調를 오릅니다.

例:

演劇을 보았습니까? (映齣를 보지 않고 演劇을 보았느냐?

의 뜻)

(對答: 예, 演劇을 보았습니다.)

演劇을 보았습니까? (俳優로서 演劇을 놀고 것이 아니라 觀衆으로서 演劇을 보았느냐? 의 뜻)

(對答: 예, 보았습니다.)

疑問代名詞가 使用될 경우에는 그 疑問代名詞 위에서 語調가 오릅니다.

해방된 이 땅에서 누가 人民을 위해 싸우느냐?

누가 民戰의 첫머리에 섰느냐? (조 기철)

햇님이나 북주의 칼 맞았느냐?

햇님이나 팔처산 戰法에 도망치다 옆뜨리어 지쳤느냐?

(조 기철)

對答하는 文에서는 語調가 내리어 간다. 따라서 同一한 語로도 語調를 바꿈으로써 疑問과 對答을 나타낼 수 있다.

—동무! 과업을 수행했소? (上昇)

—수행했소. (下降)

← 기한 전^에? (上昇)

→ 기한 전_에! (下降)

3) 命令文과 勸誘文의 語調는, 命令과 勸誘의 性格에 따라 各樣 各색으로 된다.

1) 招請

“이리 들어 오세요”

2) 懇請

“어머하시든 한 동네서 무자히두룩만 세 주시지요

(리 리준)

3) 命令

“동무들! 한 눈도 놓치지 말라!” (조 기철)

4) 勸誘

“자아, 여흥은 후 하고 씨름부터 합시다.” (한 설야)

5) 號召

우리들의 책임 수량을 기한전에 완수하자!

6) 決心

어떻^나 눈이 우리집에도 차례 올라오고 ……을 농자를 한비

잘 잠어 보자! (리 기영)

4) 感嘆文의 語調도 또한 各樣 各색으로 된다. 感嘆文은 詞類의 質로 無限한 ニュ앙스를 表現하는 까닭이다.

羨慕: 저것 보우, 참 좋아! (강 경애)

哀惜: 그렇^나데 이렇^나 눈을 몽땅 내놓다니! (리 기영)

驚愕: “네가??” 말 때 산물이 노탄다. - (조기철)

感嘆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各類의 感動詞, 助詞, 動詞, 疑問代名詞 및 토가 使用되나, 勿論 이 경우 疑問代名詞는 疑問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感嘆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例:

아아 김군아!

말은 다 하였으나 정은 그자 가슴에 넘치누나! (최학중)

그대 봄 아난 봄을 너와 더불어 몇 十年을 살아 왔더노! (한명천)

오오 祖上의 땅이여!

五千年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日帝의 칼에 맞아 끊어 지였을때

떠러지여 나간 그 토막 토막

얼마나 원한의 선혈로 뒹굴 었더냐? (조기철)

第 1 節 語 詞 結 合

第 1 項 語 詞 結 合 的 概 念

文法的으로 形態를 갖춘 語의 有意味的 結合을 語詞 結合이라고 한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였다.” 라는 文은 意味 上 다음과 같은 語詞 結合으로 分割된다.

“가을 하늘이”, “하늘이 개였다”, “맑게 개였다”.

語詞 結合은 從屬과 並列에 依하여 形成된다.

第 2 項 從 屬

從屬이란, 結合된 語詞 中 하나를 自立的이고, 또 하나는 依存的으로 되어 後者が 前者를 說明하는 語詞 結合을 말한다. 따라서 이곳에는 規定하는 것과 規定 받는 것과의 두 要素가 結合하여 言語의 本質的 機能인 傳達의 最少의 單位로 된다.

예를 들면,

“높은 언덕에서 아이들이 연을 떡운다.”

라는 文에 있어, 從屬의 方式으로 形成된 語詞 結合을 다음과 같이 分割해 낼 수가 있다.

- 1) 아이들이 떡운다. (무엇을 하느냐?)
- 2) 연을 떡운다. (무엇을?)
- 3) 높은 언덕에서. (어떠한?)
- 4) 언덕에서 떡운다. (어디서?)

每個의 語詞 結合에서 下線을 치는 것 (떡운다, 연, 높은, 언덕에서) 依存的인 語, 따라서 規定하는 語이며, 남은 것이 (아이들이, 떡운다, 언덕에서 떡운다) 自立的인 語, 따라서 規定 받

는 語다.

이러한 傳達의 最少의 單位로 되는 從屬的 語詞 結合을 統合이라 부른다. 統合에는 述語的 統合, 屬性的 統合 및 關係的 統合의 세 가지를 區別할 수 있다.

述語的 統合은, “아이들이 뛰는다” 와 같이, 그 自體 한 개의 陳述을 包含하여 時稱, 法, 階稱 等の 文法的 範疇을 갖춘 述語에 依하여 끝 文으로 될 수 있는 語詞 結合이다.

例:

꽃이 피었다.

해가 뜨겠다.

기차가 간다.

屬性的 統合은, “높은 언덕에서” 와 같이, 對象 (언덕) 의 屬性 (높다) 을 따로 밝히는 語詞 結合이다.

例:

아버지의 모자를,

벽돌집에서,

맑은 하늘이.

關係的 統合은, “역을 뛰었다”, “언덕에서 뛰었다.” 와 같이; 述語的 統合에서 表現되는 行動의 客體, 또는 그 狀況을 따로 밝히는 語詞 結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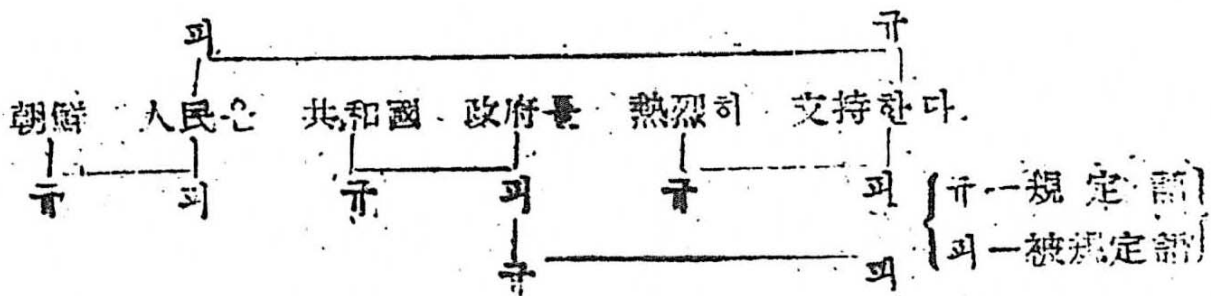
例:

책을 읽는다.

儼快히 놀_다.

억_다 하고 간_다.

統合은 서로 서로 連鎖를 이루어, 同一한 語詞도 各種 統合의 成員으로 될 수 있다. 例를 들면,



에서 다섯 개의 統合을 이루는 여섯 개의 語中, 述語的 統合 하나 (人民은 支持한다.), 屬性的 統合이 둘 (朝鮮 人民은, 共和國 政府를), 關係的 統合도 둘 (政府를 支持한다, 熱烈히 支持한다.)이며, “人民은”은 언제나 被規定語로, “朝鮮”과 “共和國”은 언제나 規定語로, 其他는 統合에 따라 被規定語로도 規定語로도 된다. 그렇다 하여도 경우에 따라 被規定語로 되는 것은 述語的 統合에서 主語로 되는 語 (“人民은”) 뿐이고, “朝鮮”, “共和國” 같은 語는 “民主 朝鮮”, “人民 共和國”과 같은 統合에서는 被規定語로 된다.

統合의 成員이 結合되는 方式으로는 支配와 接合의 두 手法이 있다.

文記란, 被規定語(自立的인 語)가 規定語(依存的인 語)에 對하여 一定한 權限을 가지고 나타낼 것을 要求하는 結合 方式을 말

한다. 例를 들면, “장작”, “도끼”, “펼다”라는 語들이 行動의 客體 (“장작”) 道具 (“도끼”) 그리고 行動 그 自體 (“펼다”) 를 나타낸다면, 이들 사이에 意味的 聯絡이 있기 위하여는 一定한 托가 그곳에 要求되어 行動의 客體는 托 “을” 을, 道具는 托 “로” 를, 각각 가지고 나타나 결국 “장작을 도끼로 펼다.”라는 語詞 結合이 그곳에 이루어 지어야 한다. 어 때 “장작을”과 “도끼로”는 支配 받는 語이며, 意味上 “장작”, “도끼”의 托를 는 “펼다” 는 支配하는 語로 된다.

接合이란, 規定語가 托를 갖추지 않고 語幹 그 대로 바로 規定語와 나란히 結合되는 方式을 말한다.

例를 들면,

“여름날이 무척 덥다.” 에 있어,

“여름”은 “날” 에 接合되어 이를 規定하고 있으며, “무척”은 “덥다”에 接合되어 이를 定하고 있다.

合成語의 大部分은 이 手法에 依한 것이다.

벽돌' 집, 무'배, 물'새, 감나무, 집오리, 칼날, 번나
등'불, 밤'이슬.

이제 들은 例에서 보면 그 곳에 使用된 手法은 다음과 같다.

朝鮮 人民은 — 接合

共和國 政府를 — 接合

政府를 支持한다 — 支配

熱烈히 支持한다 — 接合

第3項 並 列

並列이란, 結合된 語詞가 서로 同等한 權利를 가지며 그 中 하나가 다른 것에 依存하는 일이 없는 語詞 結合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낮설나 물과 바람과 비'발에 (김 화)

에 있어 名詞 “물”, “바람”, “비'발”은 서로 連結되어 있으나, 그 中 어느 하나도 다른 것에 依存하여 있지 않다. 따라서 語詞 結合 “물과 바람과 비'발에”는 並列인 것이다.

並列的 結合을 이루는 語는 다 함께 自立的일 수도 있고(例: 집에는 어머니와 딸이 남아 있었다.), 또는 다 함께 依存的일 수도 있다. (例: 괴뢰 “정부” 惡質 警官 놈들은 어머니와 딸 까지 학살하였다.). 따라서 並列的 結合은 全體로 從屬的 結合의 한 成員으로 되어 自立的으로나, 依存的으로나 될 수 있다.

1) 어머니와 딸이—남아 있었다. (自立的)

2) 어머니와 딸 까지—학살하였다. (依存的)

並列의 成員은

1) 接續의 機能을 하는 토 (貝格 토 接續 述語形) 나 副詞 (接續 副詞) 에 依하여,

2) 또는 그러한 토나 副詞 없이 단지 列舉的 語詞에 依하여 서만 結合된다.

1) 의 예:

비와 바람과 안개와 구름과 별과

亞細亞의 하늘에 별'빛'마저 흐르고 (김 화)

다닥치며, 뒤척이며 부서지며

바위'들이 골짜기를 치며 부신다. (조 기철)

2) 의 예:

그달엔 흥산'골이 터졌다—

총'소리, 작탄'소리, 기관총'소리

놈들의 아우성'소리! (조 기철)

第 3 節 文 의 構 成

第 1 項 文 의 主 題 部 와 陳 述 部

文은 두 개의 部分 : 1) 主題部와 2) 陳述部로써 構成되어 있다. 主題部에는 文에서 이야기 되는 主題가 包含되어 있고, 陳述部에는 이 主題에 關하여 陳述되는 內容이 包含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人民軍隊는 民族 保衛의 哨所에서 있다.” 라는 文에는 主題인 “우리의 人民軍隊”에 關하여 그들이 “民族 保衛의 哨所에서 있다.”는 內容이 陳述되어 있다. 이곳에 “우리의 人民軍隊”는 文의 主題部이며, “民族 保衛의 哨所에서 있다.”는 文의 陳述部다.

第 1 章 文의 一般的 知識

文에는 두 개의 主成分——主語와 述語가 있다. 主語는 文의 主題部의 主成分으로서, 主格 또는 이에 該當한 形態를 갖추고 나타나, 누가? 또는 무엇이? 라는 問에 對答한다. (위의 例에서는 “人民軍隊”가 主語다.)

述語는 文의 陳述部의 主成分으로서, 主語에 依存하고 이와 連結되어서는 하나의 全體로 (文으로) 된다. (위의 例에서는 “서 있다”가 述語다.)

述語는 그 自體 時稱, 態, 法, 階稱, 相 等を 나타내야 하므로, 이러한 變態를 가지나 體言과 用言으로써 表現된다.

第 2 項 展開文과 非展開文

主語와 述語는 文의 主成分이다. 이 主成分만 있으면, 다른 成分이 없더라도 文은 形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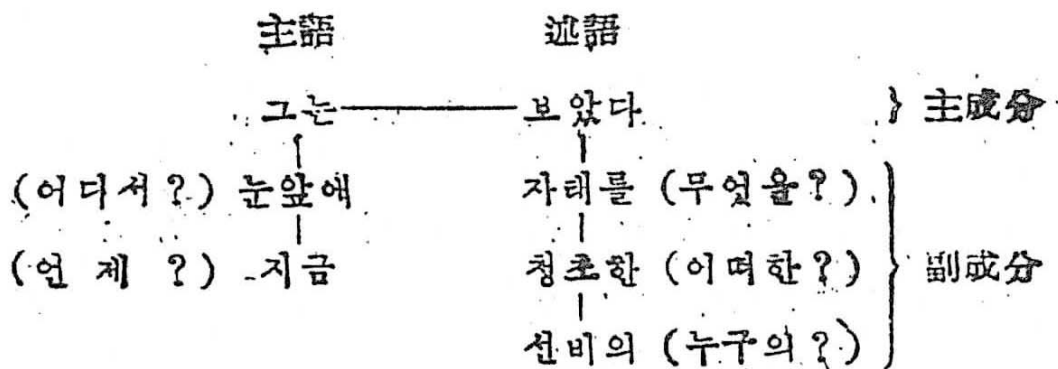
例: 바람이 불다.

이 以外의 成分은 全部 文의 副成分으로 된다.

例: 겨울 바람이 세게 불다.

副成分을 가지나 文을 展開文이라 부르며 (例: 그는 지금 눈 앞에 선 그의 청초한 자태를 보았다. [강 정애]), 副成分을 가지지 않은 文을 非展開文이라 부른다. (例: 그는 보았다.)

展開文을 圖表로써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第 3 項 單純文과 內包文

文, 卽 述語的 統合은 다른 文의 한 成分 속에 內包될 수 있다. 例를 들면,

맑은 하늘에 뭉게 뭉게 구름이 떠 있다.

타는 文에서 屬性的 統合 “맑은 하늘” 은 “하늘이 맑다!” 라는 述語的 統合이 凝縮되어 다른 文의 副成分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文의 凝縮은

하늘이 맑다 → 맑은 하늘

물이 깊다. → 깊은 물

새가 울다. → 울는 새

學生이 책을 보겠다. → 책을 볼 學生

(어느) 집에서 내가 살았다. → 내가 살던 집

과 같이 文에서의 述語를 規定語로 만들어 主語의 앞으로 位置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文이 凝縮된 것을 句라 하며 屬性的 統合의 形式으

로 된 句를 規定語句라 한다.

文은 또한 述語를 不定形 (第 1, 第 2 不定形)으로 만들므로써 句로 凝縮될 수 있다.

- | | | | |
|-----|---------|---|--------------------------------------|
| 하늘이 | 맑다. | → | { 하늘이 (의) 맑음
하늘이 (의) 맑기 |
| 물이 | 깊다. | → | { 물이 (의) 깊음
물이 (의) 깊기 |
| 새가 | 울다. | → | { 새가 (의) 울음
새가 (의) 울기 |
| 學生이 | 冊을 보겠다. | → | { 學生이 (의) 冊을 보겠음
學生이 (의) 冊을 보겠기 |
| 집에서 | 내가 살았다. | → | { 집에서 내가 (나의) 살았음
집에서 내가 (나의) 살았기 |

이와 같이, 文이 述語의 不定形으로 凝縮된 句를 不定形句라 한다.

規定語句와 不定形句는 文에서 主成分으로나 副成分으로나 될 수 있다.

아— 백초가 만발한 속에 싱싱한 락락장송 가지 가지에
새나라를 노래하는 새들의 우지짐 (박 세 영)
 아지랑이 헤엄치는 '종달' 새들의 화려한 깃털과 함께
이른 봄 戰鬪장 봄은 물' 길에 푸른 연장을 헤우는
이 벌판 農民들의 봄노래는

몹시도 희망경덕구나! (민.병준)

무엇이 그의 물음록 처기에 그는 노라 따라보았다.

(창 경애)

文章成分 中에, 規定語句 또는 不定形句를 包含하는 文을 內包文, 그러한 句를 包含하지 않는 文을 單純文이라고 한다. 內包文은 單純文에 比하여 每個의 成分에 凝縮된 述語가 包含되어 있으므로 傳達를 더욱 正確하고 精密하게 할 수 있다.

第 4 項 單一文과 複合文

둘 또는 그 以上の 文으로써 構成된 文이 있다.

예를 들면,

대동강 물은 그저 붉게 흐르나, 비행장의 하늘은 맑게 개였다. (리 태준)

는 두 개의 文: 1) “대동강 물은 그저 붉게 흐른다.”; 2) “비행장의 하늘은 맑게 개였다.” 로써 構成되어 있으며, 每個의 文은 따로 따로 自己의 主語와 述語를 가지고 있다. (첫째번 文에서는 물은 흐른다. 둘째번 文에서는 하늘은 개였다.)

둘 또는 그 以上の 文으로써 構成된 文을 複合文이라 부르며, 단 한 개의 文으로써 構成된 文을 單一文이라고 부른다.

以上の 單純文과 內包文, 單一文과 複合文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서로 結合될 수 있다.

第 1 章 文의 一般的 知識

1. 單純 單一文

2. 內包 單一文

3. 單純 複合文

4. 內包 複合文

이들을 簡單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單純 單一文

句.(規定語句 또는 不定形句) 를 包含하지 않은 單一文을 말한다.

例:

이 강산에 봄이 찾아 왔다.

2. 內包 單一文

句를 包含하는 單一文을 말한다.

例:

이 강산에 새봄이 저저귀는 봄이 찾아 왔다.

3. 單純 複合文

單純 單一文으로써만 構成된 複合文을 말한다.

例:

이 강산에 겨울은 가고, 봄이 찾아 왔다

4. 內包 複合文

內包 單一文을 가지는 複合文을 말한다. 이 때 每個의 單一文이 다 內包文일 수도 있고, 그 中 한 單一文만이 內包文일 수도 있다.

例:

이 강산에 겨울은 가고, 새들이 지저귀는 봄이 찾아 왔다.
이 강산에 눈보라 치던 겨울은 가고, 새들이 지저귀는 봄이 찾아 왔다.

第 2 章 文의 主成分과 그 表現

第 1 節 主 語

第 1 項 主語의 表現

文에서 主語는 보통

1) 人物이나 對象을 가리키는 名詞 또는 代名詞의 主格形으로써 表現된다.

역새품이 걸걸이 자란 그 말으로 봄을 만난 저 원소, 물이 도랑으로 새여 흐르고 또 흐른다. (창 경애)

어제저녁 내가 혼자 나가 본 봄은 M字는 地下鐵이 트이지 않았다. (리 태준)

2) 名詞, 代名詞의 主格 形이 없이 語幹만으로써 表現되며 깊은 골짜기 속에 떠러지라도 샘터 하나 없고 바람 한 걸까 덕도 않는다. (김 사랑)

“자네 제사 회사 다녀나가지?” (리 기영)

第 2 章 文의 主體와 그 表現

3) 名詞, 代名詞의 主格 로, 없이 語幹과 助詞만으로써 表現된다.

나는 군의 탈가 (脫家)를 찬성할 수 없다. (최 학송)

그래서 운동내 사람들 까지도 민수를 양 같이 착한 사람이 많
하였다. (강 경애)

4) 品詞 如何를 不問하고 人物 또는 對象을 나타내는 名詞의
앞으로 使用된 任意의 語로써 表現된다.

“冊을”의 “을”은 助다.

여기 저기서 “탄새!”가 들려나다.

5) 抽象的 數量을 가리키는 數量數詞로써 表現된다.

열은 들의 다섯 배다.

찌름은 시작되었다. 실은 들이 열 여섯이 되고, 열 여섯이 여
덟이 되었다. (한 설야)

6) 位格 로 “에서”로써 表現되어 集合的인 抽象的 主體를 나
타낸다.

오늘 너의 學校에서 이거였니?

“목포”에서 醫師와 함께 다녀야 갔다. (리 태준)

第 2 項 場面の 主語

場面の 主語란, 이미 主語와 述語를 갖춘 文의 앞에 提示되
어 陳述의 場面을 規定하는 語를 말한다.

문을 들면,

나는 때가 고프다.

주변은 경치가 좋다.

노루는 꼬리가 짧다.

그 늪이 재주는 비상하다.

위의 文에 있어 述語 “고프다, 좋다, 짧다, 비상하다” 에 對하여 각기 主語가 붙적 있으나, 그 中 맨앞에 놓인 主語는(나는, 주변은, 노루는, 그 늪이) 이며 完結된 陳述(“때가 고프다.”, “경치가 좋다.”, “꼬리가 짧다.”, “재주는 비상하다.”의 앞에 提示되어 그 特種 事實의 存存하는 場面을 가리키나 다.

다시 예를 들면,

떨흔과 가개울은 어날 밤에 개울이 자지러지게 쪼였다. (리대순)

에서, 主語는 “개울이”, 述語는 “쪼였다”이며, “떨흔과 가개울은” 은 “어날 밤에 개울이 자지러지게 쪼였다.”라는 事實이 일어난 場面을 規定하는 語다. 勿論 意味 上으로는 位格의 名詞와 비슷하나 (떨흔과 가개울에서는, 나에 있어서는, 주변에서는, 노루에는, 늪에 있어서는), 語法 上으로는 主語的으로 表現되었으므로 이를 特種 場面の 主語라고 한다.

第 3 項 提示의 主語

提示의 主語란, 主語의 앞에 主語 그 自體를, 또는 主語에 對等한 語를, 提示하여 主語를 強調하는 語를 말한다.

提示의 主語의 發音에는 語調를 올리며, 主語와의 關係에 休息을 둔다.

1) 主語 그 自體를 提示하는 것: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무저택은 이 뭉치... ..이 쫓긴
이 뭉치, 뭉치야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
까? (강 경애)

2) 主語에 對等한 語를 提示하는 것:

부산 항구, 여기는 정물나 더러웠다. (석 신태)

순××동무, 그는 진경화 조선의 愛國 青年이었다.

먼지와 연기에 쌓인 나뭇잎에 스미어 들는 거리 — 이곳이
내 첫 어머니였다. (안 룡만)

第 2 節 述 語

述語에는 體言 述語와 用言 述語가 있다.

體言 述語로 끝난 文을 體言文, 用言 述語로 끝난 文을 用言文이라고 한다.

第 1 項 體 言 述 語

1. 體言 述語의 表現

體言 述語란, 名詞, 數詞, 代名詞 또는 名詞의 뜻으로 使用된 其他의 品詞로써 表現되는 述語를 말한다.

體言 述語로써는 時稱, 法, 階級이 表現되며, 그 中 法은, 뒤 에 다른 文이 繼續될 때 使用되는 接續 述語形에 있어서는 直說法, 條件法, 當法, 尊敬法 이 區別되며, 뒤의 다른 文이 繼續되지 않는 경우 使用되는 終結 述語形에 있어서는 直說法, 疑問法, 尊敬法이 區別됨은 이미 形態論에서 본 바와 같다. 이제 體言 述語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名詞, 代名詞로써 表現된다.

저기 우뚝 솟은 저 양가와집이 바로 이 앞뜰 농장 주인인 경덕호 집이며, 그 다음 이편으로 저 나그네 양철집이 면역소며, 그 다음으로 같은 양철집이 주채소며, 그 주위를 싸고 킁킁 돌아 앉은 것이 모두 농가목아다. 그리고 그 아래서 푸른나 못이 원소 (總沼)라는 못인데, 이 못은 이 동네의 생명원이다. (강 경애)

季節도 밤도 얼마나 들들나 山郷이었던고? (한 명천)

死地를 문뜰인 듯 범나들나 이 그 뉘냐? (즈 기천)

2) 名詞의 뜻으로 使用된 任意의 語로써 表現된다.

그 동무는 음악에는 아주 감람이야!

“學校의”에서, 토는 “외”다.

3) 抽象的 數量을 가라키는 數量數詞로써 表現된다.

열의 반은 다섯이다.

4) 體言과 用言의 第1不定形이 바로 終結 述語로 된다.

明日은 雨天이겠음,

셋의 두 배는 이섯임.

2. 體言 述語와 토

1) 述語로 되는 體言은 語幹의 바로 時稱, 法, 階稱을 나타내는 토를 가지. 것이 原則이나, 述語로 된 體言의 意味上 機能을 더욱 精密化하기 위하여 格을 나타내는 토를 붙이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날 저녁 물가江, 鯉魚가 오른 晚餐은 조엘에게, 페갈로브 市長의 招待로 었다. (리 태준)

내가 李朝風의 땡기 딸아 느려졌던 머리꼬리를 歐羅巴式 네 켈가위로 짜따 버리니, 곳도 이 國境 넘어 “우라지오스뜨크” 에서 었다. (리 태준)

2) 直說法 現在의 경우 體言이 토 없이 語幹만으로서도 述語로 될 수 있다.

조국 보위의 임무는 공민의 최대 임무! 최대 영예!

그대 오서나 길은 해방의 길
그대 가서는 길은 친선의 길 (조 기천)
北朝鮮이여!
네의 '빅찬 숨' 결은
일음'장이 러지 - 큰江水
세봉을 만는
밀어나 生命力! (오 장환)

3. 體言 述語의 強調形

體言 述語의 意味를 強調하기 爲하여 述語의 앞에 그 語幹을 다시 한번 提示하는 일이 있다. 이 때 앞에 提示되는 語幹에는 助詞 “는 (은)” 이 붙는다.

그 산이 일/군은 일'구이다!
그 삼삼아 삼삼 바보는 바보다.

4. 體言 述語의 否定形

體言 述語의 否定形을 만들기 爲하여는 體言의 主格形 다음에 否定의 뜻을 가지나 “아니다” 를 붙인다.

그렇나 이 강은 이렇나 예'이야기만 지니고 있는 것 아니다.
(한 설야)

억측은 악속한 것을 더듬자면 도꾸지만이 아니라, 그의 계절
변에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리 태준)

이 때 主格 托를 省略할 수도 있다.

실로 작용의 취차로서는 아보다 더 좋나 보제가 별한 없을 것 아난가? (라 지영)

[附記] 證言 述語의 托 “다”, “이다”를 마치 獨立한 品詞인 것 같이 보는 見解가 있으나, 이는 옳지 못하다. 이 見解는 1. 文에서 述語로 될 수 있는 것은 用言 (動詞, 形容詞) 뿐이고 體言은 될 수 없다.

2. 따라서 “나는 學生이다” 에서 “학생”은 述語가 아니고 “이다”가 述語다.

3. 그러므로 이 “이다”는 用言에 屬하는 獨立한 品詞다. 라는 推定에 前提로부터 出發하고 있다.

그렇나 動詞, 形容詞 뿐만 아니라 體言도, 물론이 述語로 될 수 있음은 이미 위에서 敘述한 바와 같으며, 르제야語의 예를 보더라도 이는 明證하다 (я-СТУДЕНТ). (물론 “다”, “이다”를 省略하더라도 [“나는 學生”] 充수히 우리의 뜻이 傳達되는 것으로서 말리 수 있다.) 그러므로 “다”, “이다”, “이니”는 마치 動詞의 “먹다, 먹으니”, 形容詞의 “높다, 높으니”의 “-다”, “-으니”가 實質的 意味를 나타내는 語幹 “먹-”, “높-”에 붙어 關係的 意味를 나타내는 트인 것과 마찬가지로, 實質的 意味를 나타내는 語幹 “學生”에 붙는 트에 不過하다. 또한 “이다”, “이니”의 “이”는 “먹으니, 먹으면”의 “으니, 으면”에 나타나는 “으”와

마찬가지로, 語幹이 開音節로 끝났느냐 閉音節로 끝났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結舍母音이며, 이 “이”에 어떠한 文法上으로 本質的인 機能 있는 것은 아니다. 最近에는 開音節로 끝났을 경우에도 “이”를 넣는 傾向이 많아 가나 (그것은 개이다.), 이것은 類推作用에 依한 體系의 強要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朝鮮語의 體言에는 그가 바로 述語로 될 수 있는 모든 可能性이 있어, 時稱, 法, 階稱 등의 文法的 範疇를 가리고 있다. 이것의 特別히 구라파의 諸言語와 區別되는 特性인 것이다. 이는 구라파의 諸言語에서 形容詞가 本質的으로 名詞와 같아 時稱, 法 등의 範疇가 없음에 反하여 朝鮮語에 는 이들의 範疇를 形容詞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性質의 事實이다. 따라서 朝鮮語, 形容詞가 時稱, 法, 階稱 등의 範疇를 가지었다 함에 對하여는 當然한 것 처럼 생각하고, 體言이 이러한 範疇를 가지었다 함에 對하여는 的하게 생각할 아무런 根據도 없다.

第 2 項 用 言 述 語

用言 述語란, 形容詞, 動詞로써 表現된 述語를 말한다.

用言 述語 中, 形容詞의 述語로써는 時稱, 法, 階稱이, 動詞의 述語로써는 이 以外에 態와 相이 表現되며, 그 中 法은 形容詞와

接續 述語形에 있어서는 直說法, 條件法, 當爲法 및 尊敬法이, 終結 述語形에 있어서는 直說法, 疑問法 및 尊敬法이 區別되며, 動詞의 接續 述語形에 있어서는 그 以外에 祈願法이, 終結 述語形에 있어서는 그 以外에 命令法, 勸誘法이 區別됨은 이미 形態論에서 본 바와 같다.

1 用言 述語의 種類

用言 述語에는 單用言 述語와 合成用言 述語가 있다.

單用言 述語는 한 개의 動詞, 또는 形容詞로써 表現된 述語이며,

合成用言 述語는 둘 또는 그 以上の 動詞 또는 形容詞로써 表現된 述語를 말한다.

單用言 述語의 例:

등운이는 전에 없이 마음이 유쾌하였다. 오래'동안 무형(無形)한 속박에 누워있던 가슴이 락티우며 전에 없던 새기운 : 용솟음 치는다. (희 기)

合成用言 述語의 例:

이제 北國의 義勇士 전사들이

死線에 오랐던 이 나라에

再生의 白光 가지어 왔으니

解放 史의 赫赫한 大路

豆滿江 물' 걸을 넣어 : 고 (조 기 권)

떠나가고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보고 싶어
내 躊躇히 저녁 停車場으로 나아가다. (김 조규)

2. 合成 用言 述語의 構成

合成 用言 述語로 되는 用言의 結合에는 並列과 從屬의 두 가지가 있다.

並列的 合成은 두 用言이 서로 同等的 權利로써 合成되는 을 말한다.

例: 쳐고 가다 물고 가다
 과지고 오다 들어오다 보다
 잡아 가다 뛰어 오다

從屬的 合成은 두 用言 中, 뒤에 오는 用言이 앞에 왔는 用言에 依存하여 主되는 用言의 語幹에 意味上 變容을 가지어 오는 合成을 말한다.

例:

가) 動詞 語幹 + 接續 助(아, 어, 여) + 버디--(完了態)

성명을 아주 로사로 고치어 버리니 일이 있었다.

(조 명희)

그렇나 그는 모르는 채하고 그 고비를 넘기어 버리었다.

(강 경애)

나) 動詞 語幹 + 接續 助(고) ㅁㅁ--(完了態)

그 갈밭은 벌써 남의 물건이 되고 말았다. (조 명희)

ㄷ) 動詞 語幹 + 接續 토(아, 어, 여, 또는 고) + 나 - (完了態)

그 밤을 고스란히 새우고 난 첫째네 모자는 아침이면 러서방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었다. (강 경애)

ㄹ) 動詞 語幹 + 接續 토(아, 어, 여) + 내 - (完了態)

그들 母子는 十餘年의 어려고 고비를 용히 견디어 있다.

ㅁ) 動詞 語幹 + 接續 토(아, 어, 여) + 놓 - (完了態)

그래서 어제 밤 달어 놓고 질단이며 나락 해지니 것을 쓸어 모아 놓고…… (강 경애)

ㅂ) 動詞 語幹 + 接續 토(아, 어, 여) + 두 - (完了態)

많이 듣고 많이 읽되 유심히 들어 두고 유심히 읽어 자기 것으로 소유해야 한다.

ㅅ) 動詞 語幹 + 接續 토(아, 어, 여) + 가 - (完了態)

유서방은 등'불을 켜 가지고 나왔다. (강 경애)

許는 차에 오락 가지고 그 당시의 국내 동정에 대해서 집작을 할 수 있었다. (석 인해)

ㅇ) 動詞 語幹 + 接續 토(고) + 있 - (持續態)

허나 눈고 너그^ㅁ니 하늘은 이 장난^ㅁ꾸^ㅁ기^ㅁ물^ㅁ을 쳐 하는 데로 내버^ㅁ리^ㅁ어 두고 있었다. (한 설야)

ㅈ) 動詞 語幹 + 接續 토(아, 어, 여) + 있 (持續態)

나락^ㅁ데^ㅁ미^ㅁ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술에 취한 듯이 흥분^ㅁ이 되어 있었다. (강 경애)

ㄷ)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쌓- (持續態)

너는 왜 그렇게 자주 울어 쌓리?

ㄹ) 形容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오- (持續態)

그렇나 어디로서인지 심발 소리가 가볍게 들리여 온다.

(강 경애)

ㄱ) 形容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가- (持續態)

여더 가지 걱정이 날이 저물어 갈수록 꼬리에 꼬리를 들었
다. (강 경애)

ㄴ) 動詞 語幹 + 接續 토 (군) + 하- (持續態)

그가 일하러 나올 때마다 땀기를 높이 데고 끝 없는 공상
에 잠기군 하였다. (강 경애)

ㅇ)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보- (試行)

...이렇게 고쳐보라, 운문으로서의 맛은 아주 없어 지고
말나다. (리 태준)

ㄱ)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주- (提供)

...상관들도 엄하게 명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학교
의 선생님을 처럼 매우 친절히 지도해 주시브니다.

책대를 좀 잡아 주세요, 안장에 마초를 넣어 주세요.

ㄴ)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드리- (提供)

삼가 다음 두 분의 깃븐 소식을 알려여 드리브니다.

④)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바치- (提供)

그 늬은 공서 우리들의 비명을 외워바치고 말았다.

⑤) 形容詞 語幹 + 接續 토 (아, 어, 여) + 지- (可能, 變化)
動 詞

...글로는 맛이 판 이상 없어 지고 말나다.

끓은 물 일을 보는 실용적인 행동은 이나다. 흥에 경치가
절로 추어 지는 것이나... (리 태준)

⑥) 動詞 語幹 + 接續 토 (아야, 어야, 여야) + 하- (當爲)

우리들은 반드시 조국과 인민에 충실히 복무할 안재가
되어야 하겠다.

⑦) 動詞 語幹 + 接續 토 (고자, 려, 으려 [고]) + 하- (所願)

이담에 집에 도라가면 저는 무엇보다 시간과 위생에 있어서
는 군대식을 그대로 계속하려 합니다.

⑧) 動詞 語幹 + 接續 토 (고) + 지- (所願)

초가 삼간 집을 짓고 랑친 부모 모시여다가 천년
살고지 (민요)

⑨) 動詞 語幹 + 接續 토 (고) + 싶- (所願)

한결 같이 사내당던 모든 靑年들의 名譽와 덕부리 이 바다
를 노래하고 싶다. (림 화)

⑩) 述語 疑問法 (나, 나가) + 싶 (推測)

남았다면 얼마나 남았나 싶은 또 그렇나 焦土에서 어떻
게 수습을 해 가지고 建設을 해 나가는가 싶은 "뜨떠던 그

라드"가 보기. 초원들이었다 (리, 태준)

4) 述語 疑問法 (나, ~가) + 보- (推測)

정월 대보름의 망월을 보고 늙은이들은 술에는 큰 물이
날까 보다고 넘려하였다. (리 기영)

女子들이 못하는 열이 없나 보다. (리 태준)

以上과 같이 從屬的인 合成 用言 述語에 있어 두번째의 用
言은 補助的인 役割을 하여 主되는 用言에 態, 法의 範圍에 屬하
는 意味 上의 變容을 가지어 온다.

[附記 1] 同一한 動詞에도 그때 그때의 使用에 따라 並列的
合成으로도 되고 從屬的 合成으로도 될 수 있으므로 이를 文
脈 上 區別하여야 한다.

그 집에 좀 가 보아라. (試行) (從屬)

그 映畫는 카 보았습니다. (見) (並列)

너는 자꾸 무얼 나타 쌓니? (持續態) (從屬)

너는 거기다 무얼 나타 쌓니? (積) (並列)

[附記 2] 合成 用言 述語 中에는 이미 그 結合이 아주 굳어
져서 單純 用言 述語로 된 것도 있다.

例:	너머지다	배라먹다
	느터지다	드러나다
	불거지다	나타나다
	부러지다	도라가다
	자빠지다	떡러지다

3. 用言 述語의 強調形

用言 述語의 意味를 強調하기 爲하여,

1) 述語의 앞에 그 用言의 第 2 不定形을 提示하던가, 또는 2) 用言의 第 2 不定形 다음에 “하”를 붙이던가 한다. 이 때 앞에 提示되는 不定形에는 助詞 “는(은)”, “도” 등이 붙는다.

例:

1) 참 景致가 좋기는 좋다.

우리들이 멀리 오기는 왔네.

그놈이 먹기는 먹는다.

2) 술도 좋아 하기는 하네!

술을 좋아 하기도 하네!

이 強調形은 文脈에 따라 讓步의 뜻을 가지기도 한다.

너도 가기는 가는구나.

그 이를 사랑하기는 합니 다마는.....

4. 用言 述語의 否定形

用言 述語의 否定形은 다음과 같이 形成된다.

1) 否定

ㄱ) 用言의 第 3 不定形 + 아니하다. (않다, 않는다)

밥을 먹지 아니한다 (않는다). (合成/用言 述語)

꽃이 썩지 아니하구나 (않구나). (合成 用言 述語)

ㄴ) 아니 (안) + 用言

밥을 아니 (안) 먹는다.

꽃이 아니 (안) 핀구나.

2) 不可能

1) 用言의 第 3 不定形 + 못하다

밥을 먹지 못한다. (合成·用言 述語)

꽃이 핀지 못하다. (合成 用言 述語)

2) 못 + 動詞

밥을 못먹는다.

3) 禁止

動詞의 第 3 不定形 + 말

밥을 먹지 말아라 (合成·用言 述語)

第 3 章 文의 副成分과 그 表現

第 1 節 規 定 語

規定語는 對象의 標識을 規定하는 語로써 어떠한? 누구의? 몇 개의? 몇째'번의? 등의 質問에 對答하는 것이다.

朝鮮語에서는 對象의 標識을 規定하는 語가 언제나 規定 받는 語의 앞에 온다.

規定語는 名詞, 數詞, 代名詞, 形容詞, 動詞 等に 依하여 表現되며, 그 方式에는 接合과 支配의 두 가지가 있다.

1. 接合의 方式에 依한 規定語

1) 體言 語幹이 그 대로 規定語로 되는 경우.

이 撮影所 境內에서 브라 빛 無窮花를 본 것은 반갑았다.

(리 태준)

이 날 밤 어느 레스토랑 大食堂에서 亦是 이 꽃 부즈 主
催의 夜會가 있었다. (리 태준)

그렇는데 여기에 한 에피소트가 있다. 그 것은 이 해 인들
어느 장 날이다. (조 명희)

그렇지만 우리 靑年들은 두렁口 보다 勇氣가 앞섰다. (람 과)

2) 形容詞 語根이 그 대로 規定語로 되는 경우.

캄캄 칠야! 비는 노'날 드리듯하고... (리 기영)

2. 支配의 方式에 依한 規定語

1) 體言의 屬格形이 規定語로 되는 경우.

그리하여 평화의 서광은 봄 등산의 반만한 화초를 상징해
지 않는다. (리 기영)

家族따라 곳곳을 거치며 당나 것이 너의 품이었다. (안 통만)

2) 體言, 用言에 規定語의 時稱 托가 붙어서 規定語로 되는
경우. (이 때 規定語는 뒤에 오는 體言과 함께 規定語句를 이루
고 交全體는 內包文으로 된다.)

1) 時稱 托 “-ㄴ (인, 은)”

국가의 재산인 삼림을 애호하여야 된다는 말을 듣은 등순

아는... (리 기영)

이제 北國의 義導_ㄴ 전사들이

死線에 오랐던 이 나라에

再生의 白光 가지어 왔으니 (조 기영)

ㄴ) 時稱 토 “-던”

꽃 보다 더 어여쁘던 너

네가 간 지도 어느 새 스물 여덟해 (박 기영)

일찌기 뜻을 품고 萬景臺를 떠나던

金將軍도 여기서 憤怒의 칼을 갈며

三千萬 세계의 黎明을 바라보던 꽃

그리고 험상궂은 波濤 위를

千里馬 처럼 달리던 꽃 (한 경천)

ㄷ) 時稱 토 “-는”

여쭙 손으로

보이 라를 울리는 동무여!

그대들

넘치여 흐르는 가슴에

일하는 즐거미

생똥고 있을 때— (오 장환)

ㄹ) 時稱 토 “-르 (을)”

내가 젊었을 때 江'가에 사물은 풀'잎이 싹트고

낮게 배회하는 검은 煙氣 틈에 따듯한 빛이 초이는 꿈

(안 통만)

어찌 이 곳에 그를 문을 줄 알았으랴—— (조 기철)

第 2 節 同 格 語

同格語는, 規定語의 한 種類로서, 對象에 對하여 또 하나의 名稱을 줌으로써 그를 規定하는 語를 말한다.

同格語는 名詞로써 表現되며, 規定語로 된 名詞에서 로 “인”을 省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에서 “령도자”는 “김일성 장군”의 同格語이며, “령도자인 김일성 장군”에서 로 “인”이 省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例:

여성 작가 강경애

잡지 “근로자”

신문 “민주조선”

소설 “땅”

眞理의 나라 共聯은 決코 適好한 條件에서의 建設이 아
니었다. (리 래준)

[附記] 特히 人名과 그 稱號(職位等)를 함께 부를 때 稱號가 人名의 앞에 있을 경우에는 그 稱號가 同格語로 되며, 稱號가 人名의 뒤에 있을 경우에는 그 人名과 함께 合成語로 된다.

例: 교수 박×× (同格語)

박×× 교수 (合成語의 한 成分)

前者는 公式的인 名稱으로 使用되며, 또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自己의 稱號와 함께 自己의 이름을 말할 때 使用되는 語法이다.

後者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稱號(職位等)와 함께 부름으로써 그 사람을 尊敬하는 뜻을 나타내는 語法이다.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自己의 稱號(職位等)를 自己의 이름 위에 두는 것은 自己를 높이는 것이 되어 失禮로 된다.

第 3 節 補 語

補語는 述語의 意味를 精確化하는 語로서, 述語로써 表現되는 行動의 客體, 그가 進行되는 狀況(時間, 場所, 原因, 樣式等)을 나타낸다.

補語에는 1) 直接 客體의 補語, 2) 間接 客體의 補語, 3) 轉成의 補語, 4) 場所의 補語, 5) 時間의 補語, 6) 原因과 手段의 補語, 7) 樣態와 程度의 補語가 區別된다.

이제 이들을 個別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直接 客體의 補語

直接 客體의 補語는 他動詞의 支配를 받아 行動이 直接으로 轉移되는 對象을 가리킨다.

의 補語는 對格의 體言(一을, 一를, 一리), 屬格의 體言(一의), 또는 0 (零) 토의 體言 語幹 만으로써 表現된다.

例:

1) 對格의 體言

계집애는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꽃물을 들이내
저고리를 샅었으며, 얼굴' 빛은 좁 푸를나 기를 며였으나
리없이 맑았다. (강 경애)

2) 屬格의 體言

經歷의 調査

黨史의 學習

3) 0 (零) 토의 體言 語幹

동저고리 바람에 펼나 모자 비스듬히 뜨고 브따리 들나 손
사람 (조 명희)

[附記 1] 自動詞도 그와 語根을 같이 하는 名詞를 直接 客體의 補語로 할 때가 있다.

例:

잠을 잔다,

꿈을 꾸다,

춤을 춘다,

울음을 울나다.

[附記 2] 直接 客體의 補語를 特히 提示할 때에는
음과 같이 表現한다.

模範 勞動者는 이를 表彰함.

法의 違反者는 이를 處罰함.

2. 間接 客體의 補語

間接 客體의 補語는 他動詞가 나타내는 行動의 間接的 對象을 가리킨다. 直接 客體의 補語가 主로 事物을 나타냄에 反하여 間接 客體의 補語는 主로 人物을 나타내며, 行動의 목적은 客體 또는 行動을 일으키는 原因을 나타낸다.

이 補語는 與格의 名詞, 代名詞 (一에게, 一게, 一한테, 一더러, 一께, 一에 [다], 一에게 [나]) 로써 表現된다.

例:

玄동무는 소위 博士 동무에게 敵國의 이야기를 들려 주
고 있었다. (김 사향)

도구지는...역외항에 왜 손이 들 밖에 없느냐는 뜻이 서
들었다. (라 태준)

경상도의 독특한 지방색을 띤 민요 "널리리조"에다가
약간 창가 조자를 섞은 그 노래는... (조 명희)

그것은 그 부친에게 야단을 만나고 나서 분한 생각을 참지
못하여 그리하는 것 관도 아니다. (조 명희)

그는 무엇에 쫓기우는 모양인지 자주자주 뒤를 돌아 보며
숨이 차서 달아 내리어 온다. (강 경애)

[附記] 間接 客體의 補語가 때로는 對格의 名詞로써 表
現된다.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인다.

아버지가 아들을 冊을 주었다.

그렇나 이러한 表現은 不正確하므로, 與格의 名詞로써 (아이에게, 아들에게) 表現함이 좋다.

3. 轉成의 補語

轉成의 補語는 動詞로써 表現되는 行動의 結果를 가리킨다. 이 補語는 主格의 體言 (—가, —이) 또는 位格의 體言 (—로, —으로) 으로서 表現되며, 때로는 C (零) 로의 體言 으로서도 表現된다.

例:

바람이 차차 강풍 (風) 으로 돌변하였다. (리 기영)

이 같이 로사는 지랑의 힘, 자상의 힘으로 급격히 변화하여 가는 사람 이 되었다. (조 명희)

아이가 이른 된답니다.

4. 場所의 補語

場所의 補語는 述語로써 表現되는 行動의 場所 (어디서?), 方向 (어디로?), 始發點 (어디서 부터?), 限界點 (어디 까지?) 등을 나타낸다.

이 補語는 場所를 나타내는 副詞, 代名詞, 位格의 名詞 (—에, —에서, —서, —로, —으로) 對格의 名詞 (—를, —을), 助詞 (로부터, -까지) 로써 表現된다.

例:

흙은 들 품안에는 무덤 무덤의 마을이 여기 저기 안기어 있다. (조 명회)

역시 아버지는 포국대력은 강제 로동에 끌리어 경월선 복선 공사장으로 끌리어 갔다. (리 태준)

주嬢을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山 길에 오르자 동무들은 멀리 川모퉁이 까지 따박 나와 手巾을 흔들며 歡送하였다. (김 자량)

여기서 왔는 지 모르는 물때 한 마리가 땀방 튀어 뜰어 진원스런게 원형을 그리며 돌아간다. (강 경애)

태양 악에 가슴을 헤치고 섰던 자기가 어떻게 명화를 대하듯이 떠오른다. (강 경애)

5. 時間의 補語

時間의 補語는 述語로써 表現되는 行動의 時間(언제?), 發端(언제 부터?), 終結(언제 까지?), 期間(얼마 동안?) 등을 나타낸다.

이 補語는 時間을 나타내는 副詞, 位格의 名詞(一에), 對格의 名詞(一를, 一을), 助詞(부터, 까지)로써 表現된다.

例: 하루 막 동안에 원더 앞뒤들은 그야 같로 상전히 떡해로 별하였다. (리 기영)

비는 그 뒤로도 편사 홀을 와서 마침내 큰 물은 올 축년 이 삼으로 났다. (리 기영)

오전 아홉시 부터 열시 까지 영입함.

6. 原因과 手段의 補語

原因과 手段의 補語는 述語로써 表現되는 行動의 原因, 儀線 (무엇때문에?, 무엇으로 因하여?), 材料, 方法, 手段 (무엇으로써?, 무엇에 依하여) 등을 나타낸다.

이 補語는 造格의 體言 (—로, —으로, —로써, —으로써) 및 位格의 體言 (—에) 으로써 表現된다.

그날' 밤 — 사냥 — 폭풍우에 인동이 집을 안'방 뒤'벽이 마 너진였다. (리 기영)

우리는 地下 —로 모스크바 市民 밋을 느끼터 나설 것이다. (리 태준)

가죽을 — 뚫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화를 견지랴? (최 학송)

그의 은혜 — 무엇으로써 갚아야 할까?

病으로 그는 이번 大會에 出席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7. 樣態와 程度의 補語

樣態와 程度의 補語는 述語로써 表現되는 行動의 性質, 方式, 程度(어떻게?, 어떠한 方式으로?, 얼마 만큼?, 어느 程度?) 등을 나타낸다.

補語는 樣態를 나타내는 副詞, 用言의 接續 述語形 (主로 樣態의 從屬 直說法), 造格과 具格 名詞, 數詞, 助詞로써 表現된다.

설책사의 마음처럼 불개 불개 동백꽃 피어나는 二月달
(안 룡만)

해방후 각 지방엔 자발적으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었었다.
인민의 불길은 번개 같이 농들을 쓸어뜨리고. (박 세영)
저기 비행기가 열 대나 날아가는구나!

第 4 章 文 中 的 語 順

每個의 文章成分이 文中에 配列되는 順序(語順)는 原則的
으로 다음과 같다.

1. 主語는 文의 맨 앞에 온다.

하늘이 맑다.

述語는 文에 맨 뒤에 온다.

산이 높다.

3. 規定語는 恒常 그가 規定하는 語의 바로 앞에 온다.

가을 하늘이 맑다.

그는 높은 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冊어냐?

4. 補語는 述語의 앞에 온다.

나는 冊을 본다.

冊을 나는 본다.

그는 어제 떠났다.

이제, 그는 떠났다.

5. 補語와 補語의 사이에는 一定한 順序가 있고, 變化的하는 사람이 自己 意思의 重點을 어디에다 두는가에 따라 變化할 수 있다.

나는 그 때 동생에게 冊을 快히 주었다.

나는 冊을 그 때 快히 동생에게 주었다.

나는 동생에게 그 때 冊을 快히 주었다.

快히 나는 동생에게 冊을 그 때 주었다.

동생에게 나는 그 때 快히 冊을 주었다.

快히 그 때 나는 冊을 동생에게 주었다. 等等.

그러나 急迫한 談話 또는 交際 作品 等에서는 이 順序가 必
필수 있다.

1. 主語가 뒤에 오고, 述語가 앞에 오는 例:

“이제와 옵니다, 電車가!”

가장 魅力 있는 地區였다, 江東은…… (안 룡만)

2. 述語가 補語의 앞에 오는 例:

“오탁가요, 어서 저리로”

“보세요, 이 편지를 줌”

나도 어디든지 떠나야 하리라,

누구에게 한 마디

告別의 人壽도 없이 밤庫에 홀로 (김 조규)

第 5 章 不 完 全 文

不完全文이란, 文 가운데의 成分 (主成分 또는 副成分) 이 省略된 文을 말한다. 이에 對하여 成分 全部가 表現되어 있는 文을 完全文이라고 한다.

不完全文에는 보통 主語나 述語 中の 하나가 또는 이 둘이 다 省略되며, 때로는 文의 意味가 完結되기 爲하여 반드시 必要的 副成分도 省略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文章成分이 省略되는 것은 그가 그 앞의 文에서 이미 表現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省略된 成分은 쉽게 復舊될 수 있다. 아려한 不完全文은 會話 (對話) 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니 유서방, 선비가 지금 덕포네 집에 있지유?”

“응, 있어, 뭐?”

“그 어디 출가시키지 않으려나유?”

“글쎄 시키겠지?” (장 경애)

“왜놈을 등아 준다고.”

“그렇다!”

“내가?”

“그렇다, 내가!”

“아니 내가 왜놈들을 등아 준다고?!”

“그렇다 내가! 내가!”

“그렇다면……”——(조 기권)

不 完 全 文 가운데의 省略된 成分은 위와 같이 前後의 文脈으로 復舊될 수도 있으며, 또한 談話의 場面에 依하여 復舊될 수도 있다. 例를 들면,

“이제야 오네!”

라는 不 完 全 文을 汽車를 기다리던 사람이 말하였다면, “汽車가” 라는 主語를, 비를 기다리던 사람이 말하였다면, “비가” 라는 主語를 각각 省略하였다고 볼 수 있다.

述語가 命令法의 動詞으로써 表現되었을 경우, 主語의 資格으로 使用된 人稱代名詞는 原則적으로 省略된다.

이리 오세요!

어서 잡수시십시오!

마퇴 가거라!

述語가 命令法의 動詞인 경우에도 人稱이 서로 對照적으로 表現될 때에는 主語가 保存된다.

자넨 여기 있게, 내가 갔다 올 리이니.

이제 主語, 述語, 補語의 省略된 不 完 全 文을 따로 따로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主語의 省略된 不 完 全 文

九月 六日

市立 病院의 하나를 구경했다. (리 태준)

(主語 “우리들은”이 省略되어 있다.)

2) 述語의 省略된 不完全文

물은 여기서 얼마든지 끌어 오고 해는 얼마든지 조이며 주
니 葡萄가 달밖에 (述語 “없다” 또는 “업지 않은가” 가 省
略되어 있다.)

우리의 根幹도 민중 속에,

우리의 힘도 민중 속에 있다. (조 기천)

(述語 “있고” 가 省略 되어 있다.)

3) 補語의 省略된 不完全文

나만 못 본 곳으로 꼭 보고 싶은 데가 피르끼 博物館이
남았다. 부쓰에서 따로 案内해 주었다. (타 태준)

(直接 客體의 補語 “나를”, 場所의 補語 “그곳에” 가 省
略되어 있다.)

第 6 章 命 名 文

命名文이란, 어떠한 對象 또는 現象이 命名될 뿐이고, 그가
存在한다는 事實 以外에는 아무것도 陳述되지 않는 文을 말한다.

그날밤! 선비는 보'림을 옆에 끼고 덕호의 집을 벗어 났
다. (강 경애)

그 다음……

그 담에 홍산'골이 리지었다.

총'소리, 각란'소리, 기관총'소리

늬들의 아우성 소리! (조 기천)

命名文의 意味는 現在 어디한 對象 또는 現象이 存在함을 證하는 것이므로 過去形이나 未來形으로, 假定法이나 命令法으로 命名文이 使用되는 일은 없다.

命名文은 特히 文藝 作品에 널리 使用되어, 文脈에 簡潔性, 表現性を 賦與한다.

철호 다시 정신 차리고

은 삶을 한 팔에 쫓기여

주류관을 뿌리나다

팡——늬들의 아우성……

또 뿌리나다

팡——늬들의 아우성…… (조 기천)

命名文은 感嘆文으로도 될 수 있다.

팔찌산들이 길 떠났다.

東南으로 길 떠났다.

앞으로! 앞으로!

오오! 앞에는

鴨綠江!、鴨綠江! (조 기천)

[附記] 命名文을 主語 또는 述語를 省略한 不完全文과 混同하여서는 안 된다.

第 7 章 同種의 文章成分

第 1 節 同種의 文章成分의 概念

同種의 文章成分이란, 並列的 關係로써 서로 連結된 物 또는 그 以上の 文章成分을 말한다.

並列的 關係로써 서로 連結될 수 있는 文章成分은 다음과 같다.

1. 述語를 共題的으로 가지는 物 또는 그 以上の 主語.

例:

하늘도 땅도 바위조명도

홍산도 짜물터도

눈속에 묻혀있다. (조기철)

2. 主語를 共題的으로 가지는 物 또는 그 以上の 述語.

例:

침손이 형같은 웃으며 바라본다. (최명익)

3. 同一의 文章成分에 依存하며, 同一하게 이를 說明하는 物 또는 그 以上の 副成分.

例:

1) 同種의 規定語:

한 때를 잠어 가지고 일일이 방해하던, 그렇나 아무리
해서라도 동화를 시키며던 그, 손뼉-맞잡으면 클 힘이
되리라던, 그렇나 좀체 나오지 않던 그—— 화춘아가...

(한 솜야)

너성의 음색 (音色) 으로서는 피'기가 과하고 음률 (音律)
로서는 선이 좀 굵다고 할만한, 그렇나 맑은 로사의
육성 (肉聲) 은 바람에 흔들리는 강물'결의 소리를 누르고
밤하늘에 구슬프게 떠 들었다. (조 명희)

2) 同種의 補語:

머루덩굴을 걷어다 바치여라, 피마자들, 살구씨들, 참나무
쥘쥘을, 늦그릇을, 소를, 개를 ... (리. 태준)

다닥치며, 뒤치며, 부서지며

마위'들이 골짜기를 치여 부서진다. (조 기철)

그렇나 이제

낮설'나 물과 바람과 비'발에

흰 얼굴은 썩들고 (림 화)

同種의 成分은 (主語를 除外하고) 並列的 關係로써 서로 連結될 뿐만 아니라, 從屬的 關係로써 그가 依存하는 文章成分에도 連結된다. 例를 들면,

同種의 補語

낮설'나 물과 바람과 비'발에는 並列的 關係로써 서로 連結될 뿐만 아니라, 從屬的 關係로써 述語 썩들고 에도 連結된다.

원 열같은 — — — — — 짜 들 고

언제 ? 무엇이 ?

이제 낫설나 물과

바람과

비' 밭에

同種의 文章成分의 並列的 關係는 各種의 並列的 語形 (具格
로, 用言의 接續 述語形, 副詞, 助詞 等)과 語調로써, 또는 단지
語調로써만 表現된다.

예를 들면,

觀望. 세스트라들을 나를 爲해 萬歲를 부르 주는 氣分을
이다. (티 령준)

에서 同種의 主語는 단지 語調로써만 連結되어 그들은 同一한 語
調로써 發音되며 그 사이에 休息이 있다.

또한,

웅얼보다도 글보다도 다인보다도

제간보다도 힘이 으뜸이었다. (한 설야)

에서도 同種의 補語가 語調로써만 連結되어 있으며, 同種의 成分
사이에는 充分한 休息이 있을 수 있다.

同種의 成分은 위에 들나 例와 같이 보통 同一한 語形으로
表現되나, 서로 다른 語形으로 表現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英勇하고 莊嚴한, 이 南半部 人民들의 鬪爭이여!

에서 同種의 規定語가 形容詞의 接續 述語形 (英勇하고), 規定語形 (莊嚴한), 代名詞 (이), 名詞 語幹 (南半部) 및 屬格 名詞 (人民들의) 로써 表現되어 있다.

文에는 同種의 成分이 여러 점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몰짜기와 몰짜기, 집과 집,

거리와 거리, 광장과 광장들이

서로 얽히고 뭉치여 부등키여 안고

뛰고 춤추고 울고 노래 부를 제 (조 기철)

에는 두 점의 同種의 成分, 即 主語 "몰짜기와 몰짜기, 집과 집, 거리와 거리, 광장과 광장들이"와 述語 "얽히고 뭉치여 부등키여 안고 뛰고 춤추고 울고 노래 부른다"가 있다.

第 2 節 同種의 文章成分을 連結하는 接續語形

同種의 文章成分을 連結하는 데 널리 使用되는 各種의 接續語形은 그 意味上 合同的, 分離的 및 對立的의 세 種類로 區分된다.

1. 合同的

과, 와, 며, 고, 랑, 하고, 하며, 여, 도·도, 자·자,

및, 그리고, 또, 또한,

例:

“와” 철호와 꽃분이

마지막 선포문-적는다. (조 가연)

“며” 오늘도

영화며 전람품이며

책가^ㅁ물이며

새롭나 문화 선물들

가득히 심은…… (리 찬)

“고” 네가 좋아하던 백화 수풀이

지금은 季節을 즐기며

푸르고 싱싱하게 떨었구나! (김 조규)

“또” 戰鬪 또 戰鬪, 工作 또 工作,

生産 또 生産—— (김 사랑)

“과” 同時에 天才的 戰略과 緻密하고도 周到한 組織力

“하고도”

“그리고” 과 그리고 群衆에의 獻身的인 服務로써 그 恩威는

內外에 떨치고 있다. (김 사랑)

“도.. 도” 나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기도 생각하였다. (최 학송)

樂浪도 高句麗도 네 젓가슴 위에 자라난

歷史의 흐름아 大同江아 (백 인준)

2. 分離的

나...나, 걸...걸, 든...든, 거니...거니, 느니...느니, 거나...

거나. 다...다, 고...고, 또는, 或은.

例:

“나...나” 크나 작으나 거슬이 없는 인재라는 것은 없는 법
이요. (한 설야)

“전...전” 소작드전 내 몫에'거전 무식이란 무식은 지주와의
문제가 아니라 ... (리 태준)

“든...든” 벼든이 아니라 밀이든 좁쌀이든 무슨 잡곡이든 일
단 면소에서 칼'자루들을 앞세우고 나와 제 해 처
럼 걸어가는 것이었다. (리 태준)

“다...다” 다대다 구스리다 별소리로 다 타이떡야 그 딸이
좀처럼 들지를 앓는다. (조 병희)

“거니...거니”모녀가 주거니 받거니 무슨 말인지 하고 있다.
(장 경애)

“혹은” 광주 전화국에 폭탄을 던지는 젊은 이 가운데, 혹은
좁각산 상상공 위에 봉화를 치기여 들니 젊은, 그럼
자들속에, 혹은 농민들의 집회에서 나라를 구하자고
웨치는 열혈 청년 가운데, 혹은 장안 종로 거리를 미
군의 전차 앞으로 불질하는 노동자들 속에 그를 보
는 못 하였다. (김 사랑)

3. 對立的

나, 면서도, 지만, 마는, 건만, 되, 찌라도,
그렇나, 대신.

例:

“나” 이렇게 靈隱山이라고는 하나 아름답나 碧峯 幽石의

第 3 篇 文 章 論

山趣는 찾아 보려도 볼 수 없는 스산한 山岳 地帶였다. (김 사량)

“대신”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없는 대신 피어
지게 나서서 찬성하는 사람도 없었다. (한 설야)

“면서도” 접으시 면서도 정이 있고 부하를 사랑하기 때문
에 누구나 한번 만나고는 떠터지는 이가 없지요.
(석 인해)

第 3 節 總括語에 따르는 同種의 文章成分

總括語라, 同種의 文章成分에 對하여 一般的 類概念을 나타내는 文章成分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온갖 새가 날아 돌다... 九萬長天에 大鵬새, ... 岐山 朝
陽에 鳳凰새... (재 라명)

에 있어서 主語 온갖 새가 는 同種의 文章成分 大鵬새, 鳳凰새
等으로써 列擧되는 個別的 새에 對하여 一般的 類概念을 나타냄
으로 總括語라 말할 수 있다.

어디한 文章成分이나 總括語로 될 수 있어, 述語의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고 있다. — 뛰며, 뛰치며, 굴며.

規定語의 예를 들면,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나——전 가족의 책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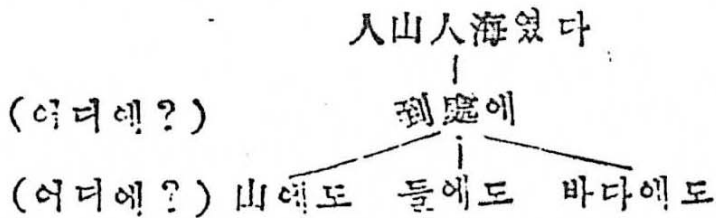
總括語의 例를 들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서——전 조선에서 三千萬이 나아간다.

總括語는 가끔 肯定的, 否定的 代名詞 또는 副詞——모두, 모든 것은, 아무도, 아무 것도, 언제나, 아무 데도, 어디서나, 到處에, 아무데도, 어디나, 하나도...等으로써 表現된다.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到處에 人山 人海 였다

이것에서 同種의 文章成分,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는 이를 總括하는 語 到處에와 똑 같은 質問 (어디에?)에 對答한다.



總括語가 同種의 成分 앞에 있을 때에는 이 同種의 成分은 總括語의 內容을 밝힌다.

故鄉에는 모든 것이 變했다: 山川도 人物도.

이 경우 同種의 成分 앞에는 發音 上 休息이 있으며, 書寫 上에서 는 中止符 (:)를 두는 것이 좋다.

總括語의 뒤에는 列舉를 豫告하는 各種의 接續語 (即, 다시 말하면, 換言하면, 例컨대 等)가 올 수 있다.

總括語가 同種의 文章成分 뒤에 있을 때에는 總括語는 同種

의 文章成分으로써 列舉되는 것을 總括한다.

나는 밤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치나 헤아리지 않고
샐 김 샐심부름 샐나무—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다.

(최 학송)

사망하는 교향, 그림—고향—모두 버리고 反擊의 길
 을 떠나 온 이래 언제 한번, 따스한 잠' 자리를 얻어 보았으
 띠? (김 사량)

이 경우 同類의 文章成分 뒤에는 發音, 上 休息이 있으며, 書
 寫上에서는 橫線 (—) 을 두는 것이 좋다.

總括語의 앞에는 列舉를 終結하는 各種의 接續語 (一般的으
 로, 要言하면, 한마디로 말하여 等) 가 쓸 수 있다.

第 8 章 呼 稱 語

呼稱語란 보통 남을 부르는 語調로써 發音되며, 言語行爲의
 向하여지나 對象을 가리키는 語 또는 語의 結合을 말한다.

“로사! 너, 팔 걸어라, 내 팔하고 같이 이 물에 정귀 보자
 의” (조 명희)

에서 “로사!” 는 呼稱語로 되어, 남을 부르는 語調로써 發音되
 며, 이 이야기의 向하여지나 對象者를 가리킨다.

呼稱語는 各개 呼格의 名詞로써 表現된다.

例:

존경하는 김일성 장군이시여!

三千萬이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조 기천)

靑年들아!

그대들은 조약들 보다 가병계

玄海의 큰 물'결을 걸어'켰다. (팀 화)

그렇나 때로는 呼稱語가 名詞 語幹만으로써 表現되기도 한다.

例.

김군! 수줍차 편지는 반갑게 받았다. (최 학중)

어머니, 그럼 아버지를 잘 위합시다. 위원을 또 내놓시나
면 어떡허우. (리 기영)

呼稱語는 文法的으로 볼 때 어떠한 文章成分과도 連結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 自身 文章成分이 아니다.

呼稱語는 文章成分의 役割과는 다른 獨特한 役割을 맡고 있
다. 文章成分은 어느 것이나 全部 一定한 思想의 表現에 所用되
나, 呼稱語는 一定한 人物에 대하여 自己의 이야기를 듣도록 그의
注意를 喚起시키는 役割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呼稱語로써 무엇
보다도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使用된다.

꽃분동무!

참담^ㄴ 戰友이여!

이나라의 귀영^ㄴ 딸이여! (조 기천)

선비야, 잘 있었니?" (강 경애)

興發된 談話 또는 歌謠 等에서는 呼稱語가 反復될 수 있다.

어머니! 어머니! 저것 보세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꼭두 발에 앉지 말아!

呼稱語는 비단 人物에 對하여서만 아니라, 文藝 作品 等에서는 無生物에 對하여서도 使用된다. 이 경우에 呼稱語는 擬人法의 한 手法으로 된다.

北朝鮮이여!

우리 人民의 永遠한 보람을

키워 주고 있는

너의 굳센 품이여! (오 장환)

아아 너 長白山아 너 거룩한 地域아

오늘 네 품'속에 기적 지니 思想을 너는 보리라 (한 명천)

모스크바이여!

붉은 廣場이여!

永遠한 勝利와 名譽의

都市와 廣場이여! (리 태준)

第 9 章 插 入 語

挿入語란, 文章의 成分은 아니나 文에 挿入되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陳述된 思想에 對하여 가지는 關係를 나타내는 語를 말한

다. 挿入語의 앞뒤에는 休息이 오며, 또한 特別한 語調로 發音된다.

挿入語로 되는 것은 比단 個別的 語나 語詞 結合 뿐만 아니라, 한 개의 文 全體도 挿入語로 될 수 있다.

挿入語를 그 意味에 따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 挿入語는 陳述된 思想의 源泉, 다시 말하면, 그 思想이 누구의 것인가를 나타낸다.

(내가 보건대, 나의 생각하는 바에 依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傳하여 내리여 오기를, 新聞의 報道하는 바에 依하면, 某某의 意見에 依하면, 듣건대, 들으니까……)

例:

“들으니까, 여러 분은 멀리 조선서 오시였다구요?”(리 태준)
사람들이 말하기를, 今年은 昨年보다도 훨씬 豐作이 랍디다.
제가 보건대, 그 동무는 반드시 祖國을 爲하여 獻身的으로 鬪爭할 씩씩한 靑年입니다.

2) 挿入語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確信性을 나타낸다.

(과연, 과시, 斷은, 眞實로, 眞로, 마땅히, 모름지기, 물론, 의례히, 確실히, 정말, 참말, 斷然코, 꼭, 반드시, 필시, 必지, 꼭, 天然, 決코, 조금도, 一絲끝만치도, 一絲口없이, 기어히, 기어코, 마땅히, 眞정, 眞정, 絶對로……)

例:

테닌그라드는 歐羅巴에서 아름답고 品位있는 都市의 하나

라는 말은 이미 들었지만 果然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安堵
感을 주는 都市다. (리 태준)

맨앞에 앉은 사람은 앞체에 달리는 짐계 칼은 것을 잡고 있
는데 필사 차장인 듯 하였다. (한 설야)

大陸의 물' 절은

정녕 玄海灘 보다는 알았는가? (림 화)

3) 挿入語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假想, 讓步, 不確信性을 나
타낸다.

(아마, 글썽, 왜, 어찌, 설마, 만약, 만일, 설사,
설령, 비록, 아무리, 암만...)

例:

友機는 그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마 다른 飛行場에서 補
油를 하는 듯 했다. (리 태준)

설사 굴'속에 들어갔다가 굴이 무너진다 할찌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배'심이 슬몓이 났다. (한 설야)

우리 비록 적지만

우리 비록 짧으며)되 흐릿지만 (조 기철)

4) 挿入語는 傳達되는 事實에 對한 感情, 그 事實에 對한 評
價를 나타낸다.

(幸福스런게도, 多幸히도, 不幸히도, 유감히도, 유감스런
게도, 노담게도, 재미스런게도, 시원하게도, 부디, 제발,
아무쪼록.....)

例:

多幸히도 저는 수첩 쓰면서 留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難國을 離하여 奮國하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몸 상히 도라오시기를 바랍니다.

5) 挿入語는 思想 表現의 手法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一般的으로 말하여, 要言하면, 다시 말하면, 換言하면……)

例:

말하자면 이 길이 내게 있어서 脫皮의 길이며 飛躍의 길이기를 願했던 것이다. (김산향)

조국과 인민에 복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말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이다.

6) 挿入語는 陳述된 思想과 思想 사이의 關聯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리하여, 例컨대, 例를 들면, 그렇나, 뿐만 아니라, 더구나, 하물며, 그러므로, 그렇즉, 그렇면, 그렇거든, 그렇지마는, 하나, 그렇거짜타도, 허건, 허나, 그중에도)

例:

따라서, 우리들은 勝利를 確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기는 청명하다. 하나 살살한 바람이 불어 온다. (리기영)

숨이 턱히르 듯 하였다. 그렇건만 광부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한설야)

7) 挿入語는 陳述된 思想의 順序를 나타낸다.

(첫째로, 둘째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국, 더욱……)

例:

그들이 그때 부르짖었던 구호는 첫째로 封建 遺制 打倒,
둘째로 日帝 殘虐의 掃蕩, 세째로 國粹主義의 排擊이었다.

결국 우리들은 平和的 祖國 統一의 旗幟 밑에, 김장군 周圍에 더욱 굳게 뭉치어야 한다.

第 10 章 間 投 文

感動詞 (間投詞) 는 言語 行爲에서 獨特한 文——間投文——을 形成한다. 따라서 感動詞는 文章成分이 아니다. 間投文과 間投文 아닌 文과의 差異는, 間投文이 우리의 感情과 希望 등을 나타내면서도 直接 이를 命名하지는 않는다는 點에 있다.

1) “쉘……저기 누가 오시나다.”와

2) “조용하자……저기 누가 오시나다.”를 比較하여 보면, 間投文 “쉘”은 靜肅 沈默을 要求하는 明白한 信號이면서도 이 때 要求되는 行動을 直接 命名하지는 않는다. 이 때 要求되는 行動은 둘째번의 非間投文 —“조용하자”에 表現되어 있다.

間投文은 獨立的으로 使用되든가, 또는 대개는 다른 文의 앞 에 놓이며, 그 뒤에 疑問符 (?), 感嘆符 (!), 終止符 (。), 休息符 (，), 點線 (….) 등과 함께 使用된다.

“그때 아버지 되는 이를 찾아 보셨는지?”

第 11 章 內 包 文

“에!” (리 기행)

“그리구 말야”

“에?” (리 태준)

오오! 玄海灘은 玄海灘은,

우리들의 運命과 더불어

永久히 잊을 수 없는 바다다. (림 화)

間投文은 또한 다른 文의 가운데에 들어 갈 수도 있다. 이 경우 間投文은 앞뒤에 休息符(,) 로써 區別되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는 그 뒤에 必要한 意味를 두렷이 表現하기 爲하여 疑問符(?), 感嘆符(!) 또는 點線(...) 을 둔다.

“왜 대답이 없어? 히히...나는 너를 친딸 같이 알는데...
왜 너는 그렇게 어려 하냐? 응, 절비야!” (강 경애)

第 11 章 內 包 文

內包文이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文章成分 中에 規定語句 또는 不定形句를 包含한 文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內包文에는 單純文의 文章成分이 句의 形式으로 擴張되어 있다.

內包文에 包含된 規定語句 또는 不定形句는 “主語, 述語, 規定語, 補語의 어느 成分으로도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두 개 以上の 成分이 句의 形式으로 擴張되어 있을 수 있다.

主語가 句로써 表現된 內包文을 主語 內包文, 述語가 句로써

表現된 內包文을 述語 內包文, 規定語가 句로써 表現된 內包文을 規定語 內包文, 補語가 句로써 表現된 內包文을 補語 內包文, 두개 以上の 成分이 句로써 表現된 內包文을 合成 內包文이라고 한다.

이제 每個의 內包文의 例를 下列 다음과 같다.

1) 主語 內包文의 例:

아 지금에도 예'날과 다름 없는 화창한
봄'빛이 따스히 조여 내리여…… (規定語句) (단 행간)
호젓한 봄날의 호느끼미이 뭉리여 오는…… (不定形句)
 (단 행간)

2) 述語 內包文의 例:

바루 전에 어머니에게 꾸지람 뭇은 노엽이 아직도 남아있음
 인가? (不定形句) (장 정애)
가장 魅力 있는 地區였다. 江東은…… (規定語句)
 (안 봉만)

아 것은 飛行士들의 好意로 飛行場을 지나와서 스떠턴 그라
프의 慘狀을 空中에서 한 바퀴 보이며 들어였다. (不定形
 句) (리 태준)

3) 規定語 內包文의 例:

아, 꺼질르 줄 모로로 타우로는 抗爭의 거센 烽火여!
 (規定語句) (안 봉만)

4) 補語 內包文의 例

밭갈아하는 耆에게 土地와 現物稅制를 주고,

당치의 케을 들는 者에겐 戰場과 勞動 法令을 주고 (規定語句) (밑 명군)

무엇이 그의 물을 목 치기에 그는 노막 바라보았다.

(不定形句) (장 정예)

그 歷史의 오래기로, 環境과 條件의 苛酷하기로, 世界 一의 말썽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不定形句) (겉 짜량)

5) 合成 內包文의 例:

비 울 듯한 무덤덤 天幕의 (1) 밤을 나서 輕快한 小型車로 (2)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것이, (3) 또한 메드르호 中佐와 의 새로 맺어 지는 友情이 (4) 나는 좀처럼 잊을 수 없는 愉快였었다. (5) (리 해준)

에서

(1) 비 울 듯한 무덤덤 天幕의 —— 規定語 (屬格)로 된 規定語句

(2) 輕快한 小型車로 —— 補語 (造格)로 된 規定語句

(3) 輕快한 小型車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것이 —— 主語 (主格)로 된 規定語句

(4) 메드르호 中佐와 의 새로 맺어 지는 友情이 —— 主語 (主格)로 된 規定語句

(5) 나는 좀처럼 잊을 수 없는 愉快였었다. —— 述語로 된 規定語句

이로써 위의 例文은 여러 文章成分에 句를 包含하는 合成 內包文

으로 된다.

[附記] 命名文도 內包文으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침 연기에 어리운 이 용연 동네!

이 역시 오늘 아침으로 마지막이다. (강 경애)

아! 解放된 朝鮮의 하늘! 이 아름답다. 靑磁 하늘을 우리는
지금 날고 있는 것이다. (리 태준)

'오래' 동안 토지에 수리되었던 농민들! 그리고 지주한테 매여
역시 갖은 압제를 받던 소작인들. (리 기영)

第 12 章 複 合 文

第 1 節 複合文의 一般의 概念

複合文이란, 意味와 語調 上에서는 單一한 全體를 이루면서
도 構成 上에서는 둘 또는 그 以上の 單一文으로 分割될 수 있는
文을 말한다.

예를 들면,

봄은 해마다 돌아 오건만 해방 후 처음 맞는 이 봄은 다르
다. (리 기영)

라는 文에는 “봄은 해마다 돌아 오는데도 不拘하고, 解放後 처음 맞
는 이 봄은 다르다.” 라는 複雜한 思想이 語調 上으로는 單一한

全體를 이루어傳達되어 있다.

그렇나 그構成上으로 보면, 이 文은 두 개의 單一文으로 分割된 수가 있다.

- 1) 봄은 해마다 온다. (主語——봄은, 述語——온다)
- 2) 해방 후 처음 닮는 이 봄은 다르다. (主語——봄은, 述語——다르다)

複合文을 이루는 單一文 사이의 關係는 接續 述語形과 語調로써, 또는 단자 語調로써만 表現된다.

위에 들은 例에서 單一文 사이의 關係는 接續 述語로 “전만”으로써 表現되어 있으며, 이 文은 두 개의 單一文에 陳述된 現象이 서로 對立됨을 가리킨다.

또한 單一文 사이의 關係는 接續 述語形으로써가 아니라, 語調만으로도 表現되어, 첫번째 單一文 끝에서 語調가 떨러지지 않고 드리어 오타가고, 그 사이에 若干의 休息이 있게 된다.

例:

가마니만 짜서 바치여라, 관술을 해다 바치여라, 머리털을 걸어다 바치여라. ……머리를 “마루가리”를 해라, 각반을 치여라, “몸대”를 세워라, 잠꼬대까지 국어로 안하면 비국민이다, 너는 지원병이다, 너는 학병이다, 너는 경용이다, 너는 보국대다, 너는 경방단이다, 너는 방공 갑시초원이다, 이 바람에… (리 태준)

第 2 節 文의 並列과 從屬

複合文을 이루는 單一文들은, 單一文 사이의 文章成分들과 같
이, 或은 並列의 方式에 依하여, 或은 從屬의 方式에 依하여 서
로 結된다.

同等의 資格을 가지고 서로 依存하지 않는 文은 並列의 方式
에 依하여 連結된다. 並列의 方式에 依하여 連結된 複合文을 並
列 複合文이라고 한다. 連結의 手段으로서는 接續 述語形과 語
調 또는 단지, 語調만이 使用된다.

例:

신발' 소리가 차츰 가깝아 지터니, 산' 등으로 계집애 하나
가 뛰여 오락 온다. (강 경애)

同等의 資格을 가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中 하나는 自立
的이고 또 하나는 依存的이어서 다른 文의 어느 한 成分 또는 文
全體를 說明하는 文은 從屬의 方式에 依하여 連結된다.

從屬의 方式에 依하여 連結된 複合文을 從屬 複合文이라 하며,
이 때 說明하는 役割을 맡아 보는 依存的인 文을 副文이라 하고,
副文에 依하여 說明되는 自立的인 文을 主文이라고 한다.

例:

날 갈수록 北半部의 살리모살이는 풍족하여 갔다.
(副)

主文과 副文의 連結의 手段으로써는 接續 述語形과 語調, 또

본 단의 語調만이 使用된다.

셋 또는 그 以上の 單一文으로써 構成되고 並列과 從 屬 的 方式이 다 같이 그곳에 使用되어 있는 複合文도 있다. 例를 들면,

아직 응달이 음산한 절기지만, 고개를 넘고 나니, 숲이 차고 등'골에 땀이 배었다. (최명익)

에서 “아직 응달이 음산한 절기지만”은 그 다음 文과 並列의 式으로 連結되어 있고, “고개를 넘고 나니”는 그 다음 文과 從屬의 方式으로 連結되어 있다. 이러한 複合文을 合成 複合文이라 한다.

第 3 節 並列 複合文

並列 複合文은 그 意味에 따라 合同的 並列 複合文, 分離 並列 複合文 및 對立的 並列 複合文으로 區分된다.

1. 合同的 並列 複合文

이곳에 使用되는 接續 述語形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 —며, —는데, —니바, —되, —자, —요, —니,
—되, —거든, —로서, —다가, —더니, —전데, —면서,
—고저, —노니, —거니, —던바, —거나와.

이 語形들은 文 가운데 陳述된 現象의 同時性 또는 繼起性을 나타낸다.

例:

“一고” 山마루 바위에 선 팔찌산들

“金隊의 서고

순실의 서고

꽃문의 서고

잡사들로 보통 서고…… (조 기원)

“一요” 어느 飛行場에서 보다 큰 俱樂部요, 큰 食堂이요,

豐盛한 食卓이었다. (리 태준)

“一자” 다시 씨름이 시작한다는 종 소리가 멩그렁 멩그

렁 치면에 울타와 퍼지자, 실적이 지었던 구경 군의

담이 차차 뵉뵉하니 케어지어 갔다. (한 설야)

“一다가” 금년에는 워낙 물가물이 심한 데다가, 이양기에는

비가 똥족하지 못해서…… (리 기영)

“一더니” 백중을 앞둔 며칠전에 개이 르듯하던 비는 다시 부

질부실 내리더니, 오늘 직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

하였다. (리 기영)

“一거니와” 우리는 이제 新劇에 대한 期待가 더욱 크거니와,

아직 西亞 藝術의 傳統 속에서 자라는 이곳 舞臺

劇에서 價值 있는 古典 劇부터 鑑賞할 수 있음은 너

무나 우리의 所望 로였다. (리 태준)

“一거니” 칠락의 고서적은 반년

이 나날에 충치 걸치였거니,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 이 세여 보라 뭣 만이냐

되는고? (조 기철)

“어” 신첩이는 어른 담을 뛰넘기여 보며, 그 손의 임자를
찾았다. (강 경애)

“고” 오늘은 너의 天池에 彩雲이 서리우고,
오늘은 너의 머리 위에

蒼蒼과 大空이 열렸거니,

너, 白頭山아! 조선의 산아 말하라—— (조 가찬)

“는” 주배야 혼자 좃은 아리마르는 奇觀일 뿐이었는데,
여기는 一夫一集團으로 滯滯과 神秘의 한 世界를 이
루었다. (리 태준)

“노” 인민은 인민 위원과 똑다르 제웠노니

누가 자취를 남추었는도 원쑤의 더부러 (박 세영)

2 分離的 並列 複合文

이곳에 使用되는 接續 述語形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거나...거나, 는지...는지, 나...나,

거니...거니, 다가...다가, 느니...느니

이 語形들은 文 가운데 陳述된 現象 中에서 어느 한 現象만
이 可能함을, 또는 現象이 交替함을 나타낸다.

例:

“거나...거나” 그들은(地主들은) 화’짐에 술을 먹거나 머리를
짜고 汗었거나, 기껏해야 땅 바닥을 치며 애교

지고 할 뿐이었다. (리 기영)

“다...다가” 여기도 땅 一二百坪쯤에는 조금도 구애되지 않는, 밭도 있다가, 工場도 있다가, 住宅도 있다가, 그냥 空地이기도 한…… (리 태준)

“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하루도 쉰 날이 없었다.

“든지...든지” 어른이 부르든지, 애가 부르든지, “게에” 하고 질도 채 못 질고. 달리어 나가는 실세였었다.

3. 對立的 並列 複合文

여곳에 使用된 接續 述語形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마는, -나, -나마, -는 대신, -는 反面에, -다,
- 다가, -더니, -도, -되, -며니와, -런마는, -不拘하고,
- 지 나는 (-지만), -언마는.

이 圖形들은 文 가운데 陳述된 現象 中에서 둘째번 現象이 첫번 現象에 對立되거나 또는 그와 差異가 있음을 나타낸다.

例:

“-전만” 그도 숨어서 은근히 사모하였고 택두산 압록강 갈 때 산맥이 동경하는 마음의 고향처럼 떠났건만 루쟁사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지는 것은 못 떠났다.
(석 인해)

“-나” 藕은 내리었으나, 拍手는 그치지 않는다. (리 태준)

“다” 철호와 영남이 압록강 건너려다

日本 수바대의 추격에 틀렸다. (조기찬)

“도” 그가 이 집에 온 지 거의 두 달이 되어, 와도, 한 번

도 선미와 한 자리에 앉아 말을 건너워 보지 못 하였다. (강경애)

“어니와” “鋼鐵 같은 組織의 힘” 도 힘이려니와, 그 裏面

에 大衆을 向하여는 풀솜 같은 부드러운 愛情의 힘이 아니고는 저렇게 人民들이 따르는 人民의 勝利가 없었을 것이라 느끼어 진다. (리태준)

“어련마는” 어제도, 오늘도

남조선 동포들은

붉은 피 어글히 흐리며

짜우련마는

몸 들 곳 조차 없어

헤매이련만

아아

뜨거워지는 가슴이여

진실로 행복찬

북조선이여! (양명운)

“는 한편에” 농민 대중이 이와 같이 열광을 하는 반면에,

저주 계급은 어느 구석에 가 까웠는지 존재도 알 수 없다. (리기영)

“—지만” 그래 그는 땅을 빼앗기는 것도 분하지만, 그보다도 성명조차 없던 늑대들이 이판에 날뛰는 꼴이 네 분통하다고 혼자 양탄을 한다. (리기영)

“—언마는” 지금 이 배에 오르면 사람들이 서북간도로 가는 이자, 건물은 아니언마는, 새삼스러운 가슴이 울렁지 아니할 수는 없었다 (조명희)

第 4 節 從 屬 複 合 文

從屬 複合文에 있어서는 副文이 單一文에서의 補語의 役割을 한다. 副文을 그 意味에 따라 原因의 副文, 目的의 副文, 樣態와 程度의 副文, 假定的 副文, 讓步의 副文으로 區分할 수 있다.

1. 原因의 副文

原因의 副文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등의 質問에 對答한다.

이곳에 使用되는 接續 述語形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즉, —아, —아서, —므로, —때, —니, —니까, —거늘, —는지라, —기에, —기로, —거문, —리께, —라, —어니, —거나.

例:

“—거니” 이따에 고이는 물 흐르는 물

長白에 그 원천 가지였거니

대대 손손 그 물 마시니 백성이

어찌 장군을 받들지 않으랴! (조 기천)

“-기에” 그렇나 市内는 相當한 距離가 있다기에, 너러는
機內에서 자기로 하였다. (리 태준)

“-니” 이제 이 원수들을 치여 부시려는 우리 義勇軍의 휘
물 따라 나서게 될 것이니, 얼마나 痛快하고도 우
람찬 일인가? (김사량)

“-때” 쓰고 싶은 대로 自由로 쓸 수 있는 環境기에, 祖
國內의 同胞에게 언제든지 알리고 싶은 일, 느끼는
일, 보고 들은 이야기 이렇나 것 저렇나 것, 모
두 적어 하나 하나 바람 속에 접어 넣는 것뿐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김 사량)

“-여서” 광주 학생 시선이 지난 지 얼마오라지 않은 때여서,
경향을 통하여 민족은 새롭나 의식에 눈을 떠가고
있었으며…… (석 인해)

“-어니” 군도 사탐이어니, 나의 말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 하리라. (최 학송)

2. 目的의 副文

目的의 副文은 무엇을 爲하여? 라는 質問에 對答한다.

이곳에 使用되는 接續述語形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떠, —떠고, —고자, —터.

例:

“—떠고” 밤’길로 東北으로 나간다

솔개골로 가떠고……

영남이를 살리려고…… (조 기천)

“—터” 우리의 노래는,

民主를 三千里에 별치려,

은 겨레를 싸움에 부트는 우뢰다. (조 기천)

“—고자” 적을 완전히 소탕하고자, 그들은 그날’밤 그 대로

행군하였다.

3. 樣態와 程度의 副文

樣態와 程度의 副文은 어떻게? 어떠한 方式으로? 얼마 만
큼? 어느 程度? 等の 質問에 對答한다.

이곳에 使用되는 接續 述語形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게, —고, —도록, —르뿐더러, —르쥬록, —아, —이.

例:

“—게” 낭바래기 三十里 가파른 언덕’길을 너도 모르게 단

숨에 기여 오와 오느냐. (민 병준)

“—고” 어느날은 高句麗의 王子들이, 네 위에 배 띄우고,

王城에 해지는 들 모랐으리라. (백 인준)

“—도록” 여씨 부자는, 발새도록, 생각해 보았다. (리 태준)

“-르쭈룩” 그는, 옥점이가 그러한 태도를 그에게 보이며 보
어르쭈룩,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알음 같이 차
 진다. (강 경애)

“-아(어, 여)” 조국이여!

우리는, 끝까지

당신을 지키여, 싸우리라. (김 광섭)

“-이” 감격에 떨리는 부르짖음아,

선후도 없이, 천바치여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리 찬)

4. 假定의 副文

假定의 副文은 어떠한 條件에서? 라는 質問에 對答한다.
 이곳에 使用되는 接續 述語形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거든, -르쩨면 (-르쩨덴), -라면, -면.

例:

“-거든” 너 이제 호탕 다시 千里

黃海 太平洋에 굴'결 치거든,

소리 높이 이렇게 世界에 傳하라. (백 인준)

“-르쩨면” 잔소리나 하고 시키기나 하고 위'나라 노릇 하기

나 좋아하는 會長 일쩨면, 저들이 저렇게 無關하게

매여 달리는, 尊敬이기보다 愛撫와 信賴의 對象일

리 없을 것이다. (리 태준)

“-라면” 금년에 겨우 실혼 네살 시각 면, 누구나 노말습니

다. (석인해)

“－던” 城壁 말 綠地帶를 잠깐 지나면, 端正한 服裝의 把守
兵들이 서 있는 크레무탄의 側門이 된다. (이 태준)

5 讓步의 副文

讓步의 副文은 어떠한 事實에도 不拘하고? 라는 質問에 對答한다.

이곳에 使用되는 接續 述語形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나를, －더라도, －던들, －리당정, －리찌라도,
- －리찌언정.

例:

“－나를” “그곳 산수가 아무리 좋나를, 금강산에 비기리 수
있겠소?”

“－더라도” 우리 義勇軍에 從軍만 할 수 있다면, 征途에서
쓰러지며 못도라가는 恨이 있더라도, 내 平生 榮譽
특나 所望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사랑)

“－리당정” 그들을 처지가 더르고 건너 온 길에 거리가 있을
망적 항상 조선과 함께 살아 왔었다. (석인해)

“－리찌라도” 비록 靑春의 즐거움과 希望을

모두다 땅'속에 깊이 파묻는

悲痛한 埋葬의 날일찌라도,

한번 玄海灘은 靑年들의 눈앞에

집은 帳帳을 내리니 일우 없었다. (김 화)

第 5 節 合成 複合文

合成 複合文이란, 둘 또는 그 以上の 單一文이 從屬 또는 並列의 方式에 依하여 連結되어 그 構成이 複雜하게 되어 있는 複合文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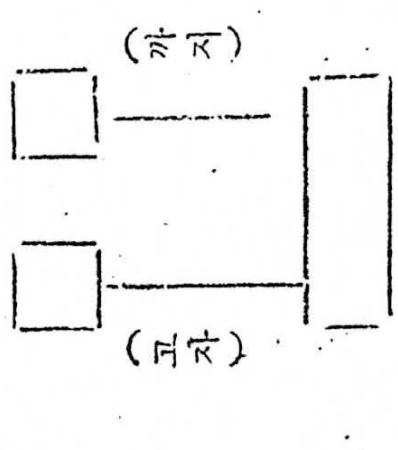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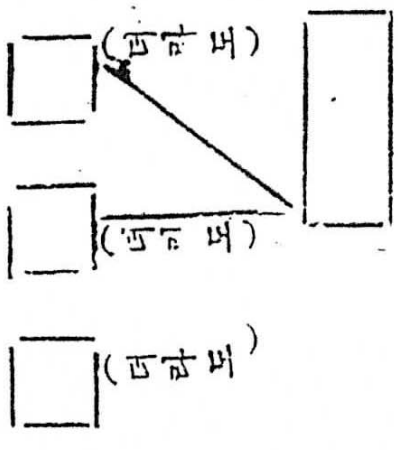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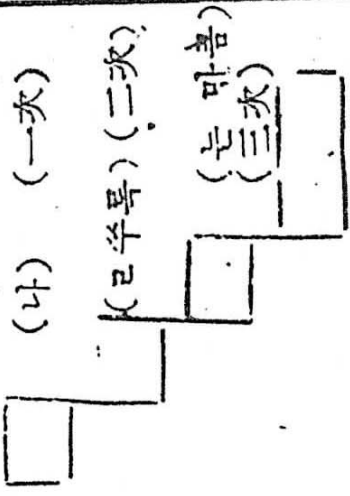
第 1 項 여러 개의 副文을 가진 從屬 複合文

從屬 複合文에 있어 한 개의 主文에 對하여 두 개 또는 그 以上の 副文이 從屬될 수 있다. 이 때 副文 全部가 直接 主文에 從屬하는 경우, 이를 同位從屬이라 하며, 그 副文들은 同位從屬의 副文이라 한다. 또한 이 同位從屬의 副文이 同一한 質問에 對答하여 主文의 同一한 語를 說明할 경우, 이 副文들을 同種의 副文이라 한다.

副文들이 서로 連鎖를 이루어, 每個의 繼續되어 나가는 副文이 서로 그 다음의 副文에 從屬되는 경우, 이를 繼起從屬이라 한다. 이 경우의 副文을 各各 一次의 副文, 二次의 副文, 三次의 副文이라 말한다. (382 페이지의 圖表 參照)

第 2 項 並列.從屬 複合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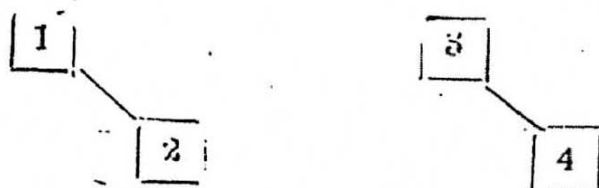
複合文 가운데에는 그 中 一部の 單一文들은 並列의 方式에 依하여 連結되고, 다른 單一文들은 從屬의 方式에 依하여 連結되

從 屬 複 合 文 的 種 類		
從 屬 位	從 屬	繼 起 從 屬
<p>同種이 아닌 副文을 가지나 경우</p>  <p>(고자) (까지)</p> <p>나는, 리 동무를 만나고 자,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p>	<p>同種의 副文을 가지나 경우</p>  <p>(더라도) (더라도)</p> <p>그는, 아무리 일기가 사납더라도, 아무리 몸이 피곤더라도, 아무리 거리 가 멀더라도, 한루도 학교 를 결석하지 않았다.</p>	<p>(나) (一次) (리주목) (二次) (는마춤) (三次)</p>  <p>적이 나타나, 그들의 발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들의 의지는 더욱 굳어가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편에 있을 것은 트머미 없다.</p>

여 있는 것이 있다.

汽車에서 보면 (1), 테닌그라드 周邊으로 激戰의 자취가 判然
했는데 (2); 市內에 들어 오니 (3), 23 個月이나 彈雨' 속에 包圍
되었던 痕跡이 별로 없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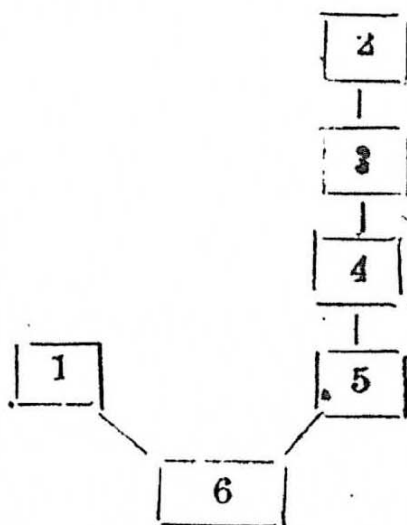
이複合文은 並列의 方式에 依하여 連結된 두 개의 文 (2, 4)
으로써 構成되어 있으며, 每個의 文은 또 다시 從屬의 方式에 依
하여 連結된 副文 (1, 3) 을 가지고 있다. 圖式으로써 表示하면,



複合文 가운데에는 또한 同位從屬文과 繼起從屬文을 同時에
가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집을 꾸리기 시작하여 보니 (1), ' 조선이 아직도 가을이라
면(2) 여기는 벌써 겨울옷기여서 (3) 벗은 옷들도 새질일 뿐더
러 (4) 冊들을 많이 사 (5). 집들이 아주 커다랗게 되었다. (6)

圖式으로써 表示하면,



第13章 直接談話와 間接談話

第1節 直接談話와 間接談話의 概念

다른 사람의 談話를 傳達함에는 두 가지의 方法이 있다.

1. 다른 사람의 談話를 한 마디 한 마디 그대로 傳達하는 方法.

例:

1) 형님은 나에게 “너 왜 혼자 오니?” 하고 물었다.

2) “물 좀 주세요”——손님이 말한다.

2. 다른 사람의 談話를 自己의 말로 고쳐서 傳達하는 方法.

例:

1) 형님은 나에게 왜 내가 혼자 오느냐고 물었다.

2) 손님이 물 좀 달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談話를 한 마디 한 마디 그대로 傳達하는 方法을 直接談話라 하며, 다른 사람의 談話를 自己의 말로 고쳐서 傳達하는 方法을 間接談話라고 한다.

第2節 直接談話와 傳達者의 말

直接談話에는 傳達者(筆者, 著者)의 말이 同稱되어, 누가 어떠한 條件 下에서 말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 談話를 正確히 傳

解하는 데 必要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소는 어디서 가지여 왔수?”——

대장의 묻는 말.

“삼밭골 목재소 어구에서”——

소대장, 순선의 대답, (조 기찬)

이곳에서 대장이 묻는 內容과 소대장이 대답하는 內容이 直接談話이며, 나머지 部分은 傳達者(筆者)의 말이다.

傳達者 自身の 말 또는 단지 머리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直接談話의 形式으로 表現할 수 있다.

인간은 일하는 곳에서만 진실(眞實)과 우미(優美)를 발견할 수 있는 모양이다. —— 하고 생각하였다. (장 경애)

直接談話는 여러 사람의 口頭의 談話를 그대로 如實히 傳達하므로 間接談話의 경우보다 내개는 훨씬 生氣 있고 表情的이다.

直接談話에는 呼稱語, 感動詞, 挿入語, 語順의 倒置, 不完全文, 文의 中斷 등이 있으나, 間接談話에는 이러한 特色이 많이 잃어 지는다.

直接談話에 따르는 傳達者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形式들이 있다.

1. 直接談話의 뒤에 하고, 말한다, 라, 말한다, 라고, 한다,

라 한다, 고 말한다, 고 한다 등의 述語를 붙이는 形式.

(말한다 대신에 쓴다, 웨치 나, 命令한다, 報告한다,

(생각한다 등으로 바꿀 수도 있다.)

例:

“애들아!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부른다.

형님, 외투이가, 어쩌면 춤을 그렇게 잘 춘다우?”

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고내었다. (리 기영)

2. 直接 談話의 뒤에 하고, 라고 등의 語形을 省略하고 마로 말한다, 한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등의 述語를 붙이는 形式.

例:

“여기가 이렇게 좋으면 더 가면 얼마나 좋리까?” 한준,

“인제 우할산을 넘으면 다시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리 태준)

“어떻게 한담?”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강 경애)

3. 直接 談話의 앞 또는 뒤에 (라고) 말한다 등의 述語를 一切 省略하고, 그 談話의 主人만을 알리 수 있도록 表現하는 形式.

“한 놈도 때우지 않았수”——

정치원 첩호의 보고

“놈들은 이번에도 무장 바치러 왔지!”

金隊長의 높은 말'소리

그리곤 호탕한 웃음'소리——

“하…하…하…”—— (조 기천)

[附記] 이 세 경우에 直接 談話의 앞에 ……가 (는) 말하기를 (쓰기를, 웨치기를, 命命하기를, 報告하기를, 생각하기를) 등을

插入할 수 있다.

例:

인식 활동에 있어서 실천의 역할을 쓰러뜨린 동지는 명료히 표현하여 말하기를 “... 이론은 만일 그 것이 혁명적 실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목적 없는 것으로 된다.” 고 하였다.

第 3 節 直接 談話로 부터 間接 談話로의 變換

直接 談話는 이를 間接 談話로 變換할 수 있다. 이 때

1. 談話의 內容 뒤에 고(라고) 말한다 등의 述語를 붙인다.

例:

허(許)는 그 아니공나 원수들에게 설원하는 길은 오직 원수를 받아할 줄 알며 건설에 매진하는 데 있다고 웨치였다.

(적 인해)

2. 直接 談話의 階稱은 이를 다음과 같은 代表的인 몇 개의 階稱 語形으로 바꿔 놓는다.

法	直 說 法	疑 問 法	命 令 法	勸 誘 法
述語				
體 言	-다 (이다) -라 (이라)	-냐 (이냐) -는가(인가)		
形容詞	-다	-냐 (으냐) -는가(으가)		
動 詞	-다	-느냐 -는가	-라 (으라)	-자

1) 體言의 例:

ㄱ. 直說法

“저것이 金日成 大學이네 (이요, 쉽다, 이야).” 하고 그는 웨치였다. (直接 談話)

저것이 金日成 大學이(다)라고 그는 웨치였다. (間接 談話)

ㄴ. 疑問法

“저것이 金日成 大學인기? (—이요? 쉽니까?—이야?)”

하고 그는 문었다. (直接 談話)

저것이 金日成 大學기냐 (인가)고 그는 문읍디다. (間接 談話)

2) 形容詞의 例:

ㄱ. 直說法

“金 동무는 참 용감하네 (—오, —비니다, —지.)”

하고 그는 말하였다. (直接 談話)

金 동무는 참 용감하다고 그는 말합디다. (間接 談話)

ㄴ. 疑問法

“金 동무는 참 용감한가? (—오? —비니까? —지?)” 하고 그는 문었다. (直接 談話)

金 동무는 참 용감하냐 (는가)고 그는 문읍디다. (間接 談話)

金 동무는 참 용감하냐 (는가)고 그는 문읍디다. (間接 談話)

3) 動詞의 例:

ㄱ. 直說法

“나는 지금 책을 읽지 (—으오, —읍니다, —어)”

하고 박씨는 대답하였다. (直接 談話)

박씨는 그 때 책을 읽는다고 대답하였다. (間接 談話)

나. 疑問法

“박씨는 책을 읽나? (—으오?, —입니다?, —어?)”

하고 그는 물었다. (直接 談話)

박씨는 책을 읽느냐(는가)고 그는 물었다. (間接 談話)

다. 命令法

“박씨도 책을 읽게! (어라! —하십시오! —어!)”

하고 그는 말하였다. (直接 談話)

박씨도 책을 읽으라고 그는 말하였다. (間接 談話)

르. 勸誘法

“박씨! 책을 읽자 (—세, —읍시다, —어)” 하고

그는 말하였다. (直接 談話)

박씨보고 책을 읽자고 그는 말하였다. (間接 談話)

[附記] 命令法에 있어서 —라고 말한다 대신에 —도록 말한다

의 形式으로 表現할 수 있다.

例:

그는 나에게 每日 한 時間씩 로어를 공부하라고 (하도록)

말하였다.

3. 直接 談話에 人稱代名詞가 있는 경우에는 이 代名詞를 傳達者의 見地로부터 適當한 語로 바꿔 놓는다.

例:

“나도 거기 가겠네” 하고 겸 동무가 말하였다. (直接 談話)

겸 동무는 자기도 거기 가겠다고 말한다. (間接 談話)

直接 談話 가운데에 있는 呼稱語, 感動詞, 插入語 等은 間接 談話로 完全히 變換되기는 어렵어, 비슷한 ‘다른 語로 近似值的으로 代置됨에 不過하다.

第14章 文의 띄여 쓰기와 句讀法

第1節 文의 띄여 쓰기

口頭의 談話에 있어서는 語調에 變化를 주거나 語詞 사이에 休息을 둠으로써 互相間의 意思가 圓滿히 疏通되나, 文書 上에 있어서는 思惟의 表現인 文字를 되도록 直覺적으로 把握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語詞 사이에 適當한 間隔을 두는 것이 必要하다. 文에서 語詞 사이에 間隔을 두는 것을 文의 띄여 쓰기라 하는바, 이 띄여 쓰기를 實施하지 않으면 文書의 理解 上 混亂이 일어날 虞慮가 적지 않다.

例를 들면,

“장미가 마를 타고” 는 다음의 두가지 뜻으로 읽을 수 있으며,

장미 가마를 타고

장미가 말을 타고

“어제 밤 나무를 찍었소.” 는 다음의 두가지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어제 밤 나무를 찍었소.

어제 밤 나무를 찍었소.

띄어 쓰기에는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1. 原則的으로 語를 品詞마다 띄어 쓴다.

내가, 집에, 여섯을,

늘다, 심었나, 가재.

[附記]

1) 助詞는 그 위 말에 붙여 쓸 수가 있다.

너는, 잘도, 우리마야, 집집마다.

2) 特別히 必要한 경우에는 語를 適當히 붙여 쓸 수가 있다.

原則

이 곳 저 곳

제 이십 일 항

저녁 잠

固有 名詞

許容

이 곳 저 곳

제 이십 일 항

저녁 잠

固有 名詞

2. 數를 우리글 또는 漢字로 적을 때에는 十進法에 依하여 띄어 쓴다.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3. 合成의 固有 名詞는 每個의 語를 띄어 쓴다.

리 순진, 강원도, 삼국 사기, 제일 인민 학교.

[附記] 將來, 文字 改革이 되어 우리 글을 풀어 쓰게 될 때에는 띄어 쓰기에 對하여 새로운 規定을 制定하여야 한다.

특히 述語로 되는 體言, 用言이 너무 길다. 령계 될 念慮가 있으므로, 가령 語幹과 토의 書法 等에는 慎重한 研究가 必要하다.

第 2 節 句 讀 法

(1) 句讀法의 意義

단자 語나 語의 結合만으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傳達하고자 하는 意思를 充分히 表現할 수는 없다. 自己의 意思를 完全히 效果的으로 傳達하기 爲하여 談話에 있어서는 語調, 休息 等의 手法을 適當히 利用하나, 文書 上에 있어서는 그 대신 句讀法으로써 이를 表現한다.

새로운 段落 (후어 쉼네 字의 空間을 비우고 쓰기 시작한다.)은 一聯의 새로운 思想이 始作됨을 나타낸다.

終止符 (.), 疑問符 (?) 및 感嘆符 (!) 는 비록 그 構造가 복잡하더라도 한 개의 全體를 이루는 獨立的인 思想이 終結됨을 나타낸다.

停留符 (;), 中止符 (:) 는 複雜한 思想의 한 成員이 되는 獨立的인 單純한 思想이 終結됨을 나타낸다.

休息符 ('), 橫線 (—) 은 言語 行爲에서 獨立性이 작은 各種의 單位가 終結됨을 나타낸다.

句讀法에 있어 몇 개의 符號는 言語 行爲의 個別的 斷片을 內容의 點에서도 特徵징는다.

終止符 (.), 疑問符 (?) 및 感嘆符 (!) 는 言語 行爲의 完結된 單位가 각각 敘述文 (또는 命令文, 勸誘文), 疑問文, 感嘆文으로 됨을 나타낸다.

點線 (……) 은 言語 行爲의 中斷됨을 나타낸다.

引用符 (“ ”) 는 引用符 안에 있는 語가 筆者의 말이 이님을 나타낸다.

括弧 (()), 橫線 (—), 休息符 (') 는 一定한 語의 앞뒤에 使用되어, 그 語群이 次 가운데 插入된 部分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때 括弧가 가장 뚜렷이 이를 나타내고, 橫線이 그 다음으로, 休息符가 가장 약하게 이를 나타낸다.

中止符 (:) 는 그 다음의 繼續되는 語群이 앞에 있는 語群의 說明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橫線 (—) 은 이 符號 兩便에 있는 言語 行爲의 單位가 서로 對立됨을 나타낸다. 또한 이 符號는 그 다음에 오는 語群, 이 符號 앞에 있는 語群의 結果라는 것을 나타낸다.

休息符 (') 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言語 行爲에서 插入된 單位를 도리어 내는 外에, 獨立性이 작은 單位를 따로 따로 區分하기도 하고, 이들을 한 개의 全體로 合詞시키기도 한다.

終止符 (一) 는 두 글에 걸치나 語의 中間에 挿入되어 그가 本來 한 개의 語를 이룸을 나타낸다.

(2) 句讀法의 規定

1. 終止符 (°)

終止符는 敘述文, 命令文, 勸誘文의 끝에, 그말이 平坦한 語調로써 發音될 때, 使用된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종이 종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 (한 설야)

“어서 들어가 와요.”

“인제는 그만 집에 갑시다.”

2. 疑問符 (?)

疑問符는 疑問文의 뒤에 使用된다.

“아 그럼 당신은 꽃분이?” (조 기천)

3. 感嘆符 (!)

1) 感嘆符는 感嘆文의 뒤에 使用된다.

“쓰련이다!” 누가 웨치였다. (리 태준)

“잘 가라 영웅들이여, 어느 때나 승리하라!” (조 기천)

“우리 다시 만나자 解放宴에 獨立宴에 다시 만나자!”

(조 기천)

2) 感嘆符는, 呼稱語, 間投文, 命名文 등이 感嘆的 語調로써 發音될 때, 그 뒤에 使用된다.

“어머니!” 그는 무의식간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강 경애)

“애그! 벌써 저물었어!” —— (조 기천)

빨리 마을에서 깜박이여 오는 저 물! 빛!

4. 點線 (……)

點線은 다음의 경우에 使用된다.

1) 完結되지 않은 陳述의 뒤에, 또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의 動搖나 어떠한 障礙로써 文이 中斷되었을 때, 또는 完結된 文의 뒤에 어떠한 餘韻을 남기기 위하여.

끝까지 보아 주시고 오유와 모순을 틀어 진지한 결책을 내리어 주시면……합니다. (강 경애)

“인제 오니? 나는 너 또……” 하십니다. (최 학송)

“너 끝내 요렇게……노마가 이뻐서 무뎌져 나온 정용'장을 내가……용!” (리 태준)

“당신의 그 눈물——약한 것을 일부러 자강하는 여성들의 그 혼란 눈물도 건어 치워야 되오…우리는 다 같이 굳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 명희)

2) 引用文에서 畵文을 引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기 爲하여.

“그의 도덕은……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사실상 각개 계급은……자기의 고유한 도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엥겔르는 말하였다.

3) 沈點을 나타내기 爲하여.

“복 잡이 안 와?”

“.....”

뭐라고 말을 하였으나, 암이 꼭 붙고 말았다. (강 정애)

5. 休息符 (;)

休息符는 다음의 경우에 使用된다.

1) 同種의 文章成分을 特別히 區分하기 爲하여

(와, 과, 하고 등의 로가 없을 경우)

자유의 기'발, 만세'소리, 환호'소리로

넘치는 감격, 타오르는 愛國의 白熱로

하이얀 바다 같이 뿔뿔이 흐를 제 (조 기천)

2) 呼稱語를 表現하기 爲하여.

김군, 이렇게 알짜 어디로 가나?

3) 挿入語를 表現하기 爲하여.

그의 思想은, 나의 보는 바에 依하면, 전보다 훨씬 發展한 것 같다.

4) 弱하게 發音되는 感動詞를 表現하기 爲하여.

“자, 그렇면 동무들!”

철호 앞에 서며 말한다.

“예, 녀머 말씀소!”

꽃분의 대답. (조 기천)

5) 複合文에서 對立되는 文 또는 從屬되는 文을 表現하기 爲하여.

第 1 章 文의 띄어 쓰기와 句讀法

우선 회준이가 그렇고, 원철이가 그렇고, 덕철이가 그렇다. (타 기성)

순조루이 온다면, 밤'중에 到着할 예정이었다.

6) 意味 上의 聯關이 緊密한 文의 사이에.

“자네가 가서 뭘 하겠나, 내가 가야지, 어서 필적 준비해 주” (강 경애)

6. 停留符 (；)

停留符는 從屬 複合文이 並列된 合成 複合文에서 從屬 複合 文의 사이에 (從屬 複合文 內部의 單一文 사이에서는 休息符가 使用되었을 경우) 使用된다.

적의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것이며; 적의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

7. 中止符 (：)

中止符는 다음의 경우에 使用된다.

1) 同種의 文章成分의 앞에 (總括語가 그 앞에 있을 경우).

故鄉에는 모든 것이 變했다: 山川도, 人物도.

2) 連續되는 두 개의 文에서 그 中 하나가 原因 또는 結果를 나타내는 경우.

그는 이튿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났다: 집안 사람 물에게 자기의 출발을 알리므로써 그의 결심에 조판치마도 동요를 가지어 온갖 두려어 한 까닭이었다.

3) 直接 談話 또는 引用文의 앞에 (談話 또는 引用文의 主人

나타내는 語가 있을 경우).

그의 묻는 말: “여기가 마음에 들지요?”

나의 대답: “잘못 마음에 들리니다.”

8. 橫線 (—)

橫線은 다음의 경우 使用된다.

1) 同種의 文章成分 뒤에 (總括語가 그 뒤에 있을 경우).

男性이나 女性이나 青年이나 老人이나—모두가 建國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2) 挿入語, 挿入文을 表示하기 爲하여.

그의 性格은—率直히 말한다면—‘척지 않은 缺陷을 개
지고 있었다.

3) 같은 뜻의 말을 되풀이 할 때.

그리하여 그날’밤 그들은 간담을 해치고 새롭고 출발—
동행의 길을 찾아 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 설야)

4) 文이 中斷되었을 경우 또는 完結된 文의 뒤에 어떠한 餘
韻을 남기기 爲하여.

地區를 전전하기도 몇번, 中部 城南 城西로— (안 동만)
이제 와서 겨우 사내담을 수 있으려고 이 隊伍를 찾아 萬
里’길 피르며 몸을 씻고자 떠나온 길이 아닌가— (김 시향)

5) 直接 談話의 앞뒤에 있는 著者 (筆者)의 말을 表示하게
爲하여

“꼭분동무, 謄寫機 멀리 있수?”—

철호의 뭇는 말.

“예, 녀려 말음소!”——

꽃분의 대답. (조 기천)

6) 時間, 場所, 數量을 나타내는 句語의 사이에 (이곳에서 線은 自——至 [부터——까지] 의 뜻을 가진다.)

平壤——新義州 間 列車

開店 午前 9時——午後 6時

그 마을에는 30—40戶의 農家가 있었다.

9. 括弧 ((), [])

括弧는 가변인 說明 또는 注意 事項으로 되는 同格語, 挿入 語 또는 挿入文의 앞뒤에 使用된다.

女人은 (그는 술게' 팔 꽃분이)

電信' 줄 끊고

사나이는 (그는 정치원 철호)

문 열고 손질한다. (조 기천)

학병 1, 2, (타아서여) 여기 있네.

원기를 채리게, 명철군. (리 동규)

10. 引用符 (“ ”, ‘ ’)

引用符는 다음의 경우 使用된다.

1) 直接 談話를 表示하기 爲하여.

“참 듣던 소문 같이 영웅 기분이랍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한 실야)

2) 固有名詞을 特別히 表示하기 爲하여.

나는 "로동신문"을 愛讀한다.

그 中에도 "조야"의 天然色 "들꽃"은 相當한 優秀作으로 記憶된다. (리 태준)

3) 普通의 意味로 使用되지 않은 語, 어떤 사람의 愛用語는 特殊한 語, 揶揄的 意味로 使用된 語, 또는 特히 讀者의 注意를 喚起시키리 必要가 있는 語를 表示하기 爲하여.

그리던 이 "무기 공급 부대" 드 덩분간 찾아 올 상 부르려
않고 해서 병사들은 도리어 좀 손이 굳지런리 걱정이였다

(한 설야)

"내 집", "내 庭園"을 籠속하는 習慣이 내이나 우리들은
때로는 共同 娛樂室과 共同 庭園이 不滿할 지 모르나……

(리 태준)

괴뢰 "정부"의 "국무총리"는 성명하기를……

[附記] 內引用符 (' ')는 引用文안에서 다시 引用될 것
을 나타낼 때 使用된다.

"전에는 우리들은 '技術이 모든 것을 決定한다'고 말하
다. …… 그렇나 우리들의 現存의 諸條件 下에서는, '人材가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것을 理解하여야 한다."

1949年 12月 30日 發行

朝鮮語 文法 (計 81圖)

編纂 朝鮮語文、研究會

發行 朝鮮語文 研究會

平壤市 元泉里 2番地

印刷所 文化出版社

平壤市 里門里 85番地

7-13077

30,000部